《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산좋고 물맑은 삼천리금수강산으로 불리워왔습니다. 금수강산이란 비단에 수를 놓은것처럼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백두산과 금강산, 묘향산, 총석정을 비롯하여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산, 명승지들이 많으며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후세에 길이 전해갈 천연기념물들도 많습니다.》

김 정 은

책을 내면서

산좋고 물이 맑아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이름높은 내 조국에는 산세가 장중하고 우아하며 력사가 깊은 명산들이 많다.

삼천리강토를 한품에 품어안고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올라 조종의 산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치는 백두산과 세계의 명산으로 소문이 자자한 금강산, 각계각층의 수많은 세상사람들이 흠모의 마음안고 끊임없이 달려오는 국제친선전람관이 웅장화려하게 자리잡고있는 묘향산, 칠보단장을 한 아름다운 녀인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칠보산…

선조들의 슬기롭고 뛰여난 재능과 지혜들이 담겨져있는 력사유적유물들과 특이한 기암괴석들, 계곡마다 흘러넘치는 맑은 물이 웅장화려한 폭포를 이룬 내 조국의 산은 맑고 깨끗한 공기로 하여 그 청신함이 더욱더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형태가 다양하고 그 구성이 조화로운데다가 아름다움이 절경을 이루고있는 우리 조국의 명산들은 사람들에게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깊은 지식과 감명을 안겨준다.

나라없던 지난날 량반, 부자들을 위한 유흥지로, 돈벌이수단으로 리용되여오던 내 조국의 명산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바로 그때로부터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인민의 유원지, 휴양지로 훌륭히 꾸려져 문화휴식터로 리용되고있다.

지금 세상사람들은 우리 조국의 명산들마다에서 기쁨과 환희에 넘친 웃음소리가 흥겹게 울려나오고있는데 대하여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산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산이지만 오늘날 탐승길이 훌륭히 꾸려져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고있는 내 조국의 명산으로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도 수많이 찾아오고있다.

조국이라는 말을 할아버지의 무릎우에서 옛말로만 전해듣던 해외동포 3세, 4세들이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제발로 밟아보며 가슴뭉클 젖어오는 흥분에 격정을 터친다.

명산들마다에서 그 모습들을 볼 때면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전통이 찬란히 빛을 뿌리고 산천경개 아름다운 내 조국에 대한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이 뿌듯해지군 한다.

귀로 듣는것은 눈으로 보는것만 못하고 눈으로 보는것은 체험하는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돌이 만가지 재주를 부리고 물이 천가지 재롱을 피우는 청신하고 맑고 아름다운 조국의 명산들마다에서 기이한 전설속에 옛사람들의 자취도 찾아보고 자연에 말을 걸며 추억을 쌓아보는 재미에 내 조국의 명산을 찾는

해외동포들이 날마다, 해마다 늘어만 가는 오늘날 그들에게 내 조국의 아름다운 명산들에 대하여 더 잘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명산에로의 기행길에 올랐다.

기행길에서 해외동포들을 만나 동승도 해보고 명산들의 아름다움에 한껏 취해보기도 하였으며 독특한 향취와 맛도 느껴보았고 선조들이 창조한 유적유물들의 기이함과 찬란함에 경탄도 해보았다.

항상 조국의 향취를 느끼고싶어하는 해외동포들을 위하여 본사편집부는 여러해동안의 명산들에 대한 기행글들을 편집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었다.

이 책이 조국의 산수를 다 담지 못한 아쉬움도 있고 독자들이 직접 명산들을 밟아보는 심정을 느끼게 하고싶은 우리들의 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지만 해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에게 조국의 명산에 대한 표상과 상식, 리해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바란다.

편 집 부

차 례

1. 조종의 산 백두산에 올라

민족의 성산 백두산 ······ 8
선렬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 17
오, 백두산아! ······ 23
유서깊은 소백수골의 절경 ······ 37

2. 천하절승 금강산

구룡연탐승의 길에서 ······ 52
만물상의 절경에 반하다 ······ 80
계곡미로 으뜸인 내금강탐승길 ······ 96
바다우의 절경－해금강 ······ 121
《금강산은 살아있는 보석이다》 ······ 150

3. 묘향산의 기묘함과 향취에 반하여

천하절승에 탄복하는 상원동등산길 ······ 158
묘향산의 독특한 향취와 맛 ······ 183
폭포와 담소로 련이어진 만폭동탐승길 ······ 191

4. 전설의 산 칠보산

내칠보탐승의 길에서 ······························ 205

외칠보를 찾아서 ··································· 220

바다우에 펼쳐진 천하절경 ··························· 234

칠보산송이버섯이야기 ······························ 245

5. 삼다의 산이라 불리우는 구월산

단군대에 올라 《천신》의 유적을 더듬다 ········· 265

유적도 많고 전설도 많아 ··························· 279

6. 정방산을 찾아서

록음우거진 숲속의 풍경 ···························· 291

사연도 많고 전설도 많아 ··························· 299

7. 장수산 열두굽이를 따라서

신기한 룡의 조화로 이루어진 열두굽이 ············ 309

40여굽이에 수놓아진 아름다운 화폭 ·············· 319

8. 계곡미의 공주—신평금강

복숭아꽃향기 넘치는 도화동 ········· 325
8대계곡경치 ········· 331
산정에 펼쳐진 물놀이장 ········· 336

Ⅰ. 조종의 산 백두산에 올라

《아, 백두산!

백두산이야말로 조선전체의 집약적인 표현이며 조선최고의 포괄적인 가치이며 조선독특의 절대적인 정화이다.

조선이 어디서 나왔느냐, 백두산에서가 아니냐,

조선에 무엇이 있느냐, 백두산이 아니냐,

백두산은 조선이라는 나무의 뿌리이며 조선이라는 형상의 거울이다.

조선을 위하려 하여도 백두산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조선을 알려고 하여도 백두산에 비추어보아야 한다.》

— 윤화수(19세기말—20세기초 문인)의
《백두산행기》중에서 —

예로부터 산세가 장중하고 우아하며 력사가 깊은 산을 가리켜 명산이라 불러왔다. 우리 나라에는 그러한 명산들이 참으로 많다.

그 모든 명산들의 정점에 있는것이 바로 백두산이다.

백두산!

사시장철 흰눈을 머리에 이고 하얀 메부리를 창공높이 아아히 솟구고있는 숭엄한 자태와 경관을 자랑하는 백두산.

해발 2 750m의 아득히 높은 산정에 거대한 호수를 이루고 조국땅우에 거연히 솟아 빛나는 조종의 산 백두산은 그

장엄함과 우아함, 신비경으로 하여 오래전부터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진 우리 민족의 제일명산이고 조종의 산이며 민족사의 발상지이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산은 우리 나라 조종의 산으로서 조선의 상징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민족사의 발상지이다.》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 도탄에 빠진 나라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성스러운 항일투쟁사의 자욱자욱으로 그 이름 찬연히 빛나는 백두산.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넋과 반만년민족사가 깃들어있는 민족국가의 발상지이며 우리 나라 모든 강과 산의 시원으로 되는 조종의 산으로서 우리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숭배하였다.

백두산에 여러차례 오르며 우리는 백두산을 왜 조종의 산이라고 하는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였고 여러 고문서들을 탐독하는 과정에 그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백두산이 우리 나라 조종의 산이라는것은 백두산이 나라의 뿌리로 되는 시조의 산이라는것이다.

오래전부터 전해져내려오는 백두산의 명칭들이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백두산은 불함산, 도태산, 태백산, 개마

대산, 개마산, 백산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전해져왔다.

이러한 이름들에는 하늘처럼 높고 신령스러운 산, 산마루에 사시장철 흰눈이 뒤덮여 옥을 세운 봉우리같다는 등 여러가지 뜻이 담겨져있다.

도태산과 같이 황제의 산 다시말하여 산들의 제왕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도 있다.

이렇게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던 백두산이라는 명칭이 7세기 중엽부터 고착되였는데 그것은 고려태조 왕건의 조상인 성골장군이 《백두산에서 왔다.》고 한 력사기록(《고려사》 권 1 고려세계)을 통해서 잘 알수 있다.

사시절 흰눈을 머리에 이고 푸르른 창공을 배경으로 숭엄하고 장중한 메부리를 하늘높이 거연히 치솟구고있는 백두산이라는 이름에는 매우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다.

그것은 아름답고 고상하며 성스러운 명산의 경관에 잘 어울리는 숭엄하다는 뜻과 우리 겨레의 고결하고 강직하며 부드럽고 결백한 슬기로운 민족성을 방불하게 반영한 조종의 산의 품격에 알맞는다는 뜻 그리고 이 산에 깃들어있는 절세의 위인들의 위대한 애국애족의 력사,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줄기마다에 심오하고 풍부하게 담고있는 혁명의 성산이라는 뜻이다.

백두산의 명칭들뿐만아니라 백두산의 지질, 지리학적자료들을 분석해보아도 백두산이 우리 나라의 모든 산과 산줄기의 근원, 근간(기본뿌리)을 이루고있어 나라의 뿌리로, 조종의 산으로 된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조선은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져있는 하나의 강토이다.

백두산은 백두대산줄기의 근본이고 시작이다.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백두대산줄기는 남해가의 구재봉(경상남도 하동군)까지 이어진다.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두류산을 지나 태백산을 거쳐 지리산줄기의 끝점인 남해가의 구재봉까지 산줄기는 하나로 련결되여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유명한 실학자이며 지리학자인 리중환은 자기의 저서 《택리지》에서 《백두산의 정기는 북으로 천리를 뻗은 곳에 두 강(목단강과 송화강)을 끼고 남북으로 향하여 녕고탑(녕안)을 이루었고 뒤로 뻗은 한줄기는 조선산맥의 으뜸이 되였다.》고 하면서 《평안도의 동쪽은 백두산의 대줄기가 남쪽으로 뻗어내려 하늘을 가를듯 한 큰 령이 되였다.》고 하였다.

이에 앞서 실학자인 리수광 역시 자기의 저서 《지봉류설》에서 《우리 나라의 모든 산은 모두 백두산에서 발원한다. 백두산줄기는 마천령산줄기에서 철령을 거쳐 남으로 뻗어 금강산과 오대산, 태백산이 되였고 지리산으로 끝난다.》고 하면서 《백두산줄기는 이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로 뻗어나아가서 일본의 모든 섬이 되였고 제주도의 한나산도 백두산줄기의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실학자의 대표적인물이였던 정약용도 지리책 《대동수경》에서 《백두산은 우리 나라 조종의 산》이라고 썼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여러가지 지도들을 통해서도 백두산이 우리 나라 조종의 산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된 지도를 비롯하여 많은 지도들 특히 우리 나라 산줄기와 그 이름을 체계화하여 만들어진 《산경표》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의 백두대산줄기를 굵은 선으로 표시하여 우리 나라 산맥의 근원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하였으며 조선8도의 모든 산들이 다 백두대산줄기에서 뻗어내려갔기때문에 백두산이 우리 나라 산악의 조종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만년전에 화산활동에 의해 생겨난 백두산은 장군봉, 향도봉 등 해발높이가 2 000㎙이상 되는 봉우리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웅장한 자태와 신비스러움으로 하여 예로부터 명산중의 명산으로 일컬어왔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옛적부터 백두산을 우리 나라의 명산중의 제일명산으로, 조선의 모든 산줄기가 뿌리를 둔 조종의 산이라고 여겼으며 슬기롭고 용감하고 깨끗한 민족의 넋이 백두산에서 태여났다고 하면서 백두산을 조선민족의 존엄으로, 조선의 기상으로 긍지높이 자랑하며 전해왔다.

백두산은 우리 나라의 조종의 산일뿐아니라 우리 민족국가의 발상지이고 민족의 성산이기도 하다.

왜 그런가.

백두산은 그 성스러움과 신비함, 거룩함으로 하여 조선민족의 마음의 기둥, 신념의 성산으로 되여왔다. 우리 민족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백두산을 우러르며 마음을 정화시키고 애국의 의지를 굳혀왔다.

수천년동안 이 땅우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일떠섰던 력대 나라들은 거의 모두가 백두산을 국가창건의 터전으로 삼아왔다.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하여 고구려—발해—고려로 이어진 우리 민족의 정통국가들 지어는 조선봉건왕조까지도 국가창건이 백두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생각하였으며 백두산의 정기에 힘입어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고조선을 계승한 고구려는 자기의 국가창건을 백두산과 련관시켰다.

고구려사람들은 고주몽을 단군의 아들로 함(《삼국유사》 왕력편)으로써 고구려가 고조선을 계승한 국가임을 널리 선전하는 한편 건국과정을 백두산과 직접 결부시켰다.

고려시기의 학자 리규보가 옛 도서 《동국리상국집》에서 고주몽의 부모들인 천제의 아들 해모수와 하백(물의 신)의 딸 류화가 인연을 맺은 곳이 《태백산(백두산) 남쪽 우발수》였다고 한것만 보아도 이를 잘 알수 있다.

고구려의 계승국인 발해도 역시 백두산을 자기 나라의 건국과 불가분리의 성산으로 간주하여왔다.

《삼국유사》에서는 발해의 건국에 대해서 《<삼국사>에서 말하기를… 태백산(백두산)에 의거하여 나라를 세웠는데 발해라고 하였다. 또한 <신라고기>에 이르기를 <고려(고구려)의 옛 장수 조영은 성은 대씨인데 잔병(남은 군사)들을 모아

태백산 남쪽에서 나라를 세워 국호를 발해라고 하였다.>》고 썼다.

고려의 시조왕 왕건도 국가의 창업을 백두산과 결부시켰다.

왕건의 5대조상 호경을 일명 성골장군이라고 하였는데 력사기록에 의하면 그는 《백두산에서 두루 다니다가 부소산(개성 송악산)에 이른》 인물로서 이후 그의 자손들이 개성에 뿌리내렸다고 한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백두산을 숭배하고 백두산을 국가의 건국발상지로 여기는 전통적관습에는 변함이 없었다.

1767년(영조 43년)에 좌의정을 지낸 한익모는 《강과 산들이 모두 이 산(백두산)에 원천을 두고있는것만큼 실은 백두산이 우리 나라 조정의 국가발상지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모든 산들이 다 백두산을 시원으로 줄기가 뻗어있기때문에 백두산주변들도 력대 조상들이 일떠서고 부흥한 발상지라고 할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력사적으로 이 땅에서 솟아난 력대 우리 민족국가들은 모두가 백두산을 국가창건의 터전으로 여겨왔다.

우리 선조들은 백두산에 민족의 정기가 깃들어있다고 하면서 조상대대로 백두산을 성스러운 산으로 숭배하며 제사지내는 풍습을 지켜왔다.

백두산을 이 땅의 시원이 열린 조종의 산으로 숭배해마지않은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성원들의 한결같은 사상감정이고 지향이였다.

이러한 사상감정이 반영되여 력대 국가들은 웅장한 백두산

을 우리 민족의 성산으로 여기고 해마다 제사지내는것을 정례화하였던것이다.

고려사람들은 백두산을 고구려와 결부시키면서 백두산 산신령을 고려국가의 수호신으로 간주하였다.

그러한 대표적실례가 12세기 30년대에 있었던 이른바 《묘청의 란》에 앞서 진행된 대화궁에서의 팔선당행사였다.

한때 고려에서 실권을 틀어쥐고 사대주의를 일삼는자들의 행위에 격분한 묘청 등 평양사람들은 종전대로 고려국왕을 천자, 황제로 칭하고 독자적인 년호를 제정하며 큰 나라에 대하여 사대를 단절할것을 왕에게 제기하였다.

그들은 개경은 땅기운이 쇠하니 땅기운이 왕성한 평양에 수도를 옮기자고 제기하였으며 실지로 왕궁을 림원역(오늘의 룡성구역)에 건설하기까지 하였다.

그때 림원궁성의 왕궁에 고려의 왕실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녕을 바라는 팔선당(여덟명의 신선들을 앉힌 사당)을 두었는데 거기서 주목되는것은 여덟 신선가운데서 으뜸이 바로 《호국백두악태백선인실덕문수리보살》(나라를 지키는 백두산 태백산선인문수보살)이였다.

이것은 고려사람들이 백두산(태백산)을 고려국가의 호국신(나라를 지키는 신과 선인)으로 숭배하였으며 겸하여 백두산 신선들이 조상인 고구려와 함께 보호해줄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기때문이였다.

조선봉건왕조의 제21대왕 영조는 《…백두산이 동국(조선)의 종산이라는것은 더욱더 명백하다. 한나산은 비록 나라안

의 명산이라고 하지만 어찌 백두산에 비길수가 있겠는가.》고 하면서 백두산 산신령에게 제사지내게 하였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백두산을 국가의 발상지, 성지, 성산으로 숭배하였다.

더우기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는 탁월한 위인의 출현을 백두산과 결부시켜 오매불망 숙원하였다.

그것은 《룡신비각》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백두산마루에서 천지호반으로 내려가는 공중삭도가 있는 향도역에서 천지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릉선에는 국보유적인 《룡신비각》이 세워져있다.

《룡신비각》에는 어제날 백두산에서 나라와 민족의 무궁번영을 지켜줄 천출위인이 출현하기를 목마르게 갈망하여온 우리 민족의 념원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룡신비각》과 관련하여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조종의 산 백두산에 대하여 조선사람들이 얼마나 우러러보았는가 하는것은 백두산 장군봉밑의 천지기슭바위의 비석에 새겨진 <대대백 대택수 룡신비각>이라는 글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나라의 생존이 심히 우려되였던 20세기초에 대종교나 천불교의 관계인물인 천화도인에 의하여 세워진 그 비석에도 밝혀져있는것처럼 백두산을 지키는 천지의 룡신이 이 나라 사람들을 무궁토록 안정하게 해줄것을 기원하고있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건국시조 단군성왕이 줄곧 백두산에 있으면서 자기의 후손들을 널리 보살피고 보호하고있다고

굳게 믿어왔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백두산을 국가의 발상지, 성지, 성산으로 깊이 인식하고 숭배하는 마음이 강했기때문에 대대로 백두산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는 신성하고 거룩한 산, 민족의 정기가 체현되여있는 산으로 여겨왔던것이다.

1920년대 우리 나라의 한 력사가는 천하의 명산인 백두산을 편답하고나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였다고 한다.

《단군도 백두산에서 나왔고 동명도 백두산에서 나왔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인걸이 백두산에서 난것은 큰 사변이였다.

그러나 이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앞으로 세계를 평정할 특출한 명인이 나올지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놓고보면 단군이나 동명이 백두산에서 난것은 <구우일모>에 불과하다.》

천하제일위인을 높이 모신 백두산의 오늘을 그때 벌써 예언한듯싶다.

망국의 그 세월에 일제는 백두산을 우러러 전설적위인의 출현을 목마르게 갈망하는 우리 인민의 신앙심을 말살해보려고 미쳐날뛰였다.

하지만 겨레의 갈망은 실현되여 백두산에서 절세의 위인을 맞이하는 행운을 지니게 되였다.

백두산과 관련한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수록 자석과도 같이 끌리는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백두산탐승길이였다.

선렬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삼지연항공역에서 차를 타고 20분쯤 달리느라면 베개봉호텔이 나지는데 우리는 여기에 려장을 풀고 점심식사를 한 다음 삼지연지구를 돌아보았다.

1979년 5월에 제막된 삼지연대기념비의 뒤에는 세개의 못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삼지연이 있다.

바닥 어디서인가 넘치지 않을 정도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는다는 삼지연.

태고연한 수림속에 흰눈을 이고 거연히 솟은 백두산을 배경으로 출렁이는 삼지연의 풍경이 매우 인상적이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고귀한 투쟁업적과 더불어 자랑높은 삼지연은 세상에 보기 드문 독특한 매력을 가진 백두산의 절경중의 하나이다.

삼지연대기념비에 정중히 모셔져있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앞에 서니 멀리로 백두산의 장엄한 자태가 우렷이 안겨왔다.

혈전의 포연스민 군복차림에 쌍안경을 잡으시고 조국산천을 바라보시는 김대장, 삼도왜적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20대 청년장군을 우러르는 우리의 마음은 마냥 뜨거워올랐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드린 우리일행은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국보적의의를 가지는 세계적인 대걸작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삼지연대기념비를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았다.

삼지연대기념비주변은 이곳을 참관하기 위해 온 대학생들과 군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답사생들로 붐비였는데 우리일행은 여러 군상들을 배경으로 그들과 사진도 함께 찍었다.

고산지대특유의 혼성림이 병풍처럼 빙 둘러싸인 삼지연못가의 풍치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곳에 처음 못이 생겼을 때에는 크고작은 못들이 많았다고 한다.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호수바닥에 틈새들이 생겨 거기로 물이 빠져나가 7～8개의 못들만이 남게 되여 한때는 이곳을 7성지 또는 8성지라고도 불렀다.

그후 삼형제처럼 못이 가지런히 놓여있다고 하여 삼지연이라고 부르게 되였다는것이다.

유서깊은 삼지연기슭에는 항일전의 나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모습을 생동하게 형상한 조각군상들이 세워져있다.

못가주변에는 봇나무, 이깔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등이 울창한 원시림을 펼치고있었는데 고산지대에서만 볼수 있는 들쭉나무, 산진달래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떨기나무도 무성하게 자라고있었다. 뿐만아니라 숲속에는 삼지연에서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사슴, 메닭을 비롯하여 희귀한 동물들이 살고 호수에는 붕어, 버들치, 산천어 등 물고기들이 서식하고있다고 한다.

볼수록, 들을수록 삼지연은 수림과 동물, 호수경치가 조화를 이룬 참으로 수려한 곳이였다.

삼지연의 경치에 대하여 생전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항일전

의 나날을 회고하시면서 못가의 진달래와 물속의 진달래가 한데 어울려져 얼마나 수려한 절경을 이루었던지 그곳에 그냥 주저앉아 초막을 짓고 살고싶은 심정이였다고, 조국을 해방하면 온 세상이 보란듯이 경치좋은 이 고장을 인민의 휴양지로 꾸려야겠다고 결심하였다고 교시하신적이 있다.

그날의 어버이수령님의 소원은 위대한 장군님에 의해서 빛나게 실현되였고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해 최상의 경지에서 꽃펴나고있다.

앞으로 몰라보게 전변될 삼지연의 래일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만 같았다.

삼지연대기념비와 삼지연못가를 돌아보고 백두관에 대한 참관을 마친 다음 우리일행은 사방 어느곳에서 보아도 산세가 신통히도 베개와 비슷한 베개봉에 자리잡은 숙영지의 사령부자리를 비롯한 사적물들에 대한 참관에 이어 무포숙영지에 도착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대홍단지구진출을 위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신 무포숙영지는 1939년 5월 21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가 숙영한 곳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일제가 군용도로로 닦아놓고 준공검사를 기다리는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100여리를 대낮에 보무당당히 행진하여 무포숙영지에 도착하였던것이다.

무포숙영지를 떠나 동남쪽으로 어느 정도 가느라면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이 있다.

무산지구전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이 바로 대홍단전투였다.

불이 번쩍나는 섬멸전으로 수백놈이나 되는 왜놈들을 황천객으로 만든 유명한 대홍단전투에 대해서는 아마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보천보전투가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것을 시위한 전투였다면 대홍단전투는 적들이 전멸당했다고 선전하던 조선인민혁명군이 건재해있을뿐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강대한 력량으로 자라나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계속 철추를 내리고있다는 것을 실지로 보여준 력사적인 전투였다고 무산지구전투승리의 의미를 규정해주시였다.

울울창창한 수림을 지나 소연지봉쪽으로 가면서 책에서 보았던 소연지봉의 유래에 대하여 되새겨보았다.

소연지봉은 봉우리의 생김새가 제비처럼 생겼다고 하여 연지봉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한벌 쫙 덮여있는 들쭉잎들이 8월 하순이면 붉은색으로 물들어 온 산이 녀인들의 입술에 바르는 연지처럼 된다고 하여 소연지봉이라 부른다는것이였다.

강사에게서 멀리까지 향기를 풍기는데다가 소화제로도 특효가 있다는 곱향나무에 대한 설명도 들으며 우리는 길을 재촉하여 대연지봉골짜기에 이르렀다.

소연지봉과 대연지봉사이 골짜기에는 백두산의 특이한 소나무도 있었다.

해발높이 800㎙아래에서 자라는것으로 알려져있는 소나무가 해발높이 900㎙ 되는 높은 곳에 뿌리를 박고 누운 소나무로 변형되여 모진 눈바람을 이겨내며 백두의 기상을 더해주고있었다.

그래서인지 소나무에서 풍기는 송진내도 류달리 짙었다.

백두산의 세찬 바람속에서 마치 나붓기는 기발처럼 변해버린 무수한 기발나무들을 바라보느라니 항일전의 총포성소리가 금시라도 들려오는듯싶었고 지동치듯 몰아치는 칼바람을 뚫고 용감무쌍히 나아가던 빨찌산들의 대오가 눈앞에 보이는듯싶었다.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고 구름이 밀려와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 속에서 얼마간 가느라니 잠시후에 구름이 걷히며 청청한 하늘이 활짝 열리고 한벌 쭉 깔린 만병초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다.

역시 신비스러운 백두산날씨였다.

노란 꽃들이 아름답게 피여난 만병초를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 강사가 《언젠가 백두산에 오르시였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백두산은 여름 한철에도 깊은 골짜기들마다에 눈과 얼음이 쌓여있어 그대로 겨울을 방불케 하지만 눈속에서 피여나는 이 만병초가 있기에 백두산의 경치를 더욱 아름답게 해준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교시하신것처럼 백두산에는 여러가지 꽃들이 피지만 백두산의 만병초를 보지 못한다면 백두산의 꽃향기를

백두산의 만병초

안다고 말할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만병초는 꽃이 아름다울뿐아니라 생활력도 매우 강하다.

눈속에서도 피는 꽃은 유일하게 만병초뿐이라고 한다.

항일전의 그날 투사들에게 조국해방의 밝은 희망을 안겨주며 눈속에서 반겨웃던 만병초이다.

항일혁명의 피어린 자욱자욱을 더듬어가느라니 그날의 총포성소리가 귀전에 울려오는것만 같고 애국에 불타던 투사들의 그 념원이 가슴저리게 안겨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어느새 어둠이 깃든다.

조국땅에 진출하여 일제를 소탕하며 해방의 래일을 품에

안아보던 항일선렬들의 숭엄한 모습이 눈앞에 어려와 정녕 잠들수 없는 백두의 밤이였다.

오, 백두산아!

다음날은 새벽부터 서둘렀다. 백두산해돋이를 보기 위해서였다.

여러번 백두산에 오르면서도 우리는 그때까지 장쾌한 해돋이를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

물론 날씨탓이기도 하겠지만 백두산이 아직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것만 같았다. 이번 길에는 어떻게 되겠는지…

삼지연읍에서 차를 타고 1시간정도 달리자 새벽어스름에 《백두산표식비》가 어렴풋이 나타났다.

백두산의 해돋이

천하제일명산 백두산의 하많은 경치중에 으뜸가는 장관은 다름아닌 백두산의 해돋이이다.

해돋이순간은 변화무쌍한 천지의 날씨때문에 아무때나 볼수 있는 전경이 아니다.

새벽안개를 밀어내며 천지를 붉게 물들이는 해돋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이기 시작한다.

날씨도 백두산의 해돋이를 보려고 새벽부터 서두른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는것만 같았다.

천변만화하는 백두산날씨가 갑자기 잠풍하고 푸근해지더니 고요한 새벽하늘에 찬란한 해발이 퍼지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실안개를 허리에 두른 백두령봉과 기암절벽들에는 감색, 붉은색으로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노을이 피여오르기 시작하고 삽시에 그 색갈이 점점 짙어져 하늘땅모두 불붙는듯 붉게 물든다.

장엄하게 솟은 백두산에 해살이 퍼지니 백두는 온통 붉었다. 산악을 휘감은 노을은 불길같고 기암괴석은 붉은 진주같았다.

천지호반의 일만경치가 진홍빛으로 반짝이고 붉은 밀림의 바다는 대교향곡을 울리고있는것 같았다.

소소리높은 기암절벽들과 천지의 푸른 물면, 아득한 천리수해를 온통 하나의 진홍빛으로 물들이는 일출장관—백두산의 해돋이!

예가 바로 민족의 기상과 넋이 깃든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임을 가슴뿌듯이 느끼는 순간이였다.

《야, 해돋이다!》

《불덩어리가 이글거리는게 온몸이 빨려들어가는것 같지요?!》

해돋이의 장관에 넋을 잃은 관광객들이 격정을 터뜨린다.

노을빛 구름너머로 쇠물처럼 이글거리며 두둥실 떠오르는 붉은 태양은 백두련봉들이 거연히 솟아있는 장군봉을 밝게 비치며 높고낮은 산봉우리를 다정히 어루만진다.

장군봉과 향도봉, 해발봉을 중심으로 펼쳐진 백두련봉들이 아침해살을 받으면 수정같이 맑은 천지의 물도 정적을 깨뜨

백 두 산 해 돋 이

리고 잔물결을 일으켜 설레이며 천지조화를 일으킨다.

어느해인가 백두산에 오르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장군봉을 딛고 서시여 백두산해돋이의 신비의 절경을 이윽토록 부감하시며 그 어느 이름난 화가나 촬영가, 뛰여난 문장가도 백두산의 해돋이모습만은 그대로 다 그려낼수 없을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칼바람을 맞으시며 해돋이를 부감하신 장소에도 서보았다.

이곳에서는 온몸에 스며드는 바람 한점도 평범하게 느껴지

지 않았다.

그날 백두산은 삽시에 세찬 눈보라, 돌풍을 일으키며 천지조화를 부렸다. 백두산칼바람은 초당 25㎧로 강하게 불어쳤다고 한다.

백두산정에 거연히 서시여 해돋이를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말 멋있다고, 백두산의 기상은 볼수록 장엄하다고, 백두산해돋이는 그 어디서나 볼수 없는 황홀하고 아름다운 절경이라고,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의 새날은 백두산에서부터 밝아온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날의 맵짠 백두산바람이 백두의 넋으로 우리의 심신을 순결하게 정화시키는 따스한 바람이 되여 흘러드는것만 같았다.

어딜 가나 아름다운 조국산천의 뿌리가 어디에 있고 이 나라 절승경개의 시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온넋으로 체험하고 싶었던 소원이 성취된 격정에 우리는 한껏 취해있었다.

정말이지 백두산해돋이는 볼수록 웅장하고 아름다워 장쾌하고 순결하며 열렬하고 황홀한 해돋이였다.

우리는 화면자료들을 통해 세계적으로 독특하다고 이름이 난 오스트랄리아 마슬린의 남태평양해돋이와 일본의 후지산해돋이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의 해돋이경치들에 대해 알고있다.

하지만 백두산의 해돋이는 너무도 특이했다.

백두산해돋이에는 순수한 자연경관이 아닌 넋이 있고 뜻이 있었으며 노래가 있었다.

조선의 상징 백두산

천변만화하는 백두산의 일기가 그 신비로움을 더해주고있었다.

해가 솟아올라 주위가 밝아지자 바위구절초며 들꽃이 쫙 깔린 바위츠렁을 지나 향도봉 동남쪽 경사면에 활달한 필체로 새겨져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명제가 눈앞에 안겨온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

김 정 일》

향도봉에 새겨진 이 글발은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에 우리가 올랐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설레이게 하였다.

사방을 굽어보니 완연한 사계절의 절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향도봉에서 서쪽으로 내려다보이는 천지기슭은 무더운 여름

철경치이고 북쪽골안은 흰눈이 덮이고 눈가루가 날리는 겨울경치였다.

그리고 봉우리의 양지바른 동쪽기슭은 울긋불긋한 꽃으로 단장된 봄경치가 완연하였고 발밑의 땅은 까만 들쭉나무가 설레이는 가을풍경이였다.

이것은 여름철에 백두산마루에서만 볼수 있는 사계절이 모인 곳의 기이한 풍경이라고 한다.

보면 볼수록 너무도 신통하여 백두산은 분명 사계절이 모여사는 신비로운 곳이라고 감탄하면서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다는 신선의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되새겨진다.

장군봉과 제일 가까운 곳에 장군봉을 우러러 악기를 타는듯 한 선녀의 모양을 닮은 선녀바위가 있다.

저 선녀바위에는 옛날 백두산에 비낀 구름이 하도 신기하여 쌍무지개를 타고 천지에 내려왔던 선녀가 다시 하늘로 오르려고 하니 장군별이 유난히도 밝은 빛을 뿌려주기에 그 별을 우러러 영원히 살고싶어 바위로 굳어졌다는 전설이 담겨져있다.

장군봉의 아래쪽천지로 향한 릉선우에는 구름속을 날으는 두루미와 같다는데로부터 비루봉이라고 이름지어진 봉우리도 보인다.

비루봉의 절묘한 바위들중에서 가장 경사가 급하고 깊은 뿌리를 드러내놓고있는 바위가 고래바위이다.

백두산의 일만경치를 보러 천지에 왔던 동해의 고래가 비루봉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고나서 황홀한 신비경에 그만 넋을

잃고 그대로 굳어졌다는 전설을 전하는 고래바위는 만물상의 바위들중에서 범바위 다음으로 높은 바위라고 한다.

장엄히 솟아오른 장군봉을 따라서며 치솟은 백두산의 봉우리들과 눈속에서도 화원을 가꾸어가는 아름다운 꽃들을 비롯하여 자연의 온갖 만물이 저저마다 앞을 다투며 제모습을 자랑하는 백두산의 경치는 그 어디 가서도 찾아볼수 없는 백두산특유의 제일경이였다.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다.

자욱한 안개속에서 보는 백두산의 풍치는 또 그것대로의 멋이 있었다.

안개낀 백두산마루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대체로 백두다리를 계선으로 하여 그아래는 구름으로 덮여있고 높은 산봉우리들은 바다우에 떠있는 섬과 같은 인상을 준다.

우리는 갑자기 백두의 수림바다가 나무 한대 볼수 없는 구름바다로 변하여 마치 세찬 격랑을 일으키는 대양우에 배를 타고 떠있는것 같기도 하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 같기도 한 장쾌한 감정에 휩싸였다.

얼마쯤 있다가 안개가 걷히자 저 멀리로는 가없이 펼쳐진 천리수해가 안겨오고 가까이로는 눈부시게 빛을 뿌리는 산발들과 골짜기, 한없이 정갈하고 깨끗한 천지의 풍경이 한눈에 안겨왔다.

백두산천지에서

백두산에서의 또 하나의 희한한 경관이 천지호반에 펼쳐져있었다.

장쾌한 백두의 해돋이를 형언할수 없는 감동속에 부감한 답사대원들과 관광객들과 함께 우리는 삭도를 타고 천지호반으로 내려가게 되였다.

특색있게 건설된 향도역은 천지로 내려가는 관광삭도의 출발역이다.

여기서 삭도를 타고 우리는 천지호반의 독특한 경치를 내려다보며 종착역인 천지역으로 향하였다.

천지로는 삭도뿐아니라 계단을 리용하여 오르내릴수도 있게 되여있다.

언젠가 이곳에 왔을 때 향도봉에서 천지로 내려가는 화강석돌계단을 걸어본적도 있다.

백두산천지는 백두화산에 분화구가 생긴 다음 거기에 물이 고여 생긴 호수이다.

예로부터 큰못이라는 뜻에서 《대택》, 《대지》라고 불렀고 그 존재가 성스럽게 생각된다고 하여 《천지》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천지는 조국의 자연호수들가운데서 물깊이와 물량에 있어서 다른 호수들에 대비할수 없으리만큼 깊고 많다고 한다.

옛 문헌들에는 조국산천이 한눈에 굽어보이는 12개의 중요

백 두 산 천 지

봉우리로 이루어진 백두련봉이 하나의 거대한 옥돌을 다듬어 세운듯이 기기묘묘한 모습을 지닌데다가 한가운데 탁 트인 천지호반의 장쾌한 경치가 조화되여 더욱 장관을 이룬다고 씌여있다.

특히 백두련봉과 천지의 장엄한 광경은 《웅대한 대자연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맑게 하고 의지를 통일시켜 마음과 눈이 함께 정화되게 한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바람이 세게 불고 복잡하게 변하는 천지부근에서는 매우 강한 돌개바람의 한 형태인 룡권이 자주 일어난다.

천지호반에서 룡권이 일어날 때에는 주먹같은 돌이 하늘높이 날아오르고 천지에 물기둥이 솟아오른다.

천지에서는 센 룡권이 해마다 여러번 일어나는데 그 세기와 규모도 다 다르다고 한다.

천지에서 룡권이 일어날 때에는 참으로 놀랍고도 신기한 현상들이 펼쳐진다.

큰 규모의 룡권이 일어날 때에는 그 중심부에서 굉장한 물

기둥이 수십, 수백m높이까지 솟아오르고 200～300m의 먼거리까지 이동하는데 그 주변의 물면에는 큰 와류가 생기고 물기둥주위에는 물안개가 뽀얗게 낀다. 참으로 온 천지의 물을 끌어올리는것 같은 룡권이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천하를 끌어당기는것만 같다.

천지를 이 세상의 모든 못들을 다스리는 룡이 산다는 의미에서 《룡담》, 《룡왕택》이라고 한다더니 룡권현상을 보면 그럴만도 했다.

천지의 물은 지하수에 포함되는 주요 이온들 즉 약수의 성분이 거의다 포함되여있어 건강과 장수에도 특효가 있다.

예로부터 천지물 한모금에 백년을 산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는것도 우연한 말은 아닌것 같다.

천지의 주변공기에는 음이온이 풍부하여 건강에 리롭고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는것이다.

백두산천지는 넓고 푸른 바다마냥 한없이 숭엄하고 풍만한 정서를 안겨주었다.

천지우에서 갈매기가 날아옜다.

바다의 풍치에만 어울린다고 생각한 갈매기가 천지에 나타났던것이다.

우리가 의아해하자 강사는 이 갈매기는 봄이면 천지로 날아와 살다가 천지물이 얼 때 바다로 나간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러면서 갈매기들이 간혹 강이나 호수에 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높은 백두산천지에서 사는것은 참으로 희귀한 현상이

라고 한다.

천지의 물맛 또한 쩡하면서도 달았다.

천지의 맑은 물을 한웅큼 떠서 마시느라니 항일선렬들의 애국의 넋이 온몸으로 흘러드는것만 같았고 천지의 맑은 물에 손을 담그고있느라니 몸도 마음도 깨끗이 정화되는것만 같아 경건하고 숭엄해지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여기에는 신기하게도 천지산천어가 많았다.

원래 천지에는 어류가 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것을 두만강의 산천어 100마리를 천지에 적응시켜 놓아준 결과 많은 산천어가 자라고있다고 한다.

강사의 말에 의하면 천지를 날아넘지 못한 곤충들이 천지에 많이 떨어지고 풀씨와 꽃가루들이 바람에 날려와 떨어지면서 천지산천어의 먹이원천으로 되고있다고 한다.

우리는 그곳에서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 대원들도 만날수 있었다.

그들은 천지의 한복판에서 비루봉의 만물상을 비롯한 백두련봉들을 바라보는 기회가 쉽게 차례지지 않는데 오늘 어디 한번 백두산이 아끼는 진짜경치를 보자고 하면서 우리를 고무단정에로 이끄는것이였다.

단정을 타고 초록색물면에 은구슬을 뿌리며 호수 한복판을 기운차게 달리느라니 아니나다를가 하늘과 땅, 호수의 3대미가 조화된 희한한 경치가 한눈에 안겨왔다.

장군봉과 향도봉, 해발봉을 비롯한 백두련봉의 자태도 웅건장중하였지만 그에 뒤질세라 천지호반을 둘러싼 아름다운

소분지들의 모양은 장쾌하다고밖에는 더 다른 말을 찾을 길이 없었다.

뭉게뭉게 피여오른 구름은 하늘이 아니라 호수에 떠있다고 하는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것이다.

그 구름을 타고 훨훨 날으는듯 단정을 달리며 기기묘묘한 바위와 절벽들로 신비경을 펼친 비루봉의 만물상을 관망하는 감정과 흥분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랴.

조선의 자랑, 세계의 명승으로 손꼽히지 않을수 없는 백두산천지였다.

단정을 타고 달릴 때까지만 하여도 세찬 격랑을 예고하며 움씰움씰하던 천지물이 갑자기 잔잔해지는것이 참으로 신비스러웠다.

놀라와하는 우리들에게 탐험대원들은 세계적인 명승으로서의 천지의 진짜모습을 보려면 역시 겨울에 와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은빛세계를 펼친 천지호반의 경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었다.

흰눈덮인 천지호반에 눈보라와 강풍이 세차게 몰아칠 때면 두텁게 얼어붙은 천지우에 쌓였던 눈이 휘말려오르기도 하고 커다란 눈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순간에 옮겨지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다가 눈보라가 멎고 해빛이 비쳐들면 백두련봉의 절벽턱들마다에는 독특한 모양새의 얼음들이 줄줄이 매달려 갖가지 아름다운 음향을 터뜨린다.

쏟아져내리는 물줄기가 천태만상의 얼음조각으로 변하는 모

양도 장관이지만 해빛이 비쳐들 때 갖가지 아름답고 신기한 색조들이 피여나고 흩어지는 황홀경은 오직 백두산천지에서만 볼수 있는 매력적인 경관이라고 한다.

실지로 천지호반의 날씨는 변화무쌍하였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잠풍하던 하늘이 세찬 바람을 일으키고 어느새 먹구름이 뒤덮이더니 안개가 끼여 앞이 보이지 않았다.

백두산은 삼복철에도 깊은 골짜기에 얼음이 나돌고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번씩 비가 내리고 때때로 우박까지 떨어진다.

갑자기 때아닌 흰눈이 내려앉기 시작하였다.

한쪽에서는 비에 젖은 꽃송이들이 해빛을 받아 활짝 피여나는데 한쪽에서는 겨울을 방불케 하는 하얀 눈송이들이 날리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선조들이 이 일대의 기후현상을 가리켜 풍운조화미 또는 천지조화라고 불러온것이 우연하지 않다.

천지호반에는 식물상도 특이하였는데 모진 풍파를 이겨내며 피는 꽃들이 류달랐다.

일반적으로 꽃들은 서리만 한번 내려도 모양이 이지러지고 시들어버리지만 백두산의 꽃들은 눈보라속에서도 끄떡없이 피여있다.

세찬 눈바람속에서도 억세게 피여나 향기를 풍기는 백두산꽃들.

그것들가운데서도 가장 인상적인것은 천지진달래라고도 하는 좀참꽃이였다.

그 꽃을 보느라니 조국진군의 그날 항일의 녀투사들이 가슴 가득 안아보며 눈물 흘리였다던 그 진달래꽃이 떠올랐다.

강사가 《진달래꽃입니다. 천지진달래! 볼수록 생각이 깊어지는 진달래입니다. 도이췰란드의 이름난 녀류작가인 루이저 린저가 언제인가 백두산에 올라 진달래꽃묶음을 정히 엮어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올리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도 이 진달래꽃을 꺾어 어버이수령님께 올렸댔다고,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서 이 꽃보다 더 뜻깊은 꽃다발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올렸댔습니다.》라고 하면서 산진달래를 쓰다듬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진달래의 가슴벅찬 그 향기.

백두산의 어디를 가나 향긋한 진달래꽃향기가 풍긴다.

천지를 다 돌아보고난 우리는 정녕 백두산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경치를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천하제일명산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유서깊은 소백수골의 절경

백두산참관을 마친 우리들의 다음 목적지는 백두산밀영 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소백수골이였다.

선오산밀영쪽으로 향한 길로 한참 걸었더니 유정한 숲의 바다가 기다리고있었다.

멀리에서 보아서는 어디가 어딘지 모를것 같더니 정작 수림을 가까이하니 전설속의 신비경이런듯 독특한 느낌을 자아내는 유별한 지세가 확연히 드러났다.

맑고 시원한 공기가 페부로 일시에 흘러들었다.

울창한 원시림에서만 맛볼수 있는 쾌감이였다.

백두산은 아름다운 풍치와 고산지대의 독특한 기후조건으로 하여 사람들의 건강과 활동에 유리한 측면이 적지 않다.

백두산일대는 기압과 기온이 낮으며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공기중의 습기가 적어진다.

백두산일대에는 태양복사량이 많고 특히 자외선량이 매우 풍부하다. …

이런 자료를 더듬으며 걷느라니 우리앞에 《사기문폭포》라는 표식비가 나타났다.

사기문폭포, 예서 백두산의 폭포절경이 시작되는것인가.

묘하게 생긴 수직벼랑우에서 백두령봉의 눈석임물이 은구슬을 뿌리며 세번 꺾어 계단을 따라 흘러내리는 풍경이 매혹적이였다.

사기문폭포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세번 꺾어내리는 3단폭포였던것이다.

천지에 시원을 둔 샘물이 골짜기를 따라 흐르다가 바위벽밑으로 떨어진것이여서 폭포수가 손이 얼어들 정도로 차거웠다.

사기문폭포는 멀리서 보면 세 장수가 빼여든 장검같아 보인다.

그로부터 얼마쯤 떨어진 곳에는 바람에 흩날리는 백전로장의 두툼한 수염발을 방불케 하는 백두폭포가 장쾌한 자태를 뽐내고있었다.

백두폭포밑에는 얼핏 보기에도 직경이 수m는 잘되여보이는 물웅뎅이가 있다.

10여m나 되는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초여름이 되도록 녹지 않고 얼어붙은 얼음덩이에 구멍을 내고는 그밑으로 도도히 흘러가는것이 가히 장관이였다.

그런가 하면 층암절벽과 주변릉선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앞을 다투어 피여난 만병초를 비롯한 갖가지 꽃들은 폭포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고있었다.

이곳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백두산일대의 공기속에는 건강에 좋은 음이온이 많은데 특히 폭포주변에 더 많다고 한다.

그러면서 백두폭포주변에서는 이렇게 사계절의 경치를 한눈에 볼수도 있지만 매 계절에는 또 나름대로 자기의 특징이 있다는것이였다.

봄철에는 보기 드문 고산지대의 꽃들이 높이 20m나 되는 층암절벽과 주변릉선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여름철에는 짙은 록음과 함께 새들의 울음소리가 폭포경치와 잘 어울려 신비경을 펼쳐놓는다고 한다.

단풍이 지는 가을철에는 은빛고드름이 줄줄이 달려 고산지대의 신비한 경치를 나타내며 겨울철에는 겨울대로 속이 빈 얼음폭포로 변하여 그 기둥속으로 물이 장쾌하게 쏟아져내리는 특이한 경치를 이룬다는것이였다.

어찌 시와 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을수 있으랴.

문득 한곳에서 다 볼수 있는 백두산의 사계절을 노래한 옛 시구절이 떠올랐다.

삼춘에 진달래보러 약산동대 가는 사람
장하에 더위가 싫어 명사십리 찾는 사람
구추에 단풍보러 금강산을 톺는 사람
엄동에 설경보려 삼방계곡 가는 사람
사람들이여
이렇게 쪼각경치 찾노라 수고말고
여기 백두산에 한번 올라
춘하추동 사계절을
한번에 안아보는것이 어떠하리오

백두폭포에서 얼마쯤 가느라니 폭포가 또 있었다. 주위에 뽀얀 안개를 일으켜 이 일대의 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해주며

두개의 폭포가 나란히 떨어져내리는 형제폭포였다.

형제폭포를 지나니 우리의 눈앞에 또 하나의 장관이 펼쳐졌다.

도로 량옆으로 산간지대에서만 볼수 있는 희귀한 사스레나무군락이 펼쳐진것이다.

가지를 제가끔 뻗으며 무성한 군락을 이룬 사스레나무림은 나무마다, 구간마다 형형색색, 기기묘묘하여 자기의 독특한 경치를 나타내고있었다.

사스레나무잎사귀들이 살랑살랑 설레이며 마치도 우리일행을 반겨 정답게 손을 저어주는것만 같았다.

숲의 조화란 미처 가늠할수가 없었다.

매력적인 숲의 경치가 안겨준 여운이 채 가셔지기도 전에 우리의 눈앞에 《천군바위》라고 새겨진 표식비가 나졌다.

우리일행은 서둘러 천군바위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전망대로 올랐다.

천개가 넘는 바위들이 수십m나 되는 가파로운 벼랑을 따라 늘어서있었는데 그 담대한 기개는 천명의 군사를 방불케하였다.

정말이지 봉우리 하나, 시내물 한줄기, 나무 한그루도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는것 같아 범상히 스쳐지날수가 없었다.

거대한 도끼로 내리찍은듯 한 절벽을 감돌기도 하고 약동하는 백두의 정기를 받아 우적우적 키돋움을 하는 울창한 수림속을 지나기도 하면서 백두산의 청신하고 상쾌한 정취에 몸도 마음도 한껏 정화되는것 같아 붕 떠있는 우리의 눈앞

에 뜻깊은 글발이 안겨왔다.

《백두산은 나의 고향입니다.

김 정 일》

드디여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지척에 둔 소백수마을입구에 들어선것이다. 우리일행은 잠시 쉬기로 하고 소백수마을의 어느 한 집에 들리게 되였다.

집주인은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자리잡은 소백수골경치를 떠나 백두산의 아름다움을 다 보았다고 말할수 없다고 하면서 유명한 소백수골8경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해주었다.

천하제일 정일봉과 기묘삼암을 이루는 해돋이바위와 룡마바위, 장검바위를 비롯하여 천험의 요새다운 지세를 이루는 산악미, 사시장철 쉼없이 흐르는 소백수의 계곡미, 이곳 특유의 풍치를 돋구는 수림미 등 소백수골의 경치에 대하여…

그러면서 수십년전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으시였던 어버이수령님께서 백두산밀영이 자리잡고있는 소백수골안의 풍치가 아주 좋다고, 항일무장투쟁시기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골안위치가 아주 좋은 곳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의 이야기에 우리는 한시바삐 소백수골에 가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어 서둘러 백두산밀영고향집을 향해 떠났다.

소백수물줄기를 따라 걷느라니 야광나무꽃, 물버들꽃, 민들레꽃 등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게 피여나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 꽃들은 마치 백두광명성을 안아올린 력사의 그날 조

선민족의 축복인양 눈부신 신비경을 펼쳤던 서리꽃처럼 안겨오고 이곳을 찾는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듯싶었다.

소백수기슭의 정일봉을 배경으로 아늑한 수림지대에 소박한 귀틀집이 자리잡고있다.

여기가 바로 조선이 낳은 또 한분의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이다.

《이 백두산밀영고향집자리는 나라가 해방된 후 40여년이 지나서야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항일혁명투사들이 백두산밀영을 찾으려고 백두산을 답사했으나 찾지 못했댔습니다.

주체75(1986)년에 백두산에 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곳을 지나신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소백수다리가 있는 한 고장의 지세가 하도 눈에 익어보여 답사단성원들을 소백수골로 파견하시면서 100여길쯤 되는 곳 벼랑바위봉우리가 있는 골안에 찾아들어가면 그리 넓지 않은 새초밭이 있을테니 찾아보라고, 그 골안은 산과 산이 붙어있기때문에 밖에서 보아서는 잘 알리지 않는다는것을 특별히 강조하시였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발굴해보니 이렇게 우등불자리, 귀틀집터, 구호나무 등이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후 2년간 발굴과 복원작업이 이루어져 이렇게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놓을수 있었습니다.》라고 강사가 이야기해주었다.

백두산밀영고향집앞에서는 정일봉이 한눈에 바라보인다.

소백수골8경에서 첫번째로 꼽히는 천하제일 정일봉, 백두의 정기가 력력히 흐르는 이 성스러운 봉우리에 영원불멸할 위인의 존함이 모셔진 때로부터 30여년세월이 흘렀다.

그때로부터 정일봉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더불어 조선의 제일봉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다.

정일봉은 독특한 자연환경으로 하여 그 풍치 또한 제일이였다.

봄과 여름이면 산진달래나무와 야광나무, 꽃정향나무 등의 꽃향기가 넘쳐나고 가을이면 매저지, 들쭉과 같은 산열매향기가 정일봉기슭은 물론 소백수골안에도 그윽하게 넘쳐난다고 한다.

정일봉의 수림속에 보금자리를 편 박새, 할미새 등 온갖 새들의 청고운 지저귐소리가 정답게 들려오고 구름국화, 담자리꽃 등이 앞을 다투어 피여난 산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망막속에 깊이 새겨안을수 있었다.

이곳 강사의 말에 의하면 한여름의 소백수골은 마치 백두산밀영고향집에 드리는 세상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련상케 한다는것이였다.

이러한 명승지에 고귀한 넋까지 스며있으니 참으로 유서깊은 곳이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돌아보았다.

올적마다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고향집이였다.

천고의 밀림에 숭엄히 자리잡은 이 귀틀집에 어린 백두산

위인들의 만단사연이 가슴에 뜨겁게 새겨들었다.

백두산밀영고향집앞에는 백두산에서 나는 산나물견본밭이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밀영에 있던 소부대성원들이 많이 리용했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도 리용하군 하시였다던 산나물들.

예로부터 이 골안에 특별히 산나물들이 많이 자랐다고 한다.

수리취, 무수해, 곰취, 닥지싹, 우정금, 산배추…

백두산밀영가운데로는 사시장철 멈춤을 모르는 소백수가 흐르고있다.

싱그러우면서도 알싸한 참취, 세채, 곰취를 한웅큼 뜯어 소백수가에 담그면 녀사께서 담그셨다던 그날의 산나물김치의 향긋한 냄새가 물가에 어릴듯 가슴뭉클 젖어드는 청신한 느낌.

그것은 우리의 추억속에 영원한 향기로 아직까지 남아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체취가 어려있는 백두산의 향기여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고향에 피여나는 향기여서 우리 겨레가 그토록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조선의 향기, 백두산의 향기!

겨레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한 이 향기는 오늘 또 한분의 백두령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오늘도 래일도 삼천리강토에 끝없이 퍼져갈것이다.

참관을 마치고 다음 로정으로 향하는 우리의 눈앞에 붉은

기를 펄펄 휘날리며 백두산밀영고향집으로 향하는 답사자들의 대렬이 끝없이 흐른다.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밝아온 조선의 고향집을 소중히 안고 사는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안고 백두의 칼바람을 맞받아 용용히 굽이치는 답사자들의 대오가.

숙연한 감정에 휩싸여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떠나 사자봉밀영도 돌아보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날 우리는 이번 탐승의 마지막로정으로 유명한 리명수폭포를 찾았다.

리명수폭포는 백두산천지물이 지하수로 흘러나와 이루어진

리 명 수 폭 포

폭포로서 벼랑중턱에 뚫린 구멍에서 흘러나온 물이 벼랑의 경사면을 따라 쏟아져내리는데 참으로 장관이였다.

천지에서 녹은 물이 수십㎞ 땅속을 흘러 나타난것이다. 기본 물줄기는 5개이며 이 줄기들사이에 구슬처럼 흘러내리는 수십개의 작은 물줄기들이 있다. 폭포는 주변의 나무숲과 잘 어울려 사시장철 아름다운 경치를 펼쳐보인다.

리명수폭포의 경치에서 절정을 이루는것은 설경이다.

한겨울에도 얼지 않고 다섯줄기의 폭포물이 흘러내리며 수증기를 뿜어 폭포주변 나무들에 하얀 서리꽃을 피우는 리명수폭포의 신비경은 황홀하기 그지없다.

여름에 보는 리명수폭포도 장쾌한 폭포의 흐름에 가슴이 시원히 열리는것 같은게 그것대로 멋있었다.

폭포벽우에는 정각이 있고 폭포기슭에는 500년 묵은 채양버들이 흐느적거린다. 주변의 푸른 이깔나무숲도 한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진다.

리명수는 원래 지명이름이 아니라 소백산 동남기슭에서 시작하여 삼지연을 지나 삼포마을을 거쳐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큰 내천의 이름이였다.

이 고장이 리명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된데는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있다고 한다.

전설

《 리명수의 이름유래 》

…오늘의 리명수로동자구에 옛날에도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어느해 여름 원인모를 배앓이로 온 마을의 아이들이 자리에 눕게 되였으며 지어 목숨을 잃는 아이들도 생겨났다고 한다.

이러한 집들가운데 아이를 놓고 눈물만 삼키고있는 젊은 부부도 있었다. 하루해가 저물어갈무렵 안해가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의원을 찾아 떠났다.

날밝기 전에는 돌아오겠다던 안해가 이튿날까지도 나타나지 않자 남편이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어느 한 벼랑길을 지나다가 뜻밖에도 쓰러져있는 안해를 발견하게 되였다. 머리맡의 풀밭은 선지피로 물들여져있고 손에는 약봉지가 꼭 쥐여져있었다.

남편은 너무도 억이 막혀 안해를 부둥켜안고 목놓아 흐느끼고 아이는 어머니품을 더듬어 젖을 빨며 울었다. 이미 이 세상사람이 아닌 안해의 몸에서 젖이 나올리 없었다.

하여 남편은 미여지는듯 한 가슴을 부여안고 시내물이라도 먹이려고 내가에 다가갔는데 물속에 검스레한 산천어들이 욱실거리고있는것이 보였다. 그래서 시내물에 뛰여들어 산천어를 몇마리 잡아서 피를 내여 아이의 마른 입술에 한방울, 두방울 떨구어 먹이였는데 거의 한종기나 될만큼 피를 먹고난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혼곤히 잠들었다.

이날 안해는 세상을 떠났으나 아이는 이상하게도 언제 앓았던가

싶게 이튿날부터는 일어나 앉아 놀기까지 하였다. 위로하려고 왔던 이웃들이 뜻밖에 완쾌된 아이를 보고 어찌된 일인가고 물었다.

산천어피를 먹인것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난 마을사람들이 떨쳐나서 앞내가에서 산천어를 잡아 그 피를 내여 앓는 아이들에게 먹이였더니 며칠사이에 모두 병을 털고 일어나는것이 아닌가.

아이들의 목숨을 살려낸것이 산천어의 피였다는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감탄하였다.

하기야 백두산천지물을 마시며 자란 이 산천어가 어찌 명약이 되지 않을수 있겠는가.

이로부터 이곳의 산천어는 목숨을 살리는 물고기라는 뜻에서 그 이름을 《잉어 리》자와 《목숨 명》자, 《고기 어》자를 써서 《리명어》라고 불러왔다. 그후 리명어가 사는 내천을 《리명천》, 《리명수》로 불러왔는데 이 근방에 일떠선 마을이름도 리명수마을이라고 불러오게 되였다는것이다.

…………………………………………………………………………

어느덧 깊은 인상을 많이 남긴 백두산탐승일정이 모두 끝났다.

정말이지 백두산의 절경은 세상의 절승을 한데 모은것보다 더 아름다웠다.

벌써 몇번째 백두산을 답사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백두산지구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돌 하나도 무심히 보이지 않았다.

우리 나라의 유명한 시인 조기천이 해방후에 쓴 장편서사시 《백두산》에서 삼가 길옆의 돌을 차지 말라고, 혁명선렬

의 령을 그 나무가 고이 지키는지, 혁명선렬의 해골이 그 돌밑에서 잠들었는지 어이 알겠는가고 토로했듯이 우리는 백두산밀영과 간백산밀영, 청봉숙영지며 무포숙영지 등을 돌아보면서 이끼오른 진대나무조차 그저 스쳐지날수 없었다.

답사자들이 돌아갈 때 백두산천지의 물을 정히 떠가지고 가는것을 보고 우리도 백두산의 이름모를 꽃들을 포기채 떠가지고 왔다.

가고가도 계속 가고싶고 보고 또 봐도 계속 보고싶은 백두산!

그렇다. 우리 민족은 영원히 백두산을 안고 살아야 한다.

주체의 려명이 밝아온 백두산이야말로 민족의 밝은 앞날을 펼쳐준 해돋이가 시작된 곳, 민족의 행운을 안은 절세의 위인을 안아올린 곳이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수십성상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풍찬로숙하시며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을 새겨오신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곳이다.

오늘날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넋과 기상이 어린 성산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조종의 산, 백두산은 민족의 넋이고 기틀이며 미래이다.

민족의 성원이라면 누구나 백두산에 올라야 한다.

…… ……

오, 백두산 백두산아
네우에 한번 오르면

몸도 마음도 새로 태여나거니
나는 너의 딸! 백두의 딸!
… …
아, 내 한생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
삶의 순간마다
언제나 그 언제나 백두산에 오르리

재능있는 로동자시인이였던 주옥양이 23살에 남긴 수백편의 시들중의 하나라는 이 시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는 백두산에 오르고싶어하는 우리의 심중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2. 천하절승 금강산

조국땅에는 가는 곳마다 절승경개를 자랑하는 명산들이 많지만 그가운데서도 금강산은 예로부터 세상에 보기 드문 일만경치를 안고있는 천하제일명산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금강산이 갖고있는 10가지 미와 10가지 경치만 놓고봐도 그렇다.

기세차고 웅장하며 장엄한 산악미와 물과 돌, 바위들이 조화된 계곡미, 울창한 수림과 특산식물을 보게 되는 수림미, 온화하고 아늑한 호수미, 금강의 절경을 동해에 옮겨놓은 해양미, 금강산의 동서남북을 한눈에 담아보는 전망의 미, 감탄과 황홀, 신비와 놀라움의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감흥미,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건축조각미, 세상의 아름다운 색의 집결체인 색채미, 금강산의 명물인 안개와 구름이 봉우리와 계곡을 감도는 풍운조화미.

금강산에 있는 10가지 경치는 비로봉의 해돋이, 구성동의 단풍, 만폭동의 물소리, 백운대의 안개와 구름, 만물상의 조각미, 구룡폭포의 생김새(웅장하면서도 장쾌한 모습), 세존봉에서의 전망, 십이폭포의 높이, 총석정의 달맞이, 삼일포의 배놀이라는것이다.

세상에 보기 드문 이런 미와 경치를 안고있는 금강산은 오늘날 사회주의조국에서 인민의 행복넘치는 인민의 명산으로, 온 세상사람들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명승지로 빛나고있다.

구룡연탐승의 길에서

방랑시인으로 유명한 김삿갓이 《평생 금강산을 위해 시를 아껴왔지만 금강산에 이르고보니 감히 시를 지을수가 없다.》라는 소회를 남긴바와 같이 일만경치를 자랑하는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표현할수 없는것이다.

동해의 이름난 항구문화휴양도시 원산을 거쳐 금강산탐승의 길에 오른 우리는 저녁어스름이 깃들자 려관에서 하루밤을 보내며 탐승로정을 구체적으로 짰다.

금강산에는 외금강, 내금강, 해금강으로 된 등산로가 훌륭히 꾸려져있었다. 이 등산로를 밟으며 우리는 외금강의 구룡연과 만물상, 내금강, 해금강의 삼일포와 총석정을 탐승하기로 하였다.

이번 탐승에 우리는 금강산의 력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사업을 하고있는 학술원선생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하였다.

이튿날 아침 일찌기 우리는 먼저 수십리 떨어져있는 온정리의 구룡연구역에 대한 탐승길에 올랐다.

바다를 끼고 오붓이 들어앉은 고성읍에서 온정동으로 뻗은 길로 걸음을 다그치며 학술원선생님으로부터 구룡연구역에 대한 개괄강의를 들었다.

구룡연구역은 외금강에서 으뜸가는 아름다운 경치로 널리 알려진 곳인데 이 구역은 세존봉, 옥녀봉과 관음련봉사이의 긴 구룡연계곡에 이루어진 명승구역으로서 신계동, 옥류동,

구룡동으로 나눈다는것…

동행한 선생님의 이야기는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감상하며 걷고있는 우리에게 구룡연구역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주었다.

처음 보게 되는 금강산절경에 취해서였는지 아니면 선생님의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서였는지 수십리길을 단숨에 축낸 우리가 온정마을입구에 들어서니 한하계에서 흘러내리는 온정천을 끼고 아담한 농촌문화주택들이 나란히 줄지어 서있는데 그가운데로 알뜰한 석비례길이 길손을 부르듯 옥류동, 만물상, 삼일포로 정갈히 뻗어있다.

돌많은 골안을 휘우듬히 감돌아 내리는 온정천개울은 씻은듯 깨끗이 닦인 바위부리를 넘고 에돌며 무슨 이야기인지 끝없이 조잘대며 쉼없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시내가를 뒤덮은 청신한 솔밭이 한여름의 아름다운 정취를 안겨주며 향긋한 송진내를 풍기고있다.

온정천 좌우기슭에 아아하게 솟은 봉우리들은 금강산특유의 산모습과 경치를 자랑하며 길손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놓을줄 모른다.

우리는 저도 모르게 《야, 정말 멋있구나!》 하는 감탄을 터치며 금강산의 절경에 홀리여 눈둘 곳을 모르고 어리둥절해 서있었다.

《매바위와 닭알바위산입니다.》

학술원선생님이 앞에 바라보이는 바위와 산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가지각색 물형을 닮은 기묘한 바위들가운데서도 매바위산은 신통히도 날아가던 매가 방금 산꼭대기에 내려앉아 사방을 두리번두리번 살피는듯 하였고 건너편 닭알바위산은 큰 닭알과 같은 타원형에 가까운 바위가 산꼭대기에서 금시라도 떨어져 굴러내릴것만 같이 위태롭게 살짝 놓여있었다.

매바위는 나래를 펴고 건너편에 먹음직스럽게 놓여있는 큰 닭알을 덮치려는듯 노려보고있으나 그 무슨 죄로 하여 돌로 굳어졌는지 몇천몇만년세월의 흐름속에 여전한 그 모양 한본새로 지켜보고만 있다.

온정천개울가에 오붓이 자리잡은 온정마을을 벗어난 우리가 온정교를 건너서니 구룡연으로 가는 길과 만물상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타났다.

《자, 갑시다. 구룡연으로 갑시다!》

신 계 동 에 서

신계동은 구룡연계곡의 입구로부터 금강문까지의 명소들을 포괄한다.

구룡연으로 가는 길에서 특색있게 자리잡은 목란관을 지나 술기넘이고개를 넘어서 신계동입구에 들어서니 수려한 풍치를 자랑하는 창터솔밭이 나졌다.

신계천기슭에 펼쳐진 수림인 창터솔밭은 사시장철 푸름을 자랑하는 구룡연구역의 명승중의 하나이다.

옛날 이 고개너머에 량곡을 비롯한 물자를 보관하던 창고

가 있었다고 하여 《창터솔밭》이라는 이름이 생겨났고 창고에 물자를 실어나르느라 술기(수레)가 넘어다니던 곳이라고 하여 《술기넘이고개》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는것이다.

창터솔밭을 지나면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금강산 4대사찰중의 하나인 신계사터자리가 나타난다.

학술원선생님은 예로부터 사찰이 많다고 하여 8만 9암자로 전해오던 금강산사찰들중의 하나인 이 신계사는 지난 전쟁때 적들의 비행기폭격에 무너져버리고 불에 타서 심히 손상을 입은 신계사 3층탑만이 외로이 남아있게 되였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휑뎅그렁한 공지나 다름없던 신계사가 북과 남의 불교인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훌륭하게 복원되여 지금은 옛스러움을 자랑하고있다.

신계사터를 돌아보고 조금 더 올라 나지막한 고개에 올라서면 둥글둥글한 바위들이 널려있는 넓은 개울에 그 생김새가 배처럼 생긴 푸른 소가 하나 있다. 이것이 선담이고 그 고개를 배소고개라고 한다.

구룡연계곡에는 많은 담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선담은 우리가 이곳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보는 담이였다.

우리뒤에 따라오던 관광객들이 《야, 우리 저 배에 내려가볼가?》 하더니 한사람두사람 선담으로 내려간다.

《자, 나는 선장이 될터이니 동무는 어서 닻을 올리오.》

남포수산사업소에서 왔다는 건장한 청년이 제법 선장이 되여 같이 온 사람에게 《지시》를 준다.

그러나 그 사람은 《허허 이 사람, 나는 따리사공이야.》 하며 배뒤켠에 앉는다.

할수없이 건장한 청년이 옆에 서있던 처녀에게 《동무, 어서 닻을 올리오.》 하고는 배떠나는 시늉을 한다.

《동무들, 지금 동해에서는 낙지잡이가 한창인데 뭣들 하오. 어서 갑시다.》 하며 배노래를 부른다.

노래는 어느 틈에 합창으로 울려퍼지고 선담의 배는 출렁출렁 물결을 차며 낙지를 잡으러 떠나간다.

갈매기대신에 백학이 너울거리고 사방 자욱한 운해속에 배가 떴으니 여기도 진정 바다인듯싶었다.

래일의 혁신적성과를 위하여 아름다운 금강산에서 관광의 나날을 마음껏 즐기는 남포수산사업소 로동자들의 유쾌한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흥그럽게 하여주었다.

배소부근에 있는 세존봉중턱에 3개의 폭포가 드리워진것이 보인다. 가운데것은 얼핏 보아서 잘 나타나지 않아 척 보기에는 두개처럼 보이므로 부부폭포 또는 형제폭포라 부른다고 한다.

배소고개를 넘어서니 탐승자들을 위해서 아담하게 꾸려진 휴식터가 있고 신계다리 건너편에는 엄일대표식비가 있다.

엄일대표식비를 지나 한참 가느라면 옥류동골짜기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길게 꼿꼿이 뻗어오른 좁은 골짜기가 한눈에 안겨든다.

이 골짜기가 금강산에서 제일 깊고 긴 《가는골》로 불리우는 골짜기이다.

골안이 너무도 깊고 그윽하며 기발하고 험준한것으로 하여 주위의 경치에 매혹되였던 옛사람이 《천하에 이것이 있으니 지상락원이 틀림없고 조선에 이것이 있으니 내 자랑치 아니 할소냐.》라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 바로 이 골짜기라고 한다.

푸르싱싱한 참대숲이 소담하게 우거진 산길을 따라가면 회상다리를 지나게 되는데 좀더 올라가면 세존봉과 옥녀봉 그리고 관음련봉의 기암절벽이 사방으로 바투 다가서서 마치 독안에 든것 같은 개울가에 이르게 된다.

개울가 등성이에 놓여있는 집채같은 너럭바위에는 《회상대》라는 글발이 새겨져있었다.

회상대는 사방 절벽으로 막히고 머리우로는 하늘만이 쳐다보인다고 하여 그전에는 앙지대라고 하였다고 한다.

록음이 우거지고 산새들의 지저귐소리와 청아한 매미소리가 아름다움을 부각해준다.

선생님은 깊은 생각에 잠겨 회상대라는 글발을 바라보다가 《주체62(1973)년 8월 19일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회상하시면서 그이의 고결한 충정에 대하여 뜨겁게 교시하신 후부터 앙지대를 <회상대>로 고쳐부르게 되였답니다.》라고 하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만물상구역을 돌아보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어리신 장군님을 모시고 구룡연으로 오르신것은 1947년 9월 28일 오전이였다.

금강산의 여러 명승들가운데서도 으뜸가는 경치로 알려진 구룡연구역을 가까이할수록 어머님의 마음은 걷잡을수 없는 기쁨에 휩싸여있었다.

그렇게도 보고싶던 금강산을 강도 일제를 쳐부신 강산에서 우렁찬 새 조국건설의 노래소리를 들으시며 구경하게 되시였으니 왜 그렇지 않으시랴.

어머님의 마음은 더없이 즐거우시였고 발걸음은 날것만 같이 가벼우시였다.

한없는 격정속에 탐승의 길을 이어가시던 녀사께서 신계교(지금의 목란다리)부근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손목시계에 눈길을 보내신채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더니 수행원들에게 그만 내려가보아야겠다고, 어버이수령님께 드릴 점심식사준비시간이 다되여가는데 금강산구경에 시간이 가는줄을 몰랐다고 조용히 말씀하시며 아드님의 손목을 잡고 오시던 길로 되돌아서시였다.

굳이 만류하는 수행원들에게 오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또 현지지도를 떠나시게 되시는데 내가 내려가 려장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시며 총총히 돌아서시는 녀사이신들 왜 지척인 구룡연을 보고싶으신 마음이 없으시였겠는가.

아직은 그 깊은 뜻을 다 알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어리신 아드님께서 오히려 손을 끌면서 흔연히 돌아서실 때 녀사께서는 실로 대견함을 금하실수 없으시였다.

녀사께서는 그걸음으로 숙소에 돌아오시여 사랑하는 아드님과 의논해가시면서 수박에다 꿀을 재운 다음 찬 금로

주에 담그었다가 그것을 짜서 어버이수령님께 보내드리시면서 부관에게 경각성을 높이라고 신신당부하시고는 현지지도보장을 위한 준비를 말끔히 해놓으시였다.

천하절승 구룡연탐승도 흔연히 뒤로 미루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바라시고 사업보장을 위해 바치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불보다 뜨거운 충정에 수행원들은 물론 말 못하는 금강산의 수려한 련봉들마저 숙연히 머리숙이였고 수정같이 맑은 옥계수도 흐느끼며 소리쳐 흘렀다.

지척에 있는 구룡연을 뒤에 두고 돌아서신 녀사께서는 그처럼 보고싶으셨던 구룡연에 다시 오시지 못하시였다. …

《이 가슴뜨거운 회상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영 지울수 없는 뜻깊은 사적으로 남아있으니 이 너럭바위를 <회상대>라고 고쳐부른다고 그 누가 탓하겠습니까.

바위벽에 새겨넣은 글자는 세월의 눈비속에 지워질수 있어도 인민의 마음속에 뚜렷이 새겨진 이 전설같은 이야기는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없어지지도 지워지지도 않을것이며 후세에 길이 전하고 전해질것입니다.》

학술원선생님의 전설같은 이야기를 듣고있던 사람들의 눈가에 가랑가랑 이슬이 맺히고 노상 기쁨속에 웃음기 어려있던 익살군의 얼굴도 격정으로 붉어졌다.

우리모두는 숙연히 머리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겨 차마 발길을 떼지 못하였다.

맑고 신선한 공기가 페부에 스며들어 상쾌하기 그지없는데 주변에는 금강산유람을 왔다가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바위로 굳어진 여러 마리의 동물들이 있었다.

산삼과 록용이 녹아 흘러내린다는 삼록수에 이르러 한모금만 마셔도 10년씩 젊어지고 장생불로한다는 삼록수를 마셨다.

얼마나 시원하고 달고 쩡한지 산골물특유의 물맛이 감미롭게 느껴진다.

삼록수를 마시고 얼음같이 찬물을 얼굴에 끼얹고나니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달아올랐던 몸이 금시에 시원해지며 거뿐한게 또다시 새 힘이 용솟는것만 같았다.

다시 탐승길을 이어가며 이름만 들어도 아름다운 옥류동을 찾아 세존봉의 옹긋쫑긋한 봉말기를 바라보았다.

눈앞에 펼쳐지는 아아한 산발이며 기이한 암석들은 실로 황홀한 경치를 이루고있었다.

앞서가던 어느 방직공장에서 왔다는 처녀들이 모여서서 떠들기에 다가가보니 탐승길에 나타나는 기암괴석들을 보며 무엇인지 알아맞힐내기를 하고있었다.

《저 바위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살던 옥황상제가 금강산이 하도 좋다는 말에 정사를 태자에게 맡기고 금강산에 내려왔다가 돌로 굳어졌다는 옥황상제바위랍니다.》

《저 바위는 얼마나 못생겼는지 못난 사나이 얼굴바위라고 부른대요.》

《저건 우물안에서 저들이 사는 곳만 한데가 없다고 자부하던 개구리가 옥녀봉말기에 올라와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동료들이 기다리는 우물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것도 잊고 돌로

굳어졌다는 개구리바위지요.》

《저기에 살찐 토끼도 있어요. 처벌받은 토끼라든지… 달나라에서 절구를 찧기보다는 금강산에서 사는것이 더 좋다고 경치구경에 여념이 없다가 입을 벌린채로 돌로 굳어졌다나요. 꼭 토끼기르기를 잘하는 우리 앞집 경숙이네 우량종 종자토끼같애요. 호호호.》

그들이 가리키는 바위들을 보니 정말 신통하기 이를데없었다.

옛날 장수가 쌓아놓은 돌성처럼 보인다고 하여 성벽암이라고 불렀다는 바위절벽도 있다. 개울쪽으로 쭉 뻗은 성벽암을 보느라니 마치 이끼낀 옛 성벽을 보는듯 하였다.

금강산의 바위들은 특수한 구조에 신기한 변화, 천가지 기교에 만가지 예술품이라더니…

저기 보이는 바위만 보더라도 보는 사람의 년령과 직업과 취미와 학식과 준비정도에 따라 각이하게 보인다.

독서가들이 볼 때에는 책을 보는것 같고 녀성들이 볼 때에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는것 같고 용접공들이 볼 때에는 용접을 하는것 같고 화가들이 볼 때에는 그림을 그리는것 같다고 한다.

계속 올라가느라면 저 바위는 봉황새, 토끼, 홰불로 계속 변한다고 한다. 실로 저 바위는 금강산의 수많은 기암중에서도 가장 특이한것 같았다.

초라한 사립을 쓰고 지팽이를 끌며 이곳을 지났을 옛 시인 김삿갓의 시 한수가 떠오른다.

가파론 오솔길은 구름속으로 가거니
보이는 경치마다 나그네 걸음 멈춘다
수풀속에 하얀 학은 몇천년을 묵었는고
청청히 높은 솔은 만길이나 자랐는고야

입속으로 시구를 중얼거리며 허궁다리를 건너서니 길 좌우켠에는 신우대가 파랗게 서있고 내가에는 청초한 목련화 한송이가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웃고있다.

드디여 옥류동입구인 금강문에 이르렀다.

학술원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이곳은 원래 길이 막혀 《막힌담장》이라고 불리우던 곳인데 후에 홍수로 인하여 오늘처럼 문이 생기고 구룡연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옛 문헌에 씌여져있다는것이다.

금강문의 바위벽에는 《금강문》이라고 새긴 글자와 구룡연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옥룡관》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었다.

이 금강문이 있는 곳은 구룡연구역에서 절반쯤 되는 지점인데 이 문을 지나야 진짜 아름다운 금강산의 경치를 볼수 있다고 한다.

바위사이로 난 금강문을 지날 때 《마음이 나쁜 사람이 금강문을 지나면 바위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자, 누가 마음이 나쁜지 한번 봅시다.》라는 누군가의 익살기어린 말에 모두가 웃음지으며 신비경의 대문같은 금강문을 지났다.

금강산명소로 들어서는 입구들마다에는 대체로 금강문으로 불리우는 문들이 있는데 옥류동으로 들어가는 금강문이 첫번째로 지나게 되는 문이였다.

금강산에는 금강문, 비사문을 비롯한 자연돌문이 8개나 되며 그 문들을 지나야지만 금강산을 보았다고 말할수 있다고 한다.

학술원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정신이 팔려 재글재글 내리쪼이는 해빛이 따가운줄도 몰랐고 가파로운 길도 힘겨운줄 모르고 톺아올랐다.

옥 류 동 에 서

옥류동은 금강문에서 무용교까지의 명소들을 포괄한다.

금강문을 지나 금문교를 건너선 우리가 옥녀봉줄기의 소나무숲속에 있는 기관차모양의 바위를 보며 계단을 톺아올라 한굽이 돌아서니 백석담이 나타났고 거기서 또 한굽이 꺾어드니 마치 그림과도 같은 옥류동의 아름다운 절경이 펼쳐졌다.

눈앞에 펼쳐지는 절묘한 경치에 너무나도 감동되여 《야!》하는 외마디소리를 냈을뿐 누구도 그 형용을 단마디로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여 멍하니 바라다보고만 있었다.

뒤에는 하늘에 핀 흰 꽃송이같은 천화대가 솟아있고 그옆에는 맑고 깨끗한 옥녀봉이 솟아있다.

그런가 하면 아래의 깊은 골짜기에는 수천수만년 물에 씻

기여 숫돌처럼 닦이고 반들반들해진 너럭바위가 느릿하게 휘우듬히 뻗어내렸는데 그 매끄러운 반석우로 흰 구슬같은 물이 비단필을 편듯 부서지며 미끄러져 내려온다.

이 물을 받아안은 소가 금강산에서 제일 큰 옥류담이고 공중에 걸려있는것처럼 보이는 폭포가 옥류폭포다.

배같이 생긴 옥류담의 맑은 물에는 하늘이 비껴있었다.

황홀한 절경을 보느라니 누군가가 금강산의 맑은 물을 두고 펼치면 비단필이요, 떨어지면 폭포요, 부서지면 구슬이요, 고이면 담소요, 마시면 약수라고 한 말이 우리에게는 꼭 이 옥류동의 옥류폭포와 옥류담을 두고 한 말같이 느껴졌다.

금강산의 계곡가운데서도 첫째로 손꼽히는 명소인 옥류동은 봉우리와 절벽, 물과 돌, 꽃과 록음, 단풍과 서리, 눈이 철따라 어울려 어느 계절이나 절묘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나타내고있다고 한다.

옥류동은 네 면을 둘러싼 산봉우리들에 의하여 골안풍경이 더없이 황홀하고 아름답다.

무대바위와 아름다운 폭포와 담소 그리고 주변의 기묘한 산봉우리들과 깊은 계곡이 조화되여 실로 한개의 완성된 예술작품과 같았다.

하도 아름다워 옛날부터 시인들, 화가들이 이곳에 많이 찾아왔다고 한다.

여기에 옥류동의 절승을 노래한 옛 시인의 시를 하나 적어본다.

높이 솟은 세존봉은 동남으로 안아 막고
부르기 좋은 옥녀봉은 서북으로 반겨섰는데
앞에 솟은 천화대와 뒤에 있는 소옥녀야
뾰족하거든 곱지나 말거나
험준하거든 기특하지나 말았으면

한가운데 희맑게 내려드린 숫돌같은
함장바위는 옥소반같고
그우에 흐르는 물은 구슬을 굴리는듯
그앞에 담긴 물은 넓거든 깊지나 말거나
깊거든 맑지나 말았으면
어쩌면 이다지도 보는 사람의 가슴을
풀어헤쳐주는가

옛 시를 음미해보며 우리는 옥류동기슭으로 구슬구슬 부서지며 옥같이 맑게 흐르는 개울 한가운데에 번번하게 솟아있는 너럭바위우에 올랐다.

무대바위라고 하는 이 너럭바위에서 관광객들이 옥류동의 절경에 심취되여 춤추고 노래를 부르고있는데 한쪽에서는 화가들이 화판을 펴놓고 그림을 그리고있었다.

흥겨운 노래소리에 맞춰 어깨둥실 춤을 추는 그네들의 모습은 하늘나라에서 무지개를 타고 온 선남선녀들 같았다.

참으로 옥류동의 경치는 무엇이건 덜어내고 보태여도 안될

상싶은 완벽한 예술품과도 같아 사람들의 마음을 황홀케 하였다.

옥구슬이 흘러내려 모인듯이 아름답다고 하여 그 이름도 옥류담, 금강산에 놀러 내려왔던 하늘의 선녀가 떨군 두개의 구슬이 못으로 되여 물빛이 그리도 아름답다는 련주담.

파란 구슬을 련달아 꿰놓은듯 한 아름다운 두개의 담수가 아래우로 맞붙어 한쪽으로 기우뚱하게 가로질러있는 바위우로 마치 속살이 비치는 얇디얇은 비단천을 가볍게 드리운듯한 맑은 물이 폭포되여 흘러내리는 련주폭포.

크고작은 유명무명의 담소들은 그 깊이를 알수 없는 미지의 세계런듯 만사람을 유혹한다.

옆에 선 중년부인이 그냥 감탄사만 련발하기에 우리는 그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았다. 그 부인은 처음에는 웃고만 있더니 《저는 일본에서 왔답니다. 일본에서 나서자라면서 금강산이 세계의 절승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보니 뭐라고 더 말할수 없이 황홀하군요.》라고 하는것이였다.

좀전에도 동포 한분이 목련화잎을 따는것을 보고 약에 쓰려는가고 물어보았더니 《아닙니다. 카나다에 계시는 어머니가 아직 금강산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정기가 스민 이 잎을 편지속에 넣어 보내고싶어서 그럽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해외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는 절절한 심정속에는 세계의 절승 금강산을 가지고있는 긍지도 들어있을것이다.

련주담, 련주폭포를 보고난 우리는 옥류동구름다리를 건너 다시 충대돌을 세며 올라가 세존봉 높은 바위벼랑중턱에 걸려있는 비봉폭포와 무봉폭포도 돌아보았다.

갈수록 선경이요, 갈수록 가관이니 어느것을 먼저 보아야 할가?

세존봉의 높은 중턱에서 층층으로 된 바위벽을 타고 내리는 저 긴 폭포가 금강산의 이름난 4대폭포의 하나인 비봉폭포이다.

이 비봉폭포는 사방이 우묵하여 자주 일어나는 돌개바람에 충암절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방울들이 안개로 변하면서 뭉게뭉게 피여오르는것이 마치 봉황새가 창공을 향하여 은빛날개를 펴고 너울너울 춤을 추며 하늘로 나는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100여m가 넘는 굴곡이 심한 바위벽을 타고 쏟아져내리는 비봉폭포는 올려다보면 마치 하늘의 구름속에서 쏟아지는듯 싶다.

폭포밑에는 봉황새가 살았다는 봉황담이 있었다. 이곳에 왔던 한 관광객이 이 비봉폭포를 보고 《이것은 자연이 낳은 신비한 환상과도 같은 경이적인 미의 극치》라고 감탄하였다는 말이 우연한 소리가 아닌듯싶다.

비봉폭포와 직각을 이룬 봉황담 웃쪽에 보이는것이 무봉폭포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물이 기울어진 받침돌에 부딪쳐 은빛물방울을 일으키며 몇번 휘감아치는 모양이 마치 봉황새가 춤을 추는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비봉폭포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것이 특징이라면 무봉폭포는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는것이 특징이라고 말할수 있다.

비봉폭포와 무봉폭포사이에 솟은 바위기둥꼭대기에 봉황새 같은 기이한 바위 하나가 방금 날듯 주춤하고있어 사람들은 이 바위를 봉황바위라고 부르는데 두 폭포의 이름도 거기서 생겨난것이라고 한다.

실로 옥같은 맑은 물이 보석같은 바위와 어울려서 천지조화를 부리며 재롱을 피우는것도 볼만 하였지만 바위부리에 뿌리를 내린 갖가지 꽃나무들이 보석같은 바위를 울긋불긋 장식하며 흐르는 수정같은 맑은 물과 조화를 이루는 그 모양은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품이였다.

누구나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무봉폭포.

여기에 화판을 세우고 봉황새가 춤추는것 같은 무봉폭포를 그린 화가가 그 수를 헤아릴수 없이 많다고 한다.

비봉폭포옆 천연바위에는 《금강산은 천하절승 **김정일**》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글발이 새겨져있다.

장엄한 비봉폭포의 자연미에 어울리게 룡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호랑이가 바위우에 앉아 무엇을 노리는 기상이 력력한 말그대로 《룡반호거》의 기상과 기백이 그대로 비껴있어 힘있고 활달하고 막 살아서 하늘로 올라갈것 같은 명필중의 명필이다.

구 룡 동 에 서

구룡동은 무용교에서 비사문까지의 명소들을 포괄한다. 여기에는 주렴폭포, 구룡폭포, 구룡연, 은사류, 상팔담 등 이름있는 명소들이 있었다.

무용교를 지나 우리는 옥녀봉계곡에서 은실같이 곱게 흘러내리는 은사류를 구경하고 이 골안의 허궁다리를 건너 주렴폭포도 돌아보았다.

구슬을 꿰여 문발을 엮어 드리워놓은것 같이 쏟아져 흐른다고 하여 주렴폭포라고 부르는 이 폭포는 구룡연에서 내리는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기세차고 변화무쌍한데다가 맑은 물에 휘감겨 돌아가는 폭포밑 담소도 여간만 멋들어지지 않았다.

탐승길을 따라가느라니 아까 비봉폭포 휴식장에서 볼 때는 봉황새같았는데 여기 무용교아래에서 올려다보니 토끼같은것이 금방 절벽밑으로 떨어질것만 같다.

옛날 한 시인이 《아 위태롭다. 저 바위우의 바위 떨어질라 한지 몇천년인고.》라고 했다던데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용케도 붙어있다.

구룡폭포를 보겠다는 조급한 생각에 미처 보지 못했더라면 여간만 후회하지 않았으리라는 새삼스러운 생각을 하며 탐승길을 걷는데 장쾌한 물소리가 온 골안을 뒤흔들며 우리를 소리쳐부르는것만 같았다.

구룡각에 오르니 하늘에서 은하수가 그대로 내려쏟아지는 것만 같은 구룡폭포의 웅대하고 장쾌한 전모가 하나의 화폭을 펼친듯 한눈에 안겨들었다.

《구룡폭포다!》

《야! 물기둥이 서있는것 같은게 정말 멋있구나.》

장엄하고 웅장하다는 말밖에는 표현할길이 없는 구룡폭포를 바라보는 우리모두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런 감탄이 일시에 터져나왔다.

70여m나 되는 높이에서 뢰성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지르며 폭포수가 떨어지면 차디찬 물방울이 사방에 튀여올라 물안개가 뽀얗게 서리고 물방울은 눈안개로 피여오르는데 그 모양이 마치 룡이 폭포수에서 헤엄치며 놀고있다가 물을 차고

금강산의 구룡폭포

춤을 추며 하늘로 날아오르는듯 희한한 느낌을 안겨주었다.

폭포아래에는 떨어지는 물에 의하여 깊이 패인 큰 돌절구와도 같은 모양의 구룡연이 있다.

쉽없이 기세차게 떨어지는 도도한 폭포수는 큰 절구통같은 돌확으로 깊숙이 머리를 박고 물밑으로 들어갔다가는 다시 솟구쳐올라 소용돌이치다가 옥류동골짜기로 살같이 빠져나가는데 그야말로 장관이였다.

이 구룡연에는 옛날 유점사늪에서 53불과 싸운 9마리의 룡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전설

《 9룡과 53불의 싸움 》

… 지난 시기 유점사늪에서 9룡과 53불사이의 싸움을 놓고 불교도들은 53불이 이긴것으로 묘사하고 비불교도들은 9룡이 이긴것으로 묘사하였다.

본래 유점사가 서있던 곳은 큰못이였는데 거기에는 9마리의 룡이 살고있었다. 9룡은 53불이 들어오자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서로 재주를 부려 지는 편이 떠나기로 하였다.

먼저 룡이 조화를 부려 뢰성벽력을 일으키고 폭우가 쏟아지게 하였는데 부처는 여전히 느릅나무우에 앉아있었다. 그 다음 부처가 《불 화》자를 써서 못에 넣어 물이 끓게 하니 9룡이 견디다 못하여 서쪽 효운동 구룡소에 가서 살았다. 지금 효운동에 있는 9개의 돌확가운데서 4～5개는 물속에 잠겨 마치 크고작은 독을 물속에 놓은것 같고 일부 돌확들은 소우에 있는데 달팽이모양으로 비틀어져 패여있다.

전설에 의하면 이 9개의 돌확들은 9룡이 살던 자리라고도

하고 9룡이 달아날 때 돌을 뚫고나간 자리라고도 한다. 9룡소에서 머물러살던 9룡은 다시 53불의 배척을 받아 오늘의 구룡연에 옮겨갔다고 한다.

이와 다른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옛날에 53불이 금강산이 천하명승임을 알고 배를 타고 와서 금강산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 속심을 알아차린 한 사공이 해금강앞바다에서 그들이 탄 배를 뒤집어엎었다. 53불은 가지고 오던 종을 타고 위험에서 벗어났다. 바다가에 이른 53불은 바위에다 종을 걸어놓고 휴식하다가 재산령을 넘어 유점사자리에까지 이르렀다.

금강산을 지키던 9룡은 이 불청객들을 내쫓으려고 구룡연에서 나와 53불과 맞서 격렬한 싸움을 벌리였다. 53불은 9마리의 룡이 있는 못가의 커다란 느릅나무에 자리를 잡고 종을 울리면서 자리를 내라고 설교하였다. 그러자 룡들은 《이 산은 우리들이 자리잡고 살고있는 곳이니 그대들은 빨리 나가라.》고 하였다. 룡들의 고함소리는 천지를 진동시켰다.

이때 53불이 《불 화》자를 써서 못에 던져 물이 끓게 하니 룡들은 하늘로 솟구쳐올라 검은구름을 몰아온 다음 못가일대를 삽시에 물바다로 만들었다. 53불은 빠져죽을번 하다가 겨우 느릅나무가지에 올라가 목숨을 건졌다. 그들은 9룡더러 더는 다른 곳을 침범하지 않겠으니 제발 금강산변두리에서라도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9룡들은 53불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이곳 풍습과 법도를 존중히 여기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체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다이른 다음 그 늪에서 살도록 허락해주었다. 9룡은 자리를 효운동계곡의 구룡소로 잠시 옮겼다가 다시 령신골을 거쳐 세존봉 룡출구를 지나 구룡연으로 갔다고 한다. …

지금에야 룡이 어데 있으련만 폭포 떨어지는 소리와 소용돌이치는 시퍼런 물은 흡사 그속에 무엇이 있어서 조화를 부리는것 같기도 하다.

물이 불어서 많은 량이 떨어질 때면 정자에서도 서로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야 알아듣는다고 하니 알만 한 일이 아닌가.

구룡연가까이에로 다가서니 더욱 장관이였다.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는 귀청을 째는듯 하고 폭포수에 휘감겨도는 검푸른 물결은 살아서 꿈틀거리는 아홉룡인듯 금시라도 사람을 휘감아 삼킬 거세찬 힘으로 소용돌이치고있었다.

기슭으로 튀여오르는 물방울은 어지간히 떨어져있는 우리들의 머리우로 이슬비되여 쏟아져내린다.

참으로 장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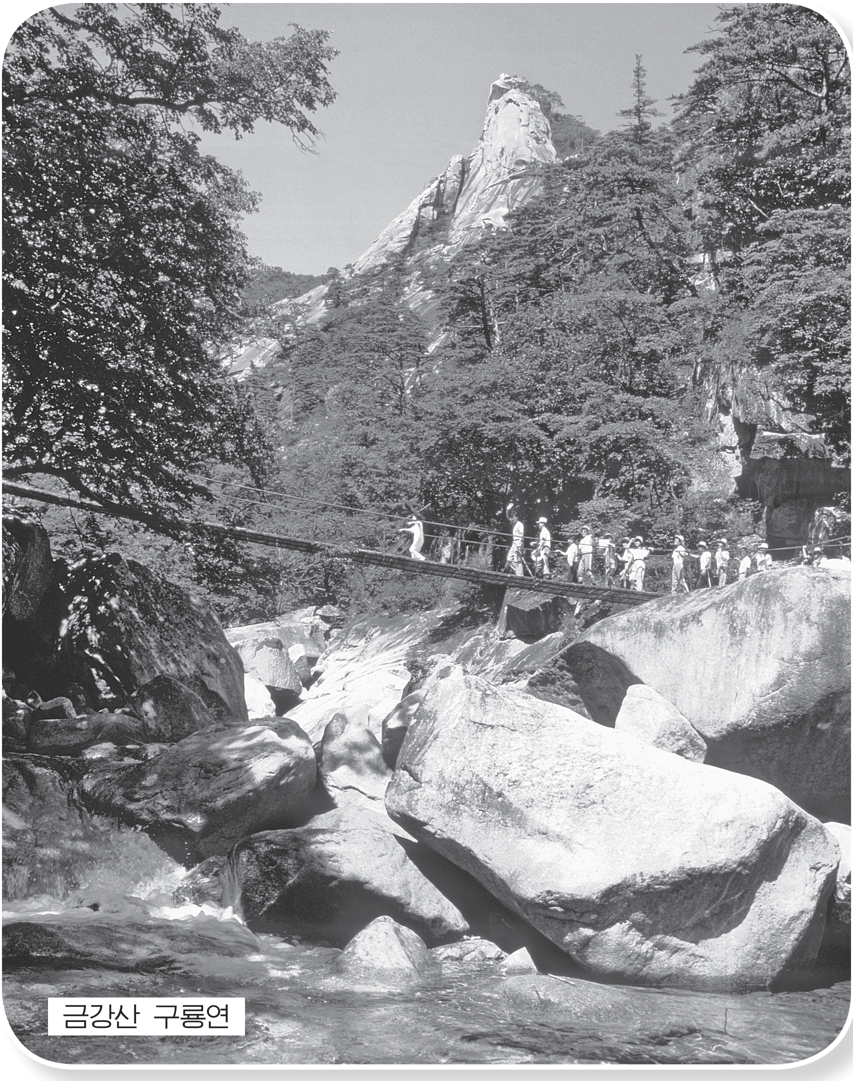
지구상에는 이름있는 폭포가 수없이 많다.

중국의 려산폭포와 일본의 계곤노폭포, 아프리카의 모지라뚜리아대폭포, 베네수엘라의 안헬폭포…

그러한 폭포들이 아무리 명폭으로 명성이 높다 해도 우리에게는 금강산의 구룡폭포가 모든 미를 완전무결하게 갖춘 천하제일의 폭포라고 생각되였다.

폭포뒤에 구정봉이 살짝 솟아 거대한 장사가 물을 퍼올리는것 같이 느껴지게 하는 후웅미를 갖추었는가 하면 세존봉이 묘하게 둘러막아 전위미를 갖추고있으며 100㎜이상의 높이를 가진 폭포벽이며 그밑에 패운 돌확 그리고 물이 흘러내

리는 바닥에 이르기까지 짜개미 하나, 모래 한알 없는 한덩어리의 화강암으로 되여 거석미와 순석미를 갖춘 웅장기려한 이런 폭포는 그 어디에도 없기때문이다.



금강산 구룡연

구룡폭포는 설악산의 대승폭포와 개성의 박연폭포와 함께 조선의 3대명폭의 하나로, 금강산 4대명폭포의 으뜸가는 폭포로 널리 알려져있다.

구룡폭포는 웅장하고 장엄하고 기세찬 그 모습으로 하여 금강산의 풍치를 돋구어주는 명승의 하나로 되고있다.

더우기 사계절에 따른 구룡폭포의 독특한 풍치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봄에 구룡폭포를 보면 마치 깊은 잠에서 깨여나는 룡의 꿈틀거림과 같이 안겨온다.

룡이 내쉬는 한번의 큰숨에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고드름이 깨쳐지며 물갈기가 사방에 휘뿌려지는듯 하고 뒤이어 흰비단을 옹근필로 내려드리운듯 폭포수가 떨어지는것이다.

여름철의 구룡폭포 또한 신비하고도 장쾌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놓는데 보다 장관은 장마철의 구룡폭포이다.

사방이 막힌 골안에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며 집채같은 폭포수가 쉬임없이 떨어져 절구통같이 둥그런 돌확을 뚫어놓았는데 폭포소리는 온 구룡연골안을 뒤흔드는듯 하다.

수백수천만년동안 떨어지는 폭포수가 파놓은 돌확에는 서슬푸른 물결이 소용돌이치고있는데 마치도 하늘로 오르려는 아홉마리의 룡이 한데 어울린듯싶고 룡궁으로 들어가는 입구와도 같이 보인다.

그리고 장대한 돌확에 들어갔다가 다시 솟아나와 기세좋게 사방으로 뿌려지며 하늘공중에 오르는데 그 모양은 마치 룡이 무지개를 타고 춤을 추며 하늘로 올라가는듯 하다.

가을철의 구룡폭포는 류다른 정서를 안겨준다.

온 금강산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단장한 가을의 구룡폭포는 불덩어리와 한데 어울려 놀고있는 룡의 모습같기도 하고 화려하게 수놓은 비단우에서 춤을 추는 룡의 자태인듯싶다.

금시라도 불길이 당길것처럼 빨갛게 물든 단풍들이 한폭의 비단필을 물들이려는것 같은 구룡폭포구역은 그야말로 하나의 명화를 방불케 한다.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독특한 미를 보여주는 겨울의 구룡폭포의 모습 또한 장관이다.

백설을 이고있는 금강산의 설경과 어울려 그 모습 더더욱 두드러져보이는 한겨울의 구룡폭포는 아홉마리의 룡이 타래를 치는듯싶고 하늘을 떠이고있는 하나의 거대한 흰 기둥같이 보여 그 신비감을 더해준다.

최근에 밝혀진데 의하면 구룡연의 수림대가 사람들의 건강에 매우 좋은 산림음이온호흡구이라는것이다.

이곳은 음이온수가 최고 58 000～62 000개/㎤에 달하는 곳으로서 한번의 호흡으로 젊은이는 더욱 건강해지고 로인은 젊음을 되찾는 명당자리라고 한다.

구룡각에서 경사진 골짜기를 따라 세존봉을 향해 한참 오르면 자연동굴인 비사문이 있다.

돌로 된 문의 한쪽은 사람이 빠져나갈수 없게 매우 좁다.

특히 돌문우에 우뚝 솟아있는 《비사바위》는 모를 죽인 평평한 장방형의 판들을 차근차근 쌓아놓은것처럼 묘하게 생겼을뿐아니라 멀리에서도 잘 보인다.

우리는 구정봉의 가파로운 령길을 톺아올라 전망이 좋은 구룡대로 올라갔다.

구룡대에서 상팔담을 눈아래로 굽어볼수 있는데 팔담의 기이하고도 맑은 물을 보고싶으면 여기에 올라야 한다.

사방의 전망이 탁 트인 구룡대에 오르니 오른편옆으로 옥녀봉의 수려한 기봉이 흰 살결을 보이며 반기고있다.

골짜기너머 남쪽에는 비사문, 동남쪽을 바라보면 세존봉과 천화대의 전면모가 마치 구름우에 뜬 꽃송이처럼 안겨온다.

앞에는 작은 옥녀봉과 그뒤로 병풍처럼 뻗은 관음련봉이 있고 동쪽 멀리로는 동해바다가 희끗희끗 눈에 띄운다.

남서쪽으로 뻗은 아홉 소골은 그윽한 정취를 자아낸다.

구룡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경치 역시 정말 기막히게 아름다웠다.

마치 푸른 구슬을 꿰여놓은것처럼 새파란 물을 담은 크고작은 동그란 담소 8개가 층층으로 련달아있는데 이것을 구룡폭포의 웃골짜기에 있다고 하여 《상팔담》이라고 한다.

급경사절벽으로는 수정같은 맑은 물이 바람결에 흩날리는 비단필같이 정가롭게 흐르는데 량기슭 바위짬에 성글게 늘어선 가지각색의 나무숲은 물과 바위에 조화맞게 변화를 주어 한폭의 그림과도 같이 아름다운 황홀경을 펼쳐보이였다.

상팔담의 짙은 백옥색담소들과 그것을 둘러싼 경치를 부감하노라면 맑고도 그윽한 그 절경에 마음마저 정화되는듯 상쾌해지는데 골짜기로 안개와 구름이 흘러갈 때면 마치 신선이 되여 하늘세계로 날아오르는듯 한 감흥을 자아낸다.

얼마나 매력있는 아름다움인가!

선녀가 수집고 부끄러워서 얼굴에 가린 면사포를 살며시 들고 잠간 인사만 하고는 다시 면사포를 쓰는것 같았다.

팔담구경도 한순간, 눈깜빡할 사이에 다시 구름에 가려졌으니 꿈나락에 잠시잠간 빠져든듯싶었다.

참으로 상팔담은 《금강산팔선녀》전설을 낳을만 한 명소였다.

구룡대바위우에 걸터앉아 잠간 다리쉼을 하면서 학술원선생님으로부터 팔선녀의 전설을 전해들었다.

이미 알고있는 이야기이지만 금강산에 와서 들으니 선녀들이 몸단장을 했다는 옥녀세두분(담소)을 돌아보면서도 직녀옷을 감추었을만 한 바위기슭을 찾아보게 되였고 상팔담경내

를 굽어보며 전설에서처럼 선량하고 지혜로운 사슴이 나타나지 않을가 하는 어리석은 생각까지 들었다.

오색찬연한 무지개가 구름발을 헤치고 하늘에 닿을 때면 구름가에 날개옷을 날리며 하늘에서 내리는 선녀가 있지 않을가 살피게 되는것이 이곳을 찾는 누구나의 심정이라고 하니 산천도 유정했고 전설 또한 신통했다.

하늘나라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였다는 전설도 진실처럼 느껴진다.

아니, 지금도 인적기없는 조용한 때면 선녀들이 여기 상팔담에 무지개 한쪽끝을 박고 내려와 목욕을 할지 누가 알랴. …

구룡대에서 구정봉말기를 향하여 얼마쯤 오르면 절벽진 큰 바위에 턱이 진 곳이 있는데 이곳이 구룡동전망대로 으뜸인 비룡대이다.

비룡대는 《괴이함(턱걸이바위)》이라고도 불렀는데 그것은 거기에 올라서면 너무도 아찔하여 도저히 서거나 앉을수 없고 오직 엎드려 턱우만 내놓고야 아래를 굽어볼수 있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비룡대에서는 8개의 소가 다 보일뿐아니라 구룡폭포, 구룡각이 한눈에 안겨온다.

그리고 비로봉에서 내리는 아홉 소골(구담곡)의 굽이진 골짜기와 세존봉의 천화대, 칼날같이 보이는 여러 줄기들, 옥류동, 옥녀봉과 관음련봉이 바라보이는데 《장하다, 경관이여!》라는 소리가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다.

우리는 신선의 나라에 갔다오는 기분으로 구룡대를 내리

였다.

보고싶은 명승은 끝간데 없었으나 어느덧 하루해가 저물어 가므로 우리는 다음날 탐승을 위하여 아쉬운 심정을 억제하며 오던 길을 되돌아 온정동으로 돌아왔다.

만물상의 절경에 반하다

금강산절경가운데서도 기암괴석들로서 기묘한 산악미를 나타내는 만물상과 바위벼랑을 타고 내리는 폭포와 깊은 골을 타고 모여들어 흘러내리는 실개천과 담소, 안개가 마냥 서리고 엉키며 흘러가는 특이한 계곡미를 자랑하는 만물상구역을 탐승하게 된다는 기쁨속에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찌기 려관을 나서 온정령으로 가는 차길을 따라 또 하루의 탐승일정에 들어섰다.

만물상구역은 금강산의 절경가운데서도 깎아지른듯 한 층암절벽과 천태만상의 기암괴석들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산악경관의 하나이다.

만물상구역에는 한하계, 만상계, 만물상 등 명승지역들이 있다.

만물상골안으로 들어갈수록 천연조각미를 드러낸 기묘한 바위들이 천만가지 자기의 생김새를 온 세상에 자랑하는듯 하였다.

이쪽을 보면 금시라도 따웅— 하고 울부짖을듯 두눈을 부릅뜬 호랑이, 저쪽을 보면 앞발을 번쩍 쳐든 우람찬 곰, 먹

이를 보고 기회를 엿보는 용맹스런 사자가 있는가 하면 그 몇걸음앞에는 한가로이 풀을 뜯는 사슴이 있다.

그런가 하면 위험을 알리려고 발딱 일어선 토끼와 제 먼저 꼬리를 세우며 달아나는 다람쥐의 귀여운 모습도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멀리 저쪽에는 전장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마중하러 달려나가는 어머니와 동생들, 피리부는 소년, 그네뛰는 처녀…

참으로 만물상골안은 고금동서의 온갖 조각상들을 다 모아놓은 거대한 자연박물관인듯싶다.

한하계와 만상계

우리는 온정천이 흘러내리는 한하계를 따라 걷고있다.

한하계는 금강산의 여러 계곡들가운데서도 골안의 폭이 가장 넓고 환히 트인 곳으로서 안개가 긴 골안을 꽉 메우고 철따라, 날씨따라 갖가지 조화를 부리며 아름답고 미묘한 풍치를 펼쳐보여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한하계는 온정리 서쪽 세지봉과 잇달린 문주봉, 수정봉줄기와 관음련봉줄기사이에 이루어진 골짜기인데 이름그대로 안개낀 경치로 특색을 이루었다.

좌우에 솟아있는 봉우리사이로 깊이 패인 골바닥으로는 맑은 온정천이 온 골안에 물소리를 가득 채우며 굽이굽이 흐르다가는 소를 이루고 소를 지나 폭포로 되고 에돌기도 하면서 내리는데 절기를 맞춰 피여난 아름다운 꽃과 풀숲과 나

무잎들이 거울같이 맑은 물을 살짝 가리운 특이한 경치야말로 이곳에서만 볼수 있는 계곡미의 정화였다.

하늘중천에 닿을듯 아아히 솟은 관음련봉의 칼날같고 창날같은 릉선이 포개이고 겹쌓이여 기세차게 흘러내리였는데 깎아세운듯 한 바위부리에 뿌리박은 무성한 나무숲이 기묘한 바위들을 아름답게 장식해주고있는 절벽사이로 무시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안개와 구름이 련봉을 휘감아돌 때의 그 웅장기려한 산악미는 계곡미에 짝지지 않을 절정을 이루고있다.

어느 하나도 놓치고싶지 않은 이 수려한 경승에 취해서 점점 가파로와지는 온정령길을 힘겨움도 모르고 톺아오르는데 관음봉중턱벼랑우에 기묘하게 생긴 바위 하나가 유표하게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앞발을 버디디고 앉아있는 자세, 목을 쭉 빼들고 아래골짜기를 내려다보는듯 한 그 형상은 신통히도 무엇인가 노리고있는 굶주린 곰을 련상시키였다.

《저 바위가 바로 곰바위입니다. 곰바위밑으로 구슬같이 부서지며 흐르는 개울가에 둥글납작한 돌멩이들이 가득히 깔려있는 소가 바로 문주담이구요.》

학술원선생님의 해설을 들으며 문주담을 자세히 내려다보았는데 물속에는 도토리로 잘못 알만 한 둥글납작한 자갈이 한벌 쭉 깔려있었다.

이 문주담과 관련한 두개의 옛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 그 하나는 옛날 금강산에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 잘하는 문주란 보살할미가 살았는데 오면서 가면서 헐벗은 사람

들에게 자기의 옷까지 다 벗어주고 나중에는 벌거숭이가 되여 물속에 들어가 앉았다가 세월과 더불어 굳어져 화석이 되고말았다는 이야기였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으나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으니 문득 오가는 사람들에게 눈이 간다.

명산을 찾아오르는 사람들의 대렬은 끊임없는데 사람마다 다 잘 입고 벙글벙글 웃음에 싸여있다.

만약 문주보살이 지금 여기 있었다면 그는 옷을 벗어주기는커녕 저 행복한 사람들의 옷을 얻어입었으리라.

아름다운 산과 더불어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대로 있지만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너무도 달라졌다.

옛사람들이 땀절은 베잠뱅이로 오르던 길을 오늘은 비단옷 단정히 입은 행복한 사람들이 오르고있다.

처처에 깃들어있는 옛이야기들은 영광스러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과 그들이 체험하는 긍지를 더더욱 높여준다.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옛날 비로봉꼭대기에 몇백년을 묵은 큰곰 한마리가 살았는데 어느해 봄 수정봉양지로 먹을것을 찾아 내려가다가 문주담 맑은 물에 비낀 구슬같은 돌들이 도토리처럼 보여 단숨에 삼키려고 뛰여내리다가 문주담에 이르지 못하고 중관음절벽우에 떨어져 돌로 굳어지고말았다는 이야기이다. …

그래서 지금도 탐욕스러운 곰을 닮은 곰바위가 문주담을 굽어보며 서있는것이였다.

옛이야기에 비추어보면 문주담의 그릇은 꽤 큼직도 한데

지금은 이름이 담이지 실상은 그리 크지 않았다.

금강산에는 아직 이름없는 봉우리들과 바위들, 폭포들, 담소들도 수없이 많다.

금강산은 세월과 더불어 그 모양을 바꾸면서 더 아름다와지고 더 절묘해지는것이 하나의 특색이라고 할수 있다.

역시 그 골안에도 폭포가 많았다.

그중 눈에 띄우는것은 관음폭포이다.

사철 물이 마르지 않아 더욱 유명하여졌다.

장마철이면 장관을 이룬다는 관음폭포를 보면서 가파로운 길을 치달아오르니 골안은 점점 좁아들었다가 세지봉에서 내려오는 작은 개울을 하나 건너서면서 좁아들었던 골짜기가 확 트이여 아름다운 경치를 시원히 펼쳐보이였다.

륙화암부근에서부터 그 웃쪽지역에 놓여있는것이 만상계이다.

만상계에는 세지봉을 비롯한 험준하고 수려한 봉우리들과 여기에 여러가지 모양의 바위들이 잇달려있었다.

북쪽 언덕진 곳에 사방을 전망하기 좋은 큰 바위 하나가 이채롭게 우뚝 솟아있었는데 거기에는 《륙화암》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었다.

16세기 명필이며 시인이였던 봉래 양사언이 달빛이 비치는 속에 바위가 마치 흰 눈꽃이 핀듯 하얗게 보인다고 하여 바위에 《륙화암》이라는 글을 새긴 뒤부터 이렇게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는 하나 사실은 이 바위건너편 상관음봉줄기의 바위벽이 여섯모로 된 흰 눈꽃과 같이 보인다고 하여 《륙화암》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도 있다.

세지봉의 릉선중턱에는 세 아이가 나란히 앉아있는듯 한 동자바위와 그우로 쌍초대를 세워놓은듯 한 초대바위가 있다.

그 주변에는 약대바위, 새끼말이 고개를 쳐들고 주춤거리는 모양을 한 망아지바위, 어미말이 뛰여가는 모양을 한 말바위가 있다.

여러가지 물형들을 보여주는 기암괴석들이 수없이 련달아 나타나는 만상계를 거쳐 드디여 만상정에 올랐다.

만상정에 오르니 방금 지나온 관음련봉과 한하계의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굽어보인다.

류달리 서늘한 만상정에서 눈아래에 펼쳐진 경치까지 보고나면 탐승의 피로는 간데 없고 새 힘이 솟아난다.

만물상의 삼선암

만물상에는 하늘을 찌를듯 한 3개의 바위봉우리가 나란히 솟아있는 삼선암과 귀면암, 7층으로 된 칠층암, 절부암, 안심대 등의 명소들이 있다.

상관음봉절벽아래에 만물상을 지키는 무사바위가 첫눈에 보였다. 투구를 쓴 장수형상이 영낙없이 만물상을 지키는 수문장이였다.

만물상을 지켜선 수문장같이 보이는 무사바위를 바라보면서 만상정골짜기로 들어서니 하늘을 찌를듯 날카롭게 높이 솟은 바위들이 가슴앞에 마주선다.

높이 30～40㎙나 되는 나란히 선 세개의 바위들이 구름이

흐를 때 움직이는듯 한 모양은 흡사 하늘에서 신선들이 내리는것 같아 이를 신비화하여 《삼선암》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주변의 활엽수와 침엽수들이 조화되여 삼선암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있었다.

맨앞의것은 총창같고 가운데것은 자루같이 뭉툭하고 맨뒤의것은 주먹같이 불룩한것이 기묘하다.

첫 바위는 예리한 날창을 세워놓은것 같은데 모서리가 일직선으로 내려간것이 자못 볼만 하다.

구름이 흐를 때면 이 바위들이 움직이는듯 하여 마치 하늘에서 신선들이 내리는것 같다.

삼선암 서북쪽에 둥그런 돌 하나를 이고 선 바위봉우리가 우뚝 솟았는데 그 모양이 얼마나 험상궂은지 어스름한 달빛속에 어둑컴컴한 하늘을 배경으로 서있는 모습을 대할 때면 제아무리 담이 큰 사람이라도 머리칼이 곤두설 정도로 무섬증을 일으킨다고 한다.

그래서 《귀면암》이라는 이름이 붙은 바위봉우리다. 어찌보면 그 모양이 마치 새쫓는 허수아비 비슷하기도 한데 얼마나 험상궂은지 생긴품이 다시 보게 된다.

귀면암이란 본래 귀신의 얼굴같다는 말인데 하도 기묘하고 신통하고 너무도 공교롭고 기막히다는 뜻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저게 바로 귀면암이로구만요. 날창앞에 넋을 잃고 서있는 허수아비같지요?》

《아니, 생긴 모양이 꼭 도깨비같애요.》

《이거 이러다가 꿈에 나타나지 않을가요?》

《제발 꿈에는 보이지 말았으면…》

그림이나 사진에서 많이 보아온 귀면암이기는 했으나 이렇게 관광객들이 저저마다 떠들어대는 이야기를 듣고보니 참말로 신기하고 묘하게 생긴 바위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술원선생님은 우리에게 네 신선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전설

《 삼선암과 독선암 》

… 먼 옛날 산수를 즐기는 네 신선이 경치좋은 곳을 찾아 인간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던 끝에 아름다운 조선을 찾아와서 명승지들을 다 구경하고 마지막으로 만물상어구에 왔을 때였다. 때는 아침이였으나 안개구름이 짙게 어려 지척을 분간할수 없었다. 그들은 지나가는 길손을 만나 안개가 언제 걷히는가고 물어보았다. 그는 이전에는 개인 날이 많았었는데 천선대에 선녀들이 내려와 노는것을 보고 마귀들이 몰려와 훼방을 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개가 낀다고 이야기하였다.

네 신선이 안타깝게 하늘만 쳐다보고있는데 갑자기 안개가 걷히고 선녀들이 무지개를 타고 천선대에 내렸다. 선녀들이 하강하는 만물상의 경치는 그야말로 황홀경이였다. 네 신선들이 천선대에 올라가자 선녀들이 밝은 웃음을 짓고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선녀들이 가지고 온 천도술을 맛보며 노래와 춤으로 즐기던 신선들이 선녀들과 헤여질 때였다. 어느덧 날이 저

물어 선녀들이 하늘로 오를 시간이 되자 한 선녀가 신선들앞에 나서며 간절히 부탁하기를 자기들이 매일 즐기는 천선대까지 마귀들이 오지 못하게 해주면 언제나 맑은 날씨를 주겠다고 하였다. 선녀들이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후 신선들은 마귀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이렇게 높은 언덕에 동, 서, 남쪽은 얼굴면을 험상하게 만들어 마귀들이 달아나게 하고 선녀들이 보는 뒤쪽면은 보통바위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곳에 설자리가 없음을 눈치챈 막내신선이 저 건너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리하여 삼선암과 독선암이 생겨나게 되였다. 신선이 만들어 세운 바위는 얼굴모양이 험상궂다고 하여 귀면암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보고 마귀들이 들어오지 못하니 날씨는 계속 맑게 개여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엷은 안개가 싸고돌면서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솟아있는 삼선암은 참으로 하늘의 신선이 구름을 타고 방금 금강산으로 내려오는듯 한 숭엄한 인상을 안겨주었다.

삼선암의 바위짬에는 소나무, 산벚, 진달래 등 식물들이 억세게 뿌리를 박고 자란다. 꽃나무들은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지면서 삼선암의 경치를 아름답게 장식하여준다.

....

이야기를 들으며 귀면암의 기이한 모습에 홀려 얼을 잃은듯 서있는데 사진구도가 좋다며 돌아서라는 사진촬영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귀면암을 등지고 돌아서는 순간 찰칵 소리와 함께

그가 됐다는 신호로 손을 들어보이였다.

그가 순간포착을 잘하여 사진을 찍는 바람에 우리는 저도 모르게 귀면암을 배경으로 하는 경치좋은 곳에서 기분좋게 사진을 한장 찍을수 있었다.

귀면암, 삼선암은 서로 조화를 부려 만물상경치를 부각시켜준다.

삼선암이 구름을 타고 둥실거리면 귀면암이 험상궂게 노려보고 만물상바위들은 안개로 감싸면서 자기의 비밀을 경솔히 보이지 않으려는듯 숨박곡질을 한다.

세지봉줄기를 바라보면 곰, 독수리, 오리, 두더지, 토끼, 병아리 등 사람이 뜻을 두는데 따라 가지각색 물형을 나타내는 바위들이 련이어 나타나고 왼쪽 천녀봉줄기에는 칠층암, 절부암 등 금강선녀의 아름다운 전설을 간직한 바위들이 련달렸다.

삼선암에서 천화대로 가는 길은 돌계단길이다. 층층대로 올라가는데 아, 별안간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흘러가는 구름도 걸리는 저 높은 곳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는건가?

구름속에서 들려오니 선녀가 부르는 노래소리는 아닌지?!

자세히 바라보니 우리보다 먼저 간 방직공장처녀가 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어쩌면 그리도 노래를 잘 부를가?!

삼선암아래에서 뒤따라 올라오던 관광객들이 산이 울리도록 재청을 요구하나 그 처녀는 구름이 지나가자 아래로 내

려온다.

한점 그늘없는 유쾌하고 랑만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흥그럽게 하여준다.

우리는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로 높고 험한 바위벼랑을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며 세지봉줄기의 벼랑중턱에 묘하게 솟은 절부암과 탑처럼 층층이 올라앉은 모양으로 생긴 칠층암도 보고 말안장처럼 생긴 벼랑턱(안심대)에 편안히 앉아 정신도 안정시키고 다리쉼도 하였다.

젊음을 되살려준다는 전설이 깃들어 무심히 지날수 없는 망장천의 시원한 샘물을 마시고 기운을 돋군 다음 날카로운 벼랑길로 안전란간을 따라 한치한치 톺아올랐다.

천 선 대

드디여 하늘에 오르는 첫째가는 문이라 일컫는 천일문(하늘문)에 들어선 우리는 하늘선녀들이며 신선들이 와서 놀았다는 하많은 전설을 고이 간직하고있는 천선대를 바라보며 잠시 천일문에서 주변경치를 부감하였다.

하늘문을 나서니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장은 금시 손에 닿을것만 같이 머리우로 흘러가고 발밑을 내려다보면 넓지 않은 바위벼랑주변이 시원히 열리여 온몸이 하늘로 둥둥 떠오르는것만 같은데 발밑에서 펼쳐지는 절경은 눈이 뒤집힐 지경으로 황홀하였다.

실로 천일문은 천하제일경관이라 자랑할만 하였으며 하늘

로 오르는 일등가는 문이라 이름붙일만 한 명승이였다.

천선대는 하늘문에서 2개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야 오를수 있었다.

사다리를 타고 벼랑우에 올라서니 참대순같은 4개의 기둥바위가 둘러선 가운데 10여명이 들어설수 있는 곳이 나타났는데 맨앞에 있는 기둥바위에 《천선대》라는 글자를 새겨넣었다.

여기에 천선대라는 이름이 붙게 된것은 금강산의 경치가 하도 좋아 하늘의 선녀들이 문주담에 내려와 목욕을 하고 화장호에서 화장을 한 다음 이곳 천선대에서 비파를 타고 절경을 부감하며 하루종일 즐기다가 하늘로 오르군 하였다는 전설때문이라고 한다.

천선대에 오르니 신선이 산다는 하늘나라에 들어선것 같았다.

사위는 안개속에 묻혀있어 마치도 날개를 펼치고 구름속을 훨훨 나는것만 같은 상쾌한 기분이다.

천선대는 천주봉줄기가 뻗어내려오다가 여기서 그 무엇에 뭉텅 잘리운것처럼 잘리워 수백길 뚝 떨어진 벼랑을 이루었는데 만물상 한복판 제일 높은 곳에 자리잡고있어 만물상을 한눈아래 굽어볼수 있는 곳이였다.

천선대 바위우에 난 세개의 오목한 돌구멍은 머나먼 옛날 상팔담에서 목욕을 한 선녀들이 화장을 하군 하였다는 선녀화장호였다.

세상만물이 여기에 와서 제 모양을 제나름으로 빚기도 하고 새기기도 하고 깎기도 했는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알맞춤하기도 한 바위들이 혹은 조각처럼 방불하기도 하고 혹은 새긴것처럼 어슴푸레하기도 하고 혹은 거칠게 깎아놓은듯 한 만가지 물형을 닮은 바위들이 요지경속을 들여다보듯 신비하게 눈을 홀리였다.

옹긋쫑긋 늘어선 벽옥같은 바위군상들을 멀리서 볼 때에는 산호진주를 모아놓은듯 하더니 이렇게 가까이에 와서 보니 온갖 보석으로 만든 조각품들을 미처 처리할새가 없어서 생각나는대로 쌓아놓은듯 그 모양과 가지수를 이루 헤아릴수 없을 지경이다.

만물상의 황홀한 면모는 천선대에서 보아야만 그 진짜맛을 똑똑히 알수 있다더니 과시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천선대우에서만 볼수 있는 수려한 산발들을 둘러보며 사방경치를 부감하였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억수로 쏟아지는 비발속에서 만물상의 절경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저도 모르게 《천하절승 금강산이 여기로구나!》하고 자연의 절승앞에 못내 탄복해마지 않았다.

비발속에서 보는 만물상의 경치는 그것대로의 특색을 드러내고있었다.

그리 넓지 않은 시야에 많은 산봉우리들과 가지가지 물형으로 보이는 기암괴석들이 한꺼번에 비쳐드니 기적이라고 할수밖에 없는 일이였다.

멀리로는 가없이 펼쳐진 동해가 한눈에 안겨드는데 장전만기슭에 와서 처절썩처절썩 부서지는 장쾌한 파도소리가 들리

는듯 시원스럽게 안겨들었다.

점차 가까이로 오면서 주봉인 비로봉밑에서 흘러내린 산줄기를 따라 집선봉, 채하봉, 세존봉, 장군봉, 월출봉, 옥녀봉의 웅장기려한 모습을 부감할수 있었고 더 가까이로는 하늘나라의 신선이 정말로 내려오기라도 하는듯 까마득히 내려다보이는 한하계골짜기로부터 하늘로 날아오르는 안개가 바위부리를 감돌며 흘러가고있었으며 관음련봉과 삼선암, 귀면암, 병풍을 친듯 한 오봉산의 련봉들과 세지봉의 기암괴석들이 제각기 색다른 모습을 자랑하며 서있는 모양을 볼수 있었다.

그 어떠한 훌륭한 시인, 명화가라 할지라도 감히 한편의 시와 화폭에 옮길수 없는 일대 장관이였다.

중년의 한 탐승객은 어찌나 감동되였던지 턱밑에서 흘러내리는 비물을 훔치며 《세계적인 명산이요! 기적이요! 장엄의 절정이요!》 하고 소리지르는것이였다.

사람들이 감정과 느낌을 터치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는 절경이였다.

《만물상의 진짜맛은 구름이 낮게 드리우고 안개가 떠돌때 감상하여야 깊이 알수 있소. 그때에는 휘감겨도는 안개, 구름속에 천태만상의 봉우리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 멋이야말로 보지 않고서는 형언할수 없는 화폭을 펼쳐놓군 하지.》

학술원선생님은 구름과 안개가 떠도는 그러한 순간에 만물상을 부감하지 못하는것이 아쉬운것 같았다.

우리는 속옷이 다 젖었지만 비온 뒤의 만물상을 보려고

30분나마 버티여냈다.

그러면서도 힘든줄을 몰랐다.

비록 비바람속에 본 만물상이였지만 천선대를 내리는 우리의 가슴은 금강산을 다 본것 같은 기분에 한껏 들떠있었다.

모름지기 세지봉말기에 있는 망양정에 올라 망망한 동해바다와 비로봉이며 웅장하고도 장쾌한 금강산의 산발들을 바라보면 더 날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을것이다.

우리는 아쉬운 심정으로 천선대를 내리여 만물상구역의 마지막전망대인 망양대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동해바다의 만경창파를 부감할수 있는 대라고 하여 이름붙여진 이 망양대에서는 장전항과 바다의 풍경이 한폭의 그림처럼 한눈에 안겨든다. 망양대에 올라 그곳을 바라보느라니 신선이 되여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지상생활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바라보는듯 한 감정에 휩싸였다.

우리는 이 망양대에서 아름다운 금강산의 자연경치를 부감하면서 땀을 식힌 다음 배낭에 준비해가지고 온 점심보자기를 저마끔 풀었다.

늦은감은 있지만 푸짐한 점심상을 마주한 우리의 눈길을 제일 끈것은 금강산의 유명한 백도라지채였다.

금강산에 와서 절경을 탐승하고나서 절묘한 바위주변에 자란 이곳 특산물인 백도라지를 먹는 맛은 실로 스쳐버릴수 없는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다.

감탄을 금치 못하며 백도라지채에 저가락을 연방 가져가는 우리에게 많이 들라고 권하며 학술원선생님은 사람들이 금강

산백도라지를 사랑하는것은 수줍은듯 고개를 숙인 꽃의 아름다움이나 인삼같은 하얀 뿌리로 산나물료리를 만들어 먹는 특이한 맛때문만이 아니라 도라지에 깃든 감동깊은 이야기때문이라며 그와 관련한 전설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점심을 먹은 뒤에 한참 쉬고나서 만물상을 다시 보고픈 심정을 억제하며 산을 내리였다.

그날 산을 내려 만물상을 보고 온 감정을 그 고장의 한 로인에게 말했더니 그는 웃으면서 《발밑에 안개가 끼고 머리우에 해빛이 비칠 때 안개바다우에 섬처럼 떠있는 오두봉이며 뭇봉우리들을 보는게 천선대의 제멋이네. 그때면 임자들도 하늘나라 신선이 된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될걸세. 임자들이 금강산을 다 본것 같이 말하는데 그건 우리 금강산을 모르고 하는 말이네. 옛날사람들은 금강산의 한개 명소를 백번 봐야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다 알게 된다고 했네. 절기에 따라, 날씨에 따라, 보는 각도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데다가 보는 사람의 준비정도에 따라 각이한 모습으로 보이는게 우리 금강산이니까!》라고 말하는것이였다.

한개 명소를 적어도 백번쯤 봐야 금강산의 진면모를 알수 있다니 이렇듯 신묘하고 웅심깊은 자연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청신한 공기와 솔잎향기가 그윽히 넘쳐나고 새들의 지저귐소리 유정한 천하절승 금강산탐승에 대한 흥분으로 잠들수 없는 밤이였다.

계곡미로 으뜸인 내금강탐승길

새벽은 그 청신함으로 하여 새로운 희망에 부풀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다.

금강산탐승의 나날 우리는 어슬어슬한 새벽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 금강산 온천장에서 온천욕을 하군 하는것이 어느덧 습관으로 되였다.

이날도 온천욕을 하고 려관으로 돌아오는 산천의 새벽길은 고요하고 그윽한 정서를 안겨주어 상쾌하기 이를데없었다.

여름이 한창이여서인지 엷은 안개가 골안을 조용히 감돌며 한하계골짜기로 해서 온정령마루로 거슬러오른다. 온정천물소리는 새벽정적을 깨칠세라 자갈바위를 굼니며 소곤거린다.

우리는 온정천다리목에서 함함히 이슬을 머금은 숲속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새벽이슬이 후두둑후두둑 떨어져 온천욕으로 달아오른 우리의 몸을 시원히 적셔주었다.

낯설은 길손이 보금자리를 해칠가 놀라서 깨여난 산새들은 저들만이 아는 지저귐소리를 내며 나무초리를 스치며 날아오르는데 해묵은 락엽을 밟는 발자국소리에 공연히 놀란 다람쥐는 숨차게 달리다가 소나무를 만나자 손닿지 않을만큼 게바라오르더니 안도감이 들었던지 눈알을 반들거리며 사람을 빤히 지켜본다.

산촌의 정서에 취하여 숲속을 한참 오가는데 비로봉에서

흘러내린 관음련봉마루에 엷은 아침해살이 퍼져올라 이슬먹은 잎새들을 비쳐준다.

맑고 신선한 아침공기를 한껏 들이키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약간 흐리긴 하지만 비가 올것 같지는 않고 산행하기에 더없이 좋을것 같았다.

려관으로 돌아가 아침밥을 먹고 등산준비를 갖추었다.

아침 7시 30분에 우리를 싣고 내금강으로 가는 뻐스가 출발했다.

《금강산의 다른 구경은 모두 만폭동구경의 부록》이라고 했던가, 드디여 계곡미의 진수로 꼽는 내금강에로의 등산길에 오른것이다.

내금강으로 가는 길은 만물상계곡을 지나 온정령을 넘어 금강군으로 접어들기까지 약 2시간이 걸리는 로정이다.

달리는 차안에서 우리는 내금강에 대한 상식적인 자료들을 알려주는 학술원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내금강은 깊숙하고 그윽하며 수려한 계곡미로 이름이 높았다.

천태만상의 장엄하고 황홀한 산악미를 자랑하는 외금강이 억세고 강의한 남성미로 특징지어진다면 련이은 폭포와 소들이 계곡미를 대표하는 내금강은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녀성적인 미를 나타내는것이 특징이다.

내금강은 비로봉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련봉의 서부지역을 말하는데 지역적특성에 따라 여러 구역으로 나눈다.

내금강으로 오르는 등산길에는 울소와 삼불암, 표훈사와 만폭동, 보덕암, 마하연터와 묘길상을 비롯한 명소들이 많다.

울소와 삼불암

내금강 장안동에는 울소와 삼불암이 있다.

소에 떨어지는 물소리가 마치 사람이 우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울소라고 한다.

둥글길죽하게 생긴 소의 개울바닥에는 큰 바위들이 띠염띠염 서있고 소의 왼쪽물가에는 길다란 바위 하나가 가로누워있다.

소앞에는 네모반듯한 돌이 있는데 그우에 마치 사람 셋이 엎드려있는것처럼 세개의 바위가 나란히 놓여있다.

너럭바위가 깔린 개울바닥을 흘러내려오던 물은 이 개울목에 와서 작은 폭포가 되여 서너길높이에서 소에 떨어진다.

그런데 바위벽들이 좁게 마주서고 사방이 울창한 숲으로 덮인 지형학적특성으로 하여 소에 떨어지는 물소리가 웅근 소리를 내며 특이하게 들린다.

여기에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있다고 한다.

전설 《슬피 우는 울소》

장안사에 라옹조사가 살고 표훈사에는 김동거사가 살고있었다.

라옹은 금강산에서 이름난 스님이였고 모든 중들의 스승벌되는 위치에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차츰 제자들가운데서 우두머리(상좌라고 함)로 될 사람에 대하여 걱정하게 되였다. 아

무모로 보나 표훈사에 있는 김동거사가 가장 알맞춤한것 같아서 그를 상좌로 정하고 각별한 관심을 돌려 불교교리를 가르쳐주었다. 그런데 김동은 차츰 야심이 커져서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자기 스승인 라옹조사를 금강산에서 내쫓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을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만 골똘하였다.

김동의 속내를 알아차린 라옹조사는 그의 재간을 시험해보기로 하였다.

부처새길내기를 걸었는데 김동은 문제없이 자기가 이길것이라고 타산하고 이 제의에 동의하였다.

다음날 라옹은 표훈동입구에 서있는 바위앞면에 3구의 큰 부처를 새겼고 김동은 그 바위뒤면에 60구의 작은 부처를 새겼다.

다 새긴 날 그들은 여러 중들과 함께 창작품을 검열하였는데 라옹조사의 3불은 나무랄데 없는 걸작이여서 모든 중들의 한결같은 감탄을 자아냈지만 김동의 작품은 졸작일뿐아니라 60구가운데서 한 부처는 귀가 없었다.

결국 내기에서 김동거사는 졌다. 지고보니 스님의 자리를 탐낸 자기의 더러운 성품에 모진 가책을 느끼였다.

더우기 스님이 자기의 야심을 알아차리고 이 경기를 조직하였다고 생각하니 더는 그 자리에 서있을수 없었다.

김동은 슬며시 빠져나와 울소로 갔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사랑하는 자식들의 모습을 그려본다음 울소에 뛰여들어 목숨을 끊었다. 뒤늦게야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의 아들 3형제는 못가에 엎드려 《아버지!》 하고 부르며 슬피 울다가 물에 뛰여들어갔다.

이때 하늘에서 불시에 뢰성벽력이 울리고 폭우가 쏟아졌다. 날이 개인 후 울소에는 길게 누운 큰 바위가 생겨났고 그 바위쪽을 향해 엎드려있는 세 바위가 물우에 떠올랐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큰 바위는 김동의 《시체바위》이며 작은 세 바위는 그의 아들 《3형제바위》라 하였고 소에 떨어지는 폭포소리는 3형제의 울음소리를 닮아 구슬픈 소리를 낸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명연》은 울린다는 울소로서가 아니라 슬피 운다는 울소로 뜻이 바뀌였다.

....

물소리가 색다르게 들리는데 그것이 사람우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원래 명연담이였던 소의 이름이 《울소》로 되였던것이다.

이곳에 금강산 4대사찰의 하나였던 장안사터가 있다.

표훈동은 삼불암을 지나서 내금강의 원화문까지의 만천계곡과 그 주변일대의 경치좋은 지역을 포괄하고있다.

표훈동은 위치상으로나 전망으로 보아 내금강의 중심부라고 할수 있다.

삼불암을 지나 더 오르면 백화암터가 있고 표훈사교를 건느면 표훈사가 마주보인다.

표훈사로 가는 등산길을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람찬 소나무숲과 곧은 전나무숲이 펼쳐진다.

여기 표훈사에는 내금강 만폭동으로 가던 김삿갓이 릉파루에 모여 시짓기내기를 하던 선비들을 단 두줄의 시로 코를 납작하게 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있다.

… 조선봉건왕조 말기에 활동한 시인 김삿갓(본명 김병연, 1807년—1863년)은 방랑시인으로서 금강산을 여러번 다녀갔는데 어느해 가을엔가 언제나 쓰고 다니는 삿갓을 비껴쓰고 련달아 나타나는 산수의 절경과 기기묘묘한 경치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내금강 만폭동을 찾아들고있었다.

릉파루에 이르러 땀을 들일겸 루정에 오르는데 량반들이 풍월을 짓느라고 야단법석이였다.

가관은 시인지 글인지 알수 없게 만들어놓고서는 제법 멋을 부리는것이 눈꼴이 사나울 지경이였다.

김삿갓이 넌지시 풍월을 짓는 량반들에게 송, 수, 산 등 몇자를 운자로 시지을내기를 하자고 청하자 웬 촌뜨기인가 하고 어이없는듯 건너다보는것이였다.

그러다가 흥미가 동하였던지 그에 응하면서 모두들 자신있게 접어들었다.

그러나 정작 쓰자고보니 글자 몇자로 시를 짓기가 조련치 않았던지 량반님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앉아 웅얼거리고만 있는데 먹물이 마를새없이 시구를 써내뜨린 김삿갓은 붓을 벼루에 놓은채 루정을 내려서 장삼자락을 휘저으면서 가던 길을 계속 다그쳤다.

한 량반이 김삿갓이 종이에 써놓은 시구를 심드렁히 들여다보며 웅얼거렸다.

소나무 소나무 잣나무 잣나무
바위 바위를 돌아서니

산산 물물
가는 곳마다 신기하구나

시구의 맞춤새가 보통사람의 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둘러보니 김삿갓은 가던 길을 계속 가며 흥얼흥얼 엮어대는데 그것을 받아 종이에 적어놓으니

나는 청산이 좋아 찾아가는데
록수야 너는 왜 내려오느냐
삐죽삐죽 솟은 금강산의 산모양
높은 봉우리가 만이천이라네

라는 기막힌 시구로 이어졌다.

저희들이 그처럼 모대겨봤어도 글귀를 잡지 못하여 그려내지 못한 수려한 금강산풍경을 단숨에 글자 몇자에 담아 기막힌 시로 지어낸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그가 풍류시인 김삿갓인줄을 당시로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

옛 시인의 재치있는 시재에도 감탄을 금할수 없었지만 둘러선 산천경개의 절묘함은 우리를 한없는 감동의 세계에로 이끌어갔다.

표훈사는 유점사, 신계사, 장안사와 함께 금강산 4대사찰중의 하나이다.

표훈사에 이르니 붉은 장삼을 걸친 스님이 일행을 맞아주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곳 사찰에는 반야보전과 령산전, 명부전, 칠성각, 어실각, 릉파루, 판도방 등 몇채의 건물만 남아있다.

표훈사뒤쪽에는 말사인 정양사가 있다.

정양사는 그 위치가 외지고 그윽한 곳이여서 1458년에 경상남도 해인사에 보관하였던 《팔만대장경》판목의 일부를 여기에 옮겨 보관한 일이 있다.

금강산전체의 진면모를 볼수 있는 헐성루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듯이 정양사부근에는 예로부터 전망대가 많았다.

이곳에서 18세기 화가 정선이 그린 《금강전도》, 《풍악내산총람》은 내금강전경을 구도로 잡은것이였다고 한다.

눈앞에 내금강봉우리들이 흘러가는 구름속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를 되풀이했다.

돌잔꽃 꽃밭너머로 정선이 《금강전도》에서 그렸다는 숲산, 돌산들이 어우러져 흘렀다.

북동쪽의 최고봉 비로봉은 구름에 가려 아래자락이 보일락말락, 그아래 중들이 향로를 든 행렬같다 하여 붙여진 중향성의 재색빛뾰족봉우리들은 창끝처럼 둘러서있다. 향로봉, 영랑봉, 백운대, 혈망봉, 일출봉 등 련봉의 절경에 막힌 숨을 돌리며 헐성루터뒤 약사전앞에 섰다.

끼익!

사찰문이 열렸다.

어둠을 걷어내고 돌부처의 잔잔한 얼굴이 드러났다.

약사여래, 병으로 아파하는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

겠다고 맹세한 대자대비의 여래상이 웃는다. 지난 전쟁시기 폭격에 떨어져나간 어깨죽지를 다시 붙여놓은 고통을 이겨내느라 그는 입을 꾹 다문채로 웃는다.

표훈사를 나와 얼마쯤 올라가니 큰 바위들이 량쪽에서 이마를 마주 댄 돌문이 나타났다.

《금강문》이라고 하는 삼각형모양의 자연돌문이였다.

금강산에서 제일가는 절경의 하나를 이룬 만폭동에 들어간다는 뜻에서 원화문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문은 구룡연구역의 금강문, 비사문, 만물상의 하늘문, 삼일포의 금강문(석선문), 해금강의 해금강문, 천불동의 동해문, 수정봉의 수정문 등과 함께 금강산에서 명소로 들어가는 돌문의 하나로, 유명한 곳으로 일러온다.

이 문을 지나면 금강산경내에서도 계곡미로서는 첫손가락에 꼽히우는 만폭동의 황홀한 절경이 펼쳐진다는 그의 말에 우리의 걸음은 저도 모르게 빨라졌다.

만폭동의 계곡미

원화문에서 화룡담까지의 구간을 만폭동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만폭동팔담과 배소, 거북소를 비롯한 명소들이 있었다.

열걸음만 떼여도 폭포가 이어지고 그 폭포밑으로 소가 보인다.

폭포는 길지 않지만 소의 깊이는 만만해보이지 않는다.

그 물빛이 푸르다 못해 검다.

내금강 등산로는 내내 이 계곡을 따라 이어진다.

완만한 계곡이 이어져서 걷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

예견치 않았던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내금강 강사는 《금강산 보슬비를 맞으면 철이 든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 한다.

처녀시절에 내금강 강사를 3년 했는데 결혼후 아이를 낳고 다시 시작하였다고 한다.

계곡을 따라서 이어지는 그의 이야기는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만폭이란 폭포가 만개가 될 정도로 많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크고작은 폭포가 너무 많아 그 수자를 세다가 이내 포기하고만다.

여름에 금강산은 40여일동안 끊기지 않고 비가 내리는데도 있다. …

원화문을 나서서 강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걷던 우리의 귀전에 웅장한 물소리가 들리더니 타래치는 물살과 장엄한 계곡이 눈앞에 펼쳐졌다.

《만폭동이다!》

우리일행은 약속이나 한것처럼 일시에 환성을 올렸다.

오른쪽으로는 오선대와 법기봉이, 왼쪽으로는 금강대와 향로봉이 마주보며 늘어선 가운데로 수정같이 맑은 옥계수가 개울바닥의 희맑은 돌을 뛰여넘고 쏟아져내리여 구슬같은 담

소와 은빛비단필같은 폭포를 이루고 저마다 재주를 부리며 련달아 흘러내리고있었다.

바다물결처럼 푸른 물이 파도치는가 하면 눈도 날리고 안개도 내뿜는 천만가지 재주를 부리는 물의 흐름은 보는 사람의 정신마저 혼미하게 하는것 같았다.

만폭동에 들어서면 만천계곡과 원통골에서 흘러나온 물이 합수목을 이루는 가운데 금강대가 우뚝 서있다.

우리는 먼저 금강대밑 200㎡의 넓은 구간에 펼쳐진 너럭바위를 찾았다.

《사선기반면》으로 이름이 높은 만폭동 너럭바위를 돌아보는데 과연 전설에 나오는 바둑판인듯 바위우에는 바둑판이 뚜렷이 그려져있었다.

《이 바둑판이 바로 옛날 네 신선(영랑, 술랑, 남석, 안상)이 앉아서 바둑을 두었다는 <사선기반면>이지요!》

학술원선생님이 이렇게 허두를 떼며 여기에 깃든 전설을 전해주었다.

…옛날 금강산이 하도 좋다는 말에 네 신선이 만폭동에 들어왔다가 이 너럭바위에 다달아서 바둑을 두고있는데 주변마을에서 나무하러 왔던 강생이라는 한 로인이 네 신선이 두는 바둑구경에 정신을 팔던 나머지 나무할 생각을 까맣게 잊고말았다.

신선들이 로인에게 만세로라는 술과 천도라는 복숭아를 권하여 먹였더니 흰머리가 검어지고 주름살이 없어졌다. 네 신선이 무지개를 타고 떠나가버린 뒤에야 정신을 차린 강생은

나무하러 가지고 왔던 도끼를 찾아 쳐들려고 하였는데 아침에 새로 맞춰가지고 온 도끼자루가 다 썩어서 쥘수가 없었다.

《하, 내가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줄도 몰랐군.》 하고는 부랴부랴 돌아와보니 자기가 살던 마을은 간 곳 없이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머슴살던 지주집은 망해버린지 3대째나 된다고 하였다. …

이것은 세월가는줄 모르고 신선들의 놀음을 구경하였다는데서 생겨난 전설이라며 학술원선생님은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다.》는 말도 이때 생겨난것이라고 하였다.

전설이야기까지 듣고 만폭동의 경치를 부감하느라니 그 절경은 실로 자신마저 잃어버릴 지경으로 기막히였다.

우리는 조선봉건왕조때 시인이며 명필이였던 양봉래가 이 너럭바위에 썼다는 《봉래풍악원화동천》(여름, 가을 금강산의 만폭동경치가 으뜸이라는 뜻)이란 글발이며 옛날 중이였던 라옹이 썼다고 하는 《천하제일명산》이라는 글발도 돌아보았다.

너럭바위를 떠난 우리는 만폭동절경가운데서도 첫손가락에 꼽힌다는 팔담을 찾아 골짜기를 톺아올랐다.

만폭동에는 《만폭팔담》이라고 부르는 여덟개의 못이 있다.

모두 독특한 모양과 특징을 가지고있다.

소름이 끼치도록 검푸른 흑룡담, 비파소리를 낸다는 비파담, 푸른 물결우에 물안개 감도는 벽파담(벽하담), 오뉴월에도 눈보라 날리는듯 한 분설담, 진주처럼 맑고 깨끗한 진주담, 거부기처럼 생긴 거북소(구담), 배처럼 생긴 배소(선

담), 풍운을 타고 천지조화부리는 화룡이 숨어있다는 화룡담을 비롯하여 하나의 이야기에 얽힌 외금강 상팔담도 좋지만 제가끔 제 이야기로 얽힌 만폭동 팔담의 경치는 참으로 절승중의 절승이다.

미끄러져내리고 뚝 떨어져 쏟고 펄쩍 뛰고 쏜살같이 내리는가 하면 여울목같이 빙빙 돌고 바다물결처럼 푸른 물이 파도치는가 하면 잔잔한 물거울도 되고 구슬을 깨치는가 하면 눈도 날리고 안개도 내뿜는 폭포와 소가 어울린 무어라 다 말할수 없는 천만가지 물의 재주를 한곳에 모아놓은 여기는 계곡미의 절정이였다.

만폭동(금강대에서 백운동입구까지)은 금강산 10대미의 하나인 계곡미의 진수이다.

어떤 사람들은 분설담이 가장 아름답다느니, 그래도 진주담이라느니 한다지만 그런 비교자체가 부질없다.

옥빛의 물결이 폭포로 내리쏟아지다가 시퍼런 소에 머물다 다시 아래계곡으로 흘러가는 풍경은 금강산 10대미가운데 하나인 계곡미가 피부로 느껴지게 한다.

마치도 흰 룡이 서리고있는듯 하다는 백룡담이며 화룡담을 지나 한참 올라가느라니 전망이 환히 트이였다.

가파로운 산길에 숨도 돌리고 땀도 들이면서 올라오던쪽을 바라보니 사자바위뒤로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은 초대봉이 바라보이였다.

보 덕 암

만폭동탐승은 보덕암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였다.

분설담의 오른쪽 법기봉절벽허리에 매달려있는듯이 보이는 보덕암이 눈에 들어온다. 그 모습이 참으로 기묘하여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보덕암을 실물로 보게 된 흥분으로 가슴은 달아올랐다.

올려다볼수록 기묘하여 한시바삐 올라가보고싶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마음들이 한층 들떠있다.

잠시 땀을 들이기 위하여 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들면 발아래로는 만폭동 파란 물이 굽이굽이 흘러내리고 그 건너 향로봉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가슴속으로 스며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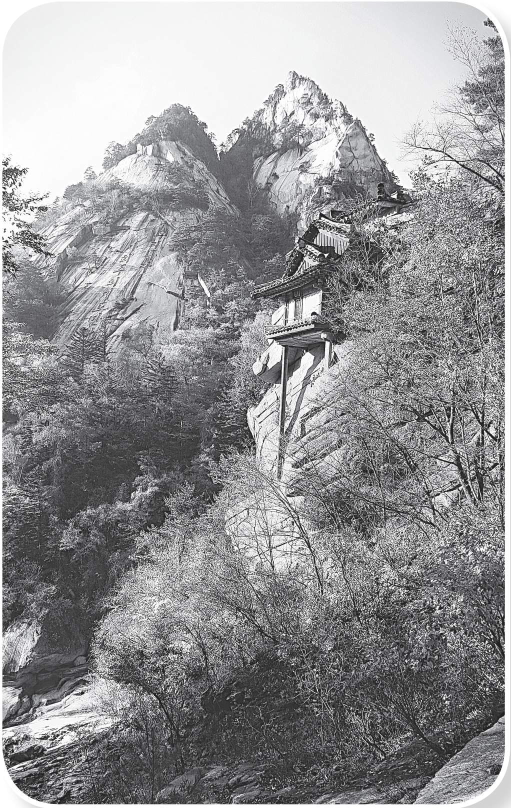
돌층대 오솔길을 얼마쯤 오르고나니 고색창연한 보덕암이 나진다.

거대한 힘을 가진 장수가 미리 집을 지어놓았다가 바위벽에 통채로 붙여놓은듯 한 보덕암은 20㎧도 넘는 아슬한 절벽중턱에 하나의 가느다란 구리기둥에 떠받들려있어 보면 볼수록 신기함을 금할수 없게 하였다.

고려의 문인인 리제현은 절벽우에 앉아 하늘중천에 나는듯한 보덕암을 보고 시를 읊었는데 시인은 자연과 건축이 하나로 결합된 이 신비경에 《과시 명물이로다!》 하고 탄성을 지르고는 그에 맞는 표현이 따라서지 못해 시의 뒤를 더 잇지 못하였다고 한다.

보덕암은 원래 두채의 건물이였는데 하나는 보덕굴앞을 막아 벼랑벽에 달아 지은 본전이고 다른 하나는 굴우에 지었던 판도방이다.

보덕암 본전은 보덕굴앞 바위에 의지하면서 내금강의 오현봉, 청학봉, 향로봉 등을 배경으로 지었는데 세겹의 지붕을 얹은 단칸집이였다.



금강산의 보덕암

한대의 구리기둥우에 세운 단칸집에 세층으로 합각지붕, 배집지붕, 우진각지붕 등 서로 다른 지붕을 잘 어울리게 올린것은 흔히 볼수 없는 독특한 형식이였다.

보덕암은 그뒤에 있는 자연굴인 보덕굴과 잇닿아있었다.

이 보덕굴에는 옛날 마음씨착한 보덕각시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있으며 보덕굴이라는 이름도 보덕각시의 이름을 따서 붙인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후에 보덕굴에 암자를 짓고 옥으로 보덕각시를 형상한 조각상을 놓았던것이다.

우리는 학술원선생님에게서 보덕굴에 깃든 전설이야기도 들을수 있었다.

전설

《보덕굴에 깃든 이야기》

… 옛날 만폭동에는 열일곱살처녀 보덕이가 살고있었다. 그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늙은 아버지와 같이 부지런히 땅을 뚜지며 살았다. 그러나 아무리 땅을 뚜져도 가을이면 낟알을 지주에게 다 빼앗기고 빈 자루만 털고 나앉는것이 보통이였다. 그러던 어느해 가을, 늙은 아버지가 앓아눕게 되였다. 보덕이는 늙은 아버지에게 죽을 쑤어드리려고 했으나 항아리속에는 몇알 안되는 보리가 있을뿐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할수없이 아래마을 아는 집에 가서 쌀을 좀 꾸어달라고 하였으나 그 집 역시 가난하여 쌀은 없고 맨 콩을 두어되박 주는것이였다. 보덕은 그것이나마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주림과 피곤에 지쳐서 그만 바위에 의지한채 잠이 들고말았다.

그런데 백발로인이 와서 보덕을 깨우며 《얘야, 일어나라! 어이구 가엾어… 콩을 가지고야 어떻게 앓는 아버지에게 죽을 쑤어드리겠니?》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것이였다.

《할아버지는 어데로 가세요?》

보덕은 두눈을 말똥거리며 물어보았다.

《나도 이 산속에서 산다. 그런데 얘야, 참 좋은 수가 있다.

이 콩을 가지고 초롱꽃이 핀 굴속에 가서 밥을 지으면 쌀밥이 되는 수도 있을는지 모른다.》

《비?!》

쌀밥이라는 말에 보덕이가 눈을 떠보니 그것은 꿈이였다.

보덕이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 꿈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옛날부터 그런 전설이 있으나 그 꽃은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만 보인다고 하면서 네 행동에 혹 잘못한 일이 없는지 그것부터 따져보고 자신이 있으면 초롱꽃을 찾아보라고 하였다.

보덕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에 별로 잘못한것은 없으나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깨끗이 쓸라는 아버지의 말을 그날 아침만은 잊은것이 생각나서 속으로 몇번이나 뉘우치면서 마당을 깨끗이 쓸고 뒤산으로 올라가 초롱꽃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초롱꽃은 바로 보덕이가 있는 집뒤 굴앞에 피여있지 않는가!

보덕은 얼른 콩을 갈아서 가마에 안치고 그 굴앞에 가서 세번 절을 하고는 밥을 지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그것은 콩밥이 아니라 하얀 쌀밥으로 되였다. 그 밥을 먹은 그의 아버지는 병이 나았으며 그후부터는 그 굴속에서 밥을 지으면 나물죽도 밥으로 되였다.

이 신기한 소문을 들은 어떤 게으름뱅이중이 와서 동냥쌀을 한알 넣고 밥을 지었더니 가마속에는 말똥이 하나 가득하게 차있었다.

그날 밤 백발로인이 나타나서 중에게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의것만 빼아먹는 너 같은 놈에겐 말똥도 과하다.》 하고 사라지는것이였다.

보덕굴벼랑아래에는 보덕각시가 머리를 감았다는 세두분이라는 동그란 샘구멍과 수건을 걸었다는 수건바위도 있었다.

보덕암은 자연경치에 잘 어울리여 보기에도 좋고 든든하게 지은 당시 건축술의 높이를 보여주는 가치있는 문화유산이였다.

우리가 마루바닥을 밟을 때마다 울렁울렁거리며 심하게 흔들리는데 어찌 보면 금시 무너질상싶었으나 몇백년 지나오면서 눈비와 비바람인들 얼마나 쳤으련만 예나 다름없이 보덕암은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갖추고있었다.

이런 절벽에 집을 지을 생각을 한것만도 놀라운데 집을 지어놓은 솜씨 또한 볼수록 놀라웠다.

참으로 보덕암은 자연경치와 건물을 하나로 조화시켜 지은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구상과 솜씨를 잘 보여주는 기이하리만치 특이한 건축물이였다.

보덕암우에 올라가보니 아래에서 쳐다볼 때와는 전혀 판국이 다르다.

우선 넓은 시야에 안겨오는 천산만봉들이 화려한 차림으로 쭉 둘러섰다. 이렇게 좋고 이렇게 시원한 곳을 하마트면 밑에서만 보고 지날번 했다.

상쾌하고 날듯 한 기분은 저도 모르게 가슴을 벌리고 맑은 공기를 들여마시게 한다.

내려다보면 눈이 핑핑 도는 절벽끝에 다락처럼 덩실한 집이 수림속에 싸였으니 더욱 아름답다.

보덕암에 올라와서 내려다보는 주변경치 또한 얼마나 장관

인지 더 표현할 말을 찾을수 없을 지경이였다.

이곳을 내리며 만폭동의 명소들을 찾아 걸음을 옮기였다.

사방이 모두 째이고 어울렸는데 개울물과 바위, 폭포와 담소, 사방을 덮은 울창한 숲과 높이 솟은 봉우리들의 경치에 보덕굴까지 있어 이것을 보면 저것을 보고싶고 저것을 보면 이것을 보고싶으며 남이 보면 자기도 보고싶고 자기가 보면 남도 보이고싶은 감흥을 금할수 없었다.

보면 볼수록 좋고 가면 갈수록 탐나는 경치!

아, 정말 절경이로구나!

저도 모르게 감탄을 연방 터치게 하는 이 절경!

《종일을 놀지라도 떠날 생각 전혀 없고 열번을 올지라도 싫은 생각 있을소냐!》라고 한 옛 성인의 말이 그대로 우리의 심정을 말하는듯싶었다.

한 경치가 나타나면 또 한 경치가 련달아 나타나는데 보는 경치마다, 들리는 물소리마다 특색있고 제각기 달라서 어느 하나도 닮은것이 없으니 보이는것모두가 어느 하나도 빼놓고싶지 않은 명소들이였다.

우리는 여기서 구슬을 쥐여뿌리며 물보라를 일으키고 안개를 내뿜고 수정기둥을 세우면서 수많은 폭포와 절경을 펼쳐놓은 만폭동절경탐승의 막을 내리고 거기에서 얼마 멀지 않은 보덕암앞 분설담너럭바위로 늦은점심을 먹으러 되돌아 내려왔다.

보덕암으로 올라갈 때는 계곡옆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계곡물에 손도 담그고 바위에 새겨진 글도 읽

고 하며 여유작작하게 내려왔다.

강사와 웃고 떠들며 내려오다보니 어느새 점심식사가 차려진 표훈사옆 숲속에 당도했다. 개울가에서 잡은 산천어며 누치, 메기 등 물고기를 넣고 끓인 이 고장의 특식으로 유명한 매운탕이 눈에 띄였다.

금강산의 특산물로 꾸며진 식사에는 곰취나물도 있다. 출출해진 속에 무엇이 달지 않겠는가만 쌉싸름한 곰취잎에 이 고장 메주장을 듬뿍 발라 싸먹는 밥맛이란, 거기에다 땀흘려 칼칼해진 목에 갈증을 풀어주는 시원한 대동강맥주 한잔이면 이 또한 금상첨화.

《금강산의 특식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드십시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금강산구경에 이 좋은 금강산특식을 먹어보지 못했다면 금강산의 아름다운 진미를 다 체험해보지 못했으리라 생각하였다.

마하연사찰터, 묘길상

점심을 먹고 좀 쉬다가 다시 등산길에 올랐다.

화룡담에서 개울을 따라 얼마쯤 올라가면 넓은 공지가 나지는데 여기에 마하연터가 있다. 준봉들의 둥글넙적한 품속에 인위적으로 파고든것만 같은 마하연(대승이라는 뜻)터는 탐승길이 엇갈린것으로 하여 휴식터로 좋은 곳이였다.

여기서 백운대로 가는 길, 묘길상을 지나 비로봉 또는 안무재로 가는 길이 있다.

등산길을 이어가며 선생님은 김삿갓이 마하연사찰의 중과 시를 겨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 하루는 김삿갓이 금강산에 갔다가 마하연이라는 사찰에 시짓기로 유명한 도승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였다. 그 스님으로 말하면 어려서부터 금강산에서 나서자란 사람인지라 금강산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강했고 또 일찍부터 글재주가 뛰여나 시를 짓는데서는 누구도 당할 사람이 없다는것이였다.

이 소문을 들은 김삿갓은 그 스님에게 찾아가 시구를 겨루자고 청하였다.

김삿갓의 말을 들은 스님은 심사가 뒤틀리여 대체 얼마만한 글재주를 가졌기에 감히 그런 청을 하느냐며 거칠게 쏘아보았다.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삿갓은 두 마음을 합치면 혹시 좋은 시가 나올수도 있지 않을가 하고 생각한다고 하자 그제서야 스님은 표정을 바꾸어 그가 청하는 내기에 응하게 되였다.

사선정아래 개울가에 마주앉은 그들은 먼저 금강산을 잘 아는 스님이 전구를 떼고 김삿갓이 그에 대답하는 식으로 후구를 채우는 내기를 하기로 하였다.

스님:　　이른아침 립석봉에 오르니
　　　　　구름은 발아래 생기고
김삿갓: 저녁에 황천수의 물을 마시니
　　　　　달이 입술에 걸리더라

스님:　사람의 그림자는 물속에 잠겼어도
　　옷은 하나도 젖지 않았고
김삿갓: 꿈속에 청산을 오르고 내렸어도
　　다리는 하나도 아프지 않네
스님:　산에서 돌이 굴면
　　천년이 걸려야 땅에 닿을듯 하고
김삿갓: 산이 한자만 더 높으면
　　손이 하늘에 닿을듯 하여라
스님:　가을구름이 만리에 뻗으니
　　흰 고기비늘이 겹쌓인것 같고
김삿갓: 천년 묵은 고목의 뻗친 가지는
　　사슴의 뿔이 높이 솟은듯싶구나
스님:　청산을 돈을 주고 샀더니
　　구름은 공으로 얻고
김삿갓: 맑은 물가에 다달으니
　　고기는 저절로 모여드누나
스님:　절벽은 비록 위태롭게 솟아있어도
　　그우에서 꽃이 웃는 경치가 좋고
김삿갓: 양춘은 비록 아름다와도
　　새는 울며 떠나가니 비감이 생기더라
스님:　물은 절구공이가 되여
　　바위를 연방 내려찧고
김삿갓: 구름은 옥으로 만든 자가 되여
　　청산을 재여간다네

이렇게 스님이 연방 불러대면 김삿갓은 거침없이 대답하는데 그것은 앞뒤가 꼭 맞을뿐아니라 그 뜻이 하도 깊어 신기할 정도였다. 따라서 스님은 더이상 내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지막구를 떼였다. 그러자 김삿갓이 제꺽 그 뜻을 알아차리고 끝을 맺었다.

스님: 달이 희고 눈이 희니
천지가 다 희고
김삿갓: 산이 깊고 물이 깊으니
나그네 수심도 깊어라

몹시 감동된 스님이 김삿갓의 손을 덥석 잡으며 진정에 넘쳐 말하였다.

《내 지금껏 이 사찰에서 살아오면서 시를 짓는다는 사람들은 죄다 만나보다싶이 했고 또 한번도 져본 일이 없는데 오늘은 마치 시선(시의 신선)을 만난듯 하오이다.

생각해보건대 이 또한 신령스러운 산의 조화가 아닌가 하오이다.》

그 말을 들은 김삿갓은 즐겁게 웃으며 《오래간만에 금강산에 와보니 기이한 자연경치속에 사람과 신선의 조화가 함께 어려있는듯 하오이다. 내 지금껏 금강산을 위해 시도 짓지 않고 아껴왔는데 직접 이렇게 와보니 어쩐지 감히 입을 벌려 시라고 부르기가 부끄럽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후부터 이들은 친근한 벗이 되였는데 둘이서 함께 산천

도 구경하고 시도 갈이 지었다고 한다. …

재미있는 옛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전망대인 백운대에 올랐다.

아침에는 구름이 흩어지고 저녁에는 구름이 모여온다는 백운대는 층층 겹쌓이듯이 갑자기 높아진 바위등판이였다.

등판꼭대기 왼쪽에 소나무 한대가 바위짬에 뿌리를 박고 억세게 서있었는데 가지를 뻗치고 푸르싱싱 자라는 소나무의 기상은 풍상고초를 이겨낸 강인성의 상징처럼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다.

백운대에서 북쪽으로 곧바로 쳐다보이는 곳이 마치 수억만 향불을 태워 연기가 실안개처럼 줄을 그으며 자욱하여 성벽을 둘러친것 같다는 유명한 중향성이였다.

회백색의 바위들이 어떤것은 기둥모양으로, 어떤것은 날창모양으로 어깨를 비비대며 성벽을 이루고있었다.

백운대를 부감하고 우리는 새소리에 흥을 돋구며 묘길상으로 향했다.

절벽아래로 트인 좁은 길로 한참 가다가 언덕을 지나면 거대한 바위벽에 마애불상이 석등을 앞에 두고있다. 그 유명한 묘길상이다.

높이 40㎙의 웅장한 절벽에 새겨져있는 묘길상은 높이 15㎙, 폭 9.4㎙에 얼굴높이만 3.1㎙에 이르는 동방에서 가장 큰 마애불상이다.

손가락 하나가 보통사람의 몸체보다 굵고 두다리의 높이는 사람의 키를 훨씬 넘는다.

굵고 시원스러운 조각의 새김이 어쩐지 금강산 산신령의 솜씨처럼 느껴진다.

고려시대 석불조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 불상은 우리 선조들의 통이 크고 웅대한 기상과 패기를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참으로 폭포와 소, 바위와 봉우리들이 모두 한데 어울리고 째여서 수려하고 장쾌한 경관을 이룬데다가 유구한 력사유적들이 잘 보존되여있는 내금강의 미묘한 경치는 볼수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고 놓을줄 몰랐다.

뻐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뻐스 뒤좌석에 머리를 기대니 하루가 주마등처럼, 꿈결처럼 흘러간다.

아기자기한 담소들과 계곡들, 전나무수림과 기암괴석들, 곳곳에 서린 선조들의 발자취와 전설기담들.

내금강의 아름다움이 무수하다.

단 하루의 탐승으로 내금강의 진면모를 보았다고 할수는 없을터.

혹 겉모습만 보고 지나쳤을지 모를 내금강탐승의 길이였다.

바다우의 절경-해금강

금강산의 10대미중의 하나인 해양미가 펼쳐진 해금강에 대한 탐승을 위해 어슬녘에야 금강산에 도착한 우리는 금강산숙소에 자리를 잡고 하루밤 푹 쉬였다.

금강산을 그대로 바다에 옮겨다놓았다는 해금강은 10여리에 펼쳐진 해안절경인데 삼일포와 금란굴, 총석정일대까지 속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길에 삼일포구역과 총석정구역에 대한 탐승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삼일이 아니라 삼년도 있고싶은 삼일포

우리는 먼저 삼일포구역에 대한 탐승의 길에 올랐다.

다음날 아침 8시경에 삼일포로 출발하였다.

삼일포는 원래 동해기슭에서 륙지로 우묵히 들어온 하나의 만이였는데 남강이 날라온 모래흙이 바다의 파도에 운반되면서 만이 막히여 이루어진 바다자리호수였다.

우리가 삼일포에 닿았을 때는 아침해살이 삼일포수면우에 곱게 물들어 절경을 이루고있었다.

《관동팔경》의 하나로 이름이 높았고 호수풍경으로서는 으뜸가는 곳으로 일러오는 삼일포는 보는 첫 순간에 벌써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걷잡을수 없는 경탄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호수였다.

《관동팔경》이란 관동지방의 동해안에 있는 8개의 경치좋은 명소를 말하는것인데 통천의 총석정, 고성의 삼일포, 간성의 청간정, 양양의 락산사, 강릉의 경포대, 삼척의 죽서루, 울진의 망양정, 평해의 월송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늘의 선녀가 내려뜨린 거울속에 비낀 선경이라는 옛날 사람들의 말과 같이 과연 밝은 아침해살이 곱게 물든 맑고 고요한 호수는 기슭에 둘러앉은 산봉우리들의 아름다운 그림자를 그러안고 잔파도에 일렁이며 그윽한 정서를 안겨주었다.

금강산의 수려한 산봉우리들이 온화하고 아늑한 맛을 주는 호수의 절경과 잘 조화되여 어느모로 보나 삼일포는 한폭의 풍경화같이 아름다웠다.

삼일포의 봄

삼일포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옛날 어떤 왕이 바쁜 정사를 미루어놓고 하루 휴식하러 이곳에 왔다가 아름다운 삼일포의 경치에 매혹된 나머지 정사야 되건말건 3일동안이나 놀다가 갔겠는가!

전설

《 삼일포전설 》

옛날 어느 한 임금이 《예로부터 간성의 화담과 해금강의 영랑호, 고성의 삼일포(그때는 삼일포라 하지 않음)가 절승이였다 하니 내 이제 직접 가보려 하노라.》고 하였다.

시중드는 신하는 임금의 분부에 송구한 자세로 아뢰였다.

《이제 열흘이 지나면 상감마마의 탄신일이온데 어찌 떠나려 하옵니까. 령동의 절승을 다 돌아보고 오시려면 줄잡아 보름은 실히 걸리겠사온데…》

《보름은 무슨 보름, 닷새면 능히 되려니. 가고오는데 하루씩 하여 이틀, 구경하는데는 사흘이면 족하리라.》

그리하여 임금은 화담과 영랑호, 삼일포를 각각 하루씩 보기로 작정하고 길을 떠났다. 임금의 행차에 시중군들은 말할것도 없고 수많은 궁녀들도 따라섰다.

고성땅에 이른 임금과 수행인들은 눈앞에 펼쳐진 황홀경의 경치에 감탄하며 눈을 떼지 못하였다.

《과연 절경이로다. 과시 신선고장이 분명하도다.》

임금은 선경을 이룬 경치에 반한듯 사방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잔물결 찰랑이는 맑고 푸른 호수가운데 솔섬이 있고 산기슭에서는 눈같이 흰 해오라기들이 한가로이 떠돌고있었다. 그리고 그우로는 이름모를 날새들이 짝을 지어 날아예며 고운 소리

로 노래하니 그 아름답고 그윽함이 선경을 옮겨놓은 한폭의 그림같고 높고낮은 서른여섯봉우리들이 호수둘레를 조화롭게 둘러선것이 마치 옥으로 다듬은 천궁의 화려한 병풍을 내려 장식한것 같았다. 게다가 벼랑우에 활짝 핀 백화가 기암괴석과 짝을 무어 물속에 비낀 그 모습은 또 무엇이라 이를수 없고 볼수록 사람들의 넋을 꿈속의 선경에로 이끌어갔다.

이때 뒤켠에서 감탄속에 소곤소곤하는 궁녀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아이참, 저것 좀 보세요. 저런 아름다운 경치 또 어데 있을가.》

《난 아까부터 저 솔밭에 시름없이 앉아 노니는 두루미만 보고있어요. 너무나 태평하고 순진한 그 모습이 눈물겹도록 부럽기만 하여…》

그들이 말하는쪽을 슬그머니 여겨보니 하얀 모래불에 해당화 곱게 피여있고 그옆으로 펼쳐진 푸르른 솔숲사이에 두루미떼 내려 조으는듯 조용히 앉아있는데 사람을 보고도 그 모습 변치 않고있었다.

임금은 너무도 아름답고 기이하여 깊은 생각에 잠겨 한동안 못박힌듯 서있었다.

그러는 사이 해는 벌써 서산에 기울어 솔숲에 비끼고 노을을 머금은 해당화는 더더욱 붉은빛을 뿌리는데 꽃향기를 실은 산들바람이 임금의 옷자락에 스며들었다.

잠속에서 깨여난듯 임금은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길게 탄식하며 옆에 서있는 시중군에게 물었다.

《대궐안에도 해당화가 많은데 왜 여기서 보는 저 해당화는 난생처음 보는듯 저리도 고우냐?》

시중군이 그 물음에 미처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데 때마침 몽천암의 주지가 올라왔다.

주지는 임금일행을 안내하여 몽천이 있는 뒤끌로 얼마간 올라 넙적한 둔덕진 곳에 이르렀다.

여기서 임금은 또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굳어져버리였다. 눈앞에 펼쳐진 경치가 귀신이 조화를 부린듯 한 신비경을 이루고있었기때문이였다.

참으로 보면 볼수록 새롭고 신비하여 마음마저 건잡을수 없었다.

시중군들의 부추김을 받아 겨우 자리를 뜬 임금은 걸으면서도 다시 돌아보고 섰다가 걸으며 날이 어두워서야 몽천암에 돌아왔다.

임금은 이미 차려놓은 저녁상을 마주하였으나 마음을 진정할수 없어 또 시중군을 불렀다.

《때마침 달도 밝으니 저 하늘 둥근달을 벗삼아 호수를 거닐어보련다.》

시중군은 급기야 따라온 궁녀들을 먼저 호수가에 보내여 놀이를 준비하도록 한 다음 임금을 따라 호수가로 나아갔다.

임금의 마음은 낮과 같이 들떠있었다. 그는 웃으며 독촉하였다.

《얘들아, 호수에 배를 띄워라. 호수속의 사선정에 가보자. 나도 이밤에 사선정에 올라 신선처럼 놀아보련다.》

일행은 임금의 분부대로 배띄워 타고 호수가운데 있는 섬에 세워진 사선정에 올랐다.

사선정에서 부감하는 달빛속의 호수는 참으로 신비경이였다. 분명 신선들이 즐겨 노닐었다는 선경에 이른듯 하였다.

임금은 달빛속에 담긴 웅장하고 그윽한 물우에 비낀 사선정을 이윽토록 바라보다가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물밑은 과시 칠보를 깐듯 하구나. 하늘의 조화가 아니라면 어찌 인간세상에 이런 신비경이 있을소냐.》

임금은 꿈속에 선경을 찾아 신선이 되여버린듯 만시름을 잊고 부어주는 술을 한껏 마시며 시중군, 궁녀들과 어울려 즐

기였다.

임금은 신선놀이를 못 잊어 다음날에도 백사장솔숲에서 해종일 보내였고 또 그 다음날에도 호수주변을 돌아보며 떠날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곳에서 연 사흘을 즐기였다.

그러자 안달이 난것은 시중군이였다.

그대로 있다가는 임금이 왕궁도 잊고 여기에 아예 머물러있을것만 같았다.

시중군은 임금의 기분을 깨칠가 걱정하며 조용히 그앞에 엎드려 아뢰였다.

《상감마마,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이곳에 머문지 벌써 사흘이 지났소이다.》

그 말에 왕도 흠칫 놀라며 아쉬운듯 서글피 웃으며 말하였다.

《아 참, 그렇구나. 내 난생처음 보는 절경에 취했나보다. 다른데는 그만두고 래일로 돌아가자.》

그리고는 여느때없이 다정한 표정으로 시중군들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다른데를 못 보았다고 내 아쉬워하지 않는다.

내 왕좌에 올라 몇해 지났건만 내 나라가 이토록 산천경개 아름다움을 미처 몰랐구나. 나는 이번 행차에 황홀경치에 경탄했을뿐아니라 마음속 티끌마저 깨끗이 털어버리였다.

이제 내 마음속엔 금강산의 절경에서 받아안은 이 나라 넋이 깊이 뿌리내렸구나.》

다음날 아침 임금은 귀로에 오르기에 앞서 금강산을 그대로 마음속에 안고 살려는듯 되돌아보며 말하였다.

《단풍드는 계절에 잊을수 없는 이 호수를 내 다시 찾으리라.》

이처럼 왕이 하루를 예정하고 왔던 호수가에서 신비경치에 매혹되여 사흘을 묵고 갔다고 하여 그 이름을 삼일포라 부르게 되였다고 한다.

하기에 하늘의 신선들마저 이곳에 내려서는 춤추고 노래부르며 즐기군 하였다는 전설을 하많이 남기고있는것이다.

우리는 먼저 삼일포어구에 있는 장군대에 올랐다.

장군대에 오르니 삼일포의 전경이 한눈에 굽어보였다.

강사의 개괄강의를 통해 이곳은 1947년 9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기 장군대에 오르시여 아름다운 삼일포의 절경을 부감하신 뜻깊은 사적이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싸창으로 물오리를 쏘신 사격장소며 호수우에 떠있는 붉은 삼각표식을 보고 그이의 백발백중의 사격솜씨에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삼일포와 더불어 영원히 전해갈 불멸의 이야기였다.

그날의 뜻깊은 사적을 숭엄하게 품어안은 금강산 삼일포의 수려한 산발은 깊이 머리숙이고 고요한 삼일포의 물결은 마냥 기쁨에 설레이고있었다.

이날따라 호수는 어찌나 잔잔한지 흡사 거울같았다.

호수가운데는 소나무숲이 우거진 두개의 크고작은 섬과 물우에 머리를 내민 금강산특유의 화강암들이 있었다.

호수의 서북쪽에 솟은 봉우리로부터 뻗어내린 크고작은 봉우리들이 아늑하게 둘러앉아 거울같은 호수를 에워쌌는데 동쪽으로는 벌판을 사이에 끼고 동해의 해안선과 멀리 해금강의 기암들이 바라보였다.

호수둘레의 여기저기에는 참대가 무성한 숲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손수 정원에서 가꾸신 72그루의 참대모를 보내주신것이 퍼져 그렇게 된것이라고 한다.

72그루의 그 참대는 지금 300여정보의 땅에 무성한 숲을 이루어 자연을 아름답게 해주고있었다.

장군대에 올라 삼일포의 전경을 한눈에 부감한 우리는 장군대끝안에 있는 허궁다리를 건너 봉래대에도 올라가보았다.

봉래대아래에는 경사진 암반우에 《ㄱ》자형의 큰 바위가 얹혀져 만들어진 깊지 않은 굴이 있었는데 여기가 바로 16세기의 이름난 시인이며 명필인 양봉래가 공부하였다는 《봉래굴》이다.

후세사람들이 양봉래의 이름을 따서 그가 공부하던 굴을 봉래굴, 그가 노닐던 그우의 넙적한 반석을 봉래대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

굴안에 들어가보니 바위벽에는 삼일포의 아름다운 경치를 초서체로 활달하게 갈겨쓴 양봉래의 7언절구시 한수가 새겨져있었다.

거울속에 피여있는 련꽃송이 서른여섯
하늘가에 솟아오른 봉우리 일만이천

그사이에 놓여있는 한쪼각 바위돌은
바다찾는 길손들 한쉼 쉬기 알맞구나

우리는 봉래굴을 돌아보고나와 봉래대에 올라섰다.

봉래대는 장군대와 련화대사이에 반도처럼 호수가로 나앉은 바위산으로서 호수의 전경을 한눈에 굽어볼수 있는 곳이였다.

아래로 밋밋이 내려깔린 넙적한 반석에는 100여명의 유람객들이 한꺼번에 서있을수 있었다.

봉래대에서 사방을 둘러보니 산허리에 구름을 휘감고 창공높이 아아하게 솟아있는 금강산의 1만 2천봉우리가 굽어보이고 거울처럼 반짝이는 삼일포의 잔잔한 수면우에 그 아름다운 자태를 비껴주어 말할수 없는 정서를 안겨주고있었다.

록음우거진 산봉우리들과 바위들, 섬들이 또한 호수에 령롱한 그림자를 비끼고 떠가는 구름도 물속으로 흘러들어 그야말로 거울속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호수의 풍경이였다.

가볍게 불어오는 해풍에 수면우로 잔잔한 파도가 물결칠때면 물우에 비낀 서른여섯봉우리들도 함께 춤추며 일렁거리는데 한가로이 날아예던 갈매기들이 물우에서 깃을 치며 자맥질을 하고있는 풍경은 우리들을 취하게 하였다.

봉래대에서 호수의 풍경을 넋없이 관망하고난 우리는 호수가를 한굽이 돌아 왼쪽에 우뚝 솟아오른 흰 바위봉우리들의 가파로운 산길을 톺아올랐다.

그런데 문득 금강문쪽에서 들려오는 청아한 피리소리!

옛날에 왔던 네 신선이 다시 오지는 않았는가!

피리소리는 고요히 수면우로 비껴간다. 잔잔한 호수와 피리소리는 한결 어울린다.

그 누가 부는가 궁금하여 견딜수 없는듯 강계청년발전소 조립직장청년이 송림속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여!》 하고 소리를 치고는 같이 온 동무들에게 《평양전기기계공장에서 온 동무요!》 하고 알리자 일동은 일어서서 손을 흔들어보이며 물녘으로 달려간다.

우리는 삼일포절경을 돌아보는 정신에 피곤한줄도 모르고 전망대의 가파로운 벼랑길을 톺아오르고 내리다가 한여름 정오의 따가운 해빛을 받으며 호수가에 내려와 뽀트에 올랐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호수의 물결에서 풍겨오는 랭기는 벼랑길을 톺으며 달아올랐던 몸을 한결 식혀주었다.

이따금씩 불어오는 해풍은 잔잔한 수면우에 잔물결을 일구고 이마에 송글송글 돋아있는 땀방울을 말끔히 가셔주었다.

뽀트에 올라 노를 저으며 호수를 마음대로 흘러보아야 삼일포의 진맛을 알수 있다더니 과연 호수는 가없이 넓어보이는데 푸르청청한 소나무에 둘러싸인 장군대와 봉래대, 련화대를 비롯한 호반의 36개의 크고작은 메부리들이 호수를 옹위하듯 둘러싸고있어 옛 성인들의 말대로 《심산속의 호수》라 할만도 하였다.

대동강의 배놀이도 류다른 정서를 자아내지만 여기 삼일포에서의 배놀이도 그에 못지 않은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호수는 관광객들의 노래소리와 웃음소리로 떠들썩했다.

뽀트를 타고 한굽이를 돌면 우뚝 솟은 흰 바위무지의 봉우리가 보이는데 이것이 련화대였다.

호수에서 올려다보면 5개의 큰 바위가 서로 각이한 높이로

둥그렇게 모여섰는데 그 모양이 마치 련꽃처럼 보인다고 하여 바위를 《련꽃바위》라고 부르고 거기에 있는 전망대를 《련화대》라 이름지었다고 한다. 련화대에는 민족적형식의 아름다운 단청무늬로 장식한 정각이 있다.

련화대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느라면 한쪽으로는 해발을 받아 반짝이는 외금강의 웅장한 모습이 안개속에 우렷이 안겨오고 다른쪽으로는 해금강의 수려한 절경이 비단우에 보석을 뿌려놓은듯 아름답게 펼쳐진 절경이 한눈에 안겨든다.

그야말로 삼일포에서 으뜸가는 전망대라 할수 있었다.

련화대를 내려 다시 뽀트를 탔다.

삼일포에서 제일 큰 섬이 와우도이다.

푸른 소나무숲으로 덮여있는 이곳의 동쪽기슭에서 참대가 자라고있었다.

옛날에는 몇그루의 해묵은 소나무가 서있다고 하여 《송도》라고 불리웠으나 그 생김새가 마치 소가 누워있는듯 하다고 하여 와우도로 불리우게 되였다고 한다.

와우도의 반대편 기슭에는 여러개의 작은 돌섬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랜 전설이 깃들어있다는 단서암, 사선정, 무선대이다.

우리는 노를 저어 호수안의 섬들가운데서 제일 크다는 와우섬을 돌아보고 신선들이 와서 춤을 추며 놀았다는 무선대며 사선정터, 신선들이 글을 남겼다는 단서암이 있는 돌섬들도 돌아보았다.

단서암은 여러개의 길죽한 바위로 이루어져있었다.

옛날에 신선들이 하루를 놀리라 생각하고 이곳에 왔다가 경치가 하도 좋아 3일동안이나 술을 마시며 춤추고 노래하며 즐겁게 놀다가 저들의 삼일포놀이를 기념하여 정각을 세우고 《술랑도남석행》이라는 글을 석자씩 두줄로 바위에 새겨넣었는데 글자들이 붉은색을 띤다고 하여 《단서암》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이 단서암을 보려고 당시의 량반관리들이 수없이 이곳을 찾아왔는데 그 시중과 접대비에 시달리던 이 고장 사람들은 이 단서암을 돌로 짓쪼겨 물속에 처박아넣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단서암은 이러한 전설을 간직한채 거치른 세월의 흐름속에서 깨지고 없어져 겨우 흔적만을 남기고있었던것이다.

단서암은 물속에 잠기여 심히 가물때만 알아볼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단서암꾁대기에는 비석을 세웠던 흔적이 있는 《매향비》터가 있었다.

돌섬까지 돌아보고난 우리는 석선문(삼일포 금강문)을 찾아 호수기슭에 배를 대고 뭍에 올라섰다.

호수의 한쪽기슭은 백사장으로 되여있는데 그뒤에는 잔디밭과 울창한 소나무숲이 있었다.

백사장길을 걸어 소나무가 울창한 숲속에 들어서니 긴의자들이 듬성듬성 놓여있어 쉬기에 알맞춤한데 한켠에는 샘터까지 있었다.

이 샘이 바로 이곳에 절을 지었던 중이 꿈에 찾아냈다는

유명한 샘 몽천이였다.

탐승길에서 흠뻑 땀을 흘린 뒤라 심한 갈증을 느끼고있던 우리는 샘터에 놓은 쪽박으로 샘물을 떠마셨다.

오장륙부가 다 시원해났다.

샘물맛은 과연 듣던 그대로 달고 찼으며 향기까지 풍기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몽천과 결부된 전설이야기를 들으며 한숨 쉬고나서 산둔덕으로 얼마쯤 올라가있는 석선문을 찾아 떠났다.

삼일포의 금강문으로 알려진 석선문은 주변에 고래등같은 바위들이 이리저리 눕고 서고 한가운데 류달리 큰 두개의 바위가 량켠에 같은 높이로 마주서있고 그우에 한개의 넙적돌이 그 누가 묘하게 올려놓기라도 한듯 지붕같이 반듯하게 얹혀있는 천연의 돌문이였다.

금강문을 나서니 의좋게 서있는 해금강의 작은 섬들이 금시 손에 닿을듯 눈앞으로 다가들었다.

남강하류 바다기슭에 초병인양 우뚝 서있는 대봉이며 영랑호와 감호를 량팔에 끼고 앉은 구선봉의 숭엄한 모습도 뽀얀 안개속에 우렷이 안겨왔다.

금강문을 조금 지나 발밑을 굽어보니 옛날사람들이 새겨넣은 글자들이 거꾸로 되게 놓여있는 길죽한 바위가 있었다.

강사는 이 바위가 원래 금강문뒤에 서있던 바위였다고 하면서 바위에 새겨진 《암파》라는 글에 담긴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전설

《어둠은 개여질것이다》

일제가 패망하기 전해의 늦겨울에 있은 일이다. 금강산은 아직도 흰눈에 덮여 개골산으로서의 기이하고 거창한 모습을 한창 자랑하고있을 때였다.

밤도 퍼그나 깊어 사람들은 하루의 고된 로동의 피곤을 풀려고 잠자리에 드러누웠다.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었다. 바다마저 조용하여 때때로 쏴ㅡ 하는 파도소리가 간격을 두고 잠든 바다가마을의 고요를 깨뜨리며 들려올뿐이다.

그런데 이밤 이 고요한 마을에 갑자기 대풍이 불며 먹장같은 구름을 몰아오더니 《짜르릉!》 하는 천둥소리가 울렸다. 청천벼락이라더니 엄동설한에 뢰성이 울린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잠자리를 차고 일어나 밖으로 뛰여나갔다.

섬광은 삼일포의 금강문쪽으로 뻗어갔다. 뒤이어 바위가 구는 웅글은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더니 이윽고 아무 일도 없은듯 주위에는 또다시 고요한 정적이 깃들었다.

다음날 아침이였다. 날씨는 맑게 개였는데 갑작스레 불어왔던 설한풍도 잦아져 겨울날씨치고는 한결 따사로왔다. 사람들은 모두가 간밤에 번개치던 삼일포쪽으로 몰려갔다.

그런데 금강문의 뒤켠에 있던 집채같은 바위가 갈라져 밑에 굴러나있었다.

《이 바위가 벼락을 맞았는가부지.》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떨어져나간 바위를 두루

살펴보았다.

옛날 량반들이 이곳에 놀러 왔다가 새겨놓은 이름들이 거꾸로 서있는것밖에 다른 그 어떤 변화된 점을 찾아볼수 없었다. 그때 금강문 앞켠에서 웬 사람이 소리쳤다.

《여기에 처음 보는 글자가 새겨져있소. 누구 글을 아는 사람이 없소?》

사람들은 그 말에 문앞으로 밀려갔다. 분명 그것은 새로 새겨진 글자였다.

《무엇이라고 썼소?》

한사람이 성급하게 물었으나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발돋움을 하면서 목을 길게 빼들고 신기한 눈길로 새로 새겨진 글자를 눈여겨볼뿐이였다. 글을 아는 사람이 없었던것이다.

《저 글자뜻을 알아야 할게 아니오?》

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까왔다. 사람들이 서로 자기 생각에 잠기여 안타까운 심정을 터치고있는데 한 로인이 정중한 어조로 말하였다.

《살길이 열린다는 뜻인가보오.》

모두의 눈길이 로인에게로 쏠리였다.

《암파라고 썼소. <어두울 암>자에 <깨여질 파>자를 적었으니 이어놓으면 어둠이 깨여지고 광명이 온다는 뜻으로 되오.》

로인의 이 말에 주위는 물뿌린듯 조용해졌다.

《이것은 왜놈의 통치가 끝장나고 우리 나라가 해방된다는 뜻일수 있소. 하늘이 알려주는 상서로운 예언이니 왜놈이 망하는게 틀림없을게요!》

로인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였다.

암파에 대한 이야기는 날개돋친듯 삽시에 온 금강산에 퍼졌다.

삼일포가 암파이야기로 들끓고있던 어느날 또 하나의 격동적인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것은 백두산에서 싸우고계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예언하시는 암파라는 두 글자를 손수 써놓으시였다는것이였다.

이 소문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삼일포로 모여들게 하였다.

삼일포는 호수의 절경으로 하여 흔히 여름철에 흥성거렸었지만 눈길을 헤치고 얼음장으로 굳어진 호수를 가로질러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는 삼일포가 생긴이래 처음 있은 일이였다.

바빠맞은 왜놈들은 급기야 경찰들을 파견하여 암파글자를 깎아버리고 사람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느라고 일대 소동을 벌리였다.

그러나 글자가 지워진 다음에도 주석님께서 쓰시였다는 글자의 흔적이나마 보려고 모여드는 사람들의 물결은 그치지 않았다.

이 전설같은 이야기는 신통히도 그대로 들어맞았다.

다음해 8월에 삼일포인민들은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하였던것이다.

....

전설에는 일제강점시기 망국의 어둠을 가시고 해방의 광명을 애타게 소원했던 우리 민족의 절절한 소망이 력력히 어려있다.

삼일포는 경치도 절경이였지만 거기에 깃든 전설 또한 모두다 감명깊은 이야기들이였다.

금강문에서 바라보이는 해금강의 절경에 취하여 오래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있던 우리는 아쉬운 마음안고 다음로정을 이어갔다.

몽천이 있는 백사장기슭에 돌아와 다시 배에 오른 우리는 호수의 남쪽기슭으로 수십리 호수둘레를 한바퀴 돌아 장군대에 다시 올랐다.

참으로 삼일포는 어데서 보나 흠잡을데 없었고 보면 볼수록 탐나는 절경속의 절경이였다.

그 황홀한 경치에 매혹되고보면 사흘이 아니라 석달을 여기서 놀지라도 싫지 않을 명승중의 명승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났다.

산좋고 물맑고 공기신선한 련화대엽 산중에 천막을 짓고 살아도 삼년을 살고싶은 심정이니 왜 그렇지 않으랴.

아름다움의 《특제품》－총석정

바다기슭에 높이 솟은 모난 돌기둥들이 각이한 각도로 서기도 하고 눕기도 하면서 톱날처럼 뾰족뾰족한 희한한 모습으로 늘어서 웅장한 산악미를 이루고있는 총석정!

선과 선의 아름다운 조화며 푸른 바다와 검은 바위의 색조, 수평과 수직의 조화로운 결합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참으로 총석정은 금강산을 탐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된 《특제품》이다.

이 《특제품》을 해금강탐승의 길에서 만났다.

총석정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려관에서 하루밤을 보내고난 우리는 이튿날 아침 해뜨기 전 첫새벽에 총석정으로 나갔다.

총석정에서 제일가는 경치라는 해돋이구경을 하기 위해 산릉선을 타고 끝머리에 이르니 산등성이가 둥실하게 도드라져 바다전망이 좋은 곳에 정각이 아름답게 들어앉았다.

정각에서 총석정의 경치를 바라보니 눈서리와 세찬 바다바람을 이겨내며 바위틈에 억센 뿌리를 내리고 사철 푸르싱싱하게 자라는 소나무들의 풍치와 세차게 밀려오는 물결이 돌기둥에 부딪쳐 수천갈래의 물줄기와 물보라를 일으키는 모양이 그야말로 장관이였다.

검푸른 파도가 밀려들어가서는 시꺼먼 바위기둥들의 아래도리를 물고뜯으며 허옇게 부서지는 벼랑끝에서 바다를 굽어보느라니 눈뿌리가 아찔해지고 정신이 어질어질해났다.

푸름히 밝아오던 동녘이 불그레 물들여지더니 하늘과 바다가 맞붙은 경계선이 점차 붉은색으로 선명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붉은 노을은 점점 구획을 넓히며 진해지는가싶더니 잠시까지 조용하던 하늘과 잇닿은 바다수면은 끓는 가마속에서 사품치는 물처럼 부글부글 괴여올랐다.

이윽고 바다수면우로 이글이글 타번지는 붉은 덩어리가 그 어떤 거인이 물속에서 두손으로 받쳐들고 버쩍 올려밀기라도 하듯 불끈 머리를 솟구기 시작하였다.

총석정의 장관에 대해 18세기 실학자이며 문인이였던 박지원은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하늘가에 갑자기 찡그리며
제 힘껏 떠밀어올려 기운 부쩍 돋구는구나
아직은 덜 둥글고 길죽하고 단지같다
물이 삐여져나오는데 출렁소리 들리는듯
만물을 돌아보니 어제 보던 그대로다
어느 뉘가 두손으로 번쩍 들어올렸는가

사품치는 바다물결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글거리는 이 불덩어리를 삼켜보려는듯 요동치는데 솟아오르는 태양은 점점 더 제 모양을 완연히 드러내며 바다속에서 서서히 솟구쳐올랐다.

붉게 익다 못하여 노랗게 이글거리는 그 기상은 바다물을 통채로 끓여 증기로 날려버릴것만 같다.

그런가 하면 태양의 그 놀라운 광채를 받아 총석정의 돌기둥들은 물론 하늘과 바다의 모든것이 붉게 물들여지는 일대 장관을 이루었다.

잠시후 이그러졌던 제 모양을 둥실한 모양새로 가다듬더니 이글거리는 태양은 바다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짓는듯 환하게 빛을 뿌린다.

사품치던 바다도 이제는 기진맥진한듯 조용한데 거울같은 바다수면은 해빛을 받아 유난히도 반짝인다.

총석정의 아름다움은 역시 만경창파의 아름다운 동해바다를 헤치고 눈부신 아침해가 빛을 뿌리며 솟아오르는 총석정

의 해돋이에 있다.

해돋이광경에 넋을 잃었던 우리는 정각을 내려 총석정을 돌아보았다.

총석정에는 금강산의 만물상과 같은 여러가지 형태의 바위들이 있었는데 그 바위들마다에 아름다운 전설도 깃들어 있다고 한다.

차렷자세를 취하고있는 4개의 거대한 립총들이 고르로운 키에 질서있게 서있는데 이것을 사선봉이라고 한다.

옛사람들은 4개의 커다란 돌탑을 돌속에 세워놓은것 같다고도 말했고 어떤 힘장수가 조선동해의 경치가 하도 좋아 이 바다기슭에 돌정자를 지으려고 세워놓은 기둥이라는 전설도 있다고 한다.

수십개의 립총(바위)들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것이 이 4개의 큰 돌기둥들인데 그것들이 바다물우에 차례차례로 줄지어 서있는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다.

어떤 힘장수가 총석을 베여 룡궁까지 다리를 놓다가 총석정의 아름다운 경치에 매혹되여 그만두었다는 돌다리, 의좋게 서있는 부부암, 거부기를 닮았다고 하는 거북바위 등에도 전설들이 깃들어있다.

수많은 모난 기둥들이 참빗살처럼 그쯘히 늘어선 봉우리들은 거의 모두 크기와 높이가 비슷비슷하다.

돌기둥들은 모두가 6각 혹은 8각, 5각, 4각으로 되여있는데 모가 반듯하고 곧으며 미끈하게 생겼다.

길게 혹은 짧게, 세로 혹은 가로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흩어져있기도 하여 총석들은 참으로 신기한 절경을 이루고있다.

바다쪽으로 좀더 가면 새로운 경치가 펼쳐지는데 그것은 들락날락한 바위산의 절벽이 마치 고운 천을 주름잡아 세워놓은것 같다.

여기에 해빛이 비치면 반사되여 어떤 곳은 눈이 시도록 은빛을 뿌리는가 하면 검은색으로도 변하고 또는 붉은색으로도 변하는데 말그대로 전설의 진주탑을 방불케 한다.

립총을 이루고있는 매개 새끼돌기둥들은 거의 같은 쌍둥이들인데 그 높이가 15～20㎜에 이르는것도 있다.

한 립총기둥에 이런 꼭같은 새끼기둥들이 10여개 또는 수십개씩 한데 묶어져 바다물우에 솟아있는 풍경은 마치 옥돌바위를 자르고 다듬어 세운것 같기도 하다.

총석정벼랑에 바다제비, 바다오리들이 둥지를 틀고 갈매기들과 여러가지 새들이 날아드는 풍경은 총석정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구어주고있었다.

총석정과 그 부근의 섬과 해안은 모두 총석으로 되여있어 특색을 이루고있을뿐아니라 바위틈에 소나무까지 자라고있어 기암, 청송, 창파라고 말한다고 한다.

주변바다는 전복, 해삼, 송어, 삼치, 문어, 도미를 비롯한 고급어족들의 집중살이터로서 물고기자원이 풍부하다고 한다.

총석정을 돌아보고 우리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출렁이는 파도우에서 배를 타고 총석정일대를 바라보느라면

자연이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정교로왔다.

사선봉과 함께 여러 기암괴석들이 있는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갔다는 동굴도 있었다.

동굴은 립총이 끝나고 돌기둥들이 바위벼랑을 이룬 곳에 5～7㎜의 길이를 가진 굴을 이루었는데 바위천정이 해빛을 가리고있어 파도에 흐느적이는 검푸른 물결은 선녀들이 목욕을 했을만 하게 눈길을 피해 앉았고 깨끗하고 시원도 해보였다.

총석정에서 얼마쯤 떨어진 곳에 자연동굴인 금란굴이 있었다.

벼루돌이 유명하여 옛날에는 각지에서 많은 서생들이 여기에 와서 벼루돌을 가져갔다고 하는 련대봉 서쪽기슭 절벽에 뚫린 바위굴이 바로 금란굴이다.

주변에 있는 바위들은 그 무엇을 암시하고있는듯 기기묘묘하였다.

석벽의 돌들은 모두 총석처럼 곧고 면이 깨끗했으며 섬바위 등성이에는 땅우에서도 잘 자라지 않는 리대(참대일종)가 신기할 정도로 자라고있어 보는 사람들을 경탄케 하였다.

총석정의 기묘한 경치에 비하면 외형상으로는 볼것이 없지만 그속에 깊이 간직한 금란(불로초)은 이곳에밖에 없다고 한다.

금란(불로초)이 있다는 이 굴은 물이 출렁거리는 기묘하고 신비로운 구조를 이루고있고 불로초까지 난다고 하여 예로부터 시와 노래로 전하여오는 특이한 명승지이다.

금란굴에 들어가면 천정바위에 잎사귀가 방울꽃잎새처럼 생기고 대칭이 되게 붙어있는 이름모를 식물이 3～4포기 탐

스럽게 자라고있다고 한다.

어느때 그 바위에 뿌리박고 자랐는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바위가 쩡쩡 얼어터지는 동지섣달 엄동설한에도 푸르싱싱 살아있고 사나운 동해의 풍랑이 삼킬듯 덮쳐들어도 끄떡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왕가물에도 시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어찌된셈인지 예나 지금이나 포기수는 늘지도 줄지도 않고 풀은 시들거나 마르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감로수(신선들이 마신다는 이슬)를 자양분으로 하고 사는 《불로초》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

이 신기한 풀이름은 금강산이 해외에 이름을 떨칠 때에 함께 이웃나라들에 전해졌다는것이다.

《이 불로초를 금란이라 불렀기때문에 굴이름도 금란굴이라 한다는 전설도 있답니다. 금란굴에는 <불로초>와 관련된 전설도 있지요.》

강사가 이렇게 운을 떼더니 전설중 하나를 이야기해주었다.

전설

《 금란굴의 불로초 》

… 옛날 옥황상제의 령을 받고 금란초를 얻기 위해서 선녀가 땅에 내려왔다고 한다. 금란초를 찾아 여기저기를 헤매던 선녀는 그만 벼랑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고말았다.

그 선녀를 살려낸 은인이 총석정바다가마을에서 사는 장쇠라는 총각이였는데 어떤 굴에서 자라던 풀을 선녀에게 먹였다고 한다. 그 풀을 먹고 정신을 차린 선녀가 총각을 따라 굴안에

가보니 거기에 옥황상제가 말하던 금란초가 자라고있었다. 이때부터 이 굴을 금란굴이라고 부르게 되였다는것이다.

여기서 금란이란 금과 같이 귀한 풀이라는 뜻이다.

불로초가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금빛란초라는 말도 사실일가?

옛날부터 동해의 정기로 피여난 금빛란초는 우리 선조들이 몹시 아끼고 사랑하여왔다.

뿐만아니라 신기한 금빛란초는 함부로 사람들을 접근시키지 않았으니 죄를 지은 사람이나 마음이 결백하지 못한 사람은 아예 근방에도 가지 못하게 풍파를 일구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런 전설도 있다.

… 지금으로부터 1 000여년전에 있은 일이다.

새로 룡좌에 앉게 된 보로국의 임금에게는 지울수 없는 새로운 근심이 생겼다.

그 하나는 말갈족의 공격이 세차서 나라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었던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사랑하는 외동딸의 병세가 악화된것이였다. 그 어떤 약을 써도 딸의 병은 낫지 않았다.

그는 딸의 병이 낫기만 하면 곧 딸을 말갈족 추장에게 후실로 주어 추장을 매수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타산하고있었다. 그러고보니 딸의 건강은 나라의 안녕과 관계되는 문제로 되였다.

이 외동딸의 중한 병을 고쳐줄 명약을 찾다가 해동국의 신산—금강산에 불로초가 있다는것을 알고 대신들과 의논하였다.

사연을 알게 된 한 대신이 엎드려 아뢰였다.

《듣자오니 금란초(불로초의 다른 말)는 하두 신비스러운 풀

이여서 누가 뜯자고 하면 곧 큰 풍랑을 몰아와 접근할수 없게 한다고 하니 뜻을 이루기 어려울가 념려되옵니다.》

이 말에 왕의 얼굴색은 흐려졌고 실망과 노기로 살결이 푸들푸들 뛰였다.

하긴 그자신도 이 일이 위험하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듣건대 바다길로 갔다가 무사히 돌아온자 없다 하며 륙로로 금란굴에 이르는 련대산의 12개 돌문을 넘어선자 없다고 하지 않는가?

오죽하면 불로초가 내외에 알려진지 수백년이 지난 오늘에도 의연히 무사하랴? 그렇다고 하여 이 모험을 사직의 안녕에 비길수는 없는것이였다.

왕은 재상이 수십명의 사람들과 식량, 기자재를 실은 배를 타고 금란굴로 가게 하였다.

배가 서서히 금란굴에 와닿았다. 륙지로부터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바다도 잠자는듯 조용하고 실오리만 한 파도조차 일지 않았다.

일이 잘되여간다고 생각한 재상은 장공인들을 작은 배에 태워가지고 직접 금란굴입구에 갔다.

우로 쳐다보니 과연 이상한 풀이 3～4포기나 탐스럽게 자라고 있었다. 이제 손을 내밀기만 하면 자기것으로 잡히는것이다.

배에는 재빨리 사다리가 놓여지고 한다하는 채집명수들이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사다리에 게바라오르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였다.

해별이 쨍쨍하던 하늘에서 금강산의 보물을 훔치러 온 놈들에게 천벌을 내리듯 천둥소리가 지동하고 먹장구름이 휘몰아치

더니 산같은 파도를 일구어 배를 뒤집어놓아 불로초를 캐내기는 고사하고 모두 바다물에 수장되고말았다. 두번째 파도는 동굴앞에 멀찌감치 서있던 범선을 몰아오더니 칼날처럼 모난 금란굴의 총석바위에 들이박아놓았다. 배는 박산이 나고 그우에 탔던 놈들은 모두 물속에 처박혔다.

금란굴 불로초는 그 이후부터 그 어떤자도 넘보지 못하게 되였으며 수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보존되고 금란굴은 금강산을 지켜선 《초병》으로 되였다.

금란굴의 불로초이야기는 꾸며진 하나의 전설에 지나지 않으나 조국의 일목일초를 사랑하며 침략자에 대해서 무자비한 겨레의 애국적감정을 금강산의 신기한 자연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

그러는새 어느덧 금란굴입구에 도착하였다.

혹시 아직도 여기에 금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호기심을 안고 우리는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돌기둥의 색조가 마치 중이 입은 옷(금란)과 같다고 하여 이 굴을 금란굴이라고 했다더니 현무암기둥을 한칼로 도려낸것 같은 굴속은 이상한 이끼로 하여 주홍색노을이 엷게 비친것 같았다.

천정을 올려다보면 거꾸로 매달린 돌기둥에 해초들이 붉고 푸른색을 내여 현란하기 그지없었다.

천정우에 피여있는 저것은 무엇인가?

앗! 소리를 지를번 했다.

저것이야말로 금란(불로초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그러나 쪽배가 어찌나 요동을 치는지 자세히 볼 길이 없다.

거머쥘 길이 없는 바위를 그러쥐면 배는 좀 덜 흔들린다.

아무리 보아도 신기할따름이다.

바람과 강추위속에서도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죽지 않는 풀, 그래서 사람들은 불로초라고 했고 그 빛이 이끼로 하여 붉은빛을 띠고있으므로 금란이라고 불러온것이다.

이 류다른 해초는 염기에도 죽지 않고 추위도 견디여내며 겨울이나 여름이나 가림없이 사철 푸르싱싱하게 자라고있다.

금란굴을 나온 우리는 굴의 동쪽바다가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선녀목욕터 바위샘이며 선녀화장터, 톱날같이 삐죽삐죽한 바위돌이 발바닥을 아프게 한다는 아야발바위도 돌아보았다.

금란굴과 그 주변을 돌아보고난 우리는 솔섬앞에 있는 도래굽이에 닻을 내리였다.

재글거리는 정오의 볕을 피하여 도래굽이 바위그늘을 차지하고 앉은 들놀이는 참으로 인상깊었다.

섭을 넣고 볶다가 간을 맞춘 다음 쌀을 넣고 쑤었다는 섭죽은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웠고 맛도 구수한것이 바다에 와서만이 맛볼수 있는 특산물이였다.

금시 펄펄 뛰는 물고기로 해놓은 물고기회는 만문하고 생신한 맛을 주어 남성들의 술안주로 제격이였다.

우리일행은 점심을 푸짐히 치르고난 다음 려관일군들과 흥겨운 오락회로 시간가는줄 몰랐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모두가 달맞이를 하기 위해 총석정정각에 다시 올랐다.

총석정의 또 다른 절경이 우리를 기다리고있었다.

바다물이 설설 끓는듯 한 총석정의 해돋이도 볼만 하고 금비늘, 은비늘 번쩍이며 밀려와 수정체와 같은 돌기둥에 부딪쳐 칠색꽃보라를 날리는 물살이 갖은 조화를 부리는 총석정의 낮풍경도 장쾌하다.

그러나 둥근달과 뭇별들이 유난히도 밝은 빛을 뿌리는 총석정의 밤경치는 류다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황홀경의 극치라고 한다.

사위가 고요하고 물새소리만 간간이 들려오는 동해바다 한가운데서 놋양푼같은 달이 서서히 떠오른다.

아니, 달이 삐여져나온다고 하는것이 정확한 표현일것이다.

아! 티없이 말끔히 씻은듯 한 달이 뜬다. 금방 이슬밭에서 굴러내려온듯 아직도 달에서 이슬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다.

순간 바다는 은파만경으로 뒤설레이고 온 천지가 은빛으로 넘실거리는듯 하다.

총석정에서 바라보니 마치도 사선봉끝에서 달이 솟는것 같다.

낮에는 취옥빛구슬을 휘뿌리더니 밤에는 금빛구슬을 휘뿌린다.

총석정의 달맞이를 구경하지 않고 어찌 총석정을 보았다고 하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흥분을 억제할수 없다.

그야말로 황홀경이였다.

조국의 명산들을 돌아보는 과정에 우리는 저도 모르게 시인이 된듯싶다.

고요한 달빛이 바다의 물결을 타고 넘실넘실 춤을 추며 들어오고 달빛에 반사를 이룬 돌기둥들은 마치 수정을 깎아세운듯 하다.

총석정의 벼랑끝에 서서 아래를 굽어보느라면 돌기둥의 아래부분이 떨어져나가 공중에 떠있는듯 한 환각에 사로잡히게 되며 벼랑우에 둥지를 틀고있는 바다제비, 바다오리들이 한데 어울려 날아예는 풍경은 둥근달이 솟아올라 밝아진 총석정주변의 정서를 한결 부드럽게 해준다.

과시 금강산10경과 관동8경의 하나로, 통천금강으로 자랑높은 총석정의 풍경이였다.

총석정에서 달맞이까지 하고나니 내 조국의 아름다움에 그야말로 흠뻑 취하였다.

정말로 즐거운 내 조국의 하루였다.

《금강산은 살아있는 보석이다》

예로부터 금강산을 1만 2천봉우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부르기 좋아서 1만 2천봉우리요, 똑똑히 셀수 없어 1만 2천봉우리지 실제로 동서로 100리, 남북으로 200리, 강원도의 고성, 금강, 통천에 걸친 넓은 경역내에는 몇만몇천 봉우리가 있는지 알수 없는것이다.

이렇게 하두 많은 봉우리가 모여있으면 개중에는 미운것도 있으리라 생각할수 있으나 실로 금강산에는 그 어느 봉우리 하나, 그 어느 바위 하나 버릴것이 없으며 붙잡았다가 놓고 싶은것이 없다.

하늘을 찌를듯 한 형형색색의 봉우리들, 세상만물의 모양을 닮은 기기묘묘한 괴석들, 물안개를 일구며 무지개를 그리는 무수한 폭포들, 이야기하며 흐르는 옥계수들, 거울같은 늪들, 전설의 숲들, 동해창파우에 수놓은 해금강…

실로 이것은 어느것 하나를 빼여도 안되고 더하여도 안될 완성된 한폭의 조국산수이기도 하다.

이 아름다운 한폭의 그림은 철따라, 때따라, 날씨따라 그 모양을 달리한다. 그것은 이 산을 장식하는 1 000여종의 각종 식물의 조화라고 한다.

그리고 금강산의 모습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한낮에 또 달리 보이는것은 태고적부터 신생계에 걸친 오랜 지질시대에

속하는 여러 종류의 암석으로 되여있는 금강산의 특수한 지질구성에 기인된다고도 한다.

금강산에 날씨조화가 많은것도 이 산이 무릎을 바다가에 담그고 머리를 1 639m나 되는 비로봉에 두었기때문에 해안일기와 고산일기가 수시로 이 산중에서 엇갈리는데 있다.

천하명승 금강산은 그 기묘함과 웅장함, 변화무쌍하고 신비스러운 아름다움으로 하여 예로부터 주변의 여러 나라에도 널리 알려졌다.

금강산이 세계적인 명산으로 어떻게나 소문이 났던지 어느 한 나라의 시인은 《원컨대 고려국에 태여나서 한번만이라도 금강산을 보았으면》 하는 글을 지어 자기의 평생소원이 풀리지 않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였다고 한다.

학술원선생님이 들려주던 금강산의 경치에 매혹되여 죽었다는 외국사람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다.

이야기

《 금강산을 보고 죽은 외국사람이야기 》

고려시기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사신일행중에 정동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일찌기 금강산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죽기 전에 금강산에 한번 가보았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면서 금강산유람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아왔었다.

그러던 그는 조선에 가는 사절단에 망라되게 되자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하였고 사절단이 떠날 날자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 기회에 금강산에 기어이 가보리라 속다짐하였다. 마침 금강산의 유점사에서 큰 불교행사가 진행되였는데 정동은 거기에 참가하게 되였던것이다.

금강산을 찾아 외금강의 초입인 온정동에 들어선 그는 천태만상의 기암괴석을 떠이고 기치창검마냥 거세차게 솟아오른 봉우리들을 쳐다보며 《야!》 하는 외마디탄성을 올렸을뿐 자기의 감개무량함을 표현할 적당한 말을 고르지 못하였다.

동료들이 저만치 앞서나갔으나 떠날념을 않는 그를 지켜보던 역관(통역원)이 《금강산구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벌써부터 그토록 넋을 잃으면 어떻게 다 돌아보시겠소이까. 자, 어서 가십시다.》 하고 손을 이끌어서야 그는 발걸음을 옮겼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금강산구경은 걸음마다 찬탄과 놀라움, 경탄과 부러움속에서 계속되였다. 그는 금강산의 유명한 명소들을 찾거나 전망이 좋은 곳에 올라 한폭의 그림같은 주변경치를 바라볼 때마다 동행한 우리 나라 관리들에게 《금강산은 과시 명산중의 명산이다.》라고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펴들었다.

그러던 어느날 외국사신일행이 내금강의 만폭동에 들어서서 금강대와 백룡담, 흑룡담, 비파담, 벽화담을 지나 보덕암에 이르렀을 때였다.

구리기둥 하나에 의지하여 합각지붕, 배집지붕, 우진각지붕을 차례차례 보기 좋게 머리에 얹고 아슬아슬한 벼랑턱에 붙어있는 보덕암은 금강산의 경치를 더해주며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자랑하고있었다.

사람의 힘으로써는 도저히 이룰수 없다고만 생각되는 이 창조물앞에서 정동은 꿈을 꾸는듯 한 환각에 사로잡혔다. 원래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그는 제정신없이 보덕암에 올랐다. 암자

에 들어선 그는 마치 얇은 살얼음을 밟는것만 같아 가슴이 서늘해졌으며 암자안을 돌아보고는 무아경에 빠졌다.

보덕암의 문을 열고 사슬란간에 의지해선 그는 《이곳이야말로 진짜 부처의 경지임이 틀림없다. 원컨대 여기에서 죽어 조선사람이 되여 오래오래 부처세계를 보았으면 한다.》는 말을 남기고 보덕암에서 내려와 서슬푸른 흑룡담에 훌쩍 뛰여들었다.

누구도 예견치 못했던 뜻밖의 일에 깜짝 놀란 일행은 《앗!》비명을 지르며 방금 그가 뛰여든 담소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검푸른 흑룡담의 물결만이 소용돌이칠뿐 그는 다시 솟구쳐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금강산을 보기가 원이였던 그는 금강산의 절경에 매혹되여 자기의 목숨까지 바쳤다.

……………………………………………………………………………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나라들에도 전해져 금강산은 더욱 유명해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조선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금강산의 그림이라도 볼것을 열망하여 자기 나라에 온 조선사신일행을 앞을 다투어 찾아왔다.

이처럼 금강산이 세상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으로 되고있었기에 조선에 일이 있어 왔다가 금강산을 구경한 사람들은 자기를 행운아로 여기였다.

그가운데는 세계적인 려행가로 이름난 영국의 이자벨라 비쇼프도 있었다.

19세기말에 금강산을 돌아본 그는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세계의 어느 명산의 아름다움도 초월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쓴

글은 한갖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미의 모든 요소들로 가득찬 이 대규모의 계곡은 너무나도 황홀하여 사람들을 마비시킬 정도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더없는 행운아로 여기였다고 한다.

도이췰란드의 한 탐험가도 《금강산의 웅대한 전경, 산체의 대담한 구성, 매달린 절벽, 아직 도끼질한 일이 없는 처녀림, 순결한 폭포, 빨리 흐르는 여울과 깊은 소에서 나타나는 광선과 색채의 변화… 아아! 이 세상 그 어디에 이 신비한 절경과 비교할만 한 곳이 있겠는가.》 하고 극구 찬양하였다고 한다.

또한 일본사람들도 《일본의 명승지들인 야바계곡과 묘기산, 마쯔시마의 경승을 후지산밑에 모아놓더라도 아직 금강산의 경승과 겨루기에는 모자랄것이다. 금강산의 절승은 백개의 묘기산, 천개의 야바계곡을 합친것보다도 낫다.》고 탄복하였다.

어느 한 외국인은 《미국의 국립공원인 요세미트 그란드 카니온에 가보지 못한 사람과는 산수를 론할수 없다고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알프스, 곤륜산줄기의 준봉들에 올라보지 못한 사람과는 산수를 론할수 없다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 시대도 지나가고 이제는 금강산에 오르지 못한 사람과는 산수를 론할수 없는 시절이 되였다.》고 하면서 금강산을 세계 제일의 명산으로 높이 찬양하였다.

또한 외국의 어떤 탐승가는 알프스산의 풍경이 반디불이라면 금강산의 풍경은 해양과 같다고 격찬하였다.

로씨야의 어느 한 로기업가는 이미 금강산을 돌아보고 온 동료들로부터 금강산의 절경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을 때

마다 《금강산을 구경했으면 평생 원이 없겠다.》고 입버릇처럼 외우며 날과 달을 보내였다.

그러다가 사업상용무로 조선을 방문하게 된 로기업가는 평생소원이 성취될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어린애마냥 기뻐하며 이번 기회에 이떤 일이 있어도 금강산에 꼭 가보리라 마음다지였다.

그는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게 된 무한한 흥분감에 쌓여 기업과 관련하여 체류과정에 계획한 사업을 마무리도 못한채 일행과 함께 드디여 금강산관광길에 올랐다.

외금강의 초입인 온정동에 들어선 그는 천태만상의 기암괴석을 떠이고 거세차게 솟아오른 봉우리들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발길을 떼지 못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뗀 로기업가의 금강산관광은 걸음걸음이 찬탄과 놀라움으로, 순간순간이 경탄과 부러움으로 이어지고 계속되였다.

유명한 명소와 미묘한 계곡들, 경쾌한 바다풍경과 흰 명주를 떠안은듯 한 폭포들이 련이어 눈앞에 펼쳐질 때마다 세계최고의 명산이라며 엄지손가락을 펴든적은 과연 몇번인지…

그는 금강산을 돌아보는 전기간 완전히 자기를 잊었다고 토로하면서 감상록에 《이곳이야말로 천하제일명산임이 틀림없다. 원컨대 이 몸이 그대로 돌로 굳어져 오래오래 금강산을 보고싶다.》고 피력하였다.

체류기일을 마치고 귀국한 로기업가는 지금도 금강산의 절경을 담은 사진들을 보고 또 보며 금강산에서 받은 커다란 감흥과 추억속에서 날과 달을 보내고있다고 한다.

빛을 잃었던 금강산이 사회주의조선의 명승지로, 세계적관광지로 전변된 후 금강산의 세계적관광미에 대한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의 찬탄의 목소리는 더욱 높이 울리였다.

《금강산은 살아있는 보석이다.

단순히 광선의 굴절을 극대화해 광채를 발산하는 금강석, 다이야몬드가 아니라 뼈와 살과 피로 이루어지고 사계절 옷을 바꿔입는 생명체, 어떤 모조품도 용납하지 않는 청정무구한 보석, 세공되지 않은 금강석, 이것이 바로 금강산이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 산에는 산격이 있다고 한다.

금강산이야말로 산중의 왕으로, 그 품격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중에서도 해금강의 삼일포는 역시 아름다웠다.》

유럽의 어느 한 탐승객은 금강산을 전 지구적관광지로 평가하면서 《오래지 않아 로케트로 려행할 때가 오면 토요일 저녁에 로케트를 타고 이곳에 와서 일요일을 실컷 즐기다가 월요일 아침에 집으로 가군 할것》이라고 격동에 찬 심정을 피력하였다.

그야말로 세계의 추억속에 살아있는 금강산이다.

금강산을 탐승한 세계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한결같이 찬양하여마지 않은것처럼 금강산에서는 알프스산줄기와 곤륜산줄기의 준봉들에 오르는 등산미와 거기에서 뭇봉우리들을 내려다보는 전망미도 맛볼수 있고 요세미트 그란드 카니온에서 맛볼수 있는 산악미와 계곡미 등 세계의 모든 명산, 명승지들에서 감득할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다 감상할수 있다.

금강산은 조종의 산 백두산을 위시하여 우리 나라 명산중에 으뜸가는 명산의 하나로 꼽히고있다.

⌘⌘⌘

3. 묘향산의 기묘함과 향취에 반하여

묘향산이라는 이름은 이 산의 경치가 기묘하고 아름다울뿐아니라 높은 산봉우리들에는 누운향나무, 누운측백나무, 누운잣나무 등이 많아 싱그러운 향기를 풍기면서 사철 메부리들을 아름답게 장식해준다는데로부터 유래되였다.

1 000여년전에 안심사를 세운 탐밀이라는 중이 여기 들어와서 등산길을 개척하면서 오르면 오를수록 산이 묘하고 아름다울뿐아니라 산에 있는 나무들이 싱그러운 향기를 풍긴다고 하여 《묘할 묘》, 《향기로울 향》자를 써서 《묘향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묘향산은 자연경치도 절경이지만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더불어 후세에 길이 전해지는 고적들과 유물들이 많고 또한 뛰여난 명인들의 행적도 깃들어있어 유명하다.

우리는 취재차나 혹은 휴양기간이라든가 여하튼 기회가 생기면 묘향산에 자주 찾아가 그 기묘함과 웅장함에 한껏 빠져들군 한다.

묘향산에 가서 유명한 국제친선전람관도 참관하고 등산을 하면서 산나물을 제손으로 직접 채취해보기도 하며 묘향산의 향취와 맛을 온몸으로 느낄 때의 그 기쁨이란 이루 다 말할수 없다.

천하절승에 탄복하는 상원동등산길

묘향산을 찾는 사람들이 제일먼저 찾는 곳이 있다.

묘향산골안에서도 예로부터 명당자리로 일러온 곳에 자리잡고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이다.

날아가는 학떼와도 같은 합각지붕에는 색갈고운 청기와를 올리였고 바깥기둥머리와 서까래부분은 연분홍색바탕에 목란꽃과 진달래꽃무늬를 단청으로 하고 처마골밑에는 경쾌한 풍경을 달아놓아 바람결에도 은은한 소리가 울려퍼진다.

현대적민족건축술이 집대성되여있는 웅대한 건물안의 전시장들마다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보내여온 수많은 선물들이 대륙별, 나라별로 전시되여있다.

세계에는 영국의 대영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 빅토리아의 알베르토박물관을 비롯하여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각이한 형태의 박물관이 많다. 하지만 한 나라 국가수반이 받아안은 선물들을 나라와 인민의 고귀한 재보로 전시한 그런 박물관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몸소 지으신 시 《묘향산 가을날에》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
사대로 망국으로 수난도 많던 땅에
온 세계 친선사절 구름처럼 찾아든다
5천년력사국에 처음 꽃핀 이 자랑을
금수강산 더불어 후손만대 물려주리

단순한 계산만으로는 국제친선전람관에 진렬된 진귀한 보물의 가치와 무게를 다 가늠할수 없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전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은 그대로 태양의 가치, 태양의 무게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국제친선전람관은 오늘도 세계인민들의 흠모의 상징탑으로, 조국의 존엄과 겨레의 긍지와 자부심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국보적전당으로 누리에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묘향산의 등산길 하면 뭐니뭐니해도 상원동등산길을 꼽는다.

묘향산에는 상원동과 만폭동, 천태동, 칠성동에 이르기까지 등산길이 훌륭히 꾸려져있다.

묘향산은 하도 기묘하고 아름다워 석달을 돌아보아야 다 볼수 있다는 말까지 전해지고있다.

강사와 동행하여 등산할 때에 《제대로 보고 느낄수 있다.》는 비방을 알고있는 우리는 강사의 곁에 바싹 붙어 상원동에로의 등산길에 올랐다.

력사유적 보현사

상원암으로 오르는 길에 대웅전, 만세루, 관음전을 비롯한 10여동의 유적건물들과 8각13층탑을 비롯한 석탑들로 하나의 건축군을 형성하고있는 보현사의 기본구역을 지나게 되였다.

보현사가 생겨난지도 근 천년.

세기와 세기가 계속 엇바뀌는 속에서 오늘도 묘향산 보현사의 력사유적 한점한점은 고색짙은 모습속에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 애국의 넋을 길이 전하고있다.

고려시기 전국각지에 수많은 불교사찰들이 세워졌는데 보현사는 1042년에 세운것이였다.

옛날에는 사찰이름을 지을 때 부처, 보살들의 이름을 따서 짓군 하였는데 보현사라는 이름도 바로 《부처의 도덕》을 맡아보는 보현보살의 이름을 따서 지은것이다.

보현사는 경사진 지대에 조계문, 해탈문, 천왕문을 거쳐서 만세루와 대웅전으로 이루어져있다.

보현사구역에 들어서는 첫번째 문인 조계문을 지나니 100여년을 자란 전나무들과 보현사의 력사를 보여주는 보현사비를 비롯한 여러개의 비석들이 있었다.

그중에는 사찰의 유래를 밝혀놓은 오래된 비석 하나가 있었는데 비석 첫줄을 살피니 《명산가운데 최고가는 산이 묘향산》이라는 내용이였다.

본전으로 들어가는 두번째 문인 해탈문과 세번째 문인 천왕

문을 돌아보느라면 보현사를 건설할 때 했다는 단청의 색갈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원색그대로 보존되여있음을 알수 있다.

그것을 보며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한다.

우리가 묘향산 보현사를 찾았을 때에도 관광객들이 저마다 탄성을 올리며 강사에게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이 단청들이 정말 수백년전에 한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원색그대로 보존할수 있었습니까?》

《이곳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님들처럼 단청이 오래 보존되는 리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묻군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자연계의 조개껍질을 비롯한 아름다운 천연재료들로 이 색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원색이 그대로 보존될수 있었고 부재가 썩거나 좀이 먹는것을 방지할수 있었던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강사는 1949년 10월 묘향산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단청그림도 보아주시면서 우리 나라의 단청술이 대단히 발전하였으며 색소의 질도 높았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이 천정단청을 원상그대로 보존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는데 대하여서도 이야기해주었다.

묘향산의 수려한 풍치와 그늘에 묻혀 수백년세월 잠자던 귀중한 문화재들은 이렇게 절세의 위인들의 숭고한 민족애에 떠받들려 다시 제모습을 찾을수 있었고 길이 보존될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천왕문을 나서면 이 사찰을 처음 지을 때 같이 세웠다는

9층돌탑이 오랜 력사와 조형미를 자랑하며 서있다.

그옆에는 길죽한 큰 잎을 가지고있는 희귀한 구슬피나무와 호함진 꽃을 피워 향기풍기는 황목련이 시원한 그늘을 펼치고있다.

란간을 잇닿은 계단을 밟고 올라서면 고려시기의 건축양식으로 복구된 빨간 배부른 기둥에 모루단청을 한 만세루가 보인다.

보현사의 건물배치형식을 보면 지대가 낮은 건물앞면은 축대를 높게 하고 지대가 높은 건물뒤면은 축대를 낮게 하여 평면을 조성한 다음 그우에 건물을 지었을뿐아니라 일직선상에 놓인 건물들은 점차 크게 하면서도 약간씩 엇비껴 세워서 사찰의 종심이 깊고도 웅장해보이게 한것만 보아도 옛날 우리 선조들이 이런 경사진 지형을 리용하여 집을 지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만세루의 뒤뜰에는 고려시기 발전된 석조건축술을 보여주는 8각13층탑이 바람방울(풍경)을 드리우고 서있다.

8각13층탑은 굳은 화강석을 마치 연한 나무를 다루듯이 섬세하게 다듬어서 쌓기도 잘하고 장식도 잘하였다.

관광객들이 탑에 매달린 방울의 개수를 헤느라 여념이 없었다.

마치도 누가 빨리 세나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던 강사는 《주체38(1949)년 10월 15일 어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이 탑을 돌아보시였습니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탑에 구리종이 모두 몇개인지 알아맞춰보라고 하시였답니다.

함께 왔던 사람들이 구리종을 하나둘 세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이 미처 한돌기를 세기도 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구리종이 한층에 8개씩인데 거기에 13층을 곱하면 모두 104개가 된다고 말씀올리시였습니다.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남달리 뛰여나신 아드님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렇지, 지금 두리가 8각이지,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보았구나라는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스치는 바람결에 탑의 끝머리마다에 매달린 풍경이 은은한 종소리를 달랑달랑 울렸다.

여기 비석 곳곳에 생긴 탄알자국들은 전쟁의 흔적을 과거가 아닌 현실로 증명해주고있었다.

강사의 말에 의하면 해방후 보현사의 본사구역에 수십여동의 많은 건물들과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귀중한 국보유물들이 만여점이나 있었지만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폭격에 의하여 완전히 페허로 되였었다고 한다.

전쟁이 끝난 이듬해에 이곳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페허로 된 보현사를 보시고 몹시 가슴아파하시며 꼭 원상복구하도록 여러차례에 걸쳐 교시를 주시고 복구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도 아낌없이 돌려주시였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 하나의 건축유산도 민족의 귀중한 재보라고 하시며 원상대로 복구해서 후세에 물려주는것은

자신께서 하셔야 할 민족적사명이라고 하시였다는 교시를 전해듣고 우리는 그이의 고결한 민족애, 불보다 뜨거운 조국애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 뜨거운 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보현사는 오늘도 옛모습 그대로 자기의 으뜸가는 위용을 떨치고있는것 아닌가.

보현사의 주지가 살았다는 만수각옆에는 관음전이 있다.

보현사의 관음전에는 민족의 훌륭한 건축술이 그대로 반영되여있었다.

선조들은 기둥의 높이와 지붕의 경사도를 정할 때 한해중에 해가 제일 긴 하지 정오때에는 해빛이 바깥기둥에 비치게 하고 해가 제일 짧은 동지 정오때에는 해빛이 안쪽기둥에 비치게 하도록 함으로써 방안이 여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도록 건물을 지었다.

관음전에는 건물에 련꽃과 란초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환상적인 그림들이 그려진 치레그림들이 있었다.

이 치레그림 하나에도 사연이 있었다.

1981년 5월 묘향산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관음전에 그려진 치레그림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다가 어느 한곳에서 무슨 동물인지 형체를 가려보기 힘든 그림을 유심히 보고 또 보시면서 그림이 명확치 못하다고, 관음전을 보수하면서 과학적고증을 잘하지 못하다보니 원숭이처럼 형상된것 같은데 고증을 잘하여야 하겠다고 가르쳐주시였다고 한다.

사실 불교와 관련된 건물들에는 환상동물들만 그려지는데 유독 그곳에만 자연 그대로의 원숭이가 형상된것은 분명 잘

못된것이였다.

하지만 그때까지 박물관일군들은 물론이고 력사학자들과 단청전문가들도 그림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후에 고증해보니 환상동물인 기린이였다고 한다.

다시 제모습을 되찾은 관음전의 기린 하나를 보면서도 우리는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을 빛내여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를 뜨겁게 절감할수 있었다.

보현사의 수충사에는 서산대사와 사명당, 처영의 화상이 걸려있으며 그들이 쓴 책과 사용하던 유물들이 있다.

이곳은 1592년 임진조국전쟁때 왜적을 무찌르는데 공헌한 서산대사와 관동지방의 사명당, 호남지방의 처영의 공적을 평가하여 1794년에 이들을 제사지낼수 있게 지어진 사당이다.

수충사앞에 《팔만대장경》보존고가 자리잡고있다.

묘향산의 보현사가 예로부터 유명한것은 여기에 세계출판문화사에서 특출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는 《팔만대장경》과 목판활자가 보존되여있기때문이기도 하다.

《팔만대장경》은 1011년부터 1087년까지 판각출판되였다. 그 후 외래침략자들에 의해 불타버렸던 《팔만대장경》을 1236년부터 1251년까지 16년에 걸쳐 세번째로 출판하였다.

《팔만대장경》은 규모의 방대성이나 내용의 정확성, 목판활자의 정교성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완성된 표준대장경이다.

책으로는 6 793권이나 된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팔만대장경>을 나라의 국보로 잘 보존할데 대하여 무려 수십여차례의 교시를 주시였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선봉건왕조실록>구출작전을 지휘하시면서 <팔만대장경>이 걱정되시여 그것을 산속깊이에 있는 금강암에 소개보존하도록 대책을 취해주시였습니다.

세멘트 한g, 벽돌 한장이 귀중하였던 전후에는 <팔만대장경>을 보존할수 있는 2층 돌집으로 된 장경각을 따로 짓도록 하시였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지금의 보존고에 보존되여있었다.

강사의 말에 의하면 원래 이곳에는 2권의 책만 진렬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1989년 6월 보존고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두권만 진렬하면 사람들이 혹시 내놓고 보여줄것이 없어서 그러는것이 아닌가고 의심할수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팔만대장경》이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전부 다 내놓고 보여주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고 한다.

그러시면서 오래 보존하지 못할것 같아 걱정할수 있는데 보존대책만 잘 세운다면 일없다고 하시며 오래 보존할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고 한다.

《그뿐이 아닙니다.

묘향산지구에 장마가 지면 보존고에 비가 새지 않는가 걱

정되시여 깊은 밤 잠 못 이루시며 장거리전화를 걸어도 주시고 일군들을 파견하여 긴급대책을 세우도록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뜨거워오르는 격정을 억제할수 없었다.

그 어느 민족사에 이토록 민족의 재부를 귀중히 여기신 절세의 애국자가 있었는가.

해방직후인 1947년 처음으로 묘향산을 찾으시였던 력사의 그날로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근 반세기동안 단청이며 기둥 하나, 박물관구역의 나무 한그루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애국의 정과 열을 바쳐 지켜주고 빛내주신 어버이수령님.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보현사의 고색짙은 력사유적들과 한점한점의 유물들마다에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숨결이 깃들어있음을 깊이 새겨안을수 있었다.

천연그늘막속의 황홀한 폭포들

사인교를 타고 풍악을 울리면서 산수구경을 오군 했다는 권세높은 량반부자들까지도 절을 하게 만들었다는 금강문을 지나 그늘속에 놓여있는 상원동등산길을 걷느라면 서늘한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밋밋하게 자란 소나무와 참나무, 박달나무와 신갈나무, 물푸레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등산로정은 온통 천연그늘막

이다.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여서 살기때문에 겨울에도 산이 웅장해보인답니다. 이 나무가 박달나무입니다.》라며 강사가 묘향산자랑을 늘어놓는다.

누군가가 《이 박달나무가 서산대사가 지팡이를 만들었다는 그 나무가 아닙니까?》라고 아는체를 했다.

《서산대사가 지팡이를 만든 나무는 박달나무가 아니라 은행나무였습니다.》라는 강사의 말에 머쓱해진 그는 우정 강사선생을 떠보려 했다고 둘러치고만다.

모두가 즐겁게 웃으며 길을 다우쳤다.

길을 가던중 한쪽면이 나무가 적은 곳이 있었다.

일제시기 왜놈들이 금광을 건설했던 곳이였던것이다.

해방후에 묘향산에 금광을 개발하려고 할 때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렇게 되면 묘향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손상을 주게 된다고, 금이 아무리 귀중하다고 하더라도 결코 아름다운 묘향산을 금 몇t과 바꿀수는 없다고 교시하시면서 묘향산골안에 있던 소규모의 금광마저 완전히 페기시키는 조치를 취해주시였다는데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속에도 잘 알려져 있다.

강사는 지금도 묘향산에 묻혀있는 광석의 t당 금매장량이 상당한데 해외동포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누구나 돌을 하나씩 주어간다며 웃는다.

이 말을 들은 우리 역시 길가의 돌을 그저 무심히 볼수만은 없었다.

《우리 묘향산처럼 험한 산이 드뭅니다.

김삿갓이 스무살때부터 방랑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야유하고 조소하는 풍자글을 쓰는 사람인데 묘향산에 왔다가 어떻게 이 아름다움을 시에 안 담겠는가고 하면서 시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강사가 나직이 시를 한수 읊는다.

산은 첩첩 천만의 메봉우리
길은 층층 열걸음에 아홉번 쉬고

묘향산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열걸음에 아홉번은 쉬면서 보아도 다 못 보았다는 이 시는 이름난 풍류시인 김삿갓이 묘향산을 돌아보고 남긴 《묘향산》이라는 시의 일부이다.

본래 시는 넉줄짜리 7언절구시인데 앞 두줄은

평생소원이 무엇이였던가
묘향산에 한번 노니는것이였지

로 시작된다.

시에서도 열걸음에 아홉번은 쉬였다는데 우리는 천걸음도 넘게 걸은것 같은데 아직 한번도 쉬지 못했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강사가 쉬여가잔다.

그러면서 강사는 묘향산의 《결점》 하나를 소개했다.

《우리 묘향산의 결함이라고 할 때 습기가 많은게 <결함>

입니다.

울창하니까 항상 수분이 있고 또 비가 많이 내리는 지대이고 지하수도 풍부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지하저수지를 이루고있습니다.

아름드리나무 한대가 저장하고있는 물의 량이 2t이상이랍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이 산줄기가 마르는적이 없습니다.》

감추고있던 《결점》을 말하는듯 하더니 어느새 묘향산자랑으로 끝을 맺는다.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강사선생 독점한다.》며 볼부은 소리를 하는 바람에 우리는 옆에서 《학습하고있는중입니다.》라며 말을 받았다.

우리와 동행한 강사는 산을 오르면서도 설명을 한다.

발걸음은 다람쥐처럼 가볍기만 하고 묘향산자랑으로 얼굴에서는 노상 웃음이 떠날줄 모른다.

《묘향산에서는 아무리 다녀도 먼지가 몸에 오르는 법이 없습니다.

공기가 맑고 신선합니다.

계곡물은 아무리 마셔도 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너무 차기때문에 목욕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깊은 골짜기에서 폭포수가 쏟아지면서 바위에서 부서질 때 수천개의 음이온이 생겨납니다.

건강에 아주 좋다지 않습니까?》

《음이온이요?》

《음이온이 1초동안에 1 000～3 000개 생겨납니다.

혈압이 높다던가 기관지가 나빠서 기침을 많이 하는분들도 폭포밑에서 30분만 있으면 가슴이 정상상태로 돌아갑니다.》

울창한 수림속을 헤치며 올라가면 산림은 물러가고 앞이 확 트이면서 장쾌한 절경이 펼쳐진다. 우리는 심산속에 묻혀있던 절경을 처음 찾아낸듯 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여 《야!》 하고 환성을 지르면서 절경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신선한 바람이 땀젖은 가슴에 부드러이 스며들었다.

묘향산 룡연폭포

미끈하게 다듬은 돌병풍을 둘러친듯 완만하게 기복을 이룬 절벽이 눈뿌리가 모자라게 솟아있다.

왼쪽의 아득한 절벽우에 룡이 살던 곳이라고 하여 룡소라고 부르는 못이 있었다.

여기에서 흘러내리는 폭포수는 마치 고기비늘과 같은 모양을 이루면서 쏟아져내리는데 흰 비단필을 드리우는듯 하다.

룡연폭포는 묘향산의 수많은 폭포들가운데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묘향산 제일폭포이다.

산의 경사면을 따라 비스듬히 누워있는 흰 너럭바위를 타고 쏟아지는 룡연폭포는 하늘로 날아올라 신선이 되고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상원동의 절경이 하도 아름다워 수수천년을 한자리에 머무르며 떠나지 못하는 《룡의 마음》을 담고 있는듯 하여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낸다.

묘향산 산주폭포

절벽의 한복판에 우뚝 나앉은 둥그스름한 큰 바위우에는 가느다란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몇대 서 있는데 그 바른편으로는 구슬같이 아름다운 물방울을 뿌린다는 뜻에서 산주폭포라고 부르는 폭포가 있다.

폭포아래의 움푹 패인 벼랑밑에는 사철 해빛이 들지 않아 5월초까지도 얼음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주위의 만발한 철쭉

묘향산 천신폭포

꽃, 진달래꽃과 대조를 이루면서 심산의 정취를 한껏 돋구어 준다.

룡연폭포가 누운폭포로서의 특색을 띤다면 산주폭포는 선폭포로서의 이채를 띠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층암절벽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요란한 폭포소리를 내며 구슬같이 맑은 물방울을 흩날리는 산주폭포는 룡연폭포와 함께 묘향산 제일폭포로서 널리 알려져있다.

룡연폭포에서 약 500m정도 떨어진 곳에 천신폭포가 있다.

룡주봉에서 이 폭포를 굽어보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것같이 보인다는데로부터 붙여진 이름이다.

누운폭포로서 두계단으로 이루어진 절벽을 따라 떨어진다.

이렇게 세개의 긴 폭포가 한데 어울려 서로서로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다투는 이곳은 그 어데서도 찾아볼수 없는 거대한 바위와 황홀한 폭포의 세계였다.

산주폭포와 룡연폭포가 합쳐지는 곳에는 암반휴식터가 있다.

고개들어 바라보니 아찔한 벼랑이 막아섰다.

그앞에는 큰돌들이 하늘을 찌르고 일떠서있었다.

서쪽을 바라보면 거인이 푸른 갑옷을 입고 서있는듯 한 바위가 머리를 저으기 숙이고있었는데 그것이 금시 떨어질것만 같아 아슬아슬하였다.

이것이 옛날사람들이 호랑이발자국을 따라 넘었다는 인호대였다.

인호대는 상원암과 법왕봉으로 오르는데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가장 험한 등산길에 위치해있고 바위의 생김도 웅장하고 신비할뿐아니라 묘하게 벼랑턱우에 불쑥 나앉아있어 상원동등판과 골안을 굽어보는 전망도 좋을듯싶었다.

인호대밑에는 옛날 념불을 외우고 올라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떨어져죽는다고 말해온 《지옥길》이 있다.

지금 이 수직벼랑에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오를수 있는 안전고리쇠줄이 두줄로 드리워있다.

우리는 안전고리쇠줄을 부여잡고 암반우에 쪼아놓은 발홈을 밟고 톺아오르면서 절벽의 서쪽등성이에 올라설수 있었다.

인호대우에는 아름답게 지은 인호정이 있다.

이 휴식각은 아슬아슬한 벼랑턱에 기둥을 세우고 지었다.

인호정에 앉아 땀을 들이며 상원골의 절경을 부감하는 우리에게 강사는 방금 우리가 밟고 올라온 이 벼랑길에 봉이

김선달이 량반녀편네들을 골려먹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봉이 김선달은 옛날 신랄한 풍자와 해학적인 수법으로 량반들을 조소하고 골려주기 잘했다는 가상적인 인물이다.

……………………………………………………………………

전설

《량반녀편네들을 골려준 봉이 김선달》

… 어느해 봄 김선달은 묘향산구경을 왔다가 인호대에 오르게 되였다. 이곳에서 굽어보니 아슬한 절벽밑으로는 룡연폭포와 산주폭포가 떨어지고 북쪽하늘가에서는 천신폭포가 흘러내리고있었다.

참으로 장쾌한 경치였다. 절벽가에는 철늦은 진달래와 철쭉꽃이 분홍빛을 뿜고있었고 새로 피여나는 연한 나무잎들은 산발들을 연록색으로 물들이고있었다. 봄의 아름다움이 모두 상원골에 모여있는가싶었다.

그런데 이러한 묘향산의 절경들을 봉건관리들이나 량반들만이 감상하며 즐기고 평백성들은 당장 살아가기도 어려운 형편이여서 이런 구경도 다닐수 없다고 생각하니 량반관리들이 그지없이 미워났다.

김선달이 이런 생각을 하며 절벽밑을 내려다보니 량반녀편네들이 석가모니의 생일제라고 하는 《불탄제》(4월 8일)를 계기로 불공을 드리려고 상원암으로 올라가고있었다. 그들은 《불탄제》를 구실삼아 하인들에게 제물들을 한짐씩 지워가지고 산

놀이를 떠난것이였다.

백성들의 피땀을 짜내여 피둥피둥 살찐 몸을 뚱기적거리며 벼랑을 오르는 꼬락서니를 보니 년놈들에 대한 미운 생각과 함께 그들을 한번 골려먹을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김선달은 재빨리 《지옥길》바위밑으로 내려와 지팽이를 짚고 서성거리고있었다.

드디여 량반녀편비들도 바위밑으로 다가왔다.

김선달은 신중한 안색을 지으며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상원암의 중이 그러는데 이 《지옥길》앞에서는 자기가 지은 죄를 모두 털어놓고 참회하며 빌어야 이 벼랑길을 무사히 올라갈수 있으며 만약 거짓참회하거나 숨기는것이 있으면 부처의 벌을 받아 《지옥길》에서 떨어져죽는다고 하더라는것이였다.

그는 손을 들어 바위우에 《아미타불》이라고 새긴 글발을 가리키면서 이 벼랑길을 오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참회하라고 글까지 새겨놓었다, 그런데 되돌아서면 더 큰 벌을 받아 룡연폭포의 내림길에서 화를 당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의 말을 듣고보니 그럴법도 하였다.

량반녀편비들이 머리를 들어 올려다보니 깎아세운듯 한 바위짬으로 난 이 길은 실로 아슬아슬하였다.

《부처님》이 조금이라도 도와주어야지 벌을 주려고 눈길을 모로 세우는 날이면 영낙없이 《지옥길》에서 떨어져죽을것 같았다. 그렇다고 돌아서면 더 큰 벌을 받게 된다지 않는가.

량반녀편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성거리고있었다.

이때 김선달은 제 먼저 손을 모아 머리우에 높이 추켜들고

참회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그럴듯하게 말을 꾸며가며 남의 등을 쳐서 재산을 빼앗고 난봉을 피우면서 남의 유부녀를 간통하였으며 남을 때려서 골병이 들게 하였다는 등 지은 죄가 막심하니 《부처님》이 자비를 베풀어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지옥길》의 발홈을 성큼성큼 밟으며 헐하게 인호대우로 올랐다.

바위등에 올라선 그는 어서 그렇게 하라는 시늉을 하며 한번 싱긋 웃고는 바위너머로 사라졌다.

이것을 본 량반녀편네들은 저마다 엎드려 빌기 시작하였다. 그들가운데는 장리쌀로 작인들의 재물을 빼앗고 종으로 삼은 일, 종을 구박하고 남몰래 굶겨죽이고 악착하게 때려죽인 일, 빚값으로 작인의 딸을 빼앗아 팔아먹은 일, 늙어빠진 령감을 속여가며 뭇남자와 간통한 일 등을 죄다 털어놓으며 《부처님》의 《용서》를 비는 년들도 있었다.

김선달은 벼랑우의 바위뒤에 숨어서 량반녀편네들이 지껄이는 사실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죄다 적어두었다.

그후 몇달이 지나 그는 다른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량반녀편네들의 집을 찾아다니였다. 그는 량반녀편네들이 참회한 그 자료를 가지고 그들을 구슬리기도 하고 접치는 수도 쓰면서 필요한 돈과 물건을 받아내군 하였다.

김선달은 그 돈으로 빈민을 구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과거 량반들이 해온 불공의 허위성과 량반통치배들의 우매성을 반영하고있었다. 또한 량반가정의 부패상과 죄악상의 리면을 폭로해주고있었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으며 적당히 휴식하고 산허리로 난 길을 따라 룡연폭포의 웃물곬으로 가니 널직한 암반우에 《룡연》이란 두 글자와 16세기의 문인 양사언이 지었다는 《신선굴택/운하동천》(신선이 사는 집은 여기던가/물안개는 하늘에 비꼈어라)이라는 시구가 새겨있다.

글획은 오랜 세월 흐르는 물에 씻기고 닳아서 지금은 마치 거인의 발자욱처럼 보인다.

상 원 암 에 서

둔덕우에 올라서니 상원암이다.

예로부터 경치좋은 곳이라고 할 때에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시원하게 트인 곳에 물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였다.

상원암은 법왕봉앞에 있는 천신폭포를 배경으로 하고 룡연폭포와 산주폭포를 앞에 드리운 기암절벽우에 자리잡고있었다.

올라오면서 본 룡연폭포와 산주폭포 그리고 천신폭포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는 이런 경치좋은 곳에 자리잡은 으뜸가는 암자라는 뜻에서 절이름도 상원암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상원암은 고려때 세운 사찰이였다.

여기서 특이한것은 약 11개의 긴 앞면 액방이 중간지지기둥이 없이 육중한 지붕의 무게를 받아줄수 있게 건축된것이다.

사찰의 마당가에는 네모나게 생긴 큰 판돌도 하나 놓여있다.

원래는 두개였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돌에는

어린 중이 룡궁에서 가지고 나왔다는 떡돌전설이 전해지고있다고 한다.

……………………………………………………………………

전설

《 상원암의 떡돌 》

… 옛날 상원암에는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죽어서라도 《극락세계》에 가고싶어 상원암의 중이 된 애어린 총각이 있었다.

말이 중이지 소년은 사찰에서 잡일들을 도맡아하는 머슴군이였다. 땅에 끼운 돌처럼 하루도 편한 날 없이 들볶이던 어느해 5월 사찰에서는 천중절(음력 5월 5일)준비로 바빴고 소년에게는 부처앞에 공양할 떡찧는 일이 맡겨졌다.

어느날 소년이 떡쌀을 시루에 담아 룡소에 넣어두었는데 다음날 나가보니 시루가 종적없이 사라졌다. 아무리 찾아도 시루는 보이지 않았다.

중들은 어린 소년에게 《극락세계》가 아니라 《지옥》에 보내겠다고 무섭게 위협하였고 소년은 절망끝에 룡소에 몸을 던지고말았다.

그런데 그가 빠져든 곳이 룡궁이였다. 총각은 자기가 룡소에 빠져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고 룡왕의 도움으로 시루도 찾고 룡궁음식도 맛보게 되였다. 떡이 하도 맛있어서 그때 먹다 남은 떡 두개를 장삼소매안에 넣었는데 룡왕의 도움으로 물밖으로 나오게 되였다.

상원암의 중들은 죽은줄만 알았던 어린 중이 시루까지 찾아가지고 돌아온것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때 어린 중이 거기에서 가지고 나온 떡생각이 나서 장삼소매속에서 떡을 꺼내보니 룡궁에서는 그처럼 말랑말랑하고 꿀맛갈던 그 떡이 비모난 큰돌로 변해있더라는것이였다. 그래서 먹을수 없게 된 떡을 할수없이 마당에 내버리고말았다. …

………………………………………………………………………

상원암에서 꿋꿋이 자란 소나무숲속으로 난 가파로운 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칡, 머루, 다래넝쿨이 뒤엉킨 산허리를 가로질러 높은 둔덕우에 올라서면 능인암이 있다.

묘향산에 있는 암자들가운데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능인암 앞뜰에는 네댓그루의 잣나무와 전나무가 서있다.

고산지대의 기후에 맞게 2중벽으로 지은 능인암의 퇴마루에 올라서서 아래를 굽어보면 향산천골짜기와 짙은 록음에 싸여있는 탐밀봉과 그밑에 금시 깃을 치며 날아오를듯 한 학의 형상을 방불케 하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국제친선전람관, 눈부시게 반짝이며 흐르는 향산천이 한눈에 바라보인다.

암자의 뒤에는 나무 한대 없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법왕봉이 저녁이면 기울어지는 석양을 받아 번쩍이면서 천태만상의 만물상을 이룬다.

능인암으로부터 산경사면을 따라 오르다가 산등성이에 이르러 방향을 바꾸어 산릉선을 타고 암벽을 톺아오르면 법왕봉의 정점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진귀한 고산식물들이 한벌 쭉 깔렸는데 그우로 산짐승들이 지나다닌 흔적이 있었다.

앞을 바라보니 청천강의 젖줄기를 물고 길게 누워있는 천

리옥야와 하늘끝 아득히 분홍빛구름속에 반짝이는 조선서해가 안겨온다.

법왕봉정수리에 걸터앉아 땀을 식히며 주변을 둘러보느라니 상원동의 절경을 다 알자면 법왕봉에 올라야 한다던 옛사람들의 조언이 새삼스럽게 되새겨진다.

법왕봉에서 내리며 상원암의 천신루에서 또 한번 휴식하고 내림길에 들어섰다.

생김이 룡의 뿔같다 하여 룡각석이라고 부르는 길죽한 큰 바위가 우뚝 서있는 곳을 에돌아 소나무, 참나무, 단풍나무들이 우거진 둔덕우에 올라서니 축성전이 있었다.

축성전으로부터 오선정이 있는 산등성이를 넘어 키높은 이깔나무와 참나무들이 하늘을 가리우는 수림속을 헤치며 내려가다가 불영대에 이르렀다.

불영대는 산발들을 량옆에 낀 아늑하고 평평한 산중턱에 자리잡고있었다.

암자의 마당에는 무성하게 자란 키높은 두봉화의 꽃떨기가 담장을 이루었다.

암자의 앞은 탁 트이여 문필봉, 칼봉, 탁기봉 등 남쪽의 봉우리들이 한눈에 안겨온다.

그래서인지 불영대의 두봉화와 달구경은 예로부터 향산 8경의 하나로 일러왔다고 한다.

불영대는 1592년 임진조국전쟁시기 《조선봉건왕조실록》을 보관하였던 곳이다.

강사가 이 실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애쓴 전라도사람

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 1592년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난 후 전라도사람인 손홍록과 안의 등은 전주사고에 보관되여있던 《조선봉건왕조실록》을 비롯한 가치있는 귀중한 민족고전들을 전주시의 내장산으로 가져갔다.

왜놈들이 전라도로 기여들 위험성이 조성되였을 때에 그들은 이 책들을 다시 배길로 충청도의 아산을 거쳐 황해도의 해주로 옮겼다고 한다.

1597년에는 무려 50바리나 되는 이 력사책들을 강화도로 옮기였다가 강화도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책들을 배에 실어 안주를 거쳐 먼 후방인 이곳에 날라다가 보관하였다는것이다.

이들의 애국적이며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선봉건왕조실록》과 《고려사》 등의 민족고전들은 전쟁의 피해를 면할수 있게 되였다.

이때 묘향산에 소개시켰던 《조선봉건왕조실록》은 임진조국전쟁이 끝난 후 네벌의 실록가운데서 남은 유일한 책으로서 그후 실록을 다시 복각하는데서 그 원본으로 리용되게 되였다고 한다. …

전란의 어려운 조건에서 가치있는 민족고전들을 구출해내여 후세에 전하기 위해 애쓴 선조들의 위훈이 깃든 불영대에 대하여 깊이 새겨안으며 우리는 상원동등산을 마치였다.

내려가는 길에 관광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산에 오는 손님들은 단체로 많이 오겠지요?》

《네, 기본적으로 단체로 많이 옵니다.

가족이라든가, 기업소단위들에서 들놀이식으로 하루나 이틀동안 즐기고 가군 합니다.

명절날이나 일요일 같은 휴식일에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평양에서도 당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개별적으로 올 때도 해설봉사해줍니까.》

《물론이지요. 하지만 대부분 개별적인 사람들은 단체에 따라붙군 한답니다.》

어느덧 산을 다 내려왔다.

묘향산의 독특한 향취와 맛

려관에 내려오니 산나물의 향긋한 냄새가 우리의 코를 자극한다.

묘향산에 오면 이곳의 산나물로 만든 음식들로 묘향산의 독특한 향취와 맛을 느낄수 있어 얼마나 특색있는지 모른다.

이름그대로 푸른 물결 출렁이는 청천강기슭에는 민족의 명산과 어울리는 고전건축형식의 청천려관이 추녀높이 일떠서 있다.

묘향산의 자연미를 따서 내부를 장식한 청천려관 식당에서는 묘향산특유의 민족료리들을 전문으로 봉사하고있었다.

저녁식사를 하려고 식당안에 들어서니 쌉쌀한 산나물향기가 감돌고 묘향산에서 자라는 여러가지 산나물로 만든 갖가

지 민족음식들을 들며 즐겁게 담소하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정겹게 안겨온다.

특히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게 양념장을 듬뿍 발라 구운 더덕구이냄새가 우리의 위를 자극한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더덕을 고급한 산나물로, 약재로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여왔다.

《야, 더덕구이냄새가 기 딱 막힌데요.》

《이건 곰취볶음밥이군요.

저기에 있는건 고사리볶음, 참나무버섯볶음, 참나물김치, 산천어국까지… 야, 산나물음식이 많기도 하네.》

푸짐한 산나물음식상을 받아안고 기뻐하는 우리에게 봉사원이 《우리 려관에서는 이곳 묘향산에 흔한 곰취, 더덕, 참나무버섯을 가지고 민족료리를 만들어서 외국인들과 국내손님들에게 봉사하고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식당에서 만든 산나물료리들이 대단한 인기를 끌고있습니다.

묘향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산나물료리들을 찾는데 바쁘기도 하지만 마음은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답니다.》라고 이야기해주었다.

우리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나이지숙한분이 봉사원의 말을 긍정이라도 하는듯 《묘향산에서 자라는 산나물들은 맛이 좋고 영양학적가치도 매우 크답니다. 아마도 그것은 묘향산의 물과 공기때문일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알고보니 자주 이곳에 와서 더덕구이를 도와주기도 하고

산나물료리의 고유한 맛과 그 영양학적가치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군 한다는 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 공훈료리사 아바이였다.

그와 반갑게 통성하고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연구사아바이는 이곳 식당에서는 산나물철이면 곰취와 고사리를 많이 채취해다가 말리우거나 절여두고 사시장철 내내 산나물음식을 만들어주군 한다는것, 곰취철이 지나도 이렇게 곰취볶음밥을 맛볼수 있는것은 이곳 봉사원들이 짬시간마다 여러가지 산나물들을 채집하여 가공해두었기때문이라는 등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묘향산의 향취가 듬뿍 풍겨나오는 곰취볶음밥은 정말 맛있었다.

지금은 곰취철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생신한 곰취로 만든 볶음밥을 맛볼수 있는지 기이하기만 하였다.

우리의 의문에 봉사원은 산나물철이 지나갔어도 아직 곰취와 병풍, 더덕은 산에 있다고, 그래서 요즘은 매일 여가시간에 산나물을 채취하러 다닌다는것, 이 더덕도 금방 채취한것으로 만든것이라는것이였다.

산나물채취라는 그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다.

우리도 산나물채취를 해보고싶다는 말에 곁에 앉았던 묘향산등산강사실의 한 일군이 자진하여 우리의 안내를 맡아 나섰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하비로지구로 향

했다.

그는 《묘향산에는 고정식물만 해도 천수백종이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지대가 서식조건이 좋아서 산새도 조선에 있는 새가운데서 바다새를 내놓고는 여기 묘향산에 다 있답니다. 여기에는 근 200여종의 산나물들이 있습니다. 저 너머에 구향산이 있는데 그곳에는 한여름철에도 몸이 너무 추워 개가죽등거리를 입고 지냈다는 개가죽대사가 한평생을 주변에 있는 고사리만 뜯어먹고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있지요.》라고 하며 고사리전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전설

《 원명사의 고사리 》

… 옛날 원명사에는 일년 내내 개가죽등거리만을 걸치고 다녔기때문에 개가죽대사로 불리우는 스님이 살았다고 한다. 개가죽대사는 원명사에 온 그해 봄에 사찰주변의 숲속에 고사리뿌리를 옮겨다 심었다.

이해부터 사찰주변에는 넓은 고사리밭이 생겨났다. 거무스레하고 가지색을 띤 고사리는 포동포동하게 살찐 애기주먹같은 머리를 우로 솟구면서 탐스럽게 자랐다. 이 고사리는 얼마나 잘 자랐던지 뜯고 또 뜯어도 뜯은 뒤가 없이 돋아나군 하였다.

원명사의 중들과 이곳을 찾아오는 탐승객들은 이 고사리로 반찬을 해먹군 하였는데 그 맛이 달콤하고 향기로왔다. 개가죽대사는 그 맛이 하도 좋아 이 고사리로만 반찬을 해먹군 하

였다.

그리하여 《원명사의 고사리단맛에 개가죽대사의 종바리가 다 닳아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 전설은 묘향산에 고사리를 비롯한 맛있고 영양가높은 나물들이 무진장한데로부터 생겨난것이였다.

고사리는 묘향산의 산나물가운데서도 가장 맛있고 흔한 산나물의 하나인것으로 하여 이런 전설까지 나오게 되였다는것이다.

……………………………………………………………………

이 전설을 이야기해주며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설에 나오는 그 개가죽대사의 고사리밭을 찾으려고 무던히도 애썼지만 아직까지도 찾을수 없다고 호탕하게 웃는것이였다.

그 말을 듣고나니 우리도 부쩍 그 고사리밭을 찾고싶은 생각이 났다.

하비로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다가 잠간 다리쉼을 하려고 앉았는데 고비가 길가에 쭉 깔려있었다.

《고비입니다.

시생대를 벗어나면서 지구상에서 제일먼저 번성했던 고사리류입니다.》

화제는 자연히 묘향산 식물이야기로 번졌다.

《머루는 언제 납니까.》

《지금이 바로 머루철입니다. 다래는 10월말이고… 이쪽을 보십시오.

노박덩굴입니다.》

《노박덩굴?》

《노박덩굴은 이렇게 시꺼멓습니다.

산에 노박덩굴이 있으면 산이 몹시 험하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노박은 험한 산에서만 산답니다.

노박은 뭐 먹는건 없는데 열매를 맺긴 맺습니다.》

《소나무가 참 좋습니다.》

《홍송입니다.

껍질이 얇은것이 특징이고 붉은색을 띠였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소나무가 다 퇴화상태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묘향산에 와서 아름드리 소나무가 자라는걸 보니까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묘향산에는 또 어떤 나무들이 있습니까?》

《뭐, 잣나무, 전나무, 해발높은 곳에 올라가면 가문비, 분비, 측백나무들이 많습니다.

소나무는 해발높이 500～800㎙사이, 우리가 등산한 그 높이에 소나무가 많습니다.

또 잣나무와 전나무가 많이 섞여 자라고 그래서 가을에 락엽이 다 진 다음에도 산이 푸르러보입니다.》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36(1947)년 5월 이곳에 오시였을 때 등산길주변에 있는 산나물들을 하나하나 채집하시면서 상원동에 대한 등산을 널리 조직해야 한다는것, 애국심은 저절로 생기는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의 아름다움을 실지 자기 눈으로 보고 느껴야 진정한 애국심이 생길수 있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산나물을 구경만 하지 말고 채취도 해보라고 하는것이였다.

어느 정도 가느라니 높이가 20㎙를 넘고 두줄기로 갈라져서 떨어지는 이선남폭포가 나타났다.

이선남폭포주변에는 참나물과 취를 비롯한 산나물들이 많았다.

거기에서 향산군산림경영소 산림감독원을 만나게 되였는데 그는 산나물을 많이 채취하려면 등산길주변이 아니라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우리를 이끌었다.

드디여 산나물들이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하비로지구의 산봉우리들과 골짜기들마다에서 자라는 산나물들은 그 가지수가 헤아릴수 없이 많고많은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맛도 유별날뿐아니라 약효성분도 특별해 사람들의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한다.

산나물을 뜯으며 묘향산을 구경하느라 시간가는줄 몰랐는데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된 모양이다.

숙소인 청천려관 접대원들이 계곡아래 널직한 공지 량옆에다가 야외식사준비를 해놓고 일행을 기다리는중이였다.

숯불구이차비까지 완전히 갖추어놓았다.

입가에 침이 고였지만 시치미를 떼며 《산에서 고기를 구워먹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나무불을 피우지 않고 숯불이나 가스불 등을 리용하는것입니다. 이렇게 따로 마련된 야외식사장소에서만 허용되고있습니다.》

묘향산등산후에 흐르는 계곡물옆에서 벌리는 야외숯불구이는 참으로 감상적이였다.

제손으로 뜯어온 곰취와 취나물, 도라지와 더덕들을 개울가에서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 금방 숯불에서 구워낸 불고기를 싸먹기도 하고 식초를 약간 친 초고추장에 도라지를 찍어먹고 더덕에 초고추장을 발라 숯불에서 구워먹는 그 맛과 향취란 정말 무엇이라고 표현할수가 없다.

와서 느껴보아야 그 진미를 알수 있다.

식사가 끝나자 노래자랑이 펼쳐졌다.

일행중의 한사람이 시계줄에 나무저가락을 넣고 《손을 편채 물건을 들어올리는 요술을 해보인다.》며 익살을 부려 좌중을 즐겁게 만들기도 했다.

…

어느덧 하루해가 저물어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울창한 수림속에서 제손으로 채집한 산나물을 곁들인 즐거운 야외식사장에서의 흥겨운 기분은 사그라들줄 모른다.

날이 저물어 호실에 들어왔지만 묘향산의 산나물향취가 온몸에 배여있는듯 숲속에 드러누운 기분이다.

폭포와 담소로 련이어진 만폭동탐승길

향로봉의 남쪽비탈면에 수정같은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폭포와 담소가 만개나 되리만큼 많다고 하여 만폭동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다.

만폭동에는 이름그대로 폭포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폭포로부터 시작하여 경치가 무릉도원같이 아름다워 무릉폭포, 하늘의 선녀들이 목욕을 하다가 총각들이 나타나면 숨군 했다는 은선폭포, 목욕을 한 선녀들이 즐겨 놀았다는 유선폭포, 폭포수에 비낀 무지개를 타고 하늘의 선녀들이 날아내리고 날아올랐다는 비선폭포, 아홉번 층을 지어 떨어지는 9층폭포, 하늘의 은하계에 닿았다는 은하폭포를 비롯해서 크고작은 폭포와 담소들이 정말 많다.

만폭동으로 가자면 향산천을 거슬러 동쪽으로 올라가야 한다.

향산천의 여울물소리를 들으며 가느라면 길옆에 유명한 묘향산약수터가 있다.

묘향산약수는 예로부터 그 물맛이 하도 좋아 감로수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이 약수는 수소탄산칼시움, 나트리움, 철을 기본성분으로 하고있는데 위병과 간염에 특효가 있고 오래 마시면 피부색이 고와지고 부드러워진다고 한다.

묘향산약수가 있는 향산천 건너편에는 탁기봉중턱에 기묘하

게 우뚝 솟은 바위가 있다.

하늘을 떠받들고있는 기둥이라고 하여 천주석이라고 부르는 이 바위는 단군이 단군대에서 무술을 닦을 때 활쏘기과녁으로 삼았던 바위라고 전해지고있다.

이곳에는 한 장수가 장마철에 큰돌을 다듬어 하늘의 비구멍을 막아 비를 멈추고 묘향산의 아름다운 자연풍치를 보존하였다는 《천주석과 장사》에 대한 전설도 깃들어있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 흥그럽게 하여주었다.

전설

《천주석과 장사》

태고적 어느해 여름날 묘향산에 달포가 넘도록 계속되는 장마가 그칠줄 몰라 사람들은 정신없이 비를 준다고 하늘을 원망하였다.

오래 계속되는 장마로 향산천물은 무섭게 불어나고 강가의 집들과 사찰들을 금시 쓸어버릴듯 하였으며 산허리를 깎아내려 묘향산의 아름다운 자연풍치가 큰 손상을 입고있었다.

어디선가 무서운 산사태로 사람들이 상했다는 말도 들려와 근심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었다.

이때 묘향산골안에는 산봉우리도 옮긴다는 무서운 힘을 가진 젊은 총각이 살았는데 그는 비가 계속 오는것은 하늘에 구멍이 뚫렸기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당장 그 구멍을 막아 비를 그치게 하리라 결심하였다.

그는 향산천기슭에서 큰돌을 쪼아 하늘구멍을 막을만큼 큰

돌기둥을 만든 다음 그것을 넝쿨 메다 탁기봉에 세웠는데 거대한 돌기둥은 하늘지붕을 치받아 비구멍을 틀어막았으며 쉬임없이 퍼붓던 소나기는 뚝 그치고 장마는 당장 걷히였다.

향산골사람들은 위험한 장마비를 그치게 한 장사의 기특한 소행을 칭찬하며 모두 기뻐하였다. 탁기봉의 천주석은 이렇게 생겨난것이라고 한다.

……………………………………………………………………

천주석의 오른쪽골짜기에는 절벽을 타고 떨어져내리는 도솔폭포가 있다.

이 폭포는 험준한 봉우리들과 깊은 골짜기들을 이리저리 에돌면서 숨어있다가 갑자기 큰 폭포가 되여 떨어지는데 마치 푸른 장막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으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듯 하다.

그런가 하면 폭포소리는 산천의 정적을 아름다운 자연의 교향곡으로 바꾸어놓는것만 같다.

만폭동어귀에서 잔솔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선 등산길을 따라 어느 정도 오르면 만폭동의 첫 폭포인 서곡폭포가 보인다.

이 폭포는 만폭동의 일만폭포가 울리는 교향곡의 첫곡을 알리는것 같다고 하여 그 이름을 서곡폭포라고 부른다고 한다.

울창한 소나무숲을 배경으로 하여 떨어지는 서곡폭포는 폭포수가 바위 등을 따라 흐르다가 턱이 진 바위에 부딪쳐 분수마냥 앞으로 뿜어져나오면서 떨어지는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폭포였다.

옛날 하늘의 선녀들도 이 폭포소리를 듣는것으로부터 시작

하여 아름다운 만폭동의 경치를 즐겼다고 한다.

서곡폭포에서 얼마 안되는 거리에는 무릉폭포가 있다.

이 폭포는 옛날 묘향산 8형제 나무군총각들이 일하다 쉴참이면 모여앉군 하던 곳인데 그 이름도 그들이 복숭아꽃 만발한 무릉도원에서 살고싶은 열망을 담아 무릉폭포라고 지었다고 한다.

물량이 많을 때에는 넓은 벼랑우에 미끄러져내리던 물이 중간에 있는 홈에 부딪쳐 높이 솟구쳤다가 반원을 그리면서 떨어지는데 어느 공원의 인공분수처럼 장쾌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다.

이 폭포우에는 무릉소가 있고 무릉폭포아래에는 작기는 하지만 두줄기로 흐르면서 폭포의 아름다움과 기상을 다 갖추고있는 하무릉폭포가 있었다.

이쪽에서 흐르는 폭포는 웅장하고 시원스러운 남자의 성격처럼 솨솨 소리치며 떨어지고 저쪽에서 흐르는 폭포는 조용하면서도 웅심깊은 녀자의 성격처럼 소리없이 흘러내린다.

마치도 두 청춘남녀가 나란히 앉아 사랑을 속삭이며 흐르는것만 같다.

향산에는 큰 바위 한쪽끝을 허공에 세워두고 묘하게 올라앉은 장수바위가 있는데 여기에는 거대한 힘을 가진 장수가 묘향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탐승길을 내주려고 일부러 들어올려놓았다는 전설이 깃들어있다고 한다.

어느 경기장의 채양지붕처럼 생긴 이 바위밑으로 등산길이 경쾌하게 나있었다.

무릉폭포에서 좀더 올라가면 그늘진 좁은 바위틈을 따라 나타났다 숨었다 하면서 묘하게 조용히 흐르는 아름다운 은선폭포가 있다.

먼 옛날 하늘의 선녀들이 목욕을 하다가 총각들이 나타나면 수집어 숨군 했다고 하여 은선폭포라고 한다고 한다.

폭포수가 필필이 비단천을 늘여놓은듯 춤을 추며 흘러내리고 폭포우에는 팔선녀모두에게 하나씩 차례지게 8개의 담소까지 있으며 여기에 산천어까지 무리지어 놀고있어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전설이 정말인듯 한 생동한 느낌을 준다.

은선폭포에서 얼마 안되는 거리에 만폭대가 있다.

만폭대에 올라 발밑을 내려다보면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와 놀았다는 유선폭포와 팔담이 한폭의 그림처럼 보인다.

길이가 약 60㎜정도 되는 유선폭포가 공중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비탈진 바위를 쏜살같이 미끄러져내리기도 하면서 밑에 크고작은 팔담을 이루어놓았다.

유선폭포우에는 옛날 하늘의 견우와 직녀가 행복의 절정속에 서로 만났다는 오작교인듯 아슬아슬한 벼랑을 가로질러 길이가 수십㎜나 될듯싶은 유선다리가 놓여있었다.

물량이 많아서인지 넓은 벼랑전체가 폭포수로 뒤덮였는데 미끄러져내려오던 물이 바위턱에 부딪쳐 다리까지 분수처럼 솟구쳤다가 물안개를 날리며 흩어져내리는데 마치도 선녀들의 고운 날개옷이 바람에 흩날리는것만 같았다.

유선폭포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기이하고 아름다워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비선폭포가 있다.

선녀들이 이 폭포에 비낀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군 하였다고 하여 폭포의 이름을 비선폭포라고 하였다는것이다.

단풍이 붉게 타는 가을이 오면 폭포벼랑가에 있는 바위주변이 빨갛게 물들어 마치도 하얀 비단수건에 꽃수를 놓은것 같고 겨울에는 천태만상의 얼음기둥이 하늘높이 치솟아 해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볼만 하다고 한다.

전설에 폭포가에 걸린 무지개를 타고 내린 팔선녀들이 이 아름다운 경치를 즐겼다고 하지만 오늘은 우리 인민모두가 선녀선남이 되여 묘향산의 경치를 마음껏 즐기고있는것이다.

비선폭포벼랑가에 175개의 계단으로 무지개처럼 만들어 걸어놓은 쇠바줄다리가 바로 비선단이다.

이 쇠바줄다리로 올라가면 비선대가 있다.

비선대에 올라 주변경치를 바라보느라면 웅장수려한 묘향산의 높고낮은 산봉우리들과 기묘하게 생긴 바위들 그리고 수많은 폭포로 하여 장엄하고 독특한 묘향산의 절경이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온다.

하기에 벌가리아의 한 문필가가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한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세계의 많은 산들을 보았는데 묘향산처럼 웅장한 산은 처음 봅니다.

너무도 기묘하고 아름다워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벌가리아사람들에게 선전하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보려면 묘향산으로 가라고 하겠습니다.》

묘향산의 어느곳이나 다 그러하듯이 이 비선대는 관광객들에게 춤과 노래의 무대이기도 하다.

비선폭포에서 탐승길을 따라 어느 정도 가느라면 9층폭포가 나진다.

누워있는 암반우에 이루어진 9개의 계단을 따라 흘러내린다고 하여 9층폭포라고 부른다고 한다.

9층폭포는 누운폭포로서 묘향산에서 은하폭포 다음가는 큰 폭포로 알려져있다.

경사가 40° 이상 되는 대암반을 타고 긴 구간을 아홉번이나 꺾어져 떨어지는 9층폭포는 폭포우에 폭포가 있고 담소우에 담소가 있다.

물량이 많아서인지 폭이 40여㎜나 되는 벼랑전체가 폭포수로 뒤덮이고 아홉번 층을 지어 쏟아져내리는데 폭포소리가 우뢰와 같고 층마다 날리는 물보라가 골안을 메워 참으로 그 모습이 장쾌한데다가 아름답기 그지없다.

개개의 폭포와 담소들이 저마끔의 경치를 자랑하고있는 모습이 마치 일만폭포의 경치를 한곳에 모아놓은 만폭동의 축소판인듯싶다.

만폭동의 경치가 하도 아름다워 한 시인은 빨리 올라가서 경치를 구경하자고 하니 무릉폭포가 걸음을 붙들고 머물자니 여러가지 폭포들이 어서 오라 부르니 하루해가 짧은줄 여기와서 새삼스럽게 느꼈다고 노래하였다고 한다.

강사의 말이 실지 서곡폭포에서 9층폭포까지 5리밖에 안되지만 경치가 하도 좋아 서둘러 올라가도 오전중에 오른적이 없다는것이다.

9층폭포로부터 탐승길을 따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있는 은하폭포는 폭포뒤의 푸른 하늘과 량쪽의 푸른 숲을 배경으로 하고있는데 폭포수가 일으키는 흰 물결이 신통히도 하늘의 은하수와 비슷하다.

은하폭포는 크고작은 6개의 폭포가 모여 하나의 폭포를 이루고있었다.

은하폭포에서 조금 더 올라가니 누운향나무와 누운측백나무를 비롯하여 향기를 풍기는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향로봉이다.

향불을 태우는 화로처럼 생겼다고 하여 향로봉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여기서는 묘향산에서 크고 장쾌한 폭포로 알려진 천길폭포의 물소리도 들을수 있었다.

향로봉의 중턱에는 예로부터 전망이 좋기로 이름난 단군대가 있는데 여기에 오르면 폭포의 절경을 이루는 만폭동계곡과 향산천골안이 한눈에 안겨오고 남쪽으로는 묘향산의 련봉들이 일망무제하게 펼쳐져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건국시조인 단군이 살면서 무술을 닦았다는 단군굴과 단군사도 돌아보았다.

제당칸과 살림방, 다락으로 되여있는 단군사는 건물이 크지는 않지만 굴안에 있는것으로 하여 특색이 있었다.

제당칸에는 단군의 화상이 걸려있었다.

두개의 기둥에 떠받들려있는 다락에 올라 주변경치도 부감할수 있다.

묘향산에는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건국신화들, 사화전설들 그리고 력사기록들이 많다.

기록에 의하면 묘향산에는 환인과 환웅, 단군을 제사지내는 삼성사와 단군암이 있고 보현사에는 환웅각이라는 단군신앙정각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옛 고서인 《녕변지》에는 단군에 대하여 신지글자로 쓴 《천부경》이라는 경전이 묘향산에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만폭동입구에는 단군의 아들이름을 단 《부소참》이라는 마을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단군대에서 남쪽에 솟은 련봉들이 저녁노을을 받아 붉게 타는듯 한 경치가 하도 절경이여서 예로부터 《단군락조》(단군대에서의 저녁노을)라고 하며 묘향산8경으로 이름이 높다고 한다.

단군대에는 단군이 단군굴에서 살면서 매일 여기에 올라 맞은편 탁기봉중턱에 서있는 천주석을 과녁삼아 활쏘기련습을 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단군굴에서 남쪽경사면을 따라 무지개바위방향으로 좀 내려가면 《가단군굴》이 있다.

이 굴의 이름은 거짓단군굴이라는 뜻인데 《녕변부사의 묘향산구경》전설에서 유래된것이라고 한다.

… 어느해 서울장안에 있던 량반이 녕변의 신임부사로 왔다.

부사는 부임된 첫날부터 정사는 제쳐놓고 관내명승지는 다 찾아다니면서 유흥으로 날을 보내고있었다.

그통에 하인들도 가마채를 벗을 날이 없었고 멍든 어깨가 가라앉을새 없었다.

신임부사는 명산구경을 하면서도 사인교에서 내릴줄 몰랐고 길이 좁건 산이 높건 가마안에 앉아있으면 그만이였다.

약산동대에서 보름나마 있으면서 술놀이로 허송세월을 보내던 부사는 어느날 묘향산 단군굴을 보려고 길을 떠났다.

때는 7월 중순이라 가마군들의 온몸에서는 비물처럼 땀이 흘러내렸고 가마안의 부사도 무더위속에 그냥 앉아있기가 힘이 들었던지 이제는 다 오지 않았는가고 자주 물었다.

아직도 갈길은 멀고 험한데 마침 길옆에 작은 굴 하나가 나졌다.

가마군들은 너무 힘이 들어 이 굴앞에 사인교를 내려놓고 이 굴이 바로 단군굴이라고 하였다.

부사는 진짜단군굴이 아직도 멀었다는것을 몰랐다.

이렇게 되여 부사는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갔다고 한다.

녕변부사는 여기서 제를 지내면서도 단군굴이 아니라는것을 알수 없어 결국은 진짜단군굴에 평생 한번도 가볼수 없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있었다. …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굴을 《가단군굴》이라고 부르며 부패무능한 량반통치배들의 생활을 야유조소하였다.

만폭동을 내려오며 선녀들이 타고 오르내리던 무지개처럼 생겼다는 무지개바위와 독특한 건축양식을 갖춘 경쾌하고 화려한 화장암도 돌아보았다.

만폭동을 내려 이번 길에 계획하였던 묘향산에 대한 등산을 끌마쳤다.

석달이나 돌아보아야 다 돌아볼수 있다는 묘향산을 삼일밖에 보지 못한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몰랐다.

보고보아도 계속 보고싶은 묘향산의 절경이다.

⌘⌘

4. 전설의 산 칠보산

옛 고서인 《칠보산유산록》(1766년)에 《…후날 반드시 대성인이 나타나 칠보산을 찾을것이니 그때 가면 칠보산이 하루아침에 나라의 명산으로 될것이다.》라고 쓴 글이 있다.

이곳 사람들은 이 글귀를 보며 칠보산을 빛내여줄 위인을 오래도록 기다려왔다.

마침내 수수천년 기다려오던 력사의 순간이 찾아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칠보산을 찾아주신것이다.

인민의 사랑받는 명산중의 명산으로 꾸려주시려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신 그이의 거룩한 인민사랑이 하나의 바위에도, 한굽이 등산로정에도 뜨겁게 어려있는 력사의 그날과 더불어 명산으로 태여난 칠보산이다.

칠보산을 예로부터 사계절로 나누어 봄에는 백화가 만발한다 하여 꽃동산, 여름에는 록음이 짙게 우거진다 하여 록음산, 가을에는 온 산에 단풍이 붉게 물든다 하여 홍화산, 겨울에는 흰눈으로 은빛단장한다고 하여 설백산이라고 한다.

그가운데서도 가을철의 홍화산경치가 제일 좋기로 유명하다는 현지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이왕이면 가을에 왔을걸 하는 아쉬움을 털어버리며 칠보산탐승의 길에 올랐다.

옛날부터 백년 묵은 호랑이도 사흘 밤을 자고서야 넘었다

는 아흔아홉굽이로 된 박달령은 칠보산의 관문으로 알려져 있다.

박달령은 반달처럼 생겼다고 하여 반달령, 반월령으로 불리오다가 오랜 세월 점차 발음이 변화되면서 박달령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그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령에 박달나무가 많이 자란다는데로부터 유래된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령에서 우리 인민들이 단군제를 자주 지낸데로부터 생겨난 이름이라는것이다.

박달령이라고 부르는 봉우리에 오르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색이 변하지 않는 120kg의 보석으로 창작되였다는 칠보산관광안내도가 있다.

본래 안내도는 유화로 그려져있었다고 한다.

1996년 11월 2일 칠보산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기 박달령정점에서 칠보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부감하시면서 전경도를 보석화로 특색있게 만들어 세우고 칠보산을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더 잘 꾸릴데 대한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칠보산관광안내도는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박달령정점에서 칠보족두리를 쓴 첫날 새색시처럼 화려한 보석빛을 뿌리며 명산을 찾는 사람들을 반겨맞아주고 있다.

안내도가 얼마나 방불하게 형상되였는지 수백여㎢의 광활한 지역의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탐승로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내칠보구역의 37개 명소와 60개의 기암, 외칠보구역의 33개의 명소와 77개의 기암, 해칠보구역의 23개의 명소와 34개의 기암들은 물론 전망계획까지 진귀한 보석들로 표시되여있어 경탄을 자아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시기 칠보산을 여러차례나 찾아주시여 명산의 돌 하나도 귀중히 여기도록 하시며 후대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재부로, 인민의 유원지로 훌륭히 꾸리도록 방향과 방도까지 일일이 밝혀주시였다고 강사는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하늘의 신선이 보석가루를 뿌려 칠보단장을 갖추어놓았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칠보산은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탐승구역으로 나뉘여져있다.

전설

《 칠보산의 지명유래 》

칠보산의 지명유래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전설이 전해내려오고있다.

대표적으로 옛 문헌에 씌여져있는 칠보매장설, 지각변동설, 칠보단장설이다.

칠보매장설은 칠보산에 7가지 보물이 묻혀있다는데서 유래되였다.

그 7가지 보물로는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 은, 마노, 차거, 진주 등을 들수 있다.

지각변동설은 먼 옛날 조선동해의 북부기슭에 묘하게 생기고

보물이 많은 7개의 산이 불쑥 솟아올랐다가 6개의 산은 바다에 잠기고 지금의 칠보산만이 남게 되였는데 그 7개의 산을 통털어 부른 이름이라는것이다.

칠보단장설이 가장 흥미를 끄는데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아름다움을 상징할 때 《칠보》라는 말을 많이 써왔다.

실례로 칠보단장, 칠보반지, 칠보홍안, 칠보팔진, 칠보패물, 칠보화관 등과 같이 《칠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희귀하고 진귀한것을 가리키는 말로 되여왔다.

이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일만경치를 다 안고있는 이 산을 칠보단장을 한 첫날 새색시에 비겨 칠보산이라고 불러왔다는것이다.

내칠보탐승의 길에서

우리는 먼저 내칠보탐승의 길에 올랐다.

내칠보는 병풍을 두른듯 한 신비스럽고 웅장한 바위풍경이 사시장철 푸르른 소나무숲과 봄이면 활짝 핀 진달래, 가을이면 만산을 붉게 물들이는 단풍과 어울려 절승경개를 이룬다. 여기에 오봉인 천불봉, 만사봉, 종각봉, 라한암, 원숭이바위 등 기묘하고 아름답게 생긴 봉우리들과 승선대, 개심대, 만월대, 해망대, 금강암, 구룡소, 금강굴과 같은 많은 명소들도 있다.

내칠보탐승길은 상매봉구역과 개심사구역, 내원암구역으로 나누어져있었다.

상매봉구역

개심동으로부터 상매봉일대의 명소들을 포괄하는 상매봉구역에는 상매봉과 각이한 모양의 기암들로 하여 색다른 경치를 보여주는 조롱봉, 칠보산의 관문인 박달령, 내칠보의 절경을 부감할수 있는 돌문정각, 장수바위, 악어바위, 거인암, 책바위, 병풍바위 등 명소들이 있다.

예로부터 산이 높아 늘 구름이 산허리를 감돌고있다고 해서 운주산이라고도 불리웠던 상매봉에 오르면 내칠보와 외칠보의 웅장수려한 봉우리들과 기암들, 계곡들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온다.

마치도 조물주가 천지조화를 부려 만들어낸 천태만상의 신비경을 다 가져다놓은것 같은 보기 드문 절경이였다.

숲이 우거져 산정점까지 푸르게 보이는 상매봉 서쪽기슭에 두개의 돌무덤이 있다. 이곳에서 자결하였다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한 무관의 묘와 그가 타고 왔던 말무덤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천태만상의 기암괴석들로 꽉 들어찬 칠보산풍치가 하도 아름다워 이곳에 왔던 한 무관이 죽어서도 칠보산에 묻히고싶다며 상매봉에서 자결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강사가 무덤을 가리키며 그에 깃든 전설을 이야기해주었다.

전설 《 칠보산에 묻힌 리군관 》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리군관이라는 무관이 하졸 두명을 거느리고 칠보산구경을 떠났다. 때마침 단풍이 붉게 타는 칠보산의 가을풍경은 신비한 모양의 기암괴석들로 하여 절경을 이루고있었다.

칠보산의 경치에 매혹된 리군관은 이처럼 황홀한 절경속에 눌러앉아 여생을 보내고싶은 생각이 솟구쳐올라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관청에 매인 몸이라 그렇게 할수도 없고 하여 차라리 죽어 땅에 묻혀서라도 이 절승의 칠보산을 떠나고싶지 않았다.

아직 외칠보와 해칠보는 보지도 못하였는데 돌아갈 날자가 다되자 밤을 꼬박 지새운 그는 동이 트는 신새벽에 개심사 앞마당의 만세루기둥에 기대여 대웅전안의 부처를 겨누어 화살을 날렸다.

하지만 화살은 빗나가 대웅전 뒤벽에 꽂혔다.

그래도 이쯤하면 부처의 벌을 받아 죽을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문암령까지 갔다왔어도 아무 탈이 없자 드디여 비장한 결심을 하고 다시한번 칠보산을 바라본 후 장검을 뽑아 먼저 말목을 치고 자기도 목숨을 끊고말았던것이다.

두 하졸은 칠보산경치를 못 잊어 자결한 그를 칠보산의 주봉인 상매봉기슭에 묻어주고 떠났다고 한다. …

옛시절 한 무관이 죽음의 길을 택하면서까지 끝내 칠보산을 떠나지 않았다는 전설은 칠보산경치야말로 세상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천하절경임을 말해주고있는것이였다.

상매봉을 내려 조롱봉에 올랐다.

바위들이 네갈래의 릉선우에 조롱조롱 솟았다는 조롱봉에 오르니 머리에 투구를 쓰고 우묵히 들어간 눈에 삐쭉한 조개턱을 하고 아래쪽을 엄하게 내려다보고있는듯 한 바위가 보였다.

도사바위이다.

도사바위 아래쪽에 있는 자름자름한 여러개의 바위들은 학도바위라고 한다.

도사의 엄격한 구령에 따라 무슨 훈련을 하고있는지 아니면 시험을 치고있는지 형상도 보는 사람나름이다.

학도바위 맨 아래쪽에 투구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들로부터 아래쪽으로 얼마쯤 떨어져있는 릉선에는 돌을 차곡차곡 올려놓은듯 한 바위가 보인다.

책바위이다.

신기한것은 맨 꼭대기의 책이 밑의 책들처럼 가지런히 놓이지 못하고 중심이 바깥에 놓이여 금시라도 당장 떨어질것만 같은데 오랜 세월 이렇게 유지하고있다는것이다.

책바위 웃쪽에 사람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데 체격이 몹시 큰 사람이라고 해서 거인암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명경암꼭대기에는 옥좌바위와 룡상바위가 있고 그옆으로 병풍처럼 칠보산의 일만경치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게 그림을

그려놓은것 같이 보이는 병풍바위도 보인다.

병풍바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사시장철 맑은 시내물이 흐르는 골짜기인 청계골이 있다.

청계골에서는 누구나 오르면 일만경치의 아름다움에 저절로 야! 하고 환성을 터뜨린다는 환희재가 보이고 환희재의 건너편에는 정방형의 돌기둥우에 작은 돌들이 놓여있는 모양이 탁상우에 보물을 진렬한것 같이 보인다는데로부터 보탁암이라고 불리우는 바위가 보인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보탁암우에 놓여있는 보물들이 칠보산이름유래의 기초로 되고있는 7개의 보물이라는 설도 있다.

이 바위에는 누구든 보탁암의 보물에 지나치게 눈독을 들이고 딴마음을 먹으면 칠보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지 못하고 소경이 되거나 영영 바위로 굳어진다는 전설이 깃들어있다고 한다.

길 왼쪽에 《하마비》라고 쓴 비석이 세워져있다.

옛날에는 말이나 가마를 타고 개심사를 찾아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왕이건 그 누구이건 다 말이나 가마에서 내려 걸어 올라오라는 뜻에서 중들이 세운 비라고 한다.

상매봉구역을 돌아보고 개심사구역으로 탐승길을 이어갔다.

개심사구역

개심사구역에는 내칠보의 삼봉이암, 금강봉과 금강굴, 류다르게 큰 농립모를 쓴 세명의 농부가 렬을 지어 산릉선을 타고 내려오는듯 한 농부바위, 효성이 지극한 소년이 아홉마리 룡의 위협도 물리치고 금강골의 산삼을 캤다는 이야기가 담겨진 금강폭포와 구룡담을 비롯하여 내칠보의 경치를 한눈에 굽어볼수 있는 전망이 좋은 개심대와 승선대, 내경대 등 이름난 명소들이 많다.

개심사구역에서 이채를 띠는것이 바로 만사봉, 천불봉, 종각봉과 라한암, 원숭이바위로 이루어진 삼봉이암이다.

지난 시기 오봉으로 불리웠던 삼봉이암은 그 모양이 서로 달라 신기하고도 아름다운 풍치를 펼쳐보이며 내칠보에서 장관을 이루고있었다.

칠보산에서 제일명산으로 알려진 금강봉은 밑부분은 누런색을 띠고 웃부분은 분홍색을 띠고있어 마치 봉화를 련상시킨다.

금강봉 동쪽기슭에는 금강굴이 있다.

오랜 세월 금강봉에서 흘러내린 비물이 합쳐져 흐르면서 물깎기작용으로 생겨난 이 굴앞에는 금강샘이 있다.

우리는 옛날 칠보산의 자연풍치가 하도 아름다워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와 놀다가 다시 하늘로 오르던 곳이였다는 승선대에 올라가보았다.

승선대정각이 아주 특색이 있었다.

정각기둥을 자연바위처럼 만들었는데 솜씨가 보통이 아니였다.
여기에 망원경까지 설치되여있었다. 전망이 좋은 곳에 망원경까지 있으니 경치를 부감하기에는 그저그만이였다.

승선대의 왼쪽에는 벌거스레한 벽체에 처마를 얹고 만개의 사찰이 있는것 같다는 만사봉과 천개의 부처들로 이루어져있는듯 한 천불봉이 솟아있었다.

천불봉의 오른쪽으로 얼마쯤 떨어진 곳에는 산봉우리의 모양이 불교에서 이르는 라한부처의 모습과 같다는데로부터 라한암이라고 부르는 산봉우리도 있어 눈길을 끈다.

승선대에서 다른쪽으로 굽어보니 망월대, 배바위, 부부바위, 기와집바위와 풍금바위, 무희대를 비롯한 기암들이 마치 제 모양을 자랑하며 점검을 받기 위해 늘어선듯이 줄지어있다.

《저 봉우리는 쌀가마니를 가려놓고 나래를 씌운것 같지 않소?》

《정말 그렇군요. 저기에 있는 바위는 수만권의 책을 빼곡이 꽂아놓은것 같애요.》

《밥그릇에 밥을 무둑히 담아놓은것 같은 바위도 있어요.》

《정말 바위들이 참 기묘하군요. 이것이 칠보산을 만들어낸 조물주의 재간일가?!》

《아무리 신묘한 재주를 가진 천하일등조각가인들 저렇게 기묘한 바위들을 만들어낼수 있을것 같애요?》

《그럼요, 아무리 일등가는 석공이라 해도 저렇게 아름답고 신묘하게 생긴 바위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할것입니다.》

명소들이 얼마나 신통해보이는지 관광객들이 저저마다 떠

들어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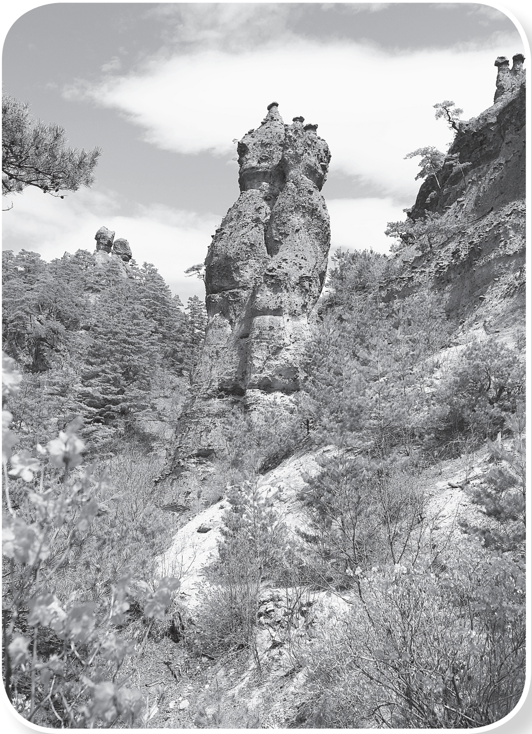
기암들을 알아맞추느라 여념이 없는 우리에게 강사는 칠보산설경도 여기 승선대에서 보는것이 제일이라며 겨울철에도 꼭 한번 와보라고 웃음을 띠우고 말한다.

그 말을 들으니 우리는 흰눈을 얹어놓으면 저 기암괴석들과 봉우리들은 또 얼마나 신비로울가 하는 호기심이 생기면서 겨울에도 한번 꼭 와보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승선대에서 바라보이는 기묘하기 그지없는 기암괴석들중에서 제일 신통해보이는것은 뭐니뭐니해도 역시 부부바위였다.

바위의 생김새가 다정한 부부가 함께 서로 안고 정을 나누는듯 한 모양을 하고있는 부부바위는 내칠보의 제일명소로 널리 알려져있다고 한다.

말로만 듣던 부부바위를 직접 보느라니 바위의 정점에 푸른 이끼와 작은 나무들까지 자라고있어


칠보산의 부부바위

투구의 깃갈이 보이는게 정말 생동했다.

전장에 나갔던 남편이 돌아와 안해와 서로 부둥켜안고 상봉의 기쁨을 나누는듯 하다.

그들의 손은 어디에 있는지…

서로서로 그리워하던 자기의 《보물》들을 쓰다듬으며 한껏 정을 나누는 그들을 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바위가 굽어보고있는것을 보고 너무도 부끄러워 어쩔줄을 몰라하다가 그대로 바위로 굳어졌다는 강사의 해설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흥그럽게 하여준다.

승선대에서 칠보산의 제일가는 기암 부부바위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듣고 누군가가 즉흥시 《부부바위》를 랑송하였다.

얼싸안았구나 얼마나 기쁘랴
얼마나 행복하랴 꿈속에서만 서로 만나던 부부
한평생 다시는 헤여지지 않으리
너무도 굳은 맹세 다지고다져
서로 만난 그 순간이 천만년이 되였구나
아, 얼마나 좋으랴 헤여진 북과 남의 우리 겨레
저렇게 얼싸안고 하나되여 천년만년 살고지고!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겨레모두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목청껏 읊는 즉흥시는 내칠보의 장엄한 산발들을 뒤흔들며 멀리멀리로 메아리쳐갔다.

송이버섯바위도 명물이였다.

송이버섯바위를 가리켜 이 고장 사람들은 하늘나라 신선이 만들어놓은 명물이라고 한다.

칠보산에 세상에서 제일 진귀하다고 하는 기암들이 다 있는데 송이버섯을 닮은 기암만이 없는것을 보고 하늘나라 신선이 만들어놓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칠보산의 특산물인 송이버섯생각이 불쑥 솟구친다. 가을철 소나무숲속에 내돋는 칠보산의 송이버섯이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차라리 가을철을 맞춰 올걸 그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송이버섯바위를 지나면 원숭이가 턱을 고이고 무엇인가 생각하는것처럼 보인다는 원숭이바위가 있다. 다른 바위들에 비해 특별히 큰 바위로서 소나무를 가까이한 뾰족한 부분은 원숭이코이고 그우로 우묵하게 들어간 부분은 눈, 불룩하게 나온 부분이 이마이다.

기와집바위도 대자연의 기묘한 창작솜씨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었는데 지붕을 형상하는 웃부분에는 소나무들까지 자라고있어 기암의 멋을 더 깊이 새겨준다.

강사의 말에 의하면 내칠보의 서책바위와 기와집바위사이에는 신기한 《옹달샘》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변마을사람들이 그 샘을 묻어버려 오늘까지 찾아내지 못하고있다는것이다.

사람들이 샘을 묻어버리게 된것은 어떤 괴한이 칠보산에 나타나 이 일대의 처녀들을 수없이 끌어다 망쳐버리고있었기 때문이였다.

그놈을 잡아 물어보니 자기는 원래 칠보산에서 도를 닦아

나라의 기둥장수가 되려 하였으나 굴결의 《옹달샘》을 마시다나니 혼자 견딜수 없을 정도로 되여 처녀들을 잡아오군 하던것이 습성으로 되고 결국은 이처럼 큰죄를 짓게 되였다는것이다.

그리하여 마을에서는 그자와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주변에서 가장 큰 바위를 들어다가 샘을 묻어버렸던것이다.

샘을 묻어버린 바위가 얼마나 큰지 누구도 그 돌을 치울수 없었으며 지금도 그 바위우에 올라가 엎드려 귀를 대고 들으면 그밑에서 《옹달샘》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정말이지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경탄을 자아내는 칠보산의 경치이고 그럴듯한 전설이였다.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개심사로 향하였다.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개심사는 826년에 세운것으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발해시기의 유적들중의 하나라고 한다.

개심사라는 이름은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맑게 가지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였다.

발해때에 처음 짓고 여러차례 개건되였으며 1784년에 다시 지었다.

개심사가 발해시기의 사찰이라는것은 사찰주변에서 흑유기와가 많이 발견되였고 특히는 1948년 개심사를 보수할 때 대웅전 용마루에서 《발해 선왕9년 병오 3월 15일 룡강성 석두현 혜성사 금강곡 칠보산 개심사 창건주 대원화단 목공 팽음》이라는 글쪽지가 들어있는 나무함이 발견된데서 잘 알수 있다.

《개심사는 원래 중심건물인 대웅전과 만세루, 향로각, 동

서승방, 산신각으로 이루어져있었는데 19세기에 이르러 향로각은 관음전으로, 동서승방은 각각 신검당, 음향각으로 고쳐부르게 되였습니다.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파괴되였던것을 원상대로 복구해놓은 만세루에는 1764년에 만든 180kg짜리 청동종이 있으며 서쪽을 향하고있는 대웅전에는 5개의 불상과 7개의 탱화(불교그림)가 걸려있습니다.

칠보산 내칠보의 종

그밖에 황동초대와 향불통, 목탁, 신사절구를 비롯한 많은 유물들이 보관되여있습니다.》라는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개심사를 돌아보느라니 여러가지 모양의 룡조각들이 정말 볼만 하였다.

우리는 강사에게서 개심사와 관련한 여러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들으며 옛날 스님들의 손때가 묻어서인지 아주 묘한 소리가 나는 나무공예품인 목탁도 두드려보고 개심사주위에 있는 600여년 자란 개심사약밤나무와 무성한 참대밭도 돌아보았다.

개심사를 돌아보고 내경대로 오르는 우리의 눈앞에 또 하

나의 기묘한 바위가 나타났다.
  짐을 이고 먼길을 떠난 애기어머니바위였다.
  애기어머니가 머리에 인 저 짐이 혹시 송이버섯보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올라 절로 웃음이 나는 바위였다.
  드디여 내칠보의 경치가 한눈에 다 바라보이는 내경대에 올라섰다.
  내경대구역의 부감대에서는 부부바위의 왼쪽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바위도 볼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커다란 유람선우에 관광객들이 빼곡이 서서 내칠보의 경치를 구경하려고 온듯 한 유람선바위도 보인다.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내 나라의 명산 칠보산.
  그 절경을 숨가쁘게 느껴본다.
  만사봉중턱에는 룡신굴과 제자굴이 있었고 바위우에 마치도 커다란 3개의 종을 올려놓은것 같이 보이는 종각봉도 있었다.
  종각봉뒤에 있는것이 나라에 큰 경사가 생기면 종각봉의 종을 때렸다는 방망이처럼 생긴 타종암이다.
  하대, 중대, 상대의 세층으로 이루어진 금강봉의 중대에 올라 경치를 부감하는것도 좋지만 상대에 올라 내칠보를 굽어볼 때에는 마치 우리가 하늘중천에 떠있는것만 같았다.
  금강봉에서 어느 정도 내려가면 금강굴이 있는데 그앞에서 금강샘물이 솟아나고있었다.
  개심사구역에는 이밖에도 아이들이 한데 뭉쳐 어울려 노는것 같다는데로부터 동자암이라고 부르는 바위와 곱지도 않게 생긴 천하미인암, 상모를 쓰고 춤을 추는것 같다는 농부바

칠보산 내칠보의 가마바위

위, 새색시들이 시집갈 때 타고 가던 가마처럼 생긴 가마바위, 례문암, 탄금대를 비롯한 명소들도 있다.

내 원 암 구 역

내원암구역에 들어서면 그 모양이 반달처럼 생겼다는 반월봉, 온갖 새와 각이한 짐승들의 모양을 이룬 바위들로 하여 널리 알려진 금수봉, 범의 아가리를 련상시키는 호구암,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듯 한 홰불바위, 봉화바위, 거부기바위를 비롯한 봉우리들과 기암들이 한눈에 안겨온다.

어찌 그뿐이랴.

산마루에 솟은 주먹바위와 산중턱에 스님이 앉아 경서를 읽는것 같다 하여 경송암이라고 부르는 바위, 정6면체를 이

루고있어 어느 석공이 다듬어놓은것 같은 사각형모양의 두부바위, 두마리의 상어가 솟아오르는것 같은 상어바위, 살아있는 돼지의 대가리처럼 보이는 저두암, 사자바위, 손벽바위, 부엉이바위, 곰바위…

형태와 모양이 너무도 신통하고 천태만상인 내칠보의 기암들이다.

이선암지역의 전망봉에 올라 바라보아도 중이 두손을 모으고 정숙하게 선 자세로 외로이 서있는것처럼 보이는 중바위, 창검바위, 대성암…

칠보산은 금강산이나 묘향산에 비해 물이 적어 폭포가 매우 드물었다.

그런데 홰불바위에서 승선대방향으로 여러 산등성이를 넘어 한참 가느라니 해빛이 겨우 들어올 정도로 나무들이 꽉 들어찬 수림속에서 웅글진 폭포소리가 울리였다.

그 소리를 따라가보니 높이가 6m정도 되는 수직폭포가 나타났다. 칠보산에서 보기 드문 폭포라고 한다.

금강폭포밑에는 옛날에 룡이 살았다는 깊은 담소가 있는데 이 담소가 구룡담이다.

그때는 물량이 많은 홍수기여서 폭포수가 쏟아져내리는 광경이 정말 볼만 했다.

황홀경에 빠져, 기암절경에 매혹되여, 강사의 이야기에 빠져 시간가는줄 모르고있었는데 어느덧 날이 저물기 시작한다.

내칠보람승을 위해 많은 길을 걸었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좀더 보고싶은 절경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더 컸다.

외칠보를 찾아서

외칠보는 내칠보의 수려하고 의젓한 자태와는 달리 높이 솟은 웅장하고 기묘한 봉우리들과 기암절벽, 수정같이 맑은 물이 쉬임없이 흘러내리는 골짜기가 많아 산악미와 계곡미로 특징지어진다.

다음날 아침 외칠보에 대한 탐승길에 올랐는데 비가 약간씩 내리기 시작했다. 오히려 산행하기가 더 좋았다.

외칠보의 자연풍치는 산악의 기개가 충천하고 날카로우면서도 웅장한것으로 하여 활달한 남성적성격을 띤 종합적인 풍치지역이라고 말할수 있었다.

산세가 너무 험하고 길이 없어 경치구경을 하고싶어도 할수 없었던 이곳에 탐승도로가 훌륭히 꾸려져 오늘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있다.

외칠보는 그 지역적특성과 참관로정에 따라 장수봉구역, 만물상구역, 로적봉구역, 덕골구역, 강선문구역, 다폭동구역, 삼선암구역, 황진구역으로 이루어져있다.

우리가 장수봉구역에 들어서니 입구에 사나운 부리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매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는데 꼭 칠보산을 지키는 파수병같았다.

매바위뒤에 있는것이 봉서암이다.

봉서암이란 이름은 수많은 봉황새가 두세층으로 빼곡이 앉아있는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에서 봉서라는 말은 전설에 나오는 봉황새를 의미했다.

장수봉구역에는 신통히도 송이버섯모양의 웃음바위, 맹수들이 모여 울부짖는것 같다는 맹수암, 처녀바위와 총각바위도 있었다.

처녀바위는 비물에 젖은 치마폭을 한손으로 감싸쥐고 비옷을 걸친채 수집은듯이 서있는 얌전한 처녀모습 그대로이다.

총각바위는 무뚝뚝하고 순박한 총각이 처녀에게 첫사랑을 고백하며 어색하게 서있는것처럼 보인다.

처녀바위밑에는 처녀를 올려다보는 고양이를 련상시키는 고양이바위가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보니 자연바위의 형상이 너무도 생동하고 그럴듯하여 관광객들은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처녀바위, 총각바위를 이모저모 뜯어보면서 웃음을 금치 못해한다.

이 바위들에 내원동의 총각과 가전동의 처녀가 사랑을 언약한 순간 돌로 굳어졌다는 이야기도 깃들어있어 사람들의 흥취를 더욱 돋구어준다.

웃음바위에 깃든 전설도 그럴듯하지만 걸죽한 기담패설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해대는 처녀강사의 솜씨 또한 감탄스러웠다.

이밖에도 장수봉구역에는 독수리가 둥지를 틀고 살았다는 수리봉과 심원골을 지키는 파수장같이 보인다고 하는 장수바위가 있다.

장수봉구역을 돌아보고 만가지 모양을 가진 기암들이 있다고 하여 예로부터 만물상이라고 불리왔다는 만물상구역에

이르렀다.

봉우리밑에서 우를 올려다보면 아찔한 절벽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데로부터 만장봉이라고 불리우는 봉우리, 바위가 떨어져나간 언저리가 성문처럼 보이는데 마치 빗장을 지른것 같은 궐문봉, 봉우리에 장군바위가 있다는데로부터 붙여진 장군봉, 하늘의 선녀들이 만물상구경을 하다가 하늘로 오르군 하였다는 승천봉, 월락봉을 비롯한 봉우리들과 그 비탈면에 펼쳐진 명소들…

탐승도로를 따라 올라가니 만물상의 경치를 한눈에 굽어볼수 있었다.

《이 바위를 보십시오. 무엇을 형상한것 같습니까?》

《마치 곰이 한손에 꽃묶음을 쥐고있는것 같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꽃묶음을 쥔 곰이 만물상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입구에서 맞이하는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이 바위를 영선암이라고 부른답니다.》

만물상구역에는 전망의 명소로 이름난 조약대도 있었다.

옛날 한 청년이 장수가 될 결심을 안고 아래하천까지 뛰여내렸다가 뛰여오르는 훈련을 하던 곳이라 하여 조약대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곳으로 올라가는 길은 울창한 수림속이여서인지 매우 시원한감을 느끼게 된다.

그 느낌을 강사에게 이야기했더니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시원한것이 바로 칠보산의 특징이라고 하는것이였다.

조약대에 있는 정각에서 망원경으로 만물상의 경치를 부감하였다.

장군봉, 승천봉, 궐문봉을 비롯한 봉우리들과 그 비탈면들에 이루어진 만물상전경이 한눈에 안겨온다. 기암괴석들로 이채를 띠는 만물상은 그 누가 말하면 말한대로, 생각하면 생각한대로 그 모양이 나타나 사람들을 경탄시킨다.

승천봉 건너편에 있는 월락봉에는 사람들이 보기 드문 만물상의 야경(동해에서 뜨는 보름달)을 보며 즐기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월락봉과 승천봉사이에는 새길령도 있다.

여기에는 황진사람인 정상인로인이 령길을 닦은 후부터 새로운 길이 생기게 되였으며 이름도 새길령으로 불리운다는 전설이 전해진다고 한다.

강사가 그 사연을 이야기해주었다.

… 로인이 숯구이하러 깊은 산속에 황소를 한마리 끌고왔는데 매일 밤마다 황소가 없어졌다가는 새벽이 되면 다시 나타나군 하였다.

하도 이상하여 황소를 따라가보았더니 글쎄 인적없는 길을 헤치고 바다가마을에 있는 암소를 찾아 주인 몰래 이 령길을 넘나들었던것이다.

황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로인은 이 길로 가면 수십리길을 에돌지 않아 바다가마을사람들의 고생도 덜어줄수 있지않겠는가 하고 생각하며 여기에 길을 낼 결심을 하게 되였고 결국 60리길을 주름잡는 새 령길을 내게 되였던것이다.

이 령길이 개척된 다음부터 황진사람들은 보촌을 거쳐 다니던 수십리길을 에돌지 않고 곧바로 가전동으로 오게 되였다고 한다.

새길령에서 수십m정도 떨어진 곳에 이 지름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정상인로인의 공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세운 대리석비석이 있었다.

비석의 앞면에는 그의 새길령개척을 기념하여 세운 비석이라는 뜻에서 《정공상인개신로기적비》라는 글과 함께 비석을 세운 날자가 새겨져있고 뒤면에는 그의 공적을 평가한 비문이 새겨져있다. …

승천봉앞으로는 산줄기가 내린 가운데 덕을 이룬 락선대가 있다.

옛날 칠보산경치가 하도 좋아 하늘의 선녀들이 이곳에 내려와 놀았다는데로부터 락선대라고 하였다고 한다.

락선대에 오르면 가마바위, 뿔바위, 독수리바위, 기러기바위, 강아지바위, 박쥐바위, 독사바위, 두더지바위 등 세상만물을 닮은 수많은 기암들이 안겨온다.

봉우리 뒤쪽에는 둥글게 구멍이 난 바위가 있는데 보름달이 뜰 때나 질 때 그 문으로 나들었다고 하여 월출문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밖에도 만물상구역에는 금시 모이를 쪼아먹고 머리를 쳐든 수닭바위, 한 장수가 칠보산에서 무술을 익힐 때 그의 활촉에 맞아 구멍이 숭숭 뚫리였다는 촉혈암(곰보바위), 나라를 지켜 장검을 갈며 승전고울릴 도를 닦던 무사들의 숨

결 오늘도 어려있는것만 같은 장수굴, 이 땅에 기여든 외적과 싸울 병쟁기들을 부어냈다는 도가니바위도 있다.

강사는 자연의 요새가 나라를 지키는 성새가 되고 외적을 물리치는 전장에서 바위도 활활 타올라 멸적의 신호를 했다는 봉화바위이야기와 함께 내려오는 장수들의 사랑의 전설도 들려주었다.

전장에서 공세운 그리운 님 돌아오시는 날 애끓는 가슴부여잡고 큰절드리는 녀인바위와 장수바위, 칠보산총각들의 슬기와 기개를 키워준 청기와 올린 기와집바위와 그아래 소복이 들어앉은 초가마을에서 소꿉시절부터 정을 나누며 백년가약 맺은 다정한 부부, 삼년석달 외적을 치는 싸움에서 승전한 기쁨안고 오봉의 고요한 골안에서 얼싸안는 젊은 부부바위이야기를…

참으로 칠보산은 전설의 산, 사랑의 명산이였다.

내칠보의 수려하고 의젓한 자태와는 달리 산세가 더 높고 기묘한 바위들이 우뚝우뚝 솟아있는것으로 하여 장중한감을 주는 외칠보.

만물상을 내려 민박숙소로 향하는 길에 우리는 신통히도 낟알가마니를 품들여 차곡차곡 쌓아놓은것처럼 보이는 로적봉을 보게 되였다.

하천기슭의 평퍼짐한 곳에 솟은 로적봉은 화강암우에 덮인 현무암이 오랜 세월에 걸쳐 비바람에 씻기고 깎이여 드러난 봉우리로서 고깔모양을 이루고있었다.

강사가 이 로적봉이 생겨나게 된 전설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칠보산 외칠보의 로적봉

전설

《 로적봉이 생겨난 이야기 》

옛날에 저곳에 군량미를 쌓아두었다.

그래서 군졸 2명으로 보초를 세웠는데 이들은 신기한 량면 거울로 낟가리를 지켰다.

이 거울은 한쪽면은 붉은색, 다른쪽은 푸른색으로 된 거울이였는데 붉은색으로 낟가리를 비치면 낟가리가 돌로 되고 푸른색으로 비치면 낟가리로 변하는 아주 신기한 물건이였다.

오래전부터 낟가리에 눈독을 들여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놈은 황진에 사는 욕심많은 최지주놈이였다.

최지주는 낟가리를 지키는 군졸들에게서 그 거울을 빼앗으라고 기생을 로적봉으로 보내였다.

군졸들에게 간 기생은 수고한다고 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술도 권하면서 그들을 취하게 만들었다.

드디여 군졸들이 나자빠진 틈을 리용하여 기생은 군졸의 주머니에서 거울을 꺼내가지고 도망쳤다.

잠에서 깨여난 군졸이 정신을 차려보니 기생은 없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기생을 뒤쫓아갔는데 기생은 군졸이 따라오는 바람에 너무 급하게 뛰다가 넘어졌다.

이때 그만 거울이 깨여지면서 로적가리가 영영 돌로 변하였다고 한다.

………………………………………………………………………

봉우리의 틈마다에는 키낮은 소나무들도 자라고있어 풍치를 더욱 돋구어준다.

로적봉을 바라보느라니 가을걷이 떨쳐나선 농부들의 모습과 풍년기쁨 노래하는 장새납소리가 금시라도 들려오는듯싶다.

바라볼수록 흐뭇한 그 기쁨 쌓고쌓아도 끝이 없는 농부들의 그 마음인듯 높이 솟은 풍년낟가리이다.

로적봉옆에는 햇쌀떡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사찰을 찾아가는 녀인바위가 보이고 녀인의 등에 업힌 아이가 자기를 닮았는가 하여 훔쳐보는듯 한 보살바위도 보여 사람들이 터져나오는 웃음을 금치 못하는데 강사의 이야기가 들린다.

《한때 외칠보의 진귀한 봉우리로 알려진 로적봉이 일제에 의해 없어질번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를 강점했던 일제가 로적봉의 돌들을 허물어 침략과 략탈로 이어진 길을 닦는데 쓰려고 덤벼들었던것입니다.

1926년 일제는 명천읍과 동해바다가를 련결하는 군용도로를 건설하면서 저 봉우리를 허물어 로반을 쌓았습니다.

이때 이곳 농민들이 농쟁기를 들고 맞서싸우자 더 허물지 못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지키려는 우리 인민의 강력한 항의에 못이겨 끝내 물러가지 않을수 없었던것입니다.

탑처럼 뾰족하던 로적봉이 지금처럼 뭉툭해지고 높이가 낮아진것은 일제의 파괴책동때문이랍니다.

로적봉과 잇닿은 등마루에는 한 농민이 로적가리를 더 높이 쌓을 생각으로 허리춤에 손을 얹고 로적봉을 바라보는것같은 풍돌바위가 있습니다.

신통히도 사람처럼 생긴 이 바위에는 옛날 한 농군이 로적가리를 높이 쌓은 다음 또 하나의 로적가리를 더 쌓을 생각을 하면서 이미 쌓은 로적가리를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돌로 굳어졌다는 이야기가 담겨져있습니다.

로적봉옆에는 또한 로적가리의 낟알을 찧어서 보관하였다는 이야기로 흥취를 돋구는 삼각모양의 미로굴도 있습니다.》

로적봉 동쪽에 있는 마두암도 원래 말대가리처럼 생겼었는데 일제가 그밑으로 길을 내면서 이 바위를 허물어 로반을 쌓는통에 말대가리형태가 없어졌다고 한다.

기치봉은 산정점의 바위들이 마치 옛날 군사들이 병쟁기를 들고 기발을 날리며 한줄로 걸어가는것 같이 보인다.

로적봉을 지나 룡굴앞에 이르러 강사는 옛날 룡이 숨어살았다는 룡굴암이라고 하면서 해방전에 큰길을 닦을 때 이

바위굴에서 수많은 구렝이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고 하였다.

그앞에는 와구란바위라는것이 있었는데 개구리가 욕심스레 닭알을 물기는 했으나 넘기지 못한 자세로 굳어져버린것만 같았다.

이 바위의 이름도 개구리가 닭알을 물고있는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와구란바위가 있는 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로적폭포가 흐르고있었다.

한길정도 되는 항아리처럼 패인 곳에 물이 돌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 폭포우에 있는 담소주변에 나무들이 푸른 잎새를 펼치고있어 폭포의 경치를 더 시원하고 아름답게 하여준다.

로적폭포를 지나니 장관을 이룬 2단폭포와 6단폭포가 나타났다.

벼랑진 바위벽을 타고 쏟아지다가 큰 항아리같은 담소에 떨어지고 거기서 다시 바위벼랑을 타고 떨어지는 2단폭포와 로적봉골짜기풍치에서 손꼽힌다는 6단폭포.

물량이 많은 장마철이여서인지 하늘중천에 한끝을 박고 드리운것 같은 6단폭포가 곧추 떨어지기도 하고 구부러져 흐르기도 하면서 담소를 이루는 전경이 그야말로 장관이다.

기암절벽과 계곡을 굽이쳐흐르는 맑은 물, 푸른 숲으로 뒤덮인 산발들 그리고 기묘한 봉우리들과 바위들로 하여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는 덕골구역 역시 멋있었다.

여기에 마치 고구려의 용맹한 무사가 위풍당당히 앉아있는

듯 한 장군바위와 그 맞은편에 외적을 물리치고 승전하고 돌아오는 장수에게 녀인이 머리를 다소곳이 숙여 절을 하는듯 한 큰절바위가 있다.

외적과의 싸움에서 무자비하였던 고구려군사들의 용맹한 기질과 조선녀성의 아름다운 풍모를 다 안고있는듯싶은 바위들이 칠보산의 경치를 한껏 돋구며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덕골일대에는 특색있게 흘러내리는 덕골폭포와 아이를 앞에 안고 또 업은듯 한 모양을 이룬 모성바위, 쌍지암 등으로 불리우는 명소들도 있다.

우리는 강사의 유모아적인 해설을 들으며 힘든줄 모르고 옥계정에 올랐다.

옥계정에 오르니 옥계폭포와 덕골폭포가 한눈에 보인다.

강사의 말에 의하면 옛날부터 옥계폭포의 물로 세수를 하면 늙은 할머니도 처녀로 변하고 덕골폭포의 물로 세수를 하면 늙은 할아버지도 총각으로 변한다고 한다.

우리는 너도나도 폭포물로 세수를 해보았다.

폭포물로 세수를 하고나니 별로 청신해보이고 한껏 젊어지는듯 한 느낌이였다.

덕골폭포까지 가는 등산길은 정말로 즐거웠다.

다래넝쿨에 매달려 제손으로 다래를 따먹기도 했고 무릎을 적시며 가재잡이도 했다.

가재잡이에 신바람이 난 우리는 사진을 찍는것도, 시원한 수박도 안중에 없이 물장구를 치며 돌아갔다.

칠보산은 골안깊숙이 들어갈수록 시원하고 마음의 안정감

을 준다.

이 나라 어머니들의 애틋한 마음이런가 옥동자를 칠보산의 주인으로 키우려는 어머니의 그 마음 변함없는 모성바위, 세상천지 다 둘러봐도 칠보산이 제일이라고 두손가락 높이 든 쌍지암, 맑은 담소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살점을 바꾸어 붙였다는 구수한 육담이 전해지는 가재다리바위도 정말 신통하다.

경치구경에 정신이 팔린 우리에게 강사가 이야기해주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보고 또 보시며 앞코숭이가 신통히 매같이 생겼다고 이름지어주신 매바위도 있고 찾아오는 사람들 제나름으로 이름지어 부르던 동물바위들도 있습니다.

저 부지런한 거부기는 달리고 또 달리는데 그를 얕본 토끼는 아직도 잠만 자고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모양을 재미있게 쳐다보고있는 복슬강아지도 생동하기 이를데없습니다.》

칠보산의 보물을 건드리는자 한입에 삼켜버릴듯 한 그 기상 보여주는 범바위의 전설도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다.

7개의 골짜기와 8개의 릉선으로 이채를 띠는 7곡8릉, 마치 등산객들이 한줄로 서서 산으로 오르는것처럼 보이는 행렬봉, 부처가 올방자를 틀고앉아있는듯 한 좌상봉을 비롯하여 외칠보에서 이름난 명소들이 있다는 강선문구역이다.

톱날같은 행렬봉마루의 한 부분에서 돌이 무너져내리면서 생긴 강선문은 크기와 형태에 있어서 그 어느 명산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자연돌문이다.

궁륭식으로 생긴 문꼭대기에 활등처럼 가로놓인 바위면을 강선교라고 부른다.

궁륭식으로 된 강선교를 이루는 천연바위우에서는 몇그루의 누운 소나무가 바위짬에 뿌리박고 푸르싱싱하게 자라고있었다.

7곡8릉도 릉선마다에 홍치바위, 수양암, 보가지바위, 어웅바위, 승렬암, 대호암, 가재미바위 등으로 불리우는 기암들이 있어 기묘한 경치를 펼쳐보인다.

하늘의 옥황상제가 내려와 잠자리 펴고 누워 쉬던 곳이라는 침상바위와 그를 지키다 그대로 굳어졌다는 사자바위도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하늘의 선녀가 타고 내린 강선문에서 마음착하고 부지런한 목동과 만나 사랑을 고백하고 정을 나눌 때 벗어놓은 그 날개옷은 어디에 있는지…

산천경개 수려한 여기서 아들딸 낳고 행복의 무릉도원 가꾸어간다.

외칠보에는 룡소골에 이루어진 명승으로서 칠보산의 계곡미를 대표하는 다폭동구역도 있다.

다폭동구역은 이름그대로 폭포 아니면 소이고 소 아니면 폭포라고 말할수 있을 정도로 폭포와 담소로 되여있었다.

이름난 폭포와 담소들로서는 칠보산에서 제일 큰 폭포의 하나로 알려진 룡소폭포와 타원형으로 생긴 룡소담, 2개의 계단을 거쳐 쏟아지는 2단폭포와 한쌍의 사슴이 물을 먹군하였다는 음록담, 높이가 9㎜나 된다는 금직폭포, 누운폭포로서 이채를 띠는 은림폭포, 떨어지는 폭포수의 형태가 마치

소낙비가 쏟아지는것 같은 천우폭포를 비롯한 크고작은 폭포들과 담소들이 있었다.

칠보산의 폭포들을 한곳에 모아놓은것 같은 다폭동의 폭포들은 물량이 많은 계절이여서인지 장쾌하게 쏟아져내리며 황홀경을 펼쳐 아름답기 이를데없었다.

모양과 크기에서 해칠보 무지개바위와 꼭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홍예문은 무지개바위를 옮겨놓았는지 착각할 정도이다.

룡천암은 옛날 삼룡포의 백룡담에서 놀던 룡이 7년간 담소에서 힘을 키웠는데 서쪽하늘의 룡처럼 생긴 구름을 룡으로 알고 그놈과 겨루어보겠다고 급하게 날아오르다가 바위에 대가리를 틀어박아 구멍이 났다는데로부터 유래되였다고 한다.

이밖에도 외칠보에는 황진구역의 온천, 칠성봉, 륜선바위, 보시기바위를 비롯한 명소들이 있다. 바다쪽으로 나가는 길에 펼쳐진 명승구들이다.

칠보산의 내칠보와 외칠보를 돌아보고나니 칠보산은 이름그대로 칠보에 비길만 한 보물같은 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도 아름다와 그 누가 보면 눈자리가 날가봐 이런 외진곳에 솟았는지, 아니면 누가 훔쳐갈가봐 산발을 성벽삼아 둘러막고 그 아름다움을 보물처럼 숨겨두고있는지 알수 없지만 칠보산의 아름다움과 기묘함은 첫눈에 뭇사람들의 마음을 끄잡아당기는 칠보단장을 한 신부를 방불케 한다.

외칠보의 명승들을 돌아보고 숙소로 돌아오며 해칠보는 또 어떤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펼쳐보일것인가를 상상해보았다.

바다우에 펼쳐진 천하절경

다음날 아침이다.

이날 우리의 탐승일정은 바다우에 천하절경을 펼치였다는 해칠보로 가서 배를 타고 유람하며 경치구경을 하는것이였다.

해칠보구역에 들어서니 아찔하게 솟은 바위절벽과 파도에 씻겨 생겨난 크고작은 바위문들이 아치모양으로 일떠서고 흰 갈기를 일으키며 련이어 밀려오는 파도가 절벽에 부딪쳐 천만구슬로 흩어지는 광경, 그우로 갈매기떼 날아예는 해칠보는 실로 장엄하고 경쾌하였다.

탐승로정에 따라 여러개의 명승구역으로 나누어진 해칠보 명승지에서 장쾌한 해돋이로 열리는 바다가의 아침은 너무도 상쾌하고 인상적이였다.

해칠보의 경치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보는것이 더 좋다는 말에 미리 배까지 대기시켰던 우리는 중평부두에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넓어지는것만 같은 바다의 품에 안겨들듯 서둘러 배에 올랐다.

맑고 푸른 동해의 파도를 헤가르며 우리는 먼저 뭍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해칠보솔섬구역을 부감하였다.

이곳은 원래 솔섬으로 불리웠으나 해칠보에 있는 섬이라는 뜻에서 해칠보솔섬으로 불리우는데 그 경치가 아름답고 묘하게 생겼으므로 오래전부터 해칠보에서 이름난 명소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해칠보 해수욕장앞에는 파도치는 바다물에 잠길락말락하게 자태를 드러내고있는 바위가 한줄로 길게 놓여있다.

수백m 넘게 길게 놓여있어 줄바위라고도 부른다는 이 바위들은 더없이 좋은 자연방파제같았다. 해칠보앞바다가 아무리 파도가 심하다고 하여도 줄바위가 파도를 막아주기때문에 해수욕장은 매우 안전하다고 한다.

그곳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느라니 수㎞의 구간에 렬을 지은듯 7개의 봉우리들이 잘룩잘룩 한줄로 잇닿아 길게 늘어져있는 봉우리들이 보인다.

자세히 보니 파도가 들이칠 때마다 봉우리들이 굼실거리는것 같았다.

그 모양이 마치 룡이 길게 늘어져 굼실거리고있는듯 하다고 하여 이 봉우리들을 와룡칠봉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강사가 우리에게 이 봉우리들에 예로부터 전해져내려오는 전설이 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

전설

《 와룡칠봉 》

아득히 먼 옛날 동해 룡왕의 맏딸인 공주가 앓을 때 의원을 불렀더니 산삼을 달여먹어야 병을 고칠수 있다고 하였다.

룡왕은 청룡과 황룡 두 제신을 산삼캐러 칠보산에 보냈다.

청룡과 황룡은 칠보산의 험한 산발을 오르내리다가 산삼발을 만났다.

산삼은 두 바위짬사이에 있었는데 두 바위가 오전에는 열리

고 오후에는 닫기는것이였다.

이것은 산삼에 빛절반, 그늘절반을 주기 위해서였다.

심술이 많고 성미가 괴벽한 황룡은 마음이 진실하고 일 잘해서 룡왕의 총애를 받고있는 청룡을 오래전부터 미워했던지라 산삼을 캐낸 다음 바위가 닫기는 때에 다시 청룡을 두 바위짬에 들여보내고 자기는 캐여낸 산삼을 밖에서 손질하는척 하며 서성거렸다.

잠시후 바위가 닫기여 청룡은 나오지 못하였다.

이때 칠보산신령은 산삼을 몰래 캐여간다고 처벌로 여러날동안 돌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황룡은 산삼 한단을 둘러메고 룡궁으로 가면서 이제는 자기가 룡왕의 총애를 받게 될것이고 또 공주가 병석에서 일어나면 룡왕이 자기를 부마로 맞아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룡궁으로 돌아갔다.

룡왕은 황룡이 수고했다고 칭찬한 후 공주에게 산삼을 먹였더니 병은 인차 나아졌다.

룡왕이 황룡에게 청룡은 왜 돌아오지 않았는가고 묻자 황룡은 청룡이 산삼을 더 캐려고 남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흘이 지나도 청룡이 오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된 룡왕은 황룡을 불러 산삼을 캐던 곳으로 도로 보내면서 청룡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황룡은 해칠보끝에까지 왔지만 일사가 난처하여 바다가에 앉아 생각을 굴리다가 돌아가서 청룡이 많은 산심을 캐여가지고 어디론가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는 바다가에서 술도 마시고 낮잠도 자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사이 청룡은 신령의 도움으로 나온 후 룡궁에 돌아가 자

기가 오지 못하게 된 사연을 룡왕에게 아뢰였다.

한편 칠보산신령은 황룡의 소행을 괘씸히 여겨 하늘의 벼락을 몰아다가 보촌해안에서 놀고있는 황룡에게 들씌웠다.

이렇게 되여 황룡은 그 모양대로 굳어져 7개의 봉우리로 되였다고 한다.

……………………………………………………………………….

강사에게서 전설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저마끔 한마디씩 한다.

《벌을 받아 싸지. 그런데 저 와룡칠봉은 마치도 세찬 파도로부터 보촌마을을 보호하려는것 같지 않나요? 칠보산신령이 황룡에게 벌을 주어 저렇게 훌륭한 제방을 만들었구만요. 정말 멋있는데요.》

《멋있지요. 이 고장 사람들은 와룡칠봉의 모습은 바다에서 보는것보다 뭍에서 보아야 더 멋있다고 이야기한답니다.》

와룡칠봉을 지나니 산허리에 흰구름을 휘감고 창공높이 아아하게 솟아있는 행렬봉, 좌상봉이 보인다.

그 말기에 있는 여러가지 모양의 기암들은 더없이 기묘하게 보인다.

바다를 따라 더 나아가느라니 솔바위섬이 나졌다.

뭍에서 100m정도 바다에 나앉은 솔바위섬은 모양이 둥글둥글하여 닭알같기도 하고 한척의 배같기도 하며 섬우에는 푸른 소나무숲이 우거져있어 더없이 황홀한 해안경치를 이루고있었다.

솔바위섬은 원래 륙지에 붙어있었는데 오랜 세월 물결에 씻기워 허리가 끊어지면서 생겨났다고 한다.

솔바위섬밑에 섬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만들어져있어 쉽게 섬우에 올라설수 있다.

섬우에 올라가면 한가운데가 뭉청 끊기여 섬이 2개로 갈라졌는데 휑하게 구멍이 난 곳이 옛날에 흑룡이 살았다는 룡굴이다.

룡굴에 내려서면 파도가 바위벽을 뚫고들어와 맑고 청청한 못을 이룬 속에 물고기들이 헤엽치는것을 볼수 있다.

룡굴의 물소리는 파도가 잔잔할 때에는 미묘한 소리가 들리다가도 파도가 들이칠 때에는 뢰성벽력이 일어나는것 같이 정황에 따라 여러가지 소리가 난다고 한다.

섬의 생김이 묘하여 옛날 한 시인은 이곳 섬에 오른 감정을 이렇게 노래하였다고 한다.

솔섬은 묘하기 닭알과 같은데
바다어구에 알맞추 놓여있네
섬의 한복판에 깊다란 동굴이
휘우듬 생겨 파도를 머금네

솔바위섬에는 《바다룡을 요정낸 채장수》라는 전설도 깃들어있어 솔섬에 오른 관광객들의 눈맛만 홀리는것이 아니라 귀맛도 돋구어주었다.

이밖에도 솔바위섬의 북쪽해안기슭에는 낚시터가 있고 나비형태를 이룬다는 봉접봉, 마치 선녀가 칠보단장을 하고 선듯 하다는 칠보암, 점잖은 부인이 칠보암의 절경을 바라보는

듯 한 자세를 이룬 부인암, 새의 부리같은 부리바위, 크고작은 수많은 바위들이 들쑹날쑹 솟아난 모양이 무수한 화살을 세워놓은것과 같다고 하기도 하고 수만개의 화살을 세워놓은 것 같기도 하다는 촉석암, 새색시모양의 외롭게 서있는 각시바위, 마치 먼곳을 바라보는것 같은 망부암, 바다물이 항상 소용돌이친다는 복수단도 있다.

아름다운 솔바위섬풍치에 어울리게 아담한 정각도 세워져 있었다.

동료들은 정각에 올라 저저마다 솔섬의 독특한 경치를 하나라도 더 남기고싶어 사진찍기에 여념이 없다.

솔바위섬을 떠나 이번에는 무지개바위쪽으로 배를 몰아갔다.

칠보산 해칠보의 무지개바위

묘하게 생긴 무지개바위가 나타났다.

오래전부터 솔바위섬, 달문과 함께 해칠보의 이름난 명소로 널리 알려진 무지개바위는 하늘높이 걸린듯 한끝은 산비탈에 박고 다른 한끝은 바다에 뿌리박고있어 참으로 절경을 이루었다.

반달같은 바위구멍에 파도가 들이닥쳐 은빛꽃보라를 이룰때에는 마치 구름우에 걸린것처럼 안겨온다. 바위짬에 뿌리박고 오래 자란 두그루의 소나무가 있어 이곳의 풍치를 더한층 돋구어주는 무지개바위였다.

무지개바위앞에 있는 산호암을 지나 바위돌들마다에 벌둥지처럼 구멍이 숭숭 나있는 바위들이 있는 곳에 생긴 바다가의 나루라는 봉소진도 돌아보고 《힘장수오누이》전설이 전해지는 바위들도 둘러보았다.

바위벽이 마치 각이한 형태의 크기와 벽돌로 벽을 쌓아올린것처럼 보이는 축조봉을 지나면 힘장수오누이가 살았다는 마호라는 마을을 지나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칠성골의 기암봉우리들이 잘 들여다보여 외칠보의 경치도 부감할수 있었다.

마호골의 북쪽으로 해암절벽을 이루며 솟아있는 목단봉기슭에도 볼만 한 명소들이 참 많았다.

해안을 따라 넓은 구간에 수직으로 일어선 직승암, 황진리의 해안선을 따라 반원을 이룬 황진만, 황진만을 따라 해안절벽을 이루며 웅장하게 솟은 바위들이 여러가지 색갈을 띠고있어 한폭의 풍경화처럼 보인다는 채화봉…

이 채화봉구역에는 백리향군락도 있었다. 그 향기가 100리

나 풍긴다는데로부터 그 이름을 백리향이라고 하였다는 희귀한 향토식물은 원래 황해북도 서호와 묘향산일대에 있는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 칠보산에서 군락을 이루고 자라고있었던것이다.

다른 지방의것과 차이가 있다면 칠보산의 백리향은 고산지대의것보다 잎이 길고 줄기도 더 높이 자란다는것이다.

해칠보에는 절벽면이 불그레한 색을 띠고있고 겉면이 그물코처럼 잘게 터갈라져있어 마치도 수천마리의 참새들이 바위벽에 붙은것처럼 보이는 진작봉도 있다.

해안가를 따라가느라면 련대봉도 보인다.

련꽃이 많이 피여있는 호수가에 둘러싸여있는 봉우리라 하여 련대봉이라고 부른다는 이 봉우리우에 기묘한 바위들이 서있었다.

강사가 이 바위들에 깃든 이야기를 해주었다.

하늘나라에서 명화가로 자칭하던 화공이 해동국 칠보산에 내려와 해칠보를 그림에 담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름다운 해칠보절경을 그림에 담기에는 아직 초학도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자책하게 되였다.

그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 10년동안 화공으로서의 기교를 더 련마한 다음 칠보산에 내려와 해칠보의 절경을 그리기로 하고 화공도구를 남겨둔채 하늘로 올랐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있는 붓바위, 벼루바위, 연적바위, 먹바위는 이 전설로부터 지어진 이름들이라고 한다.

해칠보에는 기묘한 절벽이 아아하게 솟았는가 하면 아기자

기한 모양새를 갖춘 명소들이 서로 어울리여 독특한 풍치를 보여주는 달문구역도 있다.

여기에 한쪽끝은 큰 바위산에 박고 다른 한쪽끝은 바다물에 잠그고있어 그 모양이 달처럼 보이는 해칠보달문도 있다.

달문은 예로부터 이곳을 지나는 항행자들과 어민들에 의하여 알려지고 풍랑을 겪을 때마다 달문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전설많은 명소의 하나이다.

달문에는 조선동해에서 뜬 달이 밤새껏 떠있다가도 낮이면 이곳에서 쉬면서 풍치아름다운 해칠보구경을 하였다는 전설이야기도 전해진다.

우리는 해칠보의 관문과 같이 솟아있는 달문을 보면서 자연의 조각미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는 배우에서 칠보산의 경치를 한눈에 부감하며 시도 읊고 낚시질도 하였다. 칠보산관광에 시간가는줄도 몰랐다.

참으로 즐겁고 유쾌한 칠보산탐승길이였다.

예로부터 명산들은 명인들의 시구로 그 이름 더욱 유명하다.

하지만 수많은 명산들을 찾으며 시를 남긴 방랑시인 김삿갓도 칠보산의 경치를 노래할만 한 글귀를 종내 찾지 못하여 시 한수 짓지 못하고 하루종일 경치구경만 하다가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오늘도 전해지고있는 곳이 바로 여기 칠보산이다.

이 아름다운 칠보산절경을 두고 왜 유명한 김삿갓이 시 한수 남기지 못했는지 의문스럽기만 하였다.

우리의 마음을 읽었는지 강사가 그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전설 《 김삿갓과 칠보산 》

… 칠보산에 온 김삿갓이 중낮이 되여 내칠보골안에 있는 오랜 옛 사찰인 개심사에 들리였다고 한다.

중들과 인사를 나누고 천하경치가 한눈에 다 보인다는 개심대와 상선대에 올랐는데 그곳은 칠보산을 구경하는 유람객들로 붐비였다. 칠보산을 돌아볼수록 김삿갓은 자기가 인간세상이 아닌 선경의 백옥경에 올라선듯 하였다.

그날 저녁 삿갓은 평퍼짐한 너럭바위우에 종이두루마리를 펴놓고 잔돌로 네 귀까지 눌러놓았다. 벼루에 향긋한 냄새가 나는 먹을 갈아놓고 붓대를 쥐였다.

지금껏 붓을 잡고 멈추어본적이 없는 그였으나 어인 일인지 붓끝이 달리지 않았다. 칠보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리라 지금껏 벼르어오던 소원이 풀렸건만 항간에서는 《시의 귀신》이라고 불러오는 삿갓이 아무리 말마디를 골라보아도 적당한 시구가 떠오르지 않았다.

고려시인 김황원이 평양의 련광정에 올라 대동강시를 지으려다 끝내 짓지 못했다더니 나의 얕은 시재가 이 명산의 아름다움앞에 말라버린것이나 아닌지…

삿갓은 종내 붓을 놓고 《칠보산의… 아름다움을 다 보지도 않고 서둘러 붓을 듦이 경망스럽도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꾸짖었다.

이튿날에는 길안내자까지 만나 외칠보까지 돌아보았지만 이번에도 붓을 들지 못하였다.

한것은 그가 만물상의 락선대우에 올라 붓을 달리고저 할

때였다. 그의 배낭에는 이젠 어지간히 시편들도 찼건만 똑 마음에 드는 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품을 들여 명시구를 짓자 생각했지만 어느 세도량반의 산구경행차에 끌려나온 한 농부가 허기진채 벼랑에서 떨어져 《칠보산인지 뭔지 우째 이 고장에 솟았는지.》 하며 눈을 뜬채 숨이 지는것을 보게 되였던것이다.

잘사는 량반놈들에겐 즐거움을 주고 못사는 백성들에겐 고통만 더하는 칠보산인줄은 모르고 자연의 절묘함만 보고 음풍영월하려던 자기의 생각을 꾸짖으며 하늘이 준 아름다움으로 하여 목숨까지 잃는 이 고장 백성들앞에서 다시는 음풍영월을 외우지 않으리라 속다짐하게 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천하명산으로 이름높은 금강산, 묘향산, 구월산, 평양의 대동강, 개성의 박연폭포, 안주 백상루 등 조선팔도 안 가본데가 없고 간 곳마다에 시를 안 남긴적 없는 호방한 방랑시인 김삿갓이 칠보산에 대해서는 단 한편의 시도 남기지 않고 돌아갔다는것이다.

……………………………………………………………………

칠보산은 조국의 명산이 다 그러하지만 기암괴석과 절벽이 많은것으로 하여 아마도 더 유명해진것 같다.

오늘날 칠보산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언제 와봐도 매번 새롭게만 느껴지는 칠보산의 경치는 너무도 아름다워 어디 가도 잊지 못할것 같다는것이 여기를 찾았던 관광객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이다.

이번 칠보산탐승과정에 그 유명한 송이버섯을 따보지 못한것이 좀 아쉬웠다.

칠보산송이버섯이야기

지금도 송이버섯을 떠올릴 때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에 보내주신 칠보산송이버섯이 생각나군 한다.

그때가 바로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이 있은 직후인 2000년 추석명절때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평양에 왔다간 남조선의 수뇌상봉일행과 언론사대표단 성원들,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일행과 평양에 와보지 못한 수십여명의 각계층 인사들에게까지 추석명절에 쓸수 있도록 칠보산송이버섯을 보내주시였던것이다.

송이버섯을 전달받은 남조선의 당사자들은 친지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 맛보면서 북의 진한 향토맛, 조금도 덞지 않은 신선하고 깨끗한 민족적정취를 가슴저리게 새겨안았다고 한다.

그때 남조선에 전달되였던 송이버섯은 한상자에 10kg씩 포장한것이 300상자나 되였는데 상자마다 안에 랭매제까지 넣어 자연상태그대로 보존된것이였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맛있다, 칠보산송이버섯》 등의 제목으로 송이버섯에 깃든 뜨거운 사연을 대서특필하였고 남녘동포들은 저저마다 칠보산송이버섯과 칠보산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었다.

그야말로 뜨겁고도 열렬한 민족애를 엿볼수 있게 하는 칠보산송이버섯이였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담고있는 칠

보산송이버섯을 항상 각별한 애착을 가지고 대하군 한다.

그 칠보산송이버섯을 제손으로 직접 따보고싶은것이 우리의 소원이였다.

그리하여 또다시 칠보산으로 향한 우리일행은 평양항공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시간정도 걸려 칠보산에 도착할수 있었다.

아담하게 꾸려진 민박숙소에 자리를 잡은 우리는 먼저 입구에 있는 명천군 독포리로 갔다.

이곳이 송이버섯산지로 소문이 난데다가 여기에 송이군들이 많았기때문이였다.

이 지방에서는 송이버섯을 따러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 일명 송이군이라고 부른다.

그들을 만나 송이버섯에 대한 표상부터 가졌다.

《비가 올 때에는 송이들이 모두 새하얗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해만 나면 송이들이 밤색으로 되면서 가랑잎과 비슷해지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솔잎도 밤색, 송이도 밤색,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모르고 지나가는데…

우리 송이군들에게는 자기 송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와서 돌아가도 우리만이 찾을수 있는 송이가 따로 있다는것입니다.》

이곳 송이군들의 말에 의하면 명천군에서는 6월 20일경부터 7월말까지 올송이가 나오며 8월 15일부터는 늦송이가 나오기 시작하여 초겨울 눈이 올 때까지도 송이버섯을 캘수

있다고 한다.

송이버섯을 따기가 힘든데 송이버섯을 잘 따는 사람들은 하루에 대여섯바구니이상 따기도 한다는것이다.

《송이버섯이 잘 보이는 날이 있는데 그럴 때에는 많이 따서 얼마나 성수가 나는지 모릅니다.

산에 올라오자마자 한꺼번에 10개가 주련이 있을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12～13개까지도 있어서 뜻하지 않게 송이버섯을 많이 딸 때가 있군 하지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송이버섯을 딸수 있습니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나름이기때문에…》

그들의 말에서 송이버섯은 다른 버섯과 달리 나오는 곳이 제한되여있고 희귀하기때문에 그것을 찾기가 간단치 않을것이라고 은근히 위협적인 암시를 받고나니 우리의 마음은 더 다급해졌다.

원래 송이라는 말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버섯이라는 의미에서 《솔 송》자에 《버섯 이》자를 써서 송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송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버섯이라는 말을 덧붙이는것은 우리 말의 눈송이, 꽃송이라는 비슷한 말이 많은것으로 하여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 송이버섯이라고 한다는것이 바로 학자들의 이야기였다.

우리 나라의 여러곳에서 송이버섯이 자라지만 칠보산송이버섯을 제일로 일러주고있는것은 칠보산이 송이버섯이 자라는데 가장 적합한 환경조건을 가지고있고 그런것으로 하여 품질이 매우 높기때문이다.

송이버섯이 잘 자라자면 온도, 습도, 바람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는데 칠보산은 동해안지구에 있고 해발고가 높은데다가 울창한 수림지대를 가지고있으면서 부식질함량이 높기때문에 송이버섯이 자라기에 매우 리상적인 생태환경으로 되는것이다.

우리가 9월초에 칠보산을 찾으니 송이버섯계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송이버섯을 따러 칠보산에 들어갔다고 한다.

칠보산에 오르니 골은 골마다 송이버섯이 유명해서인지 내칠보의 천불봉, 송이버섯바위, 가마바위절벽들에 송이버섯이 방금 돋아나는것처럼 우줄우줄 버섯모양을 형상하고있었다.

놀라운것은 이 내칠보의 바위들을 자세히 보면 모두 버섯모양의 바위천지라는것이다.

물론 버섯을 따기 위해 여기로 올라온 우리의 마음이 앞선데도 있지만 보면 볼수록 신기하다.

경치구경에 여념이 없을 때는 잘 모르겠더니 송이버섯을 따려고 올라와서 그런지 보는것마다 송이버섯바위처럼 보였다.

사철 푸른 억센 소나무의 뿌리에서 생존해서 그런지 송이버섯은 예로부터 중요한 보약재로, 건강식품으로, 주로 남성들의 애용식품으로 많이 리용되여왔다.

송이버섯의 약효성과 맛에 대해서는 많은 력사책들에 기록되여있다.

그중에서도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유명한 의학자였던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는 《송이버섯은 독이 없고 맛이 달고 향기로운 솔냄새가 나며 나무버섯가운데서 약효가 제일이다.》

라고 씌여져있다.

송이버섯은 옛 문인들속에서도 많은 시적흥분을 자아냈는데 15세기에 활약한 대표적시인인 김시습은 후세에 이런 시구절을 남기였다.

고운 몸 아직도
송화향기 띠고
짜게 볶아내니
색과 맛이 아름답고
이발이 시원하다

한시바삐 송이버섯을 따보고싶은 욕망을 누를길 없었다.

금시라도 내 눈앞에 크고 먹음직스러운 송이버섯이 나타나는 행운이 차례졌으면 하고 속으로 빌고빌었다.

우리와 동행한 칠보산명승지관리소 일군이 송이버섯에 대한 《특강》을 해주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송이버섯을 식생활에 리용해오면서 송이버섯의 등품을 갈랐는데 순전히 맛을 가지고 갈랐다고 한다.

갓이 형성되기 전 상태의 송이버섯을 1등품 동송이라고 하고 갓형성이 어느 정도 되였는가에 따라 2등품과 3등품을 가른다.

1등품은 향기는 그리 세지 않으나 살이 만문하고 수분이 많고 단맛이 센것이 특징인데 그에 비해 2등, 3등품 갓송이

는 향기는 세지만 버섯 대부분이 좀 질기고 동송이에 비하여 산뜻하지 못하다고 한다.

송이버섯을 오래 보관하자면 갓송이보다 동송이를 보관해야 한다는것이 송이버섯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들의 리론이다.

하지만 그 동송이도 다른 버섯에 비해 보관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한다.

송이버섯은 온 한해 나오는것이 아니라 시기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해마다 8～9월이 아니면 생송이를 먹어볼수가 없다.

더우기 송이버섯은 다른 버섯들처럼 인공재배를 할수 없는것으로 하여 그 가치가 남다르고 귀물로 되는것이라고 한다.

송이버섯을 오래 보관할수 있는 방법에는 송이버섯을 초극동시키는 방법(랭송이), 말리는 방법(건송이), 소금에 절이는 방법(염송이)이 있다.

생송이에 비해서 말린 송이나 염송이, 얼군 송이의 식용적가치는 떨어진다고 하지만 약리적가치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인공적으로 재배할수도 없고 오래동안 보관할수도 없는것으로 하여 그 존재가치가 귀물중의 귀물로 불리우는 송이버섯.

다른 버섯에 비해서 그 맛과 향기가 뛰여나고 영양가 또한 높아 버섯의 왕으로 불리우는것이 바로 송이버섯이다.

송이버섯!

그자체가 참으로 명물이다.

그의 《특강》을 듣던 우리가 송이버섯은 소나무뿌리에서 자라는 균실체라는데 소나무밑에 가면 송이버섯이 있지 않겠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명물이여서 아무의 눈에나 쉽게 뜨이지 않는것이 바로 송이버섯이랍니다. 귀할수록 찾기가 힘들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얼마 안 있어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외칠보의 황홀한 경치에 한껏 들떠 송이버섯을 찾아나선것마저 깜박하려던 찰나 뜻밖에도 《송이버섯밭》이 우리앞에 나타났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은 《송이버섯》을 발견할줄은 꿈에도 몰랐다.

《운수좋은 사람들한테만 이런 마당송이가 차례진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운수가 좋은 모양이지요?!》

우리는 횡재나 한것처럼 껑충거리며 《송이버섯》을 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제법 따놓은 송이버섯의 품질을 확인하고싶어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딴 송이버섯이 몇등품 됩니까?》

그때까지 웃음을 참으며 우리의 거동을 지켜보던 명승지관리소의 일군이 이렇게 말을 하는것이였다.

《그건 송이버섯이 아니라 독버섯입니다.》

《뭐라구요? 독버섯?!》

《예, 이 버섯은 소나무있는데서 자라는 독버섯입니다.
송이버섯사촌이란 말입니다.
송이버섯은 냄새를 맡아보면 솔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섯은 그렇지 않지요.》
《거참, 비슷한것 같은데…》
《갓살을 보면 송이버섯은 부채살모양으로 되여있는데 이 버섯은 그렇지 않지요.
이렇게 갓살이 밋밋한것은 완전한 독버섯입니다.
독버섯과의 차이가 바로 갓살이 부채살모양으로 되여있지 않고 밋밋한것이랍니다.》
이렇게 소나무밑에서는 송이버섯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독버섯도 자라고있었던것이다.
송이버섯과 신통히 류사한 독버섯도 있다는 그의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손발이 저려드는것 같았다.
그가 하는 말이 송이버섯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절대로 돋아나지 않는다고 한다.
송이버섯은 다른 버섯들과는 달리 환경오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미 나오던것도 돋아나지 않는다는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수림속 깊은 곳일수록 송이버섯이 많다는것이였다.
우리는 송이버섯을 따기 위해서 수림깊이 더 들어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발자취가 없는 곳이라고 하여 송이버섯이 무조건 있는것도 아니였다.

벌써 산속에서 헤매는지 한시간정도 지나자 이곳에 송이버섯이 진짜 있긴 있는가 하는 우려감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눈을 비비며 아무리 애써 찾아도 보이지 않는 송이버섯!

아무에게나 쉽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것이 바로 귀물의 특성이라더니…

그제서야 값도 모르고 쌀자루 내미는 격으로 우리가 너무 지나친 욕망만 앞세운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송이버섯을 따러 칠보산에 들어왔다가 버섯은 따지 못하고 산천경개만 구경하다가 갔다고 하던 송이군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아쉬움으로 맥이 빠진 우리들을 위안이라도 하려는듯 눈앞에 희한한 풍경이 펼쳐졌다.

수닭바위, 곰바위, 토끼바위…

알고보니 여기가 외칠보의 경치중에서 최절정을 이루는 만물상이였다.

여러가지 모양의 바위들을 보는 사람들이 제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김새를 만가지이상 그려볼수 있다고 하여 이름지어진 만물상!

바위들의 기묘함을 찬탄속에 바라보며 우리가 놀랍게 느끼게 된것은 이곳 바위들의 생김새 역시 송이버섯과 류사한 것이였다.

《내칠보에만 송이버섯바위들이 많은가 했는데 여기 외칠보의 만물상에 올라와보니 여기도 온통 송이버섯바위천지이군요.》

무수히 솟아있는 송이버섯모양의 바위들에서 또다시 힘을 얻은 우리는 신심을 잃지 않고 송이버섯을 찾아 다시 걸음을 옮기는데 일이 될세라 경험이 풍부한 오랜 송이군을 만나게 되였다.

어떻게 해야 송이버섯을 딸수 있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20여년간 송이버섯을 따왔다는 녀인은 송이버섯이 명물이여서 해뜨기 전 새벽에 산에 올라와야 잘 보인다고 하였다.

진짜 1등품 송이버섯은 대체로 땅속에 있는것으로 하여 일반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송이군들에게는 자기들이 다니는 주로가 따로 있다는것이다.

그러면서 송이버섯을 따는 비결을 알려주었다.

《송이를 따자면 우선 눈이 밝아야 하며 땅생김새를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발로 송이를 디디였을 때 (아차, 내가 송이를 밟았구나.) 할 정도로 발바닥감각을 가지도록 땅생김새에 예민해야 하며 송이가 있는데를 막대기로 툭툭 두드려보았을 때 튐성이 강하면 송이가 있다는것을 알아챌수 있을 정도로 손감각도 예민해야지요.

송이가 없는 곳은 딱딱합니다.

송이가 있는데로는 발이 우선 가야 하며 그곳으로 초점과 감각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송이는 무턱대고 따는것이 아닙니다.

따보느라면 경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 송이를 보았을 때 동송이면 <아이쿠, 삼촌, 안

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고 송이를 캐며 갓송이일 때에는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며 송이를 캐야 합니다.

첫인사 송이인셈이지요.

송이를 딸 때는 싫증을 느끼지 말고 이악해야 하는데 한송이 캐고는 신심을 가지고 또 다음 송이를 캐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송이군은 자기 말을 명심하고 한번 송이버섯을 찾아보자고 하는것이였다.

그의 말은 사실이였다.

송이군이 제일먼저 송이버섯을 찾아냈는데 일명 땅송이라고 부르는 송이버섯이였다.

대체로 땅송이는 땅속에서 자라난것으로 하여 땅겉면만 보아서는 찾아내기가 힘들었다.

《자, 여기에 지금 송이가 있는데 이 주변에서 송이를 찾아보십시오.》

송이군은 땅바닥에 크게 원을 그어주며 이 주변에 송이버섯이 많은데 한번 찾아보라고 한다.

일단 《강의》를 받고 송이버섯이 있는 곳까지 지정해주니 우리도 송이버섯을 찾을수 있을것 같은 신심이 생겼다.

그리하여 정신을 집중하여 송이버섯을 찾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 눈에 송이버섯이 보일리 만무하였다.

하지만 송이군은 련이어 우리를 불러댄다.

귀신이 곡할 정도로 우리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송이

버섯이 송이군의 눈에서는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였다.

애기솔나무밑에 자기의 존재를 감추고있는 커다란 갓송이버섯!

송이군의 송이버섯 찾는 솜씨는 정말 귀신같았다.

《이건 또 누워서 자라는 송이버섯이로구만.》

땅속에서 자라는 송이버섯도 신비하지만 그것을 찾아내는 송이군의 모습은 더욱더 신비하였다.

우리는 송이군의 송이버섯찾기경험과 비결도 배우기로 하였다.

그는 우리에게 땅걸면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땅송이를 손감각으로 찾아보는 방법과 송이지팽이를 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의 능란하고 적극적인 수강에 초보자인 우리들은 지형에 대한 발바닥감각이며 송이를 빨리 감각할수 있는 묘리를 어렴풋이나마 터득할수 있었다.

견습은 드디여 은을 내고야말았다.

송이군의 방조없이 제손으로 끝내 송이버섯을 찾아냈던것이다.

난생처음 그처럼 바랬던 칠보산의 크고 잘 생긴 송이버섯을 따낸 기쁨과 환희란 과연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을가.

정말 기뻤다.

우리는 제법 송이군이라도 된듯 숲속을 누비며 송이버섯따기에 성수가 났다. 얼마후에는 한바구니 잘되게 송이버섯을 수확할수 있었다.

소북이 쌓인 송이버섯을 흡족하게 바라보니 별안간 시장기가 머리를 쳐들었다.

제손으로 딴 송이버섯도 있겠다 우리일행은 가까운 휴식터에서 송이버섯을 실컷 맛보기로 하였다.

우리를 배워준 송이군은 자기는 송이버섯료리에서도 전문가라고 하면서 예로부터 음력 8월이면 송이군들이 양념장과 밀가루를 가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송이를 캐서 구워먹군 하였는데 그 맛이 천하일미였다는것, 그래서 송이를 캐러 왔던 사람들도 모두 송이군들의 방식대로 송이버섯을 구워먹으니 우리도 옛날 송이군들이 해먹던 방식그대로 송이버섯구이를 하자는것이였다.

송이버섯구이방법은 아주 간단했다.

송이버섯을 십자로 가른 다음에 그안에 밀가루를 섞은 양념장을 넣고 종이로 감싼 다음 그우에 진흙을 바른다. 그것들을 땅우에 놓고 그우에 장작을 놓아 불을 지피면 아주 맛있는 송이버섯구이가 된다.

송이군이 옛사람들이 해먹은 그대로 송이버섯구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행한 명승지관리소 일군이 그런 구이보다 송이버섯의 갓을 가지고 하는 갓구이가 더 맛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송이버섯구이를 보여주었다.

《이런 방법도 있지요.

량반들이 산천경개를 구경하면서 해먹었다는데 우리도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는것입니다.

먼저 불판을 설치하고 송이갓을 잘라서 거기에 소금을 두른 다음 불판우에 올려놓고 불을 때면 갓안에 진한 향기가 풍기는 송이물이 생깁니다.

그것을 술 한고뿌와 함께 들이마시면 온몸에 천하진미를 얻는듯 한 그런 감정이 생겨나지요.》

우리 선조들은 이런 갓불구이를 철판이 아니라 돌을 달구어했는데 시간상 송이버섯구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돌대신에 철판을 리용하였다.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송이버섯갓불구이는 방법도 간단하고 맛도 좋아서 오늘날 이 지방사람들도 송이버섯을 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먹는다고 한다.

그의 말대로 갓이 구워지기 시작하자 갓안에 노란 물이 고였다.

처음에 시작했던 옛 송이군들이 하던 방식의 송이버섯구이는 시간이 좀 걸리므로 그동안 우리는 먼저 그가 말한 송이버섯갓불구이부터 먹어보기로 하였다.

《자, 기자선생. 이게 아주 잘 구워졌는데 한번 맛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향기가 정말 독특합니다. …

어찌 보면 닭고기맛같기도 하고, 혹 게맛같기도 하고…

참, 별맛이군요.》

《노란 물을 마실 때의 그 진미라는것은… 천하일미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더 표현할 말이 없을겝니다.

이걸 잡숴으니까 이젠 저 송이버섯구이를 잡수어보십시오. 아마 이만 못할겝니다.》

우리가 송이버섯갓불구이를 먹는 동안에 진흙을 싸서 구운 송이버섯구이가 다되였다.

송이군은 송이버섯에 이 지방의 진흙을 감싸서 구웠기때문에 이렇게 구운것은 맛도 별맛이고 영양가도 높다고 은근히 자랑하였다.

진흙을 발라 구운 송이버섯을 먹어보니 송이버섯과 양념이 한데 어울려서 그런지 꼭 닭고기나 칠면조고기를 양념에 찍어먹는듯 한감이 들었다.

역시 향기도 독특하고 맛도 정말 독특했다.

기기묘묘한 아름다운 절경속에서 자라서인지 그 향기 독특하고 그 맛 또한 이채로운 칠보산송이버섯.

칠보산의 천하절경속에서 세상에 둘도 없을 송이버섯구이의 별미를 맛보는 우리들만큼이나 행복한 사람들이 더는 없을것 같았다.

다음날에도 우리는 새벽부터 칠보산에 올라와 새로운 경치들을 구경하면서 송이버섯따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였다.

그 덕에 송이따는 재간도 늘고 송이버섯에 대한 지식도 많이 배웠다.

그중에서도 송이버섯의 우수한 약리적작용에 대하여 정확히 알게 되였다.

자료에 의하면 송이버섯을 비롯하여 참나무버섯, 돌버섯, 팽나무버섯 등 9가지 버섯들을 가지고 항암성활성을 검토해

보았는데 송이버섯이 항종양활성이 가장 높다는것이 판명되였다고 한다.

그러고보니 여기 사람들이 특별히 건강해보이였다.

건강해보인다는 우리의 말에 이곳 사람들이 송이버섯덕을 본 자랑을 쏟아낸다.

《먹어보면 맛도 상쾌하고 기분도 좋고 암을 방지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송이를 캐면서 사탕가루에다가 재워서 먹기도 합니다. 종종…》

《송이캐러 오면 어째서 그런지 감기도 안 오고 이발도 안 쑤고 아무리 피곤하게 다녀도 이가 쏴본적이 없습니다.

송이를 먹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우리 독포리의 한 아주머니가 앓아서 석달동안 병석에 누워서 계속 신약을 써보았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송이선수인 남편이 자기 안해를 기어이 살릴 생각에 송이버섯을 캐서는 잘게 찢어서 꿀에다가 한달가량 재워놓았다가 새벽마다 공복에 먹게 하였는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답니다.》

《제가 캐니까 해마다 송이버섯을 많이 먹습니다.

집에서는 식사량이 작고 소화가 안되는데… 칠보산이 공기가 좋고 물이 맑아서 그런지 산에만 오르면 식사량도 늘어나고 소화가 잘됩니다.》

62살이라지만 아직도 젊음이 넘쳐나는 한 송이군은 우리에게 칠보산은 땅자체가 약인것 같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나는 모든것이 다 보약이라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 칠보산에는 송이버섯도 유명하지만 건

강과 장수에 좋은 온천도 많아 유명하다고, 온천주변에는 장수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우리는 칠보산송이버섯의 뛰여난 약효성이 혹시 이곳 온천들과도 련관된것이 아닌가 하는 제나름의 발상을 하며 다음날부터는 칠보산지구 온천들을 돌아보았다.

알고보니 칠보산지구에는 총 11개 지대에 19개의 온천용출구가 있었다.

이 온천들은 과연 어떤 치료효과를 가지고있는것일가?

대표적인것이 명천군 독포리에 있는 온천이다.

독포온천은 고혈압, 과산성위염, 비만증, 통풍증, 녀성들의 부인병에도 특효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있다.

그런가 하면 명천군 황진리는 유명한 칠보산송이버섯산지여서 그런지, 아니면 칠보산온천의 대표적지구여서 그런지 이 마을에는 장수자가 특별히 많았다.

우리와 만난 황진온천진료소 소장은 《이곳에 96살, 94살 난 장수자가 두명 있는데 아직 밭일을 하고 식사도 잘합니다. 그들은 여기 야외온천에서 여름이건 겨울이건 열흘이나 혹은 한달에 한번씩 1시간동안 들어가서 동맥경화를 풀기 위한 운동을 하군 한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94살 난 장수자 정연적로인의 집에도 들려보았다.

우리가 그의 집에 들어섰을 때 그 장수자로인은 한창 터밭을 가꾸고있었다.

늙을수록 오륙을 놀려야 한다며 아직까지도 며느리를 도

와 집안일을 도맡아한다는것이다.

확실히 이 마을사람들은 야외온천을 즐겨 리용하고있었다.

천연바위틈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온천수를 그대로 리용한 황진온천에는 이 마을사람들뿐아니라 여러가지 질병치료를 위하여 전국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고 한다.

칠보산지구 온천들은 대체로 류황천으로 되여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단순류황천과 수소탄산염류황천, 복합염류황천으로 구분된다.

단순류황천은 신경계통질병이나 피부성질환치료에 좋고 수소탄산염류황천은 소화기계통질병이나 순환기계통치료에 특효가 있으며 복합염류황천이라고 할 때에는 신경계통과 피부성질환, 소화기 및 순환기계통 등 모든 치료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우월한 점을 가지고있다.

칠보산지구에는 2개의 복합염류황천과 5개의 단순류황천, 4개의 수소탄산염류황천이 있는것으로 하여 이곳에 오면 여러가지 질병치료들을 종합적으로 다 할수 있는 우월한 점을 가지고있다고 한다.

칠보산이 가지고있는 우월한 온천!

그것은 칠보산에서 나오는 송이버섯이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송이버섯보다 왜 우월한가를 말없이 설명해주는것이나 같았다.

건강장수에 특효인 온천이야말로 칠보산의 또 하나의 자랑이였다.

정말 칠보산은 온갖 보물이 넘쳐나는 명산이고 민족의 재

부였다.

이런 자부심과 함께 하나의 소망이 가슴속에 차올랐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여 남녘의 겨레들과 해외동포들도 여기 칠보산에 마음놓고 와서 절승경개를 부감하고 송이버섯구이며 온천욕도 하며 한껏 즐기게 되면 얼마나 좋을가 하는것이였다.

그것은 곧 조국통일의 지름길을 앞당겨오시려 한평생 마음써오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이였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아니겠는가.

그분들의 뜨거운 민족애가 어린 칠보산의 송이버섯을 여러차례에 걸쳐 남조선의 각계층 인사들과 인민들이 받아안았던 력사적순간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반드시 열어놓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조선의 명산인 칠보산에서도 통일조국의 만세를 열창할 그날을 그려보며 우리는 송이버섯의 향기를 가슴속 깊은 곳에 고이 간직하였다.

⌘⌘⌘

5. 삼다의 산이라 불리우는 구 월 산

유적 많고 전설 많고 꽃이 많아 삼다의 산이라 불리우는 구월산!

옛 문헌에는 구월산의 산지형이 회룡고조를 이룬다고 하였다.

회룡고조란 산의 지맥이 삥 돌아서 본산과 서로 마주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룡이 돌아서서 조상의 산을 본다는 것이다.

북서쪽에는 바다, 남동쪽으로는 재령강이 흐르고있어 산의 지맥이 서로 마주하고있는데 산우에 산성을 쌓아 천연요새지로 되였다고 전해지고있다.

구월산은 웅장하고 사계절의 경치가 아름다운데다가 민족의 시조인 단군과 관련된 전설이 많아 그 이름도 여러가지로 불리워왔다.

아사달, 금미달, 백악산, 궐산, 궁홀산, 삼위산…

이밖에도 서쪽을 지킨다는 뜻에서 서악, 서진산으로 부르기도 하고 신선이 놀던 산이라고 하여 선산, 가을단풍이 아름답다고 하여 풍악산이라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로부터 구월산의 풍취는 《아사봉천궁에 귀를 기울여보고 단군대에 올라 천신의 유적도 더듬어보고 월산폭포에 몸을 씻고 덕바위우에서 사슴고기를 구워먹으며 구월산

령지술에 취해보는것》이라는 말도 전해지고있다.

그 풍취에 빠져보고싶어 우리는 9월 어느날 경치도 좋고 력사유적도 많은 구월산탐승의 길에 올랐다.

단군대에 올라 《천신》의 유적을 더듬다

오전 9시, 관광객들을 태운 뻐스는 황해북도 사리원시의 갈림길에서 재령평야에 들어섰다.

뻐스를 타고 가는 길에 우리는 구월산탐승을 위해 탐독하였던 자료들을 되새겨보았다.

사황봉을 중심으로 기묘하게 생긴 90여개의 크고작은 봉우리들이 자연의 성새를 이루고 톱날같이 솟아 우아한 산악풍치를 이루는 구월산은 골마다 벽계수 흘러내리고 봉우리들마다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한폭의 그림같이 아름답다고 한다.

구월산성이 있는 등성이에 올라서면 동쪽과 남쪽으로는 무연한 들판이 펼쳐지고 서쪽으로는 서해가 바라보이며 북쪽으로는 서해갑문으로 호수가 된 대동강하구를 바라볼수 있어 그 장쾌함이 이루 말할수 없다.

구월산은 양기넘친 남성의 전형이라고 할만큼 기운이 강하다.

이 산을 어이하여 구월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지금도 이 지방사람들속에서는 임진조국전쟁전야에 구월산성을 중축할 때 서산대사가 아홉개의 달이 솟게 하였다고 하여 구월산이라고 불러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있다고 한다.

하지만 16세기초에 출판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벌써 이 산이 구월산이라고 밝혀져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구월산에 깃든 전설들가운데서 그 한 토막에 불과할뿐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민간에서는 단군이 아사달에서 9월 9일에 승천하여 신이 되였다고 하여 아사달산 혹은 구월산이라고 부르게 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단풍든 9월의 풍경이 하도 아름다워 9월의 이름을 달았다고도 한다.

구월산은 조국의 명산들가운데서 유일하게 서해로 뻗어내린 산으로서 그 경치가 천하절경이다.

제일 높은 사황봉을 주봉으로 하는 구월산에는 예로부터 절승경개를 자랑하는 《아봉일출》, 《진강락조》, 《삼성운백》, 《룡연폭포》, 《월정정백》, 《사선검무》, 《패엽관경》, 《고성잔월》이라는 구월산8경도 전해지고있다.

참나무, 동백나무, 피나무, 잣나무들이 울창한 수림을 이루어 청신한 기운이 감도는 구월산입구에 들어서니 구월산명승지 해설강사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우리 구월산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봉우리가 많은 구월산탐승이 땀개나 흘려야 할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 탐승도로가 쭉쭉 뻗어있는게 정말 멋있구만요.》

《탐승도로가 꾸려지기 전까지는 구월산탐승이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비행기를 타고 구월산구경을 하라면 했지 걸어서는 할수 없다는 말까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원래 구월산은 길이 너무 험하여 등산가들도 등산할 엄두를 내기 힘들어하던 곳이였다.

하지만 오늘날 구월산은 등산로정이 뻗어있고 휴식터마다에는 정각들과 재미있게 형상된 여러가지 모양의 동물조각상들로 하여 등산객들이 전혀 힘든감을 느끼지 못하고 누구나 찾아와 쉽게 정점에까지 올라갈수 있게 되여있다.

누군가가 강사에게 물었다.

《참, 이 탑승도로를 고난의 행군시기에 닦았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승리할 래일을 내다보시며 구월산명승지건설을 발기하시고 인민군군인들을 보내주시여 얼마 안되는 기간에 이렇듯 훌륭하게 전변시켜주시였습니다.》라고 하면서 강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생전에 구월산을 인민들의 훌륭한 문화휴양지로 꾸려주시기 위하여 무려 수십여차례의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오랜 세월 적막속에 잠자고있던 구월산을 흔들어깨워 팔담골을 비롯한 여러 명소들을 하나하나 찾아주시고 가꾸어주시였을뿐아니라 탑승도로까지 훌륭히 닦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구월산을 찾으시여 몸소 험한 벼랑길을 톺아오르시며 명소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가는 곳마다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편리한 장소들에 정각들도 많이 세우며 자연미가 살아나도록 동물조각들도 형상하여놓을데 대해서와 등산길을 잘 닦을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건설자들은 구월산의 자연풍치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갈세라 순수 함마와 정대로 길을 열고 100여km의 관광도로를 훌륭하게 완성하였으며 수많은 다리들과 여러가지 형식의 정각들, 부감대들을 일떠세워 구월산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켰다.

탐승도로가 륜환선으로 련결된 구월산명승지는 단풍골, 팔담골, 정곡골, 산성골로 이루어져있었다.

관광객들은 강사를 따라 먼저 단군신화가 깃들어있는 삼성사가 자리잡고있다는 팔담골로 향하였다.

구월산의 삼성사

팔담골은 말그대로 담소가 8개로 되여있다고 하여 불리워진 이름이다. 옛날에는 이 골안을 기생골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조선봉건왕조시기 고을량반들과 군수들은 기생을 끼고 여기에 와서 술놀이를 하며 놀다가 갈 때에는 경치좋은 이곳에 흔적을 남기고싶어 천연바위에다 이름을 쪼아박아넣군 하였다고 한다.

팔담골에 들어서면 제일먼저 보이는 곳이 청춘샘이다.

《야! 샘물이다. 그런데 바가지는 없습니까?》

《이 샘물은 제손으로 떠마셔야 그 진맛을 알수 있답니다.》

강사의 말대로 두손으로 샘물을 떠올려 입으로 가져갔다.

어찌나 달고 시원한지 정말 기가 막혔다. 샘물을 마시니 정신이 번쩍 들고 힘이 났다. 그래서 청춘샘인가?!

한모금으로는 성차지 않아 두모금, 세모금 샘물을 퍼마셨다.

물론 목이 말라서이기도 했지만 아마 청춘샘이라서 젊어지고싶은 욕망이 앞섰던것 같다.

샘물을 마시고 땀을 들이며 앉아있는 우리에게 강사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들려주시였다는 이 샘에 깃든 전설을 이야기해주었다.

전설

《 구월산 눈물샘 》

… 먼 옛날 달래라는 처녀와 천이라는 총각이 구월산에서 살았는데 이 바위우에서 그들의 사랑이 맺어졌다. 잔치를 며칠 앞둔 어느날 달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앓아눕게 되자 처녀는

사랑이냐, 효성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모대기던 끝에 앓는 어머니의 병구완을 위해 시집을 갈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총각에게 자기를 잊어달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사황봉을 향해 약초를 찾아 길을 떠났다. 벼랑에서 떨어지고 눈비를 맞으며 험한 산을 톺아오르기를 그 몇번, 10년세월 구월산을 오르내리며 마침내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고 이 자리에 와보았다.

그러나 애타게 자기를 기다리며 서있다가 바위로 굳어진 총각을 보고는 너무도 억이 막혀 처녀도 그 자리에서 바위로 굳어지고말았다. 바위로 굳어진 처녀의 귀가에 총각이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사랑의 길 아무리 넓다 해도
효성의 넓은 대로에 비길수 있으리까
사랑의 길 끝을 모른대도
효성의 길보다야 어찌 길다 하리요

이 속삼임소리를 들으며 달래는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그 눈물이 고이고고여 마를줄 모르는 샘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샘을 《눈물샘》이라고 이름지었고 오래동안 사람들속에 눈물샘으로 전하여져왔었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일군들도 모르고있던 《눈물샘》 전설을 들려주시며 그 샘을 찾도록 하시고 샘을 찾은 다음

에는 물맛까지 보아주시며 산골에 와서는 제손으로 물을 떠 마셔야 진짜 샘물맛을 알수 있다고 샘물마시는 방법까지 알려주시였다는것이다.

그리고 이 샘물의 이름을 청춘샘이라고 부르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는것이였다.

《그래서 <눈물샘>이 오늘은 청춘샘이 되였구만요.》

정말이지 우리가 즐기는 명소 하나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크나큰 심혈이 깃들어있다고 생각하니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청춘샘이 있는 곳에서 포장도로를 따라 어느 정도 올라가느라면 새로 만든 은정폭포가 흘러내리는 은정호가 있었다.

한옆에 날아갈듯이 생동하게 형상된 송학도 멋있었지만 호수에 만들어놓은 3마리의 거부기는 살아움직이는것처럼 생동하다. 바다가에서만 볼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부기를 서해명승 구월산에 와서 볼수 있게 된것이다.

탐승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느라면 아사봉정점가까이에 단군과 관련한 여러가지 유적들이 있다.

아사봉너머 서쪽에는 바위절벽으로 되여있는 원명골이 있는데 여기에는 원명사, 비산사, 백련담을 비롯한 사찰터들과 암자터들이 있다.

팔담골에는 월정사도 있는데 이것은 구월산에 있던 수많은 옛 건물들가운데서 지금까지 남아 전해오는 유일한 건물이라고 한다.

846년에 처음 세워진 구월산 월정사는 오랜 력사와 함께

구월산의 월정사

건물의 구조와 형식이 치밀하고 력학적으로 잘 째인 력사유적이다.

원상그대로 보존되여있는 월정사는 극락보전을 중심으로 만세루, 명부전, 수월당과 기타 부속건물로 이루어져있다.

극락보전의 기둥은 전형적인 배부른 기둥이지만 두공은 다른 건물들에서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 구조로 되여있다.

극락보전에는 200여년전에 그렸다는 《신중탱화》와 100여년전에 그렸다는 《칠성탱화》가 걸려있었다.

구월산 팔담골에는 삼성사도 있었다.

삼성사라는 말은 세명의 성인을 제사지내는 사당이라는 뜻이다. 세명의 성인이란 단군과 그의 할아버지 환인, 아버지 환웅을 말한다.

삼성사는 원래 단군을 제사지내던 사당으로서 단군사라고 불렀는데 단군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함께 제지낸것으로 하여 삼성사라고도 불렀던것이다.

구월산에는 단군의 사당과 함께 단군이 《천신》이 되여 하늘로 올라갔다는 백운대를 비롯하여 단군과 관련된 명소들과 전설들이 적지 않았다.

《삼국유사》에는 단군이 나라를 세우고 평양에 도읍을 정하였으며 아사달에서 《천신》이 되여 하늘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여있다.

아사달이란 구월산을 의미한다.

이 삼성사를 언제 건설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력사책들을 살펴보면 고려 중기에 이곳으로 옮겨지은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조선봉건정부에서는 해마다 삼성사에 향을 내려보내여 국가적으로 제를 지내오다가 1429년에 평양에 숭령전을 짓고 거기서 단군과 고구려시조 동명왕을 함께 제사지내게 하면서부터 구월산의 삼성사를 페지하였다.

하지만 단군을 신성시한 이 지방사람들은 무슨 재앙이 생기기만 하면 다 삼성사를 없앤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단군제사를 지내도록 해줄것을 정부에 청원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1470년에 무너진 삼성사를 다시 짓고 1472년부터 삼성사에서 단군과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던것이다.

삼성사에는 단군을 숭배대상으로 하는 대종교의 창시자인

라철의 애국활동도 전해지고있었다.

라철은 1909년 1월 15일(음력) 서울에서 동료들과 함께 단군을 숭상하는 대종교를 창시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는 여러 제자들을 두고 사람들에게 대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한편 그들에게 일제를 반대하는 애국주의사상을 심어주었다.

일제의 박해와 탄압이 강화되자 그는 대종교 본사를 서울로부터 중국 동북지방으로 옮기고 교세확장에 힘썼다.

1916년 일제가 강제로 국내에서 교문을 페쇄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자 대종교 1대교주인 라철은 8월 단군이 하늘로 올라간 성지라고 하는 황해도 구월산의 삼성사에서 단군의 유적들을 순례한 다음 구월산 삼성사에서 마지막으로 제천의식을 올리고 제사를 지낸 후 제자들에게 대를 이어 대종교를 굳건히 지키며 일제와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일제는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삼성사를 불태워버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단군관계 기록과 유적유물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렇게 되여 조선봉건왕조말까지 계속되여오던 단군제사는 폐지되고 결국 삼성사는 터만 남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1997년 9월 구월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삼성사를 복구하도록 하시여 2000년 10월에 이르러 다시 복

원될수 있었다.

복원된 삼성사에는 기본건물인 삼성전을 비롯해 양현당, 영빈당, 전사청, 숙사가 있다.

동쪽건물이 양현당이다. 어진 현자들을 길러내는 집이라는 뜻에서 양현당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서쪽에 있는것은 단군제를 지내기 위해 이곳에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건물이라는 뜻에서 영빈당이라고 하였다.

전사청이라고 부르는 건물은 나라에서 단군제를 지내기 위해 내려보낸 향과 제기류들을 보관하고 제사를 준비하던 곳이다.

한쪽에는 관리성원들이 있는 숙사도 보인다.

삼성전가운데에 단군의 화상이 있고 동쪽과 서쪽에 그의 할아버지 환인과 아버지 환웅의 화상이 있다.

단군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고대문명국가인 고조선을 세움으로써 우리 민족력사의 시원을 열어놓은 시조이다.

지난 시기 단군은 신화적존재로 알려져있었다.

그것은 단군조선의 력사가 하도 오래여 기록이 많이 없어진데다가 일제가 단군조선력사를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한것과 관련된다.

학자들은 1993년 평양시 강동군에 있는 단군릉을 발굴하고 그안에 있던 단군과 그의 부인의 유골을 과학적으로 고증하였다.

밝혀진데 의하면 단군은 1993년부터 5 011년전 즉 B. C. 3018년경에 출생하였다는것이 확증되였다.

그후 여러곳에서 단군조선의 력사를 실증하는 귀중한 유적유물들과 자료들이 수많이 발굴되였으며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있다.

옛날에 단군이 수도를 평양에 정했다가 이곳에 옮기고 수천년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 그리하여 구월산에는 단군시기부터 전해져내려오는 유명한 고적과 유물들이 많다.

단군이 여러곳을 돌아보고 여기에 자리를 잡으며 《이 구월산이야말로 세상천지 제일 좋은 곳이로다.》 하고 감탄하면서 이곳에서 도를 닦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있는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단군이 도를 닦으며 마셨다는 샘물이 있는 바위굴, 갑자기 하늘을 깨는 요란한 천둥소리를 들으며 나라세울 생각에 잠긴 단군이 바위우에 앉을 때 움푹 패였다는 자리, 글과 무술을 익힌 그가 임금이 되여 산을 내리며 던진 장검이 바위가 되였다는 장검바위는 많은 유적들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단군이 살았다는 장당경, 환인, 환웅, 단군을 모셨다는 삼성사, 단군이 활쏘는 장소로 리용했다는 사궁석 등이 지금도 남아있다.

정곡명승지구역에 있는 3단폭포에도 단군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전설

《 3형제폭포이야기 》

먼 옛날 구월산은 천연요새로서 구월산을 차지하지 않고서는 안악, 은률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중부지방을 장악할수 없었다.

단군이 나라를 세우기 전에는 종족별로 부락들이 형성되여있었고 부락마다 추장이 있었다. 구월산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거마부족, 남쪽으로는 아가부족, 서쪽으로는 하야부족, 동쪽으로는 보라부족 등이 있었다.

당시 바라대종족의 추장이였던 단군은 여러 종족들을 통합하여 나라를 세울것을 결심하고 건국활동을 벌리고있었다.

어느날 단군이 제일 사랑하던 막내아들이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던 도중 하야부족이 차지한 근방에서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하였다.

단군은 이것이 자기네 종족과 하야부족사이에 쐐기를 박고 리간시키려는 거마부족 추장의 음모라는것을 알았으나 건국위업을 위하여 마음속아픔을 참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인덕으로 포섭하였다.

동족끼리 싸움을 하면 나라를 세울수 없다는것이였다.

단군의 도량과 인덕에 깊이 감동된 아가부족, 보라부족 등 크고작은 부족들이 단군을 숭상하면서 단군을 중심으로 평양지방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우자고 약속하였다.

우선 그 준비로 단군과 아가부족 추장, 보라부족 추장들은

구월산지구를 하나의 부락으로 통합할것을 맹세하고 피를 마셨다. 그 자리가 바로 3단폭포가 있던 자리였다. 그때에는 길게 내리드리운 폭포였다.

이 자리에서 단군은 그들과 의형제를 맺고 표적으로 각기 자기 부락사람들을 동원하여 3개의 단과 못을 파기로 결정하고 떨쳐나섰다.

이렇게 만들어진것이 3형제폭포이다. 맨 웃단의 폭포길이는 45m, 2단폭포길이는 28m, 3단폭포길이는 16m이다.

………………………………………………………………………………

3형제폭포는 조국의 6대명산의 폭포들가운데서 가장 높은 폭포라고 한다.

유적도 많고 전설도 많아

정곡골에는 구월산의 일만경치를 한껏 자랑하며 층층으로 길게 쏟아져내리는 3형제폭포와 폭포밑에 있는 담소들로 이루어진 삼형제소, 룡연폭포, 애기폭포, 지팽이소를 비롯한 22개의 크고작은 담소들에서 넘쳐나는 담수가 울창한 수림속의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고있어 명산의 경치와 잘 어울린다.

룡연폭포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도로를 따라 어느 정도 가느라면 3형제폭포가 보인다.

단군이 의형제를 맺고 만들었다는 이 3형제폭포는 산세가 너무나도 험하고 길이 없기때문에 구월산주변에 사는 사람들조차 그 이름만 들어왔지 실지 가본 사람은 얼마 없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옛날에 잘사는 량반부자들도 하늘소나 말을 타고 풍치수려하고 기묘한 3형제폭포를 구경하러 오르다가 산세가 하도 험하여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있겠는가.

이렇게 가파롭고 험한 3형제폭포로 가는 길에 오늘날 수백m의 탐승도로가 새로 생겨나고 오름길에는 안전쇠바줄을 늘이였으며 내림길에는 안전쇠사슬보호띠를 갖추어놓아 관광객들이 불편없이 마음껏 오르내리며 3형제폭포를 부감할수 있게 되였다.

그렇게도 험하고 가파롭다는 3형제폭포로 가는 길을 탐승도로를 따라가느라니 힘들다는 생각보다 흥겹고 즐겁기만 하였다.

울창한 산림속에서 우리는 탐승도로옆의 깎아지른듯 한 절벽의 기이함에 혀를 차기도 하고 산새의 지저귐소리에 귀기울이기도 하며 등산길을 다그쳤다.

우리는 벼랑의 오름길에 늘여진 안전쇠바줄을 타고 3형제폭포에 올라 약효성분이 높다는 폭포의 물을 마음껏 마시였다.

물을 마시고나니 대번에 기력이 왕성해지는감을 느꼈다.

바로 이 폭포가 옛날 평양에서 살고있던 량반이 산세가 너무 험하여 지팽이를 짚고 벼랑을 간신히 올라와서 물을 마셨는데 마실수록 젊은 혈기가 되살아나 돌아갈 때에는 지팽이를 버리고 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있는 곳이다.

그리하여 그때 버리고 간 지팽이가 있던 곳의 담소를 지팽이소라고 불렀다.

이 소문이 널리 퍼져 주변사람들이 수없이 찾아와 물을 마셨다.

여름철의 수림풍치, 가을철의 단풍정서, 크고작은 담소들이 주변경치와 어울려있는 3형제폭포는 어디서나 쉽게 볼수 없는 명소라고 한다.

제일 꼭대기에 놓여있는 1단폭포를 지나 탐승도로를 따라 조금 올라가면 그 규모가 작아 애기폭포라고 불리우는 폭포도 있다.

정곡골에는 이밖에도 정곡사, 거선사, 장림사 등 사찰터들

과 고려자기가마터, 쇠부리터를 비롯한 력사유적들도 많았다.

구월산에 있던 4대사찰의 하나였던 정곡사에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7동의 건물터와 축대, 탑자리, 부도, 비석 등이 남아있었다.

옛 시인들은 구월산 달밤에 울리는 정곡사의 유정한 종소리를 일만대경으로 불러왔다고 한다.

정곡사옆에는 물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한 룡연폭포가 있었다.

선조들은 이 못이 룡이 살던 곳이라고 하여 룡연이라고 불렀고 폭포이름을 룡연폭포라고 불렀다고 한다.

십여m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는 물량이 어찌나 많은지 폭포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한게 10리밖에서도 들릴 정도인데 시원한 랭기를 풍겨 탐승길에 달아오른 몸을 시원하게 식혀주었다.

이런 멋에 아마 사람들이 이곳을 즐겨 찾는듯싶다.

하기에 고려태조왕인 왕건도 통일국가를 세운 후 여기 구월산에 오르다가 폭포수의 장쾌한 소리를 듣고 수레를 멈추었다고 한다.

왕건이 수레를 멈춘 골안이라고 하여 《머무를 정》자에 《수레 곡》자를 써서 정곡골이라 불렀고 《룡담사》로 부르던 사찰을 《정곡사》로 고쳐 불렀다는것이다.

사찰부근의 경치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고려시기의 여러 임금들이 이곳을 지나다가 자주 수레를 멈추고 경치에 취하였으며 고려말 경효왕때 로국공주도 이곳을 지나다가 수레를

멈추었다고 하던 말이 우연한 소리는 아닌듯싶다.

정곡사주변에는 길상암, 장불사를 비롯한 사찰터들도 있다.

룡연폭포는 구월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인 사황봉과 주가봉줄기가 합쳐진 골안에 자리잡고있어 계곡들에서 자라는 산삼과 백도라지를 비롯한 약재들을 씻어내린다고 한다.

물맛이 하도 좋아 묘향산의 서산대사도 구월산에 와서는 이 물을 마셨고 봉이 김선달이도 평양사람들을 데리고 꽃구경왔다가는 여기 룡연폭포의 물맛을 보며 놀다가군 하였다고 한다.

폭포우에 수십m의 공중쇠바줄다리를 건설하여놓아 아래서 올려다보기만 하던 폭포를 우에서 내려다볼수도 있게 하였다. 등산로정이 계단식으로 되여있어 가파로운 벼랑길을 올라가는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우리는 폭포골에서 살고있는 다람쥐를 형상한 모양의 정각에서 휴식의 한때를 즐기며 폭포를 부감하였다.

구월산에서 제일 큰 폭포인 룡연폭포는 아래에서 올려다보는것보다 시원히 폭포우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더 황홀했다.

확실히 룡연폭포는 구월산폭포들가운데서 제일 아름다운 폭포였다.

하기에 룡연폭포에는 옛날에 경치가 하도 수려하여 서해에 있던 룡이 이곳에 와서 살다가 알까지 남기고 갔다는 전설도 전해지고있다고 한다.

폭포의 경치에 취해있는 우리에게 강사는 룡연폭포밑에 있는 담소와 관련하여 전설처럼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 지금으로부터 천여년전인 918년에 구월산에서 제일 큰 사찰이였던 패엽사의 패엽대사가 룡연폭포에 올라온 일이 있었다.

폭포를 우에서부터 아래로 자세히 보고나서 못속을 한동안 들여다보고난 패엽대사는 책상만큼 한 누런 종이를 펴놓고 붉은 먹으로 주먹만 한 글을 써서 못가운데 던지였다.

못가운데서 빙빙 돌던 종이장이 문득 한자리에 멈춰서는 순간 《우르릉…》 하는 우뢰소리와 함께 담소물이 끓더니 《쫘르릉─》 하고 지층을 울리며 못가운데서 큰 청룡 한마리가 솟구쳐 하늘로 올라가버렸다.

이때부터 이 못을 룡이 살던 못이라고 하여 《룡 룡》자에 《못 연》자를 써서 룡연 혹은 룡담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

《그때 패엽대사가 못에 던진 종이의 글이 대체 무슨 글이길래 룡이 갑자기 못속에서 나와 하늘로 날아가버렸습니까?》

《종이에 씌여져있던 글은 <천년 지나 정사년에 천룡이 내릴터이니 주인 아닌 객룡은 자리를 뜰지어다. ─천수79정유─>라는것이였습니다.

이 글을 뜻풀이하면 <천수>는 왕건이 고려를 세운 918년부터 쓰기 시작한 년호이고 <79정유>란 918년부터 79년째 되는 해가 정유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천수79정유>년인 997년(918+79)으로부터 천년이 지난 1997년은 바로 정사년이 됩니다.

그 정사년에 하늘에서 성인이 나타난다는것이고 성인이 나타나면 자리를 내주라는 뜻이였습니다.

다시말하여 <천년 지나 정사년(1997년)에 룡연폭포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인이 나타나니 주인 아닌 너는 이 자리를 떠날지어다.>라는 글이였다는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체86(1997)년 5월 1일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룡연폭포를 찾아주시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룡연폭포를 찾아주신 장군님께 이 신기한 전설이야기를 해드리지 못한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구월산 패엽대사의 신기한 도술이 천년 앞날을 예언한것이 정말 우연한 일치일가요?

아닙니다.

장군님은 하늘이 낸분이십니다.》

강사의 전설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흥분된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하루 앞날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천년 앞날을 예언했다는것은 정녕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는것이 아니였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세세년년 일일천추로 갈망해온 인류의 대성인이심을 잘 알수 있었다. 그이를 모심으로 하여 이 룡연폭포는 인민이 주인이 된 새세상에서 오늘에야 진정한 자기의 주인을 맞이하게 된것이다.

격동된 심정을 안고 정곡사를 떠난 우리는 구월산 아사봉을 배경으로 단풍골에 자리잡은 월정사도 돌아보았다.

846년에 세운 이 사찰은 조선봉건왕조 초기에 다시 지은

것이였다.

선조들의 뛰여난 건축술과 재능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는 월정사는 극락보전을 중심으로 만세루, 명부전, 수월당과 기타 부속건물로 이루어졌다. 건축형식이 독특할뿐아니라 주변경치 또한 매우 아름다웠다.

두공과 함께 건물내부 후면의 일부 액방과 탱화가 걸려있는 부분에 남아있는 단청무늬는 조선봉건왕조시기 건물로서의 특색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었다.

극락보전에 걸려있는 《신중탱화》와 《칠성탱화》그림은 매우 섬세하고 생생하게 잘 그려져있었다.

맞은편에는 월정사현판이 부적된 만세루가 있다.

만세루는 경사면을 리용하여 정면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우에 마루를 놓은 다락집이다. 만세루에는 천정화를 불화가 아니라 속세사람들의 생활로 묘사한것이 특이하다. 정면과 좌우측면은 판자로 벽체를 형성하고 후면은 개방하였다. 두공은 이익공인데 산미의 돌출이 심하고 장식적이여서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특징을 보여주고있다.

고상하고 우아한 단청들과 아름다우면서도 용맹스러워보이는 벽화들에 민족성을 적극 살린 월정사에는 무술을 겸비한 중들이 여러차례나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기쁨을 즐기던 애국의 넋이 담겨져있다.

구월산에는 이밖에도 서산대사충효비를 비롯한 오랜 문화유적들이 보존되여있다.

구월산의 북쪽비탈면으로 흘러내리는 한이천상류의 삼수동

에는 부연, 마연, 요연 등이 있고 산허리에는 몇년동안 왕가물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이름난 석담이 있으며 서쪽비탈면에는 마당소, 가마소와 같은 소들이 있다.

맑은 시내물이 쏟아져내리다가는 바위돌에 부딪쳐 무수한 물안개를 일으킨다. 산중턱에는 교요연이라는 깊은 늪도 있다.

구월산의 서쪽비탈면에는 단풍골이 펼친 명승구가 있다.

원래 옥류동이라고 하였는데 단풍경치가 하도 아름다워 단풍골이라 고쳐 불렀다고 한다.

단풍골에는 마당소, 삼형제소, 뱀장어소, 옥류폭포, 자라바위 등 크고작은 담소들이 특이한 절경을 이루어 명산의 아름다움을 한껏 펼쳐보이고있었다.

경사가 급한 골안의 지형적특성에 맞게 명소의 자연미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수 있도록 탐승계단과 안전란간도 곳곳에 세워져있었다.

구월의 단풍으로 온 산을 붉게 물들인 단풍절경에 한껏 취한 우리는 큰길을 따라 깊은 골안 막바지에 있는 삼형제못도 돌아보았다.

강사는 우리에게 삼형제못에 깃든 전설도 들려주었다.

… 원래는 이곳에 못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늘나라 세 선녀가 늘 이곳에 내려와 미역을 감군 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구월산의 마음씨착한 삼형제가 이것을 알고 그들이 제각기 미역을 감을수 있게 두개의 못을 새로 만들어놓은 그때부터 삼형제못전설이 생겨나게 되였다.

그 삼형제는 항상 호랑이를 타고 이곳에 나타나 그 선녀

구월산의 가을

들이 무사히 목욕을 하고 돌아갈수 있게 지켜주군 했다는 이야기이다. …

구월산일대에는 세나라시기에 발견되였다고 하는 달천온천과 약 500년전에 깊이 30자나 되는 큰 호수의 밑바닥에서 솟아나왔다고 하는 신천온천을 비롯하여 유명한 온천도 많았다.

특히 달천리의 구월산기슭에서 더운물이 퐁퐁 솟아나는 온천을 가리켜 달래온천 또는 종달온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마음씨고운 달래라는 처녀애가 어머니의 병구완을 위해 애쓴데 대한 전설이 깃들어있었다.

전설

《 달래와 종달새 》

… 옛날 이 마을에 살던 달래라는 소녀가 두살때 아버지를 잃었는데 12살 되는 해에는 어머니마저 앓아눕게 되였을 때 종달새의 도움으로 찾아낸 바위밑에서 솟아오르는 온천으로 고칠수 없다던 어머니의 병을 고친 이야기이다. 그때부터 이 마을사람들은 병이 나면 바위밑에서 솟는 더운물을 약으로 썼으며 이 샘물을 달래의 이름을 붙여 달래온천 또는 종달온천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후 어음변화가 일어나 지금은 달천온천 또는 종달온천이라고 부르게 되였다고 한다. 온천의 더운물은 오늘도 쉬임없이 퐁퐁 솟아나고있다.

……………………………………………………………………

전설이야기를 들으며 달래온천에 발을 잠그고 잠시 휴식하다가 구월산에 올랐다.

서해가 한눈에 안겨오고 아사봉의 수려함과 웅장한 기개로 저도 모르게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서해 림당수에서 자란 거부기가 심청이를 만났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다가 구월산의 경치에 반해 돌로 굳어졌다는 거부기바위, 구월산이 하도 좋아 아장아장 걸어와 보금자리 찾았다는 한쌍의 병아리바위…

구월산에서 제일 높은 사황봉에는 고구려시기 외래침략자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황해도 5대산성의 하나였던 구

월산성의 옛터도 있다.

사황봉마루에 쌓은 구월산성의 이끼덮인 성벽은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 남녀로소가 떨쳐나 성을 쌓고 외래침략자들을 향해 멸적의 화살을 날리던 선조들의 애국의 넋을 오늘도 그대로 전해주고있었다.

이 구월산성터에는 고구려시기 우리 선조들이 쌓은 돌성과 여러가지 유적유물들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여있으며 나라를 지켜싸운 애국명장들에 대한 전설도 전해지고있다.

웅장한 도시와 항만, 백리청춘과원과 서해곡창 어리리벌, 나무리벌…

땅과 바다에 가득 차넘치는 이 모든것이 구월산의 풍치, 내 조국의 모습이다.

일만경치 아름답고 천하절경 황홀한 구월산의 가을은 그야말로 전설도 많고 고색짙은 력사유적으로 조국의 년륜을 더 깊게 해주는 황금의 가을이였다.

유적도 많고 전설도 많은 구월산탐승으로 조국의 아름다움을 한가슴에 꽉 채운 우리들이다.

⌘⌘⌘

6. 정방산을 찾아서

예로부터 삼천리금수강산이라 불리온 이 땅에는 산천경개를 자랑하는 산들이 참으로 많다.

산모양이 거의 정방형을 이루고있는 정방산은 기묘하게 생긴 봉우리들과 기암절벽들이 키돋움하며 솟아있고 많은 전설을 담고있는 약수터, 갖가지 꽃들과 울창한 수림이 한데 어울려 참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이룬다.

특히 기묘한 바위짬에 붉게 피여나는 진달래꽃이 골짜기를 메우고 살구꽃, 배꽃, 복숭아꽃, 벗꽃 등 온 산이 꽃속에 묻혀 향기그윽한 정방산의 봄풍경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조선의 국화 목란꽃이 태여난 곳으로 하여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다는 정방산에 대한 소문에 이끌리여 6월 우리는 록음이 우거지기 시작한 정방산을 찾았다.

평양에서 관광뻐스를 타고 남쪽으로 1시간가량 달리느라니 정방산의 자태가 안겨오기 시작했다.

정방산이 가까와올수록 시원하고 청신한 산속의 공기가 폐부에 와닿는 느낌이였다. 기분이 상쾌해지고 머리가 다 맑아지는것 같았다.

록음우거진 자연경치에 한시바삐 몸을 잠그고싶은 충동을 안고 우리는 정방산유원지입구에 들어섰다. 사람들이 참 많았다.

록음우거진 숲속의 풍경

정방산유원지입구에서 강사를 둘러싼 수많은 아이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알고보니 과외시간을 리용하여 이곳을 찾았다는 사리원시 운하소학교와 상매소학교의 학생들이였다.

호기심에 이끌려 우리는 아이들 있는데로 다가갔다.

《정방산의 매 골짜기마다, 봉우리마다에는 아주 흥미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답니다.

그중에는 서해의 미남, 미녀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알고있습니까?》

강사가 물어보자 한 학생이 자신있게 대답한다.

《예. 옛 전설에서는 험준하고 웅장한 산발들과 단풍을 자랑하는 구월산을 서해의 미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루는 구월산을 지키는 신선이 이 정방산을 지키는 신선에게 반했습니다.

그것은 정방산신선이 청신하고 아름다웠기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정방산을 서해의 미녀라고 했답니다.》

열둬살 난 처녀애의 또랑또랑한 목소리에 모두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가고 물었다.

그애는 정방산에 대해 쓴 《정방산의 력사와 문화》라는 책을 읽었다고 하였다.

여기저기에 학생들이 끼리끼리 모여섰는데 거기에는 식물

채집을 하는 애들도 있고 그림을 그리느라고 화판을 펴놓은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승벽내기로 시짓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평화로운 화원에서 마음껏 좋아라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느라니 우리의 마음도 흥그러워지고 동심이 되살아나는것만 같았다.

우리는 강사의 주위에 몰켜선 꼬마들과 함께 정방산구경을 하기로 작정하고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우리 정방산에는 수백여종의 식물들이 있습니다.

정방산에는 꽃과 관련한 이야기도 많은데 정방산꽃계절에 꽃놀이를 해야 1년중 만사가 잘된다는 말이며 또 봄철이면 하얀 살구꽃과 배꽃들이 빛을 뿌려서 저녁에 해가 져도 어두워지지 않는 특이한 절경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여기 정방산에 와보니까 듣던바 그대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알건대는 이 정방산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산이 정방형으로 되여있다는데로부터 그렇게 불렀다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정방산의 지명유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정방산은 네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청송봉을 주봉으로 하여 기봉과 망루봉, 청룡봉이 하나로 이루어져있는데 그 모양이 정방형을 이루었다고 하여 <바를 정>자와 <모 방>자를 써서 정방산이라고 부르고있습니다.

이제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방산의 특징의 하나가 사계

절경치가 독특한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봄날의 경치가 으뜸이라고 일러왔는데 <정방산 경치를 알려거든 꽃피는 봄날에 와보라.>라는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랍니다.》

강사는 정방산은 정방산성과 성벽산을 비롯한 력사유적들이 많아 예로부터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있다는데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었다.

정방산성은 정방산의 지형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쌓은 성으로서 방어력이 높은것으로 이름났던 산성이다.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하였으므로 고려시기에 정방산성을 쌓았고 조선봉건왕조 말기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보수하면서 이 성의 방비를 강화하여왔다.

북쪽의 가파로운 벼랑을 그대로 리용하면서 정방골을 지나 리남봉, 기봉 등의 등성이들을 원형으로 쌓았는데 그 둘레는 12㎞나 된다는것이다.

록음이 우거진 정방산의 풍치는 그대로 절경이였다.

옛 기록에 의하면 성문은 동, 서, 남, 북에 한개씩 내였는데 이 성문우에는 웅장하고 화려한 문루들이 높이 솟아 수림이 우거진 정방산을 장식하였다고 한다.

정방산유원지입구에서 조금 올라가니 정방산성 남문이 나졌다.

정방산성 남문은 정방산성의 정문으로서 봉산벌에서 정방산으로 들어가는 좁은 골짜기를 가로 건너간 성벽에 있었다.

정방산성의 성문들가운데서 제일 크고 견고하다고 한다. 주

변의 경치에 어울리게 세운 이 남문에서 살구꽃이 활짝 피여 향기풍기는 봄경치는 류달리 아름답다고 한다.

정방산성 남문에는 남문루가 있었다.

큰돌들을 다듬어 쌓아올린 성벽이며 무지개모양의 문길, 높이 솟은 합각지붕의 남문루는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돌건축술을 그대로 엿볼수 있게 하는 사연많은 력사유적이였다.

정방산성 남문의 설경

강사는 산성에 대해 알려주었다.

《정방산성을 쌓을 때 문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냈는데 지금은 이 남문루만이 남아있습니다.

정방산성은 고려시기에 쌓은 성이며 현재 우리 나라에 남아있는 돌성들가운데서 둘레의 길이가 제일 길다고 볼수 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대체로 5～6㎜인데 남문이 있는 가장 낮은곳인 남쪽에는 10여㎜나 되는 높고 웅장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의 웃면에는 약 2㎜간격으로 총, 포를 쏘는 구멍들이 나있습니다.》

《정방산성을 치성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던 말을 들었던것 같은데…》

《옳습니다. 정방산성을 <꿩 치>자를 써서 치성이라고도 불렀는데 이것은 매사에 조심스럽고 침착한 꿩의 습성을 본따서 사수들이 아홉번을 겨누고 한번을 쏘라는것, 그래서 꼭 화살 한대에 원쑤 한놈씩을 잡아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깃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서 치성이라고 했군요. 산을 쭉 둘러보느라니까 정방산은 참 기묘한 산형을 가진 산인것 같습니다.》

《정방산은 예로부터 자연지리적으로 산세가 묘하고 군사전략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 자리잡고있습니다.

들어가보면 아시겠지만 성불사사적비에는 정방산의 자연지리적조건을 놓고 <일부당관 만부막개>라고 씌여져있습니다.

이 말은 만명의 적이 달려들어도 한명의 장수가 능히 막

아낼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문을 거쳐 성안에 들어서니 무성하게 자란 수삼나무들, 한껏 팔을 벌려도 아름찬 느티나무들의 향기로 인한 숲의 정취가 감미롭게 페부에 스며들었다.

《저— 성안에 들어오니까 피부감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별로 시원하고 상쾌한감이 듭니다.》

《성안은 성밖에 비해서 온도가 1～2℃정도 낮은것으로 평가되고있습니다.

그것은 이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때문이기도 하지만 느티나무를 비롯하여 각종 나무들이 우거져있으면서 열복사를 막아주고 공기중에 떠도는 먼지나 온갖 불순물들을 흡수하여 정화시켜주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피부감각이 남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사방을 둘러보면서 공기의 청신한 맛에 감탄하게 되는것입니다.

정방산에는 수십여종의 수많은 나무가 자라고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혼성림을 이루기때문에 겨울에도 사철 푸른 숲풍경을 볼수 있는것입니다.》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옛성안에 들어서니 마치 옛사람이라도 된듯싶다.

이곳이 우리 나라에서 산소밀도가 가장 높으며 공기중에 인체에 리로운 물질들이 가장 많이 섞여있는 곳이라더니 공기가 얼마나 맑은가 하는것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성안에 들어와 청신한 공기에 취하여 주변을 둘러보느라니 활짝 핀 목란꽃이 눈에 띄였다.

아름다운 목란꽃주위에는 화판을 앞에 놓고 그림그리기에 여념이 없는 학생들이 보였다.

사리원시내에 있는 미술소조학생들이 목란꽃을 그리고있었다.

고향의 자랑인 목란꽃을 잘 그려서 앞으로 진행되는 솜씨전람회에 내놓으려고 한다는것이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국화인 목란꽃을 왜 고향의 자랑이라고 하는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생각을 알아맞히기라도 한듯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방산은 조선의 국화 목란꽃이 태여난 곳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목란꽃과 인연을 맺게 되신것은 창덕학교시절 여기 정방산에 오셨을 때이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여기서 류달리 희고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되시였다.

항일의 나날에도 이 꽃을 생각하시며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그려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후 그 꽃을 찾으시여서는 꽃나무의 이름도 몸소 《목란》으로 달아주시고 나라의 국화로 정해주시였다. …

산골짜기에 뿌리내리고 세세년년 피여왔건만 그 누구도 헤아리지 못한 이 꽃의 신비한 아름다움.

정방산의 이 꽃은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귀

중히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애국의 손길에 떠받들려 조선의 국화로 세상에 다시 태여나게 되였던것이다.

이런 뜻깊은 사연이 있어 정방산은 조선의 국화 목란꽃이 태여난 고장으로 더욱 유명해졌고 조국의 자랑인 목란꽃을 이곳 미술소조원들은 고향의 자랑으로 생각한다는것이다.

우리와 함께 강사의 이야기를 듣던 학생들이 격정에 넘쳐 저마다 즉흥시를 읊기 시작하였다.

어린 학생들이 저마다 제 흥에 겨워 터치는 시들을 들으니 명산이 아이들을 꼬마화가로, 재능있는 시인으로, 꾀꼴새로, 재간둥이들로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선가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커다란 느티나무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고있었다.

《온 가족이 정방산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보니 야외무대가 있더군요.

그래서 무대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이렇게 흥을 돋구고있습니다.》

《정방산의 경치가 좋다 하길래 이렇게 찾아왔는데 듣던것보다 더 경치가 좋고 아름답수다.

내 마음도 십년은 더 젊어지는것 같쉐다.
정말 노래도 저절로 나오고 춤도 절로 나와요.》
우리의 마음도 흥그럽게 하는 관광객의 이야기였다.
그것으로 하여 더 아름다운 정방산이였다.

사연도 많고 전설도 많아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경치가 있어 명산인가, 력사유적과 유물들이 많아 명산으로 불리워지는가.

정방산의 신록의 계절은 보는것마다 정말 절경이고 시의 소재였다.

어른 셋이서 한껏 팔을 벌려도 안기 힘든 느티나무며 청신하기 그지없는 숲향기가 기막히게 좋았다.

여기선 무성한 숲에 가리워서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이런 옛 시구절이 떠오른다.

정방산성 수풀이 좋아
밤에 울 닭 낮에 우네

제법 옛사람이라도 된듯이 옛 시를 읊으며 숲속을 따라 조금 걷느라니 갖가지 기암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정방산성의 남문앞에 있는 뾰족한 산이 로적봉이다.

이 봉에도 선조들의 애국심이 깃들어있다고 강사는 이야기한다.

한번은 왜적들의 대부대가 정방산성을 공격하다가 산성을 지키는 군사들과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뜻을 이룰수 없게 되자 성을 장기간 포위하여 식량이 떨어진 다음 성을 공격하려고 획책하였다.

왜적들의 계책을 알아차린 성안의 군사들과 인민들은 이 봉우리에 가마니를 벼낟가리처럼 쌓아놓고 정방천에는 회가루를 풀어 쌀뜨물이 흘러내리는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이것을 본 놈들은 식량과 군사가 굉장히 많은것으로 알고 드디여 포위를 풀고 물러났다는 이야기였다.

한 골안에서 많이 걷지 않아도 각이한 명소들을 마음껏 즐길수 있는것이 정방산유원지의 특이한 점의 하나였다.

금수정약샘을 마시고 정방산의 경치를 구경하려고 대가리를 한껏 하늘로 뻗치고 툭 튀여나온 눈을 크게 뜨고 오늘도 관음봉에 오르고있는 악어바위며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전해주는 승리탑도 보인다.

성문을 지나 오른쪽을 바라보면 뾰족하게 튀여나온 곳, 바로 우를 보면 크지 않은 돌탑이 보인다. 승리탑이다.

골안을 따라 층층으로 길게 놓여있는 3개의 못은 록음짙은 골짜기의 풍치를 한결 돋구어주고있었다.

《예로부터 명산이라고 하면 기묘한 산발들과 울창한 수림, 기암절벽들과 함께 물이 있어야 한다고 일러왔는데 정방산에는 물이 부족했습니다.

정방산의 물줄기가 새로 생긴데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강사는 정방산의 물줄기가 새로 생긴데 대한 사연을 이야

기해주었다.

정방산에는 소가죽으로 만든 물주머니로 물을 길어 왜적과의 싸움에서 갈증에 쓰러지기 시작한 수많은 군사와 인민들을 구원한 삼형제장수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온다고 한다.

… 언제인가 우리 나라에 쳐들어왔던 왜적들과 싸울 때 삼형제가 포위를 뚫고 성밖에서 물을 길어오다가 그만 희생되게 되였다.

삼형제의 시신을 여기에 놓고 군사들이 성밖으로 나가서 적을 물리치고 들어와보니 삼형제의 애국심에 감동되여서인지 난데없이 물이 솟구쳐서 3개의 물주머니가 형성되였다는 것이다.

정방산에 물이 적어지게 된것은 서해룡왕때문이라는 전설도 전해지고있다.

서해룡왕은 룡궁보다 더 아름다운 정방산을 시샘하던 나머지 샘줄기만 열어놓으면 물을 모조리 바다로 끌어가군 하였다는것이다.

이처럼 오랜 세월 내려오면서 물줄기도 점차 말라들고 더구나 전쟁시기 폭격으로 샘터들이 다 파괴되여 정방산은 물이 없는 산으로 되였다는것이다.

정방산의 물과 관련한 전설들을 들려주고난 강사는 계속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의 아름다운 산에 비낀 한점의 흠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정방산은 아담하고 정갈하면서도 력사가 유구한 명산이므로 인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유원지로 꾸려야 한다고, 그러자면 물을 꼭 찾아내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정방산에 물과 관련한 전설이 꼭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물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까지 밝혀주시였습니다.

건설자들이 달라붙어 물곬을 찾기 위한 공사를 진행했지만 도저히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 몸소 현장에까지 나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골안의 웃목에서 삽질 한번으로 샘을 찾아주시였습니다.

일군들이 그 자리를 파기 시작하였는데 얼마후 땅에 습기가 있고 눅눅해지는것이 알리더니 물줄기가 콱 터져오르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땅속깊은 곳도 들여다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에 탄복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 샘줄기의 주변을 넓히고 정리한 후 못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물이 흘러내려 아래로 넓게 퍼지고 저절로 두번째 못과 그아래에 세번째 못을 이루어놓게 되였다는것이다.

전설속의 삼형제못은 이렇게 생겨나게 되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을 여러차례 파견하시여 이곳에 낚시터를 잘 꾸리도록 하시였다.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방산낚시터를 돌아보던 우리는 낚시터 한가운데에 있는 큰 화분속의 느티나무에서 눈길을 뗄수가 없었다.

건설자들이 낚시터를 건설하면서 한그루의 나무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저렇게 느티나무의 밑부분둘레를 돌로 잘 쌓아놓아 마치도 큰 화분속에서 느티나무가 자라는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놓은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저택에서 가꾸어 보내주신 수삼나무들도 정방산기슭에 억세게 뿌리내려 인민의 명산으로서의 정방산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고있었다.

정말 돌아볼수록 가는 곳 그 어디에나 절세위인들의 손길 뜨겁게 깃들어있는 정방산이였다.

정방산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며 즐거움에 들떠있는 사람들과 학생들의 유쾌한 모습을 뒤에 남기고 우리는 성불사로 향하였다.

정방산성의 성불사

성불사는 898년에 도선대사에 의해서 세워진 사찰이라고 한다. 성불사라는 이름은 마음을 바로가지고 열심히 빌면 성인 즉 부처가 된다는 불교적관념으로부터 지어진것이라고 한다.

성불사는 극락전을 중심으로 응진전, 명부전, 운하당, 산신각과 5층돌탑, 성불사사적비로 이루어져있었다.

성불사입구에 영조 3년에 세워진 성불사사적비가 있다.

거기에는 이러한 내용의 글이 씌여져있었다.

《이 글은 서산대사의 6세제자인 수월 재현이 짓고 썼다.

이 나라는 스스로 별천지를 이룬 곳이다.

이름난 산과 기이한 고장이 많으니 옛날 삼신산이라 일컬어졌던것이 모두 우리 나라에 있으며 두보가 말한 <방장산은 삼한 밖에 있다.>는 이야기도 다 그럴만한 까닭이 있어서이다.

정방산앞으로는 큰 파도 일렁이는 바다가 서있고 뒤에는 겹겹이 막아선 메부리를 끼고있어 한 사나이가 길목을 막아선다면 만명의 장부도 길을 열수 없는 곳이다.

성불사란 사람의 성품을 처음으로 돌린다는 뜻이고 사찰이 기대고있는 천성산이란 이름은 인물이 많이 난다는 뜻이다. …》

비문에 의하면 고려말의 이름난 중이며 경효왕의 왕사로까지 있었던 라옹이 성불사를 중건하면서 전각을 세웠으며 소나무도 심고 불교기물들도 일신하였다는것 그리고 승방만 하여도 20여개이고 사찰에서 생활하는 중이 천여명에 달했으며 정방산성안에만도 여러개의 암자들과 15기의 돌탑이 있었고

성밖에도 그 정도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사적비에 보이는 20여개의 승방이나 15기의 돌탑, 천여명의 중들이 있었다는 기록은 성불사에만 한한것이 아니라 당시 정방산에 수많은 암자들을 세우면서 본사인 성불사와 거기에 속한 암자에 있던 건축물들과 인원들을 모두 합한 수자였을것이다.

성불사에서는 고려시기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건축양식과 단청양식을 다같이 볼수 있는것이 특징이였다.

고려시기의 건물인 극락전과 응진전에서는 우아래가 가늘고 가운데가 불룩한 붉은색바탕의 배부른 기둥과 은은하면서도 시원한감을 주는 록색계통의 단청형식을 볼수 있다.

하지만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건물인 청풍루와 여러 건물들에서는 우아래가 가는 흘림기둥형식에 얼룩덜룩한 붉은색바탕의 단청형식을 볼수 있었다.

응진전에서 우리의 눈길을 류달리 끈것은 중심에 놓여있는 석가모니상의 량켠으로 주런이 놓여있는 라한이라고 불리우는 불상들이였다.

500상에 달하는 인물형태를 정교하면서도 각이하게 형상한 불상들은 같은 인상특징이 하나도 없었는데 볼수록 감탄을 자아냈다.

《이 불상들은 다른 사찰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불상들입니다.

불교를 숭상하는 사찰이라고 해서 500라한상이 다 안치되여있는것은 아닙니다.

500라한상이 안치되는 곳은 승려들을 양성해서 보내는 곳이여야 하는데 성불사가 바로 대본사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것입니다. …》

강사는 이렇게 말하며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 언젠가 성불사를 찾았던 한 재일동포가 이 500라한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으로 하여 일본땅에서 뜻하지 않게 구원된 사실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는 간또대지진때 왜놈들의 살륙을 피해서 산속의 어느한 사찰에 숨게 되였다고 한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찰을 지켜선 왜승이 자기가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알면서도 숨겨주고 먹여주고 극진히 돌봐주었다고 한다.

후에 알고보니 그 사찰에 있는 모든 불상들과 500라한상은 6세기 중엽에 조선사람들이 만들어준것인데 그 왜승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조선사람들의 슬기와 지혜에 탄복해 몹시 숭배해왔다는것이였다.

결국 그 동포는 살생을 금한다는 불교교리를 따른 왜승의 자비심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문화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준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의 덕으로 살아날수 있었다는것이다. …

석가모니가 있을 당시 그의 밑에 있던 500명의 제자들이라는 뜻의 라한상들에는 우리 인민들의 창조적인 재능이 깃들어있었던것이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긍지

와 자부심이 가슴에 차고넘쳤다.

산을 오르는데 힘들지 않고 숨찬 기운이 금방 가셔진다.

물이 맑고 공기가 좋아서이리라.

성불사아래 야외휴식터.

돌의자에 앉아 돌책상에 턱을 고이고있느라니 마음이 안온해졌다.

따사로운 해빛아래 사방은 쥐죽은듯 고요하다.

우리는 여기 잠간이나마 앉아 정방산과 성불사, 그 자연과 인간이 뿜어내는 거대한 침묵의 소리를 듣고있다.

정방산의 자연이 말을 걸어오고 추억은 차곡차곡 쌓인다.

⌘⌘

7. 장수산 열두굽이를 따라서

옛날부터 황해금강이라고 불리워온 장수산은 천태만상의 기암절벽과 봉우리들로 절경을 이룬다.

장수산의 아름다움에서도 첫자리를 차지하는것이 바로 장수산의 서부에 이루어진 장수산 열두굽이 골짜기풍경이다.

그래서 아마도 금강산을 동부산악지대의 왕자라고 한다면 장수산은 서부벌방지대에 솟은 아름다운 계곡미의 녀왕이라고 말하는것 같았다.

참관로정이 15리나 되는 열두굽이 지구에는 재미있고 흥미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명소들이 많다.

지난해 우리는 계곡미가 뛰여난것으로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장수산을 소개하기 위해 탐승의 길에 올랐다.

신기한 룡의 조화로 이루어진 열두굽이

먼저 신기한 룡의 조화로 이루어졌다는 장수산 열두굽이 지구를 돌아보기로 하였다.

장수산 열두굽이의 첫 입구 벼랑중턱에 현암이 있었다.

현암은 장수산에서 제일 큰 사찰이였던 묘음사에 속한 암자라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1 500여년전인 고구려시기에 지은 사찰이였던 묘음사는 갑오농민전쟁때 왜적에 의하여 모두 파괴되고 현암만이 남아있었다.

절벽중턱의 아주 묘한 곳에 저렇게 크게 지은 사찰은 현

장수산의 현암

암뿐인것 같았다.

우리는 바위짬에 만들어놓은 쇠사다리를 타고 현암으로 올라갔다. 현암은 흘림기둥에 익공식두공을 올리고 날아갈듯 한 합각지붕을 얹은데다가 안팎에 모루단청을 하였기때문에 자연풍경과 잘 어울렸다.

현암은 바위중턱에 매달려있는것 같다고 하여 《다람절》이라고도 부른다고 한다.

아득한 벼랑중턱에 현암이 생겨나게 된것은 장수산에 살던 오누이가 이곳의 경치와 어울리는 집짓기경쟁을 할 때 누이동생이 아찔하게 쳐다보이는 벼랑중턱에 구름속에 떠실려있는것 같은 집을 지었기때문이라는 전설이 전해져내려온다.

이 현암의 신묘함을 자랑하는 전설도 있다.

전설

《현암의 신묘함을 자랑하다》

… 구월산에 있는 패엽사의 중이 현암이 절묘하다는 소문을 듣고 구경을 왔는데 암자를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현암의 스님에게 시짓기내기를 하자고 청하였다.

그리고는 먼저 시구절을 내놓았다.

구월산중 춘초록(구월산속에 봄풀이 푸르고)
오경루하 석양홍(오경루아래 저녁노을 붉어라)

이 시에서 오경루란 구월산에 있는 이름있는 정각의 이름이다.

이 시를 듣고난 현암의 스님은 이런 시구절을 내놓았다.

락산초동 장수자(나무하는 저애도 장수하는 사람이요)
중천일백 월출암(밝은 낮에도 달뜨는 절이라)

이 시는 장수산이라는 이름과 월출암이라는 암자의 이름을 걸고 지은 시로서 장수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장수하고 대낮에도 달이 뜨듯이 경치 또한 신비스럽고 아름답다는 자랑이 담겨져있었다.

현암 스님이 내놓은 시에 입을 딱 벌린 구월산 중은 시짓기에서 제가 졌다는것을 알고 이번에는 패엽사의 위엄과 웅장함을 자랑하고싶어 《작년 동지날 우리 절에서 동지죽을 쑤었는데 가마가 얼마나 큰지 배를 타고 다니며 죽을 쑤었소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현암의 스님은 《지난해 동지날 퇴마루에 앉아 죽을 먹다가 동그래 하나를 떨구었는데 글쎄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다음날 아침에야 들렸소이다.》라고 말하였다.

현암 스님의 말에 입이 굳어졌던 패엽사 중은 《우리 절에서 거두어들이는 추수미와 공양미를 사찰뒤에 쌓았더니 아사봉에서 뜨는 해가 보이지 않았소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현암 스님은 앉은 자세로 문밖에 손을 내밀었다가 펴보이는데 거기에는 흰쌀 한줌이 놓여있었다.

이렇게 되여 제 자랑을 하던 구월산의 패엽사 중은 도망치듯 사라지고말았다고 한다.

강사에게서 현암의 신묘함을 자랑하는 흥미로운 전설이야기를 들으며 첫번째 굽이에 들어서니 제일먼저 눈에 띄우는 것이 금강돌문이다.

황해금강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여 금강돌문이라고 불리워진 이 돌문은 먼 옛날 이곳에서 살던 한 장수가 왜적이 쳐들어와 불을 지르며 돌아칠 때 불길이 장수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달아놓은것이라고 한다.

그때부터 이 금강돌문은 착한 사람들이 오면 없어졌다가도 악한자들이 오면 다시 생겨나 굳게 닫겨있다고 한다.

《향내가 정말 짙군요. 무슨 꽃향기인가요?》

《예, 장수산의 특산인 장수만리화입니다.

향기가 만리까지 퍼져나간다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답니다.

이 장수만리화로 해서 장수산에 오면 향기속에 묻히게 된답니다.》

장수만리화의 꽃향기에 취하여 두번째 굽이에 이르니 룡소가 있었다.

《이 룡소에는 붉은 룡 한마리가 살고있었는데 비가 오던 어느해 장마철에 하늘로 오르면서 어찌나 세차게 꼬리를 쳤던지 꼬리를 칠 때마다 장수산의 산굽이가 하나씩 생겨나 열두굽이를 이루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있답니다.》

룡소가 있는 곳에서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느라니 목욕을 하기만 해도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진다는 세심폭포, 걸죽한 육담을 전하는 웃음바위와 그우에 강냉이이삭처럼 유별나게

삐죽이 솟은 쟁기바위, 장수산의병들이 배를 많이 만들어 강물에 띄우고 산에서도 돌을 다듬어 배를 만들어놓은 다음 리순신장군이 전라도수군과 거북선을 이끌고 황해도에 왔다는 소문을 퍼뜨려 왜적들이 겁을 먹고 쫓겨가게 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있는 거북선바위가 있었다.

세번째 굽이에 이르니 높은 벼랑짬에 끼여있는 자라바위가 보였다.

장수산은 앞을 바라보는 경치도 볼만 하였지만 뒤를 돌아보는 경치 또한 절경이다.

그옆에 있는 병풍바위는 올라가면서 보면 병풍을 펴놓은 것 같고 내려가면서 다시 보면 병풍을 접어놓은것 같이 보인다.

길옆에 있는 절벽짬에 나무와 풀이 있는것도 묘하지만 절벽이 웅장하고 기묘하여 정말 볼만 하였다.

역시 장수산풍경에서는 바위모양과 계곡미가 기본인것 같았다.

네번째 굽이에는 긴 코를 내리드리운듯 한 코끼리바위와 높은 벼랑우에 삐죽이 솟은 함선바위, 재령벌의 낟가리를 하늘중천까지 층층이 쌓아놓은것 같은 로적천장암, 오입바위가 있었다.

이 오입바위와 관련한 이야기가 기지적이다.

… 먼 옛날 황해도지방을 순찰하던 한 관찰사가 장수산을 구경하던중에 여기에서 그 생김새가 녀인들의 아래것과 같은 바위를 보게 되였다.

속으로는 그것 참 신통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내색은 하지 않고 길안내를 하는 스님에게 저 바위가 무슨 바위인가고 물었다.

뜻밖의 질문을 받은 스님은 관찰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물었는지 알아차렸으나 불교의 교리에 스님은 녀인들과 관계되는 행동은 물론 그런 말도 못하게 되여있어 참으로 딱하였다.

한참 생각을 굴리던 스님이 문득 생각되는것이 있어 《<오>자와 <입>자를 붙인 바위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럼 오입바위란 말이냐?》

《예, 녀자에게는 남자와 달리 입 한개가 더 있는데 한개의 입은 먹고 말하는 입이요, 다른 한개의 입은 <즐거울 오>자를 붙여 깊이 간수하고있다고 하옵니다.》라고 하였다.

불교의 교리에 어긋나지 않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리치가 너무도 신통하여 엄하고 무뚝뚝한 관찰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유람의 길을 이어갔다고 한다.

다섯번째 굽이에는 류달리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은 뾰족봉이 있었다.

이 뾰족봉이 겨울에 흰눈과 서리꽃으로 아름답게 단장한다고 하여 설상봉이라고도 불리운다고 한다.

장수산에는 옛날부터 사계절 아름다운 경치를 그림에 담으려고 화가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그때 어느 한 시인이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 이런 시를 읊었다고 한다.

천 화가 너를 옮겨 아쉬움이 없을손가
떠나기를 저어하며 오래도록 유함이로다

시인은 천명의 화가가 장수산을 그림에 담아도 어딘가 모르게 다 옮겨놓지 못한듯 한 아쉬움으로 장수산을 떠나지 못한다는 그들의 심정을 노래하였던것이다.

여섯번째 굽이에는 여러가지 다채로운 문화오락을 할수 있게 잘 꾸려진 휴식터가 있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잠간 휴식하면서 골짜기에 있는 산삼과 만삼을 비롯한 약초들이 씻겨내리고 철, 동을 비롯한 미량원소들도 포함되여있다는 이름난 300년 장수샘물을 마시였다.

샘물을 마시고나니 쩡하고 시원한게 온몸의 피로가 순간에 가셔지고 기운이 부쩍부쩍 솟아올랐다.

휴식터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니 높은 곳에 날개를 접고 날카로운 부리를 내민채 앉아있는듯 한감을 주는 독수리바위와 사자대가리같이 보이는 사자바위가 있었다.

장수산은 절벽바위들에 있는 나무들이 큰것이 특징적인데다가 숲이 무성하였다.

《저 사자바위가 정말 신통한데요. 우에 있는것은 머리같고 량쪽으로 내려오면서 움푹하게 패운 자리는 눈같군요.》

《야, 정말 그래요. 그가운데 삐죽 나온것은 코같고 그밑에 있는 소나무는 입같지 않아요?》

벼랑밑에는 옛날에 장수산을 돌아보던 성인들과 량반들이

써놓았다는 붓글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다른 명산들에는 바위를 쪼아 새겨넣은 글이 많지만 장수산은 돌이 너무 굳어 글을 새기기 힘들기때문에 붓으로 글을 썼다고 한다.

계속 골짜기를 따라가느라니 장수처럼 서있는 삼형제바위가 있었다. 강사는 먼 옛날 왜적들에게 부모를 잃은 삼형제가 여기에 들어와 장수샘물을 마시고 장수폭포에 몸을 씻으며 도를 닦아 장수산싸움에서 큰 공을 세웠는데 그들이 무술훈련을 하던 이곳에 세개의 바위가 생겨났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일곱번째 굽이에 있는 벼랑은 얼마나 가파로운지 다른 날짐승들은 발도 붙일것 같지 못하였다.

이 벼랑에 100여마리나 되는 수리개들이 자리를 잡고 살았다고 하여 수리개랑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여덟번째 굽이에 들어서면 록족봉이 바라보인다.

봉우리중턱에는 사슴발자리가 찍혀진 우물이라는 뜻에서 록족정이라고 부르는 우물이 있다.

그런가 하면 동굴도 중턱에 자리잡고있는데 굴입구에는 큰어미사슴이 방금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것 같은 무릎자리도 있고 작은 새끼사슴의 발자리도 찍혀있다.

그 발자리들을 따라 굴안으로 2㎜가량 들어가면 사시절 마르지 않는 샘이 솟아나오는데 이 물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녀인들에게 특효가 있다고 한다.

록족봉앞에는 옛날 몇해동안 왜적을 물리치러 갔던 장수가 돌아와 사랑하는 안해를 안고 정을 나누었다는 전설이 깃들

어있는 부부바위도 있다.

여기에 막달찬 녀인이 누워있는것 같아 막달봉이라고 부르는 특이한 봉우리가 있었다.

이 막달봉뒤에 있는 약수폭포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좋아라 웃고 떠드는데 어떤 사람은 옷을 입은채로 폭포를 맞느라 야단법석이고있었다.

알고보니 이 폭포의 물을 맞으면 그 어떤 피부병도 말끔히 고칠수 있다는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도 만가지 질병을 고친다는 폭포에서 한참이나 물장구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였다.

한굽이를 또 돌아서 아홉번째 굽이에 들어서니 무당소가 보인다.

이 담소에는 옛날 장수산에 놀러 왔던 무당이 춤을 추다가 소안에서 자기를 올려다보며 꼭같이 춤추고있는 다른 무당의 모습이 너무도 괘씸하여 물에 비낀것이 자기의 모습이라는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채 행패질을 하려다가 그만 물에 빠져 나오지 못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있다고 한다.

열번째 굽이에서 먼저 눈에 띄우는것은 산삼처럼 생긴 산삼바위이다.

수려한 장수산의 자연풍경이 펼친 열한번째 굽이에서 아름다운 산봉우리들과 골짜기를 부감하면서 열두번째 굽이에 이르게 되면 독바위골이 나타난다.

골짜기중턱에 유별나게 우뚝 서있는 바위가 독바위이다.

《이 바위에는 1910년 평산의병대가 이곳에서 세차례나 왜

놈들과 싸우다가 적들에게 포위되였었는데 80고령의 한 로인이 그들을 구원하고 이 바위에 의지하여 혼자 싸우다가 희생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바위에 <홀로 독>자를 붙여 독바위라고 불렀답니다.》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장수산 열두굽이 정각에 오른 우리는 이곳을 돌아보고 어느 한 시인이 읊었다는 시구절도 떠올리며 주위를 부감하였다.

큰 바위산이 갈라져 두팔을 벌리면
손끝에 닿을듯 길 량옆으로 곧게 열린
계곡의 십리 절벽의 십리
막혔다 열렸다 돌기둥 열두굽이
접었다 펼쳤다 만만첩첩 열두굽이

이 정각앞에 묘음사지구와 장수산성지구로 가는 등산길이 뻗어있다.

40여굽이에 수놓아진 아름다운 화폭

장수산탐승길은 여기서부터 환희봉—차교골—은파호기슭에로 이어져있다.

전설에 나오는 룡은 신기한 조화를 부려 열두굽이의 기묘하고 아름다운 계곡미를 형성하였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길도 없는 천연암반을 까내고 인적없는 골짜기를 헤치면서 40여굽이의 아름다운 화폭을 펼쳐놓았다.

옛날부터 석동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월대보름이면 떠오르는 둥근달을 바라보면서 달맞이를 하였다는 명월고개가 보인다.

그리고 바위생김새가 1 000개의 지팽이를 묶어세워놓은듯한 천장암도 있다. 장수산에는 천장암이라고 이름을 붙인것이 두곳이 있는데 앞에 있는것은 전천장암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것은 후천장암이라고 한다.

장수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는 보적봉이다.

봉우리의 생김새가 마치 보물을 차곡차곡 쌓은것 같이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보적봉의 관광미는 열두굽이의 계곡미, 기묘한 바위미와 함께 예로부터 장수산의 3미로 불리워왔다고 한다.

장수산의 정점인 보적봉부감대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둘러보느라니 마치도 우리가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것만 같았다.

남쪽으로는 수양산의 여러 봉우리들이 한눈에 안겨오는데 그밑으로는 장수호가 펼쳐져있다.

서쪽 멀리에는 구월산의 사황봉을 비롯한 수많은 봉우리들이 솟아있고 아래에는 재령벌이 펼쳐져있으며 북쪽으로는 우기산과 정방산이 바라보인다.

새로 생겨난 은파호는 장수산 3미중의 하나인 보적봉의 관광미를 더욱 돋구어주고있다.

보적봉에서는 묘음사지구가 한눈에 바라보인다. 묘음사골안의 경치에서 특징적인것은 력사가 오랜 사찰터들이 곳곳에 자리잡고 여기저기에 수많은 명소들이 있는것이다.

장수산일대에는 원래 많은 사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묘음사지구에 있었다. 그것은 묘음사지구가 다른 어느 지구보다 위치가 기묘하고 경치가 좋았기때문이라고 한다.

장수산일대에 있던 사찰들의 본사이며 가장 크고 오랜 력사를 가진 묘음사는 지난 전쟁시기 폭격으로 없어지고 지금은 묘음사터와 묘음사기적비 등만이 남아있다.

묘음사골안에는 병풍처럼 넓고 하늘높이 솟아 그우에 올라서면 주변의 경치를 바라볼수 있다는 천길낭이라는 벼랑을 비롯하여 많은 명소들이 있어 고전미와 자연미를 한결 돋구어주고있었다.

마치 임신한 녀인처럼 보이는 임신부바위와 개와 거부기, 락타를 련상시키는 동물경기바위도 있다.

물행골부감대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느라면 독특하게 높이 솟은 홀로 선 바위가 있다. 이 바위를 태전암성탑 또는 유

독바위라고 하는데 그 생김새는 마치 훌륭한 조각가가 주변의 경치에 어울리게 자기의 재능을 다 발휘하여 정교하게 깎아 쌓아놓은것만 같다.

물행골안에 있는 바위를 예로부터 후천장암이라고 불렀는데 그 모양이 금강산 만물상과도 짝지지 않아 일명 장수산 만물상이라고도 부른다는것이였다.

물행골입구에는 만물상을 지키는 수리개를 탄 장수바위와 범을 탄 소년바위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모양의 기묘한 바위들이 있었다.

우리는 장수산성지구도 돌아보았다.

장수산성안에서 왜적을 물리치는 싸움에 나섰던 군사들이 마시군 하던 장수샘물도 맛보고 칠성골부감대에서 장수산성을 이루는 봉우리들을 한눈에 굽어보기도 하였다.

칠성골부감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느라니 칠성골, 차교골, 명주골과 장수산성의 외성들이 보였다.

칠성골부감대를 내려와 골안으로 들어가니 백운동분지에서 흐르는 물이 모여 형성된 칠성폭포가 아래의 기묘하게 생긴 소에 기운차게 떨어지고있었다.

폭포의 주변은 수십m이상 되는 기암절벽이 마치 병풍처럼 세 면을 둘러싸고 절벽우에는 기묘한 립석들이 키돋움하는 장쾌한 광경을 이루고있었다.

앞으로 흐르는 골짜기의 물이 흰 비단을 펴놓은것 같이 아름답다고 하여 명주골이라 부르는 곳은 삼치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여 삼치골이라고도 부른다고 한다.

삼치골에는 좁은 바위짬으로 맑은 물이 떨어져 깊은 소를 이루는 룡소폭포가 있었다. 룡소폭포를 이루는 룡소천은 장수산성의 제일 높은 봉우리에 있는 장수샘물에서 시작되여 참취, 곰취를 비롯한 산나물과 간염과 위병치료에 특효가 있는 갖가지 약초들이 뿌리내린 산골짜기를 따라 흐르는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생명수, 약수로 불리워온다고 한다.

월야봉의 약수골에는 분수처럼 내뿜는 약수폭포도 있었다.

커다란 돌문이 골짜기입구를 막아섰다고 하여 돌문골이라 부르는 곳도 있는데 벼랑우에 룡, 사자 등 여러가지 짐승들을 형상한 바위들이 서로 마주하고있는 여기로 들어서려면 반드시 이 돌문을 지나야 한다는것이다.

그런가 하면 골안을 지키고 서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여 들여보내는 파수병같이 보이는 바위도 있다.

장수만리화가 향기를 풍기는 장수산의 소나무숲에는 송이버섯도 많았고 숲속의 이끼푸른 바위와 개울에는 다람쥐와 남생이도 있고 꿩을 비롯한 산새들의 아름다운 지저귐소리가 흐르는 물소리에 어우러져 탐승의 길에 나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장수산명승지에는 열두굽이에서 환희봉을 거쳐 차교골과 은파호까지, 차교골에서 장수산성의 외성 남문까지 참관도로가 건설됨으로써 수십㎞에 달하는 륜환선도로가 형성되였다.

오늘날 장수산은 골마다, 계곡마다 사람들의 기쁨넘친 웃음소리 아름다운 노래되여 울려퍼지는 인민의 명산으로 훌륭히

변모되였다는 강사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다.

황해금강 장수산의 열두굽이 탐승도로를 돌아보고 한 시인이 읊었다는 시구절그대로 그 어디를 둘러보나 계곡과 절벽뿐인 장수산의 경치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것은 절벽우에 솟구쳐 자라는 소나무들의 모습이였다.

장수산명승지관리소 강사는 《사람들이 장수산에 와서 이 자연경치를 부감하면서 칠보산과 비슷한데가 많다고 이야기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한것은 저 바위벼랑우에 자라는 소나무들이 크고 웅장하면서 신묘한감을 준다고 이야기하고있는데 그 말이 옳습니다. 우리 장수산에는 첫굽이부터 시작하여 전 구간에 소나무가 많이 자라고있는데 돌문골지역에 가게 되면 소나무들이 바위벼랑에 자라고있는것이 아주 특이하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식물은 토양이 있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을수 있다.

여기 장수산의 소나무들은 토양 아닌 토양, 바위짬에도 억척같이 뿌리내리고 온갖 눈바람,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굽이굽이 절벽마다, 돌틈마다에 억세게 서있다.

그 어떤 악조건에서도 자기의 푸름을 잃지 않고있는 소나무의 그 기상이 마음에 들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소나무그림을 많이 그렸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소나무를 산수풍경의 기본묘사대상으로 여겨왔고 또 소나무를 잘 그리는 사람을 명화가로 일러왔다.

오늘 우리 민족의 넋과 기상을 상징하는 소나무는 국수로서 수많은 창작가들이 사랑하는 나무로, 작품의 묘사대상으로 되고있다.

장수산을 내리며 억센 소나무의 기상에 우리들의 마음도 담아본다.

8. 계곡미의 공주—신평금강

조국의 명소들을 찾아보면 금강이라고 불리우는 명승지가 많다. 북동쪽에는 함북금강 칠보산, 서쪽에는 황해금강 장수산…

그가운데는 또 하나의 금강으로 새로 태여난 신평금강도 있다.

평양에서 원산방향으로 뻗은 관광도로를 따라가느라면 중간지점에 신평휴계소가 자리잡고있는데 그곳에서 산골짜기로 얼마간 들어가면 신평금강명승지라고 쓴 표식판이 나진다.

아호비령산줄기에 깊숙이 자리잡고있는 신평금강명승지는 이름그대로 작은 금강산이라고 할 정도로 경치가 아름답다.

복숭아꽃향기 넘치는 도화동

신평금강도 계곡미가 류달리 아름다운 명승지이다.

명승지는 아호비령산줄기의 주봉들과 잇닿아있는 전형적인 심산성계곡경치로서 남쪽과 북쪽에 희량산과 생왕산이 높이 솟아있고 서쪽에는 대동강의 지류인 남강이 흘러내리며 아름다운 강안경치를 펼치고있다.

신평금강의 계곡미에는 장수산과 구별되는 개성적인 아름

신평금강의 가을

다움이 있다.

장수산의 열두굽이 골짜기는 처음 몇굽이구간만 너비가 수십m 되는 협곡이고 나머지 골짜기는 드넓은 대통로를 낼수 있을 정도로 확 열려져있다.

하지만 신평금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좁은 골짜기를 따라가며 기암절벽과 폭포, 담소 등 절경이 새라새롭게 펼쳐지는것이 마치도 순결하면서도 예쁘고 수집음많은 처녀를 련상시킨다.

그 청신함과 황홀함, 아담함으로 보면 아마도 계곡미의 공주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계곡경치의 특징의 하나는 대단히 좁은 골짜기로 이루어진 이채로운 절경이라고 말할수 있다. 특히 협곡마다에 사시절 마를줄 모르는 맑은 물이 조화를 이루는 그윽한 정서는 어디서나 찾아보기 드문것이였다.

이런 절승경개가 오랜 세월 태고의 심산속에 묻혀있었다고 한다.

예로부터 복숭아꽃속에 묻힌 경치아름다운 골이라고 하여 도화동이라고 불러온 이곳은 높고도 험한 산지에 깊숙이 들어앉아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관심밖에 놓여있었던것이다.

《주체67(1978)년 10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평양과 원산사이를 오고가는 사람들이 신평일대에서 휴식하면서 주변경치를 보면 작은 금강산이라고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경치가 좋은 이 일대를 잘 정리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습니다.

그후에도 이곳을 찾아주시여 명승지를 꾸릴 구체적인 방도까지 일일이 밝혀주신 그이의 손길아래 도화동일대가 비로소 신평금강이라는 이름을 빛내이며 명승지로 세상에 태여나게 되였습니다.》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청산속에 묻힌 옥도 캐내여 닦아주어야 빛이 날수 있음을 실감할수 있었다.

강사의 말에 의하면 몇해전 전문가들로 무어진 발굴집단이 신평금강명승지에 대한 전면적인 답사를 진행하여 원래 10여개의 명소들만 있다던 이곳에서 72개의 명소들을 새로 발굴함으로써 2013년에 신평금강명승지를 훌륭히 완공할수 있게 되였다고 한다.

《신평금강명승지보호구역은 4천 5백여정보로서 노은포골안과 총석정계곡, 도화동계곡을 비롯하여 기본명소구역면적만 하여도 2천 6백여정보에 달합니다.》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산천을 둘러보느라니 남강의 좌우로 늘어선 절벽들과 그우의 기묘한 바위들로 신비경을 펼친 총석정계곡은 귀바위, 초대바위와 같이 사람들에게 교훈적인 이야기를 전하여주는 기묘한 절벽경치와 계곡마다 굽이치는 푸른 물, 장쾌함과 시원함을 안겨주는 폭포들로 하여 그 황홀함과 신비경을 그대로 펼쳐보이고있었다.

강사는 우리에게 도화동마을의 이름유래에 대한 전설도 이야기해주었다.

신평금강의 도화동 명경대

전설

《 도화동마을이름 유래 》

… 먼 옛날 하늘나라의 선녀들이 여기에 내려와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며 경치구경을 하다가 하늘로 올라가군 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선녀들이 날개옷을 빨아 널어놓고 담소에서 목욕을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회오리바람에 옷들이 날아나더니 내물에 떠내려가는것이였다. 급해맞은 선녀들은 실 한오리 안 걸친 맨몸이라는것도 잊고 허둥지둥 텀벼치며 떠내려가는 옷들을 따라 달음박질쳤다.

이때 나무를 한짐 해가지고 내가의 징검다리를 건느던 나무군총각이 떠내려오는 옷들을 건져들고 웬 일인가 하여 두리번거리다가 맨살바람으로 뛰여오는 선녀들을 보게 되였다.

총각을 본 선녀들은 너무도 놀라 두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몸을 옹송그린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말았다. 물속에 숨느라고 했지만 물이 너무도 맑아 몸을 감출수 없었다. 선녀들보다 더 당황해난 순박한 총각은 옷들을 나무짐우에 올려놓고는 개울아래로 황급히 내려가고말았다.

그후 이것이 인연이 되여 총각은 선녀들을 위해 빨래를 널어놓을 빨래대를 마련해주게 되였다.

이 과정에 총각과 맏선녀사이에는 사랑이 움트게 되였고 이 소식은 옥황상제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였다. 하늘나라의 옥황상제는 오룡차를 타고 이곳을 돌아보고나서 과시 경치좋은 곳이

라고 연신 감탄하더니 마음씨착한 총각과 맏선녀와의 결혼을 승인해주고 하늘나라의 귀물인 복숭아씨까지 보내주었다.

이렇게 되여 심산속 마을에는 하늘나라의 귀물인 복숭아나무들이 자라게 되였고 복숭아꽃구름이 마을주변과 골짜기에 넘쳐나게 되였다. 이 전설로 하여 도화동이라는 마을이름과 함께 선녀들이 내려오군 하던 담소를 도화소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였다는것이다.

....

그때부터 봄이면 골마다 차넘치는 복숭아꽃향기와 꽃구름을 도화동8경의 하나로 자랑하며 춘절도화라고 불리운 신평금강명승지에는 노은포골, 금강폭포골과 옥류대골을 비롯한 여러 명소구역들과 토끼바위, 거북바위를 비롯한 기암절벽들과 노은폭포, 단풍폭포, 금강폭포 등 수십여개의 아름다운 명소들이 펼쳐져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신평금강명승지 그 어디에서나 기쁨과 랑만에 넘친 인민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8대계곡경치

신평금강에는 금강폭포골, 노은폭포, 큰곰의골을 비롯한 여러곳에 탐승도로들이 개척되고 명소들마다에 문화시설들이 원만히 갖추어져있었다.

여러가지 희귀한 산봉우리들이 앞뒤로 꽉 들어차 황홀한 경치를 이루는 신평금강명승지는 관광객들과 함께 탐승의 길에 오른 우리의 마음을 첫시작부터 즐겁게 해주었다.

진주계곡과 금강계곡, 장수봉계곡, 옥류동계곡, 구룡계곡과 만물상계곡 그리고 도화동계곡, 총석정계곡들은 신평금강의 8대계곡경치를 이룬다.

뽀얗게 물안개를 피워올리며 굽이쳐흐르는 옥같이 맑은 물, 그것을 사이에 두고 서로 손을 마주잡을듯 물우에 푸르른 아지를 한껏 펼치고 량옆으로 성벽처럼 마주서서 련면히 뻗어나간 협곡의 수려한 숲으로 절경을 펼친 옥류동계곡.

수림사이로 물이 흐르는지 아니면 물우에 푸른 숲이 통채로 떠있는지 마치 전설속의 동화세계에 온듯싶다.

금방 펼쳐졌던 풍경이 열댓발자국 올라가보면 또 다른 풍경으로 안겨오고 앞으로 보면 막힌것 같던것이 그곳까지 가면 또다시 새로운 풍경이 시작되는 신평금강의 계곡경치가 신비스러운것은 명소들이 조밀하게 분포되였으며 지형이 단순하지 않고 변화무쌍한것으로 하여 펼쳐진 자연의 조화이다.

신평금강의 구룡폭포

구룡폭포골에는 신평금강의 최절정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는 장쾌한 구룡폭포, 물레방아에서 떨어지는 물을 련상케 하는 방아폭포와 이담폭포 등 폭포와 담소들, 금방 바위를 차고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갈듯 한 부엉이바위, 사자봉 등의 명소들이 있다.

주로 폭포와 담소, 절묘한 기암들이 조화를 이루고있는것이 구룡폭포골이라면 금강폭포골은 여러가지 모양의 폭포들로 하여 인상적이였다.

총석정계곡이다.

은구슬, 금구슬을 뿌려놓은것 같은 수정같이 맑은 물, 그것을 사이에 두고 두손을 마주잡을듯 량옆으로 성벽처럼 마주서서 련면히 뻗어간 봉우리들과 기기묘묘한 바위들, 산정에서 뽀얗게 물안개를 피워올리며 쏟아져내리는 폭포들…

신평휴계소앞 남강 건너편의 하늘높이 솟아오른 기암괴석들속에는 아직도 초물이 녹아내려 그대로 굳어진다는 초대바위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귀바위가 있다.

이밖에도 총석정계곡에는 투구바위와 부처바위, 범바위를 비롯한 기암절벽들도 많았다.

남강에서의 달구경 역시 볼만 하였다.

《예로부터 남강에 비낀 달경치가 볼만 하다고 하여 <남강월경>이라고 자랑하며 도화동8경의 하나로 전해오고있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며 처녀, 총각이 사랑을 속삭이면 그들을 축복해줄뿐아니라 부부간이 바라는 소원도 성취하게 된다는데로부터 더욱 유명해졌답니다.

사랑에서나 생활에서 고민거리가 계시는분들은 우리 명승지로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아마 바라는 사랑의 소원을 마음껏 이룰수 있을것입니다.》

강사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오를수록 신비경이요, 볼수록 황홀경이다.

수정샘골안의 입구에는 선녀들이 내려와 바위우에서 그네도 뛰고 무희도 즐기다가 하늘로 오르군 하였다는 전설이 담긴 선경바위가 있다.

여기에 있는 수정샘물은 천연샘물로서 산삼과 만삼을 비롯한 많은 약재들이 물에 씻기여 물맛이 특이하기로 소문이 났다.

신비스러운 약효로 하여 순결한 마음을 지닌 녀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준다고 한다.

금강폭포골은 좌우로 기묘하고 아찔하게 솟은 벼랑들이 병풍처럼 둘러선 좁은 골짜기로 형성되여있고 여러 모양새를 가지고 떨어지는 폭포들로 만폭을 이루고있는것으로 하여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고있는것이 특징이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 골안의 아름다운 경치를 두고 금강만폭이라고 자랑하며 도화동8경의 하나로 불러오고있다.

여기에는 하늘의 선녀들이 금방 날아내릴것만 같은 비단폭포, 남해바다가의 진주를 뿌려놓은듯 맑은 물이 굽이쳐 흘러내리는 진주폭포, 오누이폭포, 형제폭포, 애기금강폭포, 봉화바위가 있으며 지심을 울리며 떨어져내리는 금강폭포가 골안의 절경을 이루고있다.

명승지의 제일 큰 담소인 금강소와 희량사굴이 자리잡은 도화동구역은 곰바위, 토끼바위, 범바위 등 기암경치로 유명하다.

금강폭포우에는 넓게 펼쳐진 골안이 있는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먼 옛날 여기에 관적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터자리만 남아있다.

도화동골안의 아름다운 경치는 20～50여m의 좁고도 긴 골안을 따라 좌우에 노은포골, 큰곰의골을 비롯한 여러 골짜

기들로 이루어져있다.

신기한것은 골짜기들을 척 보면 막힌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또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고 이런 새 풍경들을 이어주는 길밑에 흐르는 맑은 물들이 거울같이 비쳐와서 아무리 걸어도 힘든줄 모르는것이였다.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져있는 크고작은 여러개의 담소가 바로 도화동마을의 유래와 더불어 하늘나라 선녀들이 이곳에서 즐기군 하였다는 도화소이다. 일명 선녀소라고도 부른다.

이곳에는 도화동의 아름다운 계곡경치를 지켜서있다는 주먹바위, 술샘바위, 골안의 대문을 굳게 닫아주기도 하고 열어주기도 한다는 대문목도 있다.

드디여 신평금강명승지의 총석정계곡과 금강계곡, 도화동계곡을 따라서 담소에 도착하였다.

《이곳이 바로 탐승길의 첫 로정인 담소입니다.

담소는 4개로 되여있는데 1호담소, 2호담소, 3호담소, 4호담소라고 합니다.

이 담소를 가리켜 일명 꾀소라고도 부릅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하며 꾀소의 유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었다.

옛날 여기 도화동마을의 녀인들이 담찬 기지로 못된 호랑이놈을 골탕먹였다고 해서 일명 꾀소라고도 부른다는 담소에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넘쳐흐르고있었다.

이 담소에는 또한 하늘나라의 선녀가 내려와 이 맑은 물에 머리를 감군 했는데 그앞에 솟아있는 심산속에서 나무

군총각이 부는 피리소리에 반해서 끝내 사랑을 맺었다는 전설도 전해지고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흥그럽게 해준다.

담소주변에는 호랑이바위, 붓촉처럼 생긴 붓바위, 나라에 란리가 날 때마다 저절로 커지면서 종소리를 요란하게 울리군 했다는 종바위, 오랑캐놈들을 통쾌하게 물리친 장롱바위, 로적가리를 차곡차곡 쌓아놓은것 같다고 하여 로적봉이라고 부르는 봉우리가 있다.

도화천 맞은편에 장엄하면서도 아름답게 펼쳐진 산이 희량산이다. 강건너편 기슭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는 내가에 코를 박고 그대로 굳어진 코끼리바위이다.

산정에 펼쳐진 물놀이장

옥류동골안의 각이한 크기와 모양의 폭포와 담소들은 한폭의 그림과도 같이 아름답다.

처녀처럼 청신하고 아름답다고 하여 처녀담으로 불리우는 담소로부터 시작하여 단풍담, 옥류담 그리고 3단폭포, 옥류폭포, 선녀폭포, 총각폭포 등은 신평금강의 계곡경치를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모든 협곡들의 절벽경사면이 층층이 단을 이루며 뻗어있고 계단바닥에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띠모양으로 형성된 수림으로 하여 계곡경치는 참으로 매혹적이였다.

봄철에는 각양각색의 꽃무늬띠, 여름에는 진한 풀색띠, 가

신평금강의 경대바위

을에는 붉은 단풍띠, 겨울에는 흰눈띠가 등색의 절벽띠와 어울린 풍경은 마치 색동천을 필필이 늘여놓은듯싶다.

개울가 한가운데는 경대바위가 우뚝 서있고 옥류동골안에는 맑고 푸른 물을 헤가르며 아름다운 계곡을 거슬러오르던 아프리카 나일강의 악어 한마리가 경치에 반하여 바위로 굳어졌다는 악어바위와 나무군총각과 선녀가 심어가꾼 복숭아를 먹고 저렇게 크게 자라 높은 절벽가에 자기를 드러내고 홀로 앉아있는 다람쥐바위가 있다.

또한 이 골안에는 먼 옛날 신선들이 내려와 자기들의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키고 은피리, 금피리를 불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다가 하늘로 오르군 하였다는 유정한 담소도 있다.

다리가 많아서 탐승로정을 길다리라고도 부른다는 굽이굽

이 52굽이, 탐승도로를 따라 계곡의 도처에는 정각들이 꾸려지고 그 어느 산쪽이든지 안전하게 탐승할수 있도록 계단들과 도로들이 올리뻗어있다.

우리는 그 계단들과 도로들을 따라 노은포골에 들어섰다.

입구에 노은폭포를 지켜서있는 파수바위가 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파수바위의 허락을 받아야만 폭포를 구경할수도 있고 폭포수의 맑은 물에 자기들의 마음도 정화시킬수 있다고 한다.

파수바위는 매 사람이 이 바위앞에 바로서서 왼쪽으로 천천히 한바퀴 돌면 그 사람에 대한 자격을 검토하고 합격대상만 들여보낸다고 한다.

파수바위를 통과하니 좁은 골짜기안에 높이가 100여m가 넘는 2단으로 된 노은폭포가 있었는데 얼마나 장쾌하고 멋있는지 환성이 저절로 터져나왔다.

천태만상으로 솟아있는 기암절벽을 헤가르며 떨어지는 거세찬 폭포는 명승지의 아름다움을 모두 비껴담고 여기가 천하의 절승임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는것 같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폭포의 신비로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골안에는 비록 높지는 않아도 탐승의 길에 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공작새바위와 공작새폭포, 이담폭포와 하마바위, 방아폭포, 거부기바위, 로적바위도 있다.

도화천의 맑은 흐름이 들여다보이고 맞은켠에는 휴식터, 흉물스럽게 생긴 괴물암과 같은 기묘한 바위들과 성새바위, 새

끼자라바위를 비롯한 명소들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노은대의 경치는 참으로 폭포구경 못지 않은 절경이였다.

누군가가 《바위들이 얼마나 신통하고 기묘한지 꼭 살아있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는것만 같군요. 어쩜 저리도 신통할가?!》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골은 골마다 푸른 잎 설레이고 여러가지 희귀한 산봉우리들이 펼쳐놓은 절경에 심취되여 탐승길을 이어가던 우리가 다음으로 닿은 곳은 큰곰의골이였다.

큰곰의골에는 물놀이장이 있었다.

아아히 높은 산정에 물놀이장이 펼쳐져있을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우리는 너무 좋아 환성을 지르며 너도나도 물속에 뛰여들었다.

순간에 탐승으로 달아올랐던 몸이 시원해지는데 푸른 하늘이 너무 가까이 있어 하늘나라에 온듯 한 환각이 들었다.

시원한 물속에 몸을 잠그고 모두들 좋아라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행복의 웃음꽃이 한껏 어려있었다.

《산천에 이런 물놀이장이 있을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작 빠져들고보니 나오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하늘과 가깝게 잇닿은 곳에서 수영을 하는 기분이 정말 상쾌합니다.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았는가 착각할 정도입니다.》

강사의 말에 의하면 큰곰의골의 이 저수지물로 발전소도 돌린다고 한다.

멀지 않은 곳에 보기에도 상쾌한 명승지1호발전소의 언제가 솟아있었는데 명승지의 모든 봉사시설들이 이 발전소의 전기덕을 톡톡히 보고있다고 한다.

신평금강명승지와 함께 어울려 펼쳐진 발전소언제풍치에 반해서 누군가가 격정에 넘쳐 즉흥적으로 시를 읊기도 한다.

시원한 물에 몸을 식히고 잠시 휴식한 다음 우리는 명승지의 제일 높은 곳에 있다는 금강골로 올라갔다.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경사가 급한 곳이지만 사람들은 금강골 제일 웃쪽에 있는 금강폭포를 보려고 750개나 되는 계단을 밟아 해발고가 250㎙ 되는 곳까지 오른다.

기묘하고 아찔한 벼랑들이 병풍처럼 둘러선 좁은 골짜기로 되여있는 금강골은 자기의 이채로운 모습을 자랑하는듯했다.

높은 벼랑중턱에 묘하게 솟아있는 바위우에 산뜻하게 지어놓은 전망대에 오르면 계단을 오르느라 흐르던 땀도 씻은듯이 가셔지고 감탄의 목소리가 절로 나오는 이 골안의 경치.

《산이라고 해서 등산하기가 헐치 않을거라고 생각했댔는데 오르자면 계단이 있고 건느자면 다리가 있고 큰 도로들이 이렇게 멋있게 닦아져있으니 하나도 힘든줄 몰랐습니다.

정말 신이 납니다.》

《오를수록 기묘한 자연경치와 산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물들에 마음을 통채로 빼앗겨 얼마나 유쾌하고 기분이 좋은

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고싶습니다.》

신평금강명승지의 절정을 이루는 금강골.

아마도 금강골의 경치를 떠나서는 신평금강을 보았다고 말할수 없을것이다.

금강폭포를 바라보며 기쁨에 넘쳐, 격정에 넘쳐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행복넘친 모습들.

참으로 봉이면 봉마다, 골이면 골마다에서 행복의 노래소리, 기쁨의 웃음소리가 메아리되여 울려퍼지는 신평금강명승지이다.

조국의 명산들을 찾아

집　필	고 영 숙
장　정	김 영 일
교　정	안 순 광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8(2019)년 11월 20일
발　행	주체108(2019)년 11월 24일

ㄱ—1457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110—4